

야고보 알베리오네

**알베리오네 전집**  
**OPERA OMNIA**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



야고보 알베리오네

#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

바오로가족

바오로 영성 센터 엮음  
© 성바오로수도회 총본부, 로마 2008  
<http://www.paulus.net>

출판 허락, 감수  
2008년 1월 25일, 로마  
성바오로수도회 총원장 실비오 샷시 신부

작품 머리글자: RdA

© S.A.S.P. s.r.l., 2008  
© EDIZIONI SAN PAOLO s.r.l., 2008  
Piazza Soncino, 5 - 20092 Cinisello Balsamo (Milano)  
<http://www.edizionisanpaolo.it>  
Distribuzione: Diffusione San Paolo s.r.l.  
Corso Regina Margherita, 2 - 10153 Torino

## 차례

여는 말 . . . . .	7
편집자의 말 . . . . .	20
머리말 . . . . .	22
1.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 원리 . . . . .	26
2. 마리아의 사도적 성소 . . . . .	36
3. 마리아를 통한 세상의 그리스도화 . . . . .	45
4. 내적 삶의 사도직 . . . . .	56
5. 갈망의 사도직 . . . . .	65
6. 기도의 사도직 . . . . .	78
7. 모범의 사도직 . . . . .	86
8. 고통의 사도직 . . . . .	95
9. 활동의 사도직: 선행 . . . . .	105
10. 활동의 사도직: 희생 제물 준비 . . . . .	113
11. 활동의 사도직: 희생 제물을 바침 . . . . .	121
12. 활동의 사도직: 공동구속자 . . . . .	128
13. 신앙: 열정의 초석 . . . . .	136
14. 마리아의 마음 . . . . .	144
15. 사도직의 첫째 목표: 하느님의 영광 . . . . .	152
16. 사도직의 둘째 목표: 사람들에게 평화 . . . . .	162
17. 사도직 터전: 가정 . . . . .	170
18. 마리아와 교회 . . . . .	178
19. 사도 마리아의 가르침 . . . . .	187

20. 천상 사도직: 교회를 위한 보호 . . . . .	198
21. 천상 사도직: 죄인들의 피난처 . . . . .	207
22. 천상 사도직: 성화하시는 분 . . . . .	220
23. 마리아와 영화, 라디오 사도직 . . . . .	232
24. 마리아와 여성 사도직 . . . . .	242
25. 여성 사도직의 모범이신 마리아 . . . . .	253
26. 성소 사도직 . . . . .	260
27. 사제들의 모후 . . . . .	271
28. 사도직을 위한 자질 . . . . .	281
29. 인류의 어머니 마리아 . . . . .	291
30. 보편적 사도 마리아 . . . . .	299
31. 마리아와 성령 . . . . .	310
32. 그리스도교 문화에서의 사도 마리아 . . . . .	322
33. 맺음말 . . . . .	331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께 바치는 주간기도 . . . . .	340

##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

여는 말 . . . . .	347
스승 마리아를 통해 스승 예수님께 . . . . .	353
마리아의 제자직과 가르침 . . . . .	369
마리아와 스승-교육자 . . . . .	381
성경 인용 색인 . . . . .	395
내용 색인 . . . . .	400

## 여는 말

창립자의 사제서품 100주년을 기념하는 은총의 해인 2007년을 마무리하면서 바오로가족은 카리스마 역사에서 중요한 단계를 드러내는 책을 재조명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우리가 지금 제시하는 책의 초판은 1948년 아스티의 성요셉 출판학교에서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동정 마리아의 그림을 표지로 사용한 아름다운 양장본으로 출간되었다. 33개의 논고와 가르침을 담고 있는 작은 판형 337쪽의 책에서 저자는 자신의 사명과 사도적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마리아의 ‘사도직’을 폭넓게 제시함으로써 ‘사도’이신 마리아께 대한 자신의 전망을 확증하고 심화한다.

이 책은 1954년 (알바노 바오로딸출판사에서) 재판되었고, 1955년 (발렌시아 마드리드에서) 스페인어로 발행되었으며, 1956년과 1976년에는 (영국 더비와 미국 보스턴에서 각각) 영어본으로 발간되었다. 이 책은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와 바오로가족의 전형적인 마리아 신심에 대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가르침을 매우 체계적으로 전개해나간 것으로 대단히 중요하다.”<sup>1</sup>

이 판본은 사도들의 모후께 드리는 ‘주간기도’ 다섯 조항을 포함해 초판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각 항목을 시작할 때마다 성경구절과 본문에 들어간 소제목과 함께 재판 때 덧

---

1. A. Damino,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문헌목록 *Bibliografia di Don Giacomo Alberione*」, Roma, 1994, p. 54.

붙인 내용을 첨가했다.

1960년 4월, 알베리오네 신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느님의 지혜와 사랑은 바오로가족에게 교회와 온 인류를 위해 최상의 혜택을 주는 소중한 사명을 맡기길 바라셨다. 곧 ‘사도들의 모후’라는 특별한 호칭을 통해 마리아를 더 잘 알고 사랑하며, 기도하고 설교하는 것이다.” 이어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이렇게 설명했다. “마리아께 대한 첫 번째 신심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공경하는 예수님의 신심이었고, 두 번째 신심은 마리아를 사도들의 모후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본받는 사도들의 신심이었다.”<sup>2</sup>

확실한 유언의 가치를 지닌 이 확언은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을 생각해 볼 때) 알베리오네 신부의 삶과 여러 수도회의 창립 가운데 이미 굳건해진 동정 마리아의 현존에 대한 가르침의 최종 승인이요 완성이다.

이 책은 이러한 가르침이 원숙해지는 여정에서 중요한 단계를 이룬다. 그러나 오늘날 이를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그 시대의 마리아 교의를 되짚어보며 야고보 알베리오네가 살아낸 체험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는 마리아에 대해 대단히 많이 언급했으며, 거의 1,700쪽에 이르는 분량의 책을 저술했다. 무엇보다 그가 살아낸 신심은 매우 열렬했다.

## 가르침이 되는 체험

마리아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어린 시절부터 온 생애에 걸쳐

2. 「완전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Ut perfectus sit homo Dei*」(UPS), II, 244.

생생하고 중요한 현존이었다. 그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는 그를 마리아께 봉헌했으며, 그의 첫 번째 종교교육이 브라질의 꽃의 성모 성당, 케라스코의 은총의 동정 마리아 성당, 알바의 모렛타 성모 성당 등 세 성당과 관련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 즐겨 기억했다. 따라서 알베리오네가 사춘기와 신학생 시절에 마리아를 더 많이 알게 되고 만나게 되기까지 체험한 마리아의 모습은, 그 당시 가정에서 실천하던 신심과 마리아 신심이 깃든 여러 장소를 통해 가장 단순하고 평범하게 제시된 모습이었다.

첫 번째 접근은 그 당시 매우 유명했던 두 저자, 곧 성 알폰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을 통해 신학교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저서는 신심을 다루는 교재였다.<sup>3</sup>

그러나 마리아에 대한 진정한 ‘발견’, 곧 그의 삶 가운데 마리아가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것은 레오 13세의 묵주기도에 대

3. 그 당시 신학교에서는 「영원한 원리 *Le Massime Eterne*」, 「지극히 거룩한 성체방문과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 방문 *Le Visite al SS. Sacramento e a Maria SS.*」과 같은 신심 교재와 알폰소 성인의 책을 읽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었다. 그리고 「마리아의 영광 *Le e di Maria*」(살베 레지나에 대한 논평), 「구원의 길 *La Via della Salute*」(구일기도, 삼일기도 등의 기도와 묵상 모음)은 알베리오네 신부의 뜻에 따라 초창기에 바오로출판사가 펴낸 간행물이다. 「성모님께 대한 참된 신심 *Trattato della vera Divozione alla Santa Vergine*」, 또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거룩한 종에 대하여」(1712년에 저술했으나 1842년에 발행됨)라는 몽포르의 책은 모든 젊은이가 손에 들고 읽었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방에 보존된 개인 서가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마리아론에 관련된 체계적인 작품들인 「가톨릭 신앙에서의 마리아 *Maria nel Culto Cattolico*」(스위스 주교좌 참사위원 에밀리오 캄파나, 마리에티 편집, 토리노, 1933, 859쪽과 787쪽짜리 두 권)은 1935년 「가톨릭 교의에서의 마리아 *Maria nel Dogma Cattolico*」, (5판, 1943, 1197쪽으로 개정됨)와 「마리아 대전 *Summa Mariologiae*」, (가브리엘레 M. 로스키니, OSM 편집, 밀라노 안코라, 1941-1942, 총 3권, 1624쪽)이다.

한 교황 회칙 「그리스도인들의 도움 *Adiutricem populi christiani*」(1895)을 읽은 후부터이다. 이 책은 알베리오네에게 카리스마적 빛을 환하게 안겨주었다. 교황은 이렇게 썼다. “진리를 충만하게 간직하신 마리아는 교회의 어머니요 스승이시며 사도들의 모후로 간주되어야 한다. …”

알베리오네 신부는 후에 그 회칙을 상기하면서 핵심을 이렇게 요약했다. “교황 레오 13세는, 마리아가 어떻게 사도들과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스승이 되셨는지 보여준다. 마리아는 성성의 귀감과 권위 있는 조언, 온화한 위로와 효과적인 기도로 믿는 이들을 훌륭하게 감화시키셨다.”<sup>4</sup>

## 사명의 필요성

천성적으로 구체적이었던 알베리오네 신부는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를 언급할 때면 언제나 생명과 신앙생활, 참된 마리아 영성과 관련시켰다. 곧 지식과 관상 차원을 확실하게 포함시켰으며, 생동감있는 헌신과 사랑과 봉사를 중요시했다.

이처럼 [바오로]가족 안에 흡수된 ‘신심’은 온 존재의 주의 깊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다. “사실 신심이란 봉헌과 헌신을 뜻한다. … 육체적, 도덕적, 지적 차원에서, 또한 힘이 솟아나오는 존재 차원에서 우리 자신의 전적이고 통합적인 자기 증여를 뜻한다. 그분의 빛과 영, 귀감과 은

4. 「성 바오로 *San Paolo*」, 1959년 11-12월호는 이 책 부록에 소개한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 *Maria Discipola e Maestra*」라는 소책자의 전문을 인용한다.

총 안에서 자신의 온 인격을 주고받는 것이다. ...”<sup>5</sup>

이 모든 것은 그의 구체적인 성소와 사명에서 비롯된다. 1907년 사제서품을 받은 알베리오네 신부는 어머니이신 모후를 자신의 사목에 영감을 주는 분으로 모시기로 결심했다. 실제로 그는 곧바로 “자기 직무를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의 보호에 맡겼고, 신학생들과 젊은 사제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도록 가르쳤다.”<sup>6</sup>

“사목강연(1910-1915)도 마리아의 보호 아래 행했고, 사회학 수업, 사제들의 성무의 첫걸음도 마리아의 보호에 맡겼다.”<sup>7</sup>

그 후에 초창기 바오로인들이 마리아의 호칭 가운데 어떤 것을 특별히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을 때 알베리오네 신부가 이미 검토된 근거를 밝힌 대답을 했다는 것은 납득할 만하다. 창립자는 다음 목상에서 이를 기억했다.

“1919년 12월 8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에 신학생들과 젊은 지원자들이 저에게 와서 마리아를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며, 우리 신심은 무엇으로 하면 좋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의 도움, 거룩한 은총의 어머니, 착한 의견의 어머니 등. 저는 이에 대해 이미 생각하고 기도했기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사도가 성화되도록, 사람들이 사도들을 후원함으로써 선을 얻도록, 그리고 사도들과 신자들이 모두 하늘에 함께 있도록 사도들의 모후라

5. 「스승 예수께 대한 편집되지 않은 설교*Predicazione inedita sul Divino Maestro*」, (PrDM) 색인 카드 36.

6. 「당신 은총의 풍성한 부」(AD), 85.

7. AD, 181.

는 호칭으로 마리아께 기도하십시오.”<sup>8</sup>

뜻깊은 날 주어진 이 질문은 알베리오네 신부에게 사도들의 모후라는 호칭의 뿌리와 의미, 영적 사도적으로 함축된 교의적 연구를 시작하라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었다.

## 근거의 조명

‘사도들의 모후’께 대한 신심과 공경은 19세기 중반부터, 1817년 샴이나드 신부가 세운 마리아니스트회, 1835년 팔로티가 세운 천주교 사도직회(팔로티회), 1850년 라마조티가 세운 교황청 외방선교회 등 새로 창립된 선교 수도회들에서 활발하게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모든 수도회는 여러 차원에서 그 시대의 감수성에 맞는 사도이신 마리아의 영성을 발전시켰으며, 몇몇은 이미 교황청이 승인한 사도들의 모후 전례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sup>9</sup>

알베리오네 신부는 교회가 지녀온 지대한 가치를 받아들여 젊은 공동체를 양성할 필요성을 재빨리 인지하고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숙고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20년대에는 교리와 이를 고무시킬 활동의 세세한 계획 안에서 모든 수단, 곧

- 
8. 「사도들의 모후께 대한 편집되지 않은 설교*Predicazione inedita sulla Regina degli Apostoli*」, 색인 카드 234.
  9. 사도들의 모후께 대한 전례 의식에 대해 팔미나 크루치아니(크리스티나 수녀 PD)의 흥미로운 여정을 참고하라. 「역사와 성경적 전례 신학*Storia e teologia biblico-liturgica ...*」, 교황청립 성 안셀모 아테네오 대학교 학위 논문 (로마, 1984), P. 샴이나드의 영성에 대해서는 E. 뉴베르트, 「마리아의 사도적 사명과 우리 사명*La Mission Apostolique de Marie et la notre*」. (이 책은 「사도들의 모후*Regina Apostolorum*」라는 제목으로 바오로딸출판사에서 이탈리아어로 출간됨, 카타니아, 1958).

강론, 소식지, 소책자, 학술 행사, 그리고 무엇보다 목상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 표명했다.

마리아에 대해 창립자가 한 달 동안 강론한 내용을 자카르도 신부가 정리하여 사도들의 모후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최초의 책이 1928년 알베리오네 신부의 ‘머리말’과 자카르도의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알베리오네 신부가 이 책의 저자에게 보낸 축하카드 내용은 여기에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사도들의 모후」 초고를 단숨에 다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아름답고 훌륭하며 강력한 어머니요 스승이며 모후이신 분의 보호 아래 우리를 맡겨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이 호칭에 대한 공경과 신심을 널리 알리는 일이 이토록 지연된 것이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이제는 그 호칭이 널리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머니요, 성소의 어머니입니다! 책을 더 발행하고 보급합시다. 우리 어머니이신 그분께 기도합시다! 올해 저는 많은 은총이 내리길 고대합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M. 알베리오네.”<sup>10</sup>

그로부터 20년 후, 창립자는 여러 공동체에 보내는 일련의 글과 목상에서 그 주제를 다루었는데, 바로 거기서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라는 책이 탄생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전쟁 이후는 이탈리아의 교회 전체가 쇠신을 가져오는 매우 풍요로운 시기였으며, 알베리오네 신부와 바오로가족수도회 모두도 교회의 쇠신에 기여했다. 이면에서 1950년 전세계 수도자 모임에서 “사도이신 마리아”라

10. 우편엽서 뒷면에 친필로 서명한 원본이 남아 있다.

는 주제로 창립자가 발표한 묵상 내용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들의 모후”라는 호칭으로 불러 마땅한 여러 이유를 제시했다. 마리아는 모범의 사도직, 말씀의 사도직, 기도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 등 모든 사도직을 실천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호칭은 여성이신 마리아, 참된 공동구속자이신 성모님께 타당한 명칭이다.<sup>11</sup>

“사도들을 양성합시다! 사도들을 지극히 거룩하신 사도들의 모후 동정 마리아께 데려가 성모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며 이끌어 주시도록 맡겨드립니다.”라는 초대가 중재기도의 시작과 끝에서 반복되며 빛을 비추어 준다. 또한 이 주제에 대한 묵상을 그대로 실은 정보지 「성 바오로」의 머리글로 자주 등장한 다음 말씀에서도 빛을 받았다. “기뻐하소서, 마리아님, 당신은 말씀이신 아버지의 아드님이 담긴 신비로운 책을 세상에 내어 주셨습니다.”(성 에피파니오 주교)<sup>12</sup>

## 새 기도문과 마리아 이콘

알베리오네 신부는 설교와 저술에서 [바오로인] 수도자들에게 제시한 마리아께 드리는 모든 기도문을 주의 깊게 수정했다. 실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기도문들은 전반적으로

11. 1950년 12월 6일 저녁, 로마 발리첼라의 산타 마리아 성당에서 한 묵상. 「성 바오로」, 1950년 12월호 참조.

12. 원문은 “Ave Maria, liber incomprehensus, quoe Verbum et Filium patris mundo legendum exhibuisti.”이다. 이때부터 그 모토가 「성 바오로」 정보지에 모두 등장한다.

더욱 적절한 내용을 담았고, 가능한 한 성경에 바탕을 둔 알베리오네 신부의 마리아론을 더 신빙성있게 잘 종합하였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기도문의 내용이 처음에는 성 알폰소의 어조와 시대에 따른 어휘로 표현되었으나 그 후 몇십 년을 지나오면서 그 내용이 본질적이며 더 간결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13</sup>

이처럼 단순하게 종합된 마리아론은 사도들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의 다섯 개의 단락으로서,<sup>14</sup> 묵주기도의 다섯 가지 신비를 발전시켜 초창기 바오로인 세대에게 마리아 신심을 잘 설명해 주었다.<sup>15</sup> 그 기초가 되는 바탕은 아버지의 사도인 아드님의 구원 활동에 대한 마리아의 협력이다. 그분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스승, 진리, 길, 생명으로서 역사 안에서 계속 활동하신다.

이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리아를 부각시키는 특별한 수단 가운데 하나로, 특히 알바의 사도들의 모후 성화와 로마의 사도들의 모후 기념성당에 있는 성화에 표현된 회화적이고 건축학적인 상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첫 번째 성화에 대해서는 주세페 바르베로가 다음과 같이

- 
13. 처음에는 낱장으로 인쇄하여 사용하던 기도문이 소책자에, 주로 「영원한 율리 *Le Massime Eterne*」 또는 「현명한 젊은이 *Il Giovane Provveduto*」에 삽입되었다. 1922년부터는 새 기도문이 다양한 판본의 「성바오로수도회 기도서 *Le Preghiere della Pia Società San Paolo*」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기도문들의 주제별 그리고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알베리오네 신부의 마리아께 대한 기도 *Le preghiere Mariane di Don Alberione*」(바오로가족 역사자료실 편집, 로마, 1988)에 나오는 몇몇 기도문을 참고하라. 그리고 최근에 나온 작품인 야고보 알베리오네, 「기도 *Preghiere*」, 로마: 성바오로, 2007, pp. 153-206 참조하라.
14. 주간기도는 이 책의 마지막 장 끝에 다시 언급된다.
15. 이 시기의 「선출출판협력자회 *Unione Cooperatori Buona Stampa*」를 보라. (「바오로인의 봄 *La Primavera Paolina*」, pp. 457-498 참조).

전해준다. “지극히 거룩하신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 성화는 알바 도미니코회 수녀가 그렸으며, 1923년 5월 1일 저녁, 신학자님께서 축성하신 후 알바의 정원 한가운데 세워진 새 경당에 모셨습니다.”<sup>16</sup>

가장 널리 알려진 두 번째 성화에 대해서는 1934년 10월호 소식지 「출판 사도직 협력사회」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로마의 콘티 교수는 우리를 데려가 그 성화의 모델을 보여주었습니다. … 기쁨으로 충만한 천사들 가운데 어머니요 스승이며 모후이신 동정녀가 우뚝 서 계십니다. 그분은 거룩한 작가의 펜을 성 바오로에게 건네시는데, 그분 발치에는 다른 사도들이 모여 있습니다.”<sup>17</sup>

이는 성화에 대한 증언이다. 그러나 로마 사도들의 모후 기

- 
16. (두 번째 성화처럼) 이 성화도 알바의 성 바오로 성당 제의방에 보존되어 있다.
17. 이와 관련된 파올로 파잘리니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 “잠바티스타 콘티의 사도들의 모후 성화는 1935년에 제작되었는데, 저는 이 일에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 콘티는 우리의 미사경본을 스케치하여 이미 그림을 그려 두었습니다. 이 때문에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1934년 마지막 달에 그 화가에게 편지를 써서 그가 알바에 와서 프리모 마에스트로가 바라는 바를 이해하도록 하는 일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화가가 와서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경청하였습니다. 사도들의 모후는 큰 빛에 싸여 성체 한가운데서 세상에 아기 예수님을 내어주셔야 했습니다. 성 바오로는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 복음사가들 역시 눈에 띄는 모습으로 우리 사도직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했습니다. 잠바티스타 콘티는 몇 주 후에 그가 준비해 온 밑그림을 벽에 투사해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제안에 귀 기울였으며, 1935년 부활절에 성화를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알바 공동체에 성화를 보여주며 그에 대해 폭넓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5월에는 「성 바오로」지에 생생한 기사를 써서 협력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리아께 대한 열정을 담은 기쁨에 가득 차 표현한 것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는 사도들의 모후를 찬미하는 “모든 사도의 모후에 대하여…”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때 알베리오네 신부도 “내 영혼이 마리아를 찬미하며 …”를 작성했습니다. 주일 아침 휴식 시간에 이 글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던 알베리오네 신부의 행복한 얼굴을 여러분도 보았어야 합니다!”(상파울루에서 E. 스가르보씨에게 보낸 편지, 1992년 8월 3일)

념성당의 벽화는 더 장엄한 작품으로, 도상학(圖像學)적 관점에서 더욱 포괄적이다. 창립자의 미술 자문 레나토 페리노 신부가 알베리오네 신부의 “마리아론”에 대해 언급했다.

### 사도들의 모후 기념성당

“[바오로적 마리아론의] 가장 원숙한 종합, 그 전체성과 세부 항목에 이르기까지 가장 정확하고 정교하게 묘사된 사도들의 모후 기념성당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삶의 마지막 시기에 손을 댄 작품으로서, 창립자요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드러내는, 거의 인장과 같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것은 돌처럼 단단한 인장이며, 여러 세기를 향해 도전하도록 운명지어진 기념비적 재료로 쓰인 ‘편지’다. … 그의 마지막 삶의 여정도 그가 세운 마지막 성전, 다시 말해 “늘그막에 얻은 아들”(창세 37,3 참조)과 같은 기념성당에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분의 방 창문을 통해 기념성당 건물을 바라보는 노쇠한 알베리오네 신부의 감동적인 모습이 담긴 사진은 창립자와 그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그 건물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매우 강렬하게 드러낸다.

그 기념성당은 실제로 (모든 고통과 금전을 희생으로 바친) 영웅적인 서원 봉헌물 같은 건축물일뿐 아니라, 흠숭과 교리 해설의 수단인 성미술에 대한 알베리오네의 사상에 부합하는 교의적 의미의 종합으로 간주해야 한다.

몇몇 형제는 풍부한 분석과 자료를 통해 이러한 의미를 중

합하는 내용을 떠올렸다.<sup>18</sup> 그러나 1954년 11월 30일 저녁 알베리오네 신부가 이끈 잇을 수 없는 ‘성체조배’ 때 숙고한 내용<sup>19</sup>을 다시 읽어보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영감을 준 설계 차원을 이해하도록 해 주는, 마리아께 바치는 서원을 장엄하게 풀어나갔다.”<sup>20</sup>

G.B. 콘티의 작업실에서 구상중이던 그림에 대한 흥미로운 기록이 인용되었다. “거룩한 작가의 펜을 성 바오로에게 건네 주는 어머니요 스승이며 모후이신 동정녀”의 독특한 묘사는 안타깝게도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성화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알베리오네의 사상을 종합한 탁월한 내용은 1954년 11월 30일 성전 봉헌식 때 바친 기도문 형태로 재현되었다. 이때 알베리오네 신부는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를 편집자들의 스승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으로 제시했다. 몬티니 추기경은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설명했다. “편집자들은 말씀을 소유하고, 많게 하고, 퍼뜨리는데, 곧 그 말씀에 종이와 문자와 잉크의 옷을 입혀 널리 보급합니다. 그들은 인간적 차원과 신적 차원을 통해 거룩한 말씀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가 지니셨던 사명을 지닙니다. 마리아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인간의 몸으로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보고 쉽게 다가가

18. R.F. 에스포지토, “야고보 알베리오네 신부의 ‘인류의 길’”, 「기도의 우주적 차원」*La dimensione cosmica della preghiera*, 로마: 바오로딸출판사, 1981. G. 페레고, 「사도들의 모후 기념성당II *Santuario Basilica Regina Apostolorum*」, 바오로가족 역사자료실 편집, 로마, 1985. (또한 [www.alberione.org](http://www.alberione.org)를 보라)

19. 「성 바오로」, 1954년 11-12월호: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Carissimi in San Paolo*」, pp. 595-600 참조.

20. 레나토 페리노, 「성 바오로」, 1987년 9월호. G. 페레고, 「사도들의 모후 기념성당」, pp. 141-151 참조.

게 하셨습니다.”<sup>21</sup>

마지막으로 이 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 책이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은 물론, 어머니요 스승이며 사도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영감을 주는 모습을 관상하게 하는 알베리오네의 카리스마에 대한 본질적 주제를 더욱 잘 비춰주리라 믿는다.

2007년 11월 26일, 로마

바오로 영성 센터

---

21. 「성 바오로」, 1954년 11-12월호.

## 편집자의 말

1. 이 책의 원본은 1954년에 발행된 두 번째 판본으로 초판본의 개정 증보판이다. 각 장의 시작에 성경구절을 덧붙였고, 본문에는 주제를 드러내는 부제를 달았다. 1954년 마리아의 해를 기념하기 위해 같은 저자가 편집을 도왔다.

1959년 사도적 마리아적 양성을 목적으로 집필된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 *Maria Discipola e Maestra*」라는 귀중한 소책자의 내용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2. 이 책의 원본에서 알베리오네 신부는 당시의 여느 저자들처럼 성경구절과 고대 저자들의 말을 라틴어로 인용하고 있다. 라틴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는 경우 외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라틴어 문장을 이탈리아어로(우리말 번역본에서는 한글로) 대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 그렇게 했다. 이러한 경우 본문에 또는 각주 형태로 라틴어 문장을 제시했다.

3. 본문에 인용된 성경 말씀은 공식 본문이 채택한 약어로 승인된 것이다. 언급한 내용이 같은 저자일 경우는 본문에 그대로 두었다. 그러나 편집자가 추가한 경우는 각주를 달았다.

4. 문헌 내용이나 다양한 저자가 쓴 인용구의 출처는 본문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 출처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한 경

우에는 이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참고문헌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양해를 구한다.

5. 때때로 매우 빈약한 해설 형식을 보이는 내용은 원래 설교에 포함되어 있는 것임을 기억하자. 그리고 옛 표현, 불분명한 표현, 또는 정확하지 않은 표현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는 생각을 명확하게 하고, 우연한 실수로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기 위해 각주를 덧붙이고자 노력했다.

6. 그 밖에 철자법, 특히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것은 수정했으며, 뜻을 명확하게 해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문자의 지나친 사용도 바로잡았다.

7. 책 양 옆 여백에 표시한 일련번호는 원래 출판본(2판)의 쪽수를 알려 줌으로써,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본문 인용 기준을 정하여 외국어로 번역할 때 본문을 비교·대조할 경우를 위한 것이다.

본문의 세로 획 부호(1)는 원본 쪽수의 시작을 가리킨다.

사도들을 양성하십시오! 사도들에게 사도요 모후이신  
인도자 마리아를 주십시오.<sup>1</sup>

사탄은 자기 천사들을 묶었던 쇠사슬을 세상에 풀어놓았다. 그들은 영혼들을 영원히 파멸시키기 위해 사악한 이들을 악의 무리에 모아들였다.

오늘날 그들은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비롯한 현대적인 여러 수단을 사용한다.

복음서와 십자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의 성화, 한 장의 지도에 표시된 그들 집에 가톨릭 신자들이 살고 있다. 빨간색 잉크로 그리스도교가 우세한 지역을 표시하고, 검은색 잉크로는 그리스도교가 열세한 지역을 표시해 보라. 가톨릭 신자들이 우세한 지역과 갈라져 나간 종파나 이교도들이 우세한 지역도 표시해 보라. 또한 가톨릭 신자로서 법률, 기관, 학교,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지역을 표시해 보라.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신앙과 무관하게 이교도처럼 살아가는” 비참한 모습도 있음을 주목하라. ...

그렇게 한번 표시해 보라! 이는 괴롭지만 현실적인 우리의

1. “마리아의 날”, 『성 바오로』, 1947년 8-9월호 참조. “사도적 영혼을 지닌 이들을 양성하여 인도자이신 마리아께 데려가십시오! 하느님의 계획 속에 (높은)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스승 예수님의 성심을 따르는 교회의 지향 안에 있습니다.”

모습이다! 모든 이가 이러한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길 바란다.  
여기에 더 깊은 묵상거리가 있다.

## 세계의 종교 (1948년 통계)

6

가톨릭 신자: 4억만

개신교 신자: 1억9천만

다른 그리스도교 신자(이교도나 분리되어 나간 종파들의 신자): 1억5천만

유다교 신자: 1천6백만

무슬림: 3억만

유교 신자: 3억6천만

불교 신자: 2억2천만

힌두교 신자: 2억6천만

신도교 신자: 1천6백만

이교도: 1억3천만

무종교인: 1억5백만<sup>2</sup>

인류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구원과 가톨릭교회의 은혜를 누린다! 5분의 1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대해 생각해 보자! “인류와 우리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성령의 힘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

2. 2004년에 개정된 통계는 다음과 같다. 세계 인구 63억8천8백5십만 명 가운데 가톨릭 신자는 10억9천8백36만6천 명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톨릭 신자 인구 비율은 0.04퍼센트가 감소하여 17.19퍼센트가 되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감소 추세는 유럽에서 엿보인다.(Agenzia Fides 참조<바티칸시국 공식 통신사>)

리아께 잉태되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잘못과 악과 불경스러운 내용을 퍼뜨려 형제들의 영혼을 파멸시키기 위해 일한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세례를 주어라.”<sup>3</sup> 하신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보자.

그들이 자신의 무관심에서 벗어나게 하라. 하느님은 각 사람에게 “제 이웃에 대한 계명을 주셨다.”<sup>4</sup> 오늘날은 그 어느 때보다 투쟁이 필요하다. 모든 이는 견진성사로 신앙의 투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모든 믿는 이가 믿지 않는 모든 이를 위해 일하게 하소서. 열정적인 모든 이가 무관심한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가톨릭 신자가 비신자들을 위해 일하게 하소서.”<sup>5</sup>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된 이들의 지도자로서 천사들을 보내  
7 주시고 | 사도들을 선택하시어 믿음과 사랑의 선도자들인 관  
대한 영혼들을 불러일으키신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보다 더 힘있는 분이시다.

믿음! 우리는 기도, 귀감, 말씀, 출판, 영화 등과 같은 강력한 수단을 지니고 있다.

믿음! 모든 이교도를 정복하신 모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모후께서는 강력한 군대를 물리치셨고, 우리를 앞서 가시며 위로하고 승리하며 구원하신다. 하느님은 영원한 사명을 모후

3. 참조: 마태 28,19; 마르 16,15.

4. “Unicuique mandavit Deus de proximo suo.” 집회 17,14 참조.

5. “교회 일치를 위해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 야고보 알베리오네, 「바오로가족 기도서」, 치니셀로 발사모: 성바오로, 2007, p. 185 참조.

께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기만하는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우리에게 성모님을 되돌려주십시오!” 이는 어느 개신교 신자의 외침이다. 그가 교회에 갔을 때 황량한 공허감을 느꼈으므로 그는 “우리에게 성모님을 되돌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던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이 이러한 호소를 자신의 외침으로 할 수 있을까? 비록 다른 의미이겠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외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당 안에 성모상을 모시고 공경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성전에는 성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까닭이다. 우리에게 살아 있는 마리아 정신, 곧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겸손, 초자연성, 사랑, 신뢰의 참된 정신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활동과 사도직을 풍요롭게 하는 내적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리아라고 표시된 길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 가기 위한 쉽고도 확실한 수단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 책임은 참으로 크다. 우리는 마리아라고 표시된 길을 거쳐 가야 한다.

마리아께 가는 사람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마리아를 거쳐 하느님께 가도록 하자. 어머니요 스승이시며 사도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깃발 아래 거룩한 승리를 향해 걸어가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1.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 원리

임금이 에스테르에게 황금 왕홀을 내밀자 에스테르는 임금 앞에 서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이 일이 임금님께 옳게 여겨지며 제가 임금님 보시기에 좋다면 … 유대인들을 절멸시키려고 써 보낸 칙령을 취소하는 명령을 작성하게 해 주십시오.”(에스 8, 4-5)

### 사도직

첫 번째 사도직은 내적 삶이다. 이는 필수적이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으며, 모든 이에게 주어진 의무다. 자신의 정화와 성화를 위해 일하는 이들은 모든 이를 위해 일하는 것이다. [죄의 잠벌을] 기워잡고 결점을 없애면 교회가 더 완전해지고 영광스럽게 된다. 아버지 앞에서 익힌 모든 덕은 교회에 새로운 빛을 비춘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그리스도를 가리켜 보이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sup>1</sup>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톨릭교회에도 말씀하실 수 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처럼 살아 움직이는 존재는 전무하다.

두 번째 사도직은 고통이다. 이는 특별히 각 사람의 처지에

1. 참조: 마태 17,5; 마르 9,7; 루카 3,22; 9,35.

서 | 부족함, 곧 [주님] 수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는 것이다. 9

세 번째 사도직은 모범이다. 덕은 기적처럼 모든 이가 교회의 가르침을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쁘게 살며, 마음속에 은총이 퍼지게 한다.

네 번째 사도직은 기도로서, 하느님의 전능하심이 인간을 섬기게 한다.

이어서 말씀 사도직, 출판 사도직, 선교 사도직, 청년 사도직, 학교 사도직 등이 있다.

## 하느님의 계획

하느님은 마리아가, 구원자 예수님의 지상 삶은 물론 영광스러운 삶을 통해 하신 모든 사도직에 참여하길 바라셨다.

마리아는 천상 스승의 성체적 사도직에 참여하신다. 미사, 영성체, 성체방문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아드님이시고 성체이신 예수님을 만난다. 갈바리아에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세상 끝 날까지 마리아를 통하여 적용된다. 구유, 예루살렘 성전, 카나에 마리아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이집트, 나자렛에서 거룩하신 스승이셨지만, 덕의 실천에 있어서는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동반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늘 함께 다니셨고,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삶도 함께하셨다. 마리아는 태어나는 교회를 당신 마음과 두 팔에 품어 안으셨고, 오늘날에도 교회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활기차게 하신다. 마리아는 구원을 위해 태어나셨고, 살아 계시며, 큰 역할을 하신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마리아와 함께하셨고, 지금도 마리아와 함께하신다. 우리는 마리아께서 예수 그리스도

**10** 도와 이루신 | 일치와 의탁에 이르지 못하는 못하나, 우리가 마리아께 가까이 갈수록 그 결과는 더 아름답고 풍요로울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행하는 사도직.

오, 마리아여, 당신은 저희에게 당신 은총의 빛을 지고 계십니다. 하느님은 가련한 저희를 보시고, 저희를 위해 당신이 풍요롭고 자애로운 분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희를 위해 그토록 많은 은총을 받으셨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오, 성모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더 많은 자비를 보이시면 더 많은 영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영광은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화관이요 기쁨인 수많은 성인들에게서 끝없는 찬미와 감사를 받으십니다. 저로 하여금 당신을 찬미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당신 자비를 찬양하며 당신께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거룩한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거룩한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하느님께 협력하는 것입니다.”(성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이처럼 마리아의 사도직은 예수님의 사도직과 다르지만 같은 차원을 지닙니다.

## 마리아의 사명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교회의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주님 탄생 예고를 받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

다. 마리아는 수난 가운데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sup>2</sup>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같은 보살핌과 책임을 지니신다.

마리아의 사도직은 고유하다. 구약성경에서 마리아는 구원자를 전해 주시는 분으로 기대되었다. 마리아는 당신의 지상 삶에서 | 예수님의 승천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승천에서 당신의 복된 승천에 이르기까지, 이제 하늘에서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내어 주신다. 11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요 공동구속자, 사도, 중재자시다! 이러한 모습은 동정 마리아의 활동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과 방법과 단계를 드러낸다. 천국 낙원에서 하느님은 마리아를 공동구속자라 이르셨는데,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사도이시다.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이심은 사도가 되기 위함이다. 마리아는 “아드님을 낳으신” 사도가 되리라 예언된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대한 동의와 예수님의 강생을 통해 어머니가 되시며, 또한 사도, 공동구속자, 중재자가 되신다. 예수님의 삶에서 마리아는 언제나 사도요 어머니로 드러나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이시기에 중재자요, 세상에 예수님을 내어 주시는 사도직을 계속하기에 중재자시다.

천상 사도직은 지상 사도직을 이어간다. 삶은 죽음으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변화하는 것이다. 베드로와 바오로는 언제나 교회를 보호해 달라고 간청했고, 이 땅에 살아 있

2. 요한 19,27.

을 때 그랬듯이 같은 사명을 하늘에서 계속한다.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삶은 바뀌지만 (사도직)은 없어지지 않는다.”<sup>3</sup> 마리아는 하늘에서 모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각 개인과 온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내어 주신다. 요셉과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처럼.

## 모두가 사도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모습으로든 사도직에 참여한다. 이는 필수적이다. 은총 안에 사는 모든 영혼은 성인들의 통공

**12** 안에서 | 사도직을 행한다. 건강한 모든 사람은 삶 가운데 그리고 영원 속에서 모든 이의 구원과 행복에 어떠한 형태로든 기여한다. 교회는 하나의 사회이지만 초자연적이며 그리스도, 마리아, 천국의 복된 이들, 연옥영혼들, 지상의 의로운 이들과 같은 모든 성도로 이루어진다. 유일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유일한 목이신 마리아가 계시고, 여러 지체가 있다. 모든 지체에는 언제나 같은 피, 곧 구원자의 피가 돌고 있다.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곧 은총이다. 은총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교회의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

지나치게 많은 생각과 노력은 낭비요, 너무 많은 욕구와 말도 비효율적이다. 너무 많은 방법과 대책도 헛되다.

그리스도와 마리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교회에는 열심한 사제들이 많으나, 1천 명당 사제 한 사람이 있으려면 160만 명의 사제가 필요하다.

3. “Vita mutatur, non tollitur.” 위령미사 입당송.

마리아 안에: 마리아는 양성과 보편 사제직을 통해 당신 아드님과의 관계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신다.

길은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서 얻었고,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 맡기셨다. 이것이 바로 길이다.

## 예수님의 귀감

마리아는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도이시다. 하느님은 마리아를 통해 “여인에게서 태어나신”<sup>4</sup>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바라셨듯이, 모든 은총을 마리아를 통해 계속 주신다. 생명의 기원은 하느님이시지만 모든 아이는 어머니에게서 생명을 얻는다. 어머니가 없으면 아이도 없듯이, 마리아 없이는 구원도 없다. 모든 사도직과 모든 참된 사도는 마리아를 통하여 생명과 힘을 받는다. | 이렇게 첫 사도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사제이며 사도”<sup>5</sup>가 되셨다. 13

카나에서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도직이 시작되었다.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마리아를 통해 사도직을 시작했듯이, 모든 사도직은 세기를 통해 마리아에게서 시작되고 활기를 얻었다. 하느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듯이, 마리아가 안 계시면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리아는 세 가지 이유로 “사도들의 모후”이시다. 그분은

4. 갈라 4,4 참조.

5. 히브 3,1 참조.

사도들이 지닌 모든 것을 지니시고 함께 행하신다. 더욱이 마리아는 모든 사도직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사도직을 맡아 행하신다. 또한 양성하고 이끌고 지탱이 되고, 모든 사도직에 결실을 맺게 하며 보상을 주는 직무를 행하신다.

강생의 첫 순간, 마리아의 태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 으뜸가는 완전한 사도직을 이루신 하느님께 드리는 영광과 찬미가 시작되었고, 두 번째 사도직을 이루는 구원 또한 시작되었다.

사도, 어머니, 스승, 사도들의 모후이신 그 특성을 통해 마리아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다.

## 사도직의 지혜

사도, 설교자, 선교사, 작가, 활동가는 비오 10세가 “동정녀 사제”<sup>6</sup>라고 일컫은 마리아를 열렬히 사랑해야 한다. 마리아의 존엄성은 사제들과 교황들의 존엄성을 능가한다. 마리아는

**14** 우리와는 다른, 훨씬 탁월한 의미에서 사제이다. | 마리아는 성체이시고 대사제이신 그분을 준비시키셨으며, 먼저 피흘림 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희생 제사를 바치셨다.

어느 날 성녀 대 제르트루다<sup>7</sup>는 동정 마리아가 나타나 초대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를 내 외아

6. “Virgo Sacerdos.”

7. 헬파의 제르트루다(1256-1302). 독일 작센 주 아이슬레벤에서 태어나 다섯 살 때 헬파의 시토회 수도원에 들어가 작은 ‘번제물’로 살았다. 신비체험 가운데 삶이 변화되었다. 같은 이름을 지닌 여섯 명의 다른 성인들과 구별하기 위해 ‘대’라는 명칭이 붙여졌다.

들이라 불러서는 안 되고 나의 맏아들이라고 불러야 한다. 내가 태중에 그를 처음 잉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후 나는 그와 함께 너희 모두를 잉태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내 자녀이기에 내 모성의 자궁을 통해 너희를 양자로 삼은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로 예정된 모든 이는 동정 마리아의 태중에 숨어 있다. 그들이 어지신 어머니 안에 머물면서 자양분과 보호를 받으며 성장한다. 그들은 죽은 후에도 영원한 영광에 이르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사도직에서 마리아를 제외시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을 무시하며, 마리아의 강력한 전구를 포기하는 것이고, 보쉬에의 다음과 같은 말을 무시하는 것이 될 것이다.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느님은 그 방법과 양식과 계획을 더는 바꾸지 않으신다. 마리아는 머리를 낳으셨고, 또 그 지체들을 낳으신다.”

사도, 설교자, 선교사, 고해사제, 활동가들이 마리아께 굳은 신심과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그들의 활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심각한 위협에 놓이게 된다.

모든 사도직은 사람들의 영혼과 세상에 성령을 전하는 행위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응답하셨기에 성령께서 마리아께 임하시어 | 가장 큰 기적, 곧 그리스도의 강생과 성화를 이루셨다. 그때부터 마리아는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어떤 권한을 얻으셨다. 따라서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은총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령강림 때 사도들을 기도로 이끄신 마리아의 전

구로 성령이 내려오셨다.

“오,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님, 당신을 통하지 않고 구원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 은총이 가득하신 분, 당신을 통하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성 제르마노)

여기에 사도에게 제시된 길이 있다. 사도가 마리아 신심을 지니고 있을 때 성령의 은총을 풍부히 보내 주십시오 청하는 기도는 한층 강력해진다. 마리아는 자녀들이 청하는 모든 것을 얻어주신다. “자녀들이여, 이것이 나의 가장 큰 신뢰이며 내가 희망을 가지는 이유다.”(성 베르나르도)

### 좌절하지 않는 희망

예수님처럼 마리아에게서 태어난다면, 마리아에게서 교육을 받는다면, 기쁨과 시련 안에서 성장하도록 마리아가 동반해 주신다면 모든 일이 잘 되어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어떤 일이 변창하여 튼실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다면 이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곧 마리아를 따랐기 때문이다. 그것은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sup>8</sup>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길을 떠나라. 마리아를 통해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 마리아와 함께 시작하고, 또 마리아와 함께 계속하는 한 잃어버리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8. 갈라 4,19 참조.

주신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길이시다.

창립자들의 역사 이래 아주 특이한 일이 콘솔라따 선교수도회의 창립자인 알라마노 참사위원<sup>9</sup>에게 | 일어났다. 물론 그 16  
런 일은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일어났던 일이다. 어느 날 그는 자기가 세운 수도회에 모인 초창기 제자들에게 회헌 규칙을 읽어주러 갔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 모두 떠나버린 것이다. 그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지만 제자들이 도망가면서 어질러 놓은 흔적만 보일 뿐이었다.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자신이 의지하던 위로의 성모님(콘솔라따)께 갔다. 그는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 함께해 주셨던 동정 마리아께 오랫동안 기도하며, 자기 지향을 갱신하고 위로를 받아 다시 일어섰다. 이번에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이전보다 더 잘 시작했다. 그의 활동은 하느님의 교회에 크나큰 결실을 보이며 번창했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가운데 한층 더 증대되고 있다.

9. 주세페 알라마노(1851-1926) 복자. 1851년 카스텔누오보 다스티에서 성 요셉 카파소의 손자로 태어났으며, 성 요셉 카파소의 고향 친구 돈 보스코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스물두 살에 사제가 되었고, 스물아홉 살에 토리노 콘솔라타 성당 주임신부가 되었다. 1901년 1월 콘솔라따선교수도회를 시작하여 그 다음 해에 케냐로 진출했다.

## 2. 마리아의 사도적 성소

에스테르 왕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임금이 보고 그를 귀엽게 여겼다. 그래서 임금이 자기 손에 든 황금 왕홀을 그에게 내밀자, 에스테르는 가서 왕홀 끝에 손을 대었다. 그러자 임금이 그에게 말하였다. “에스테르 왕비, 무슨 일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에스 5.2-3)

### 사도들

1)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본성상 사도이다. “우리 신앙고백의 사도이며 대사제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히브 3,1)

2) 마리아는 사명을 위한 여성 사도, 선택된 여성 사도, 그리스도를 위한 사도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라 하고, 마리아를 공동구속자라 한다.

3) 다른 모든 사람은 참여하는 사도 또는 부르심을 받은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 파견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직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당신 주변에 모인 이들을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들 가운데에서 열둘을 뽑으시어 사도라고 부르셨다.”(루카 6,13)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로마 1,5)

우리의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다. | 18  
사도직은 세상에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전체를 주는 것이다.

마리아는 모든 박사와 설교자, 선교사 이상으로 사도직에 참여하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예정된 뜻과 영원한 성소를 위한 모든 사도직의 사도요 모후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의 성소

성소는 어떤 사람을 평범한 상태에서 특별한 상태로 결정짓는 하느님의 뜻이다. 성소는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의 계획이다. 중요한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졌다.

복음사가 성 요한은 하느님 아드님의 사명을 이렇게 묘사한다.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요한 3,16-17)

구원자께서는 이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하셨고, 이에 대해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

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이다.”(요한 6,38) 하고 말씀하셨다.

성 바오로는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2,8)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순종으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과 모든 이의 죄를 기워 갚음으로써 피조물이 거부한 영예와 영광을 하느님께 되돌려드렸다. 인류를 향한 이같은 활동에 대해 성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며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사도 10,38)고 간략하게 표현했다. 그분

**19** 은 | 가르침과 모범, 기적과 병자들의 치유로 건강을 되찾아 주며 이 도시 저 도시로 다니셨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마르 7,37) 예수님은 무엇보다 당신 수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셨고, 천국을 열어 은총을 다시 주셨으며, 성체 안에 당신 자신을 남겨 주셨다.

“여러분은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해방되었습니다.”(1베드 1,18-19 참조)

성 바오로는 에페소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5,2)라는 말씀을 통해 구원하고 보상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 언급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여러 제자 가운데에서 뽑은 열두 제자에게 당신 사명을 맡기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요한 20,21)

열두 제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어야 한다.

열두 제자와 그 후계자들은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영혼들을 이끌며 거룩하게 해야 한다. “나는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8-20)

## 마리아의 성소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리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견해는 무엇인가? 마리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 위해 | 20  
선택된 분이시다. 모든 것이 마리아를 통해 전해졌다.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우리는 어느 모로든 마리아의 사도직에 참여한다. 마리아는 충만한 사도직을 하시지만 우리는 부분적인 사도직에 참여한다. 우리는 능력에서, 시간이나 공간에서 늘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인류가 지닌 모든 선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예수님은 “나는 진리다.”<sup>1</sup>라고 말씀하셨다. 그 진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롭게 하며 우리 생각을 명확하게 한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 평화의 길, 천국에 이르는 길이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초자연적 생명이지요 영원한 생명이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

1. 요한 14,6.

도의 생명이다. 모든 사도직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님께는 말씀의 사도직, 모범의 사도직, 청년 사도직, 출판 사도직, 선교 사도직, 가톨릭 학교 사도직, 선행의 사도직, 자선 활동의 사도직 등 온갖 선이 있지 않은가!

마리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셨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선, 온갖 선을 주셨다. 성인들과 사도적 마음을 지닌 이들은 사도직을 부분적으로 나누어 행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사도직을 행하신다. 마리아는 공간, 시간, 재화, 각 개인 안에서 활동하시는 보편적 사도이시다.

사도들은 자신이 속한 시대와 공간 속에서 사도직 활동을 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내어 주신다. 모든 것은 마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는 것이 마리아의 성소요 사명이다.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을 전해 주시는 모습으로 드러나신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는 것은 자신의 영광일뿐 아니라, 무엇보다 세상에, 그리고 특히 모든 영혼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기 위함이다.

- 21 교황 비오 12세는 「그리스도의 신비체」에 대한 회칙을 마무리하면서,<sup>2</sup>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안에서 선택된 분에 대해 언급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가 사도들의 모후이신 이유를 요약한다.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여, 저희에게 교회에 대한 참 사랑을 얻어 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영혼은 다른 모든 영혼을 합한 그 이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으로 가

2. 「그리스도의 신비체 *Mystici Corporis*」, 1943년 6월 29일.

득 차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과 인간 본성의 영적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신학대전』, q. 80, a. 1)

## 마리아의 사도적 실천

모든 천상 생명의 원천이신 주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신 분은 바로 순결한 어머니입니다. 곧 교회의 머리인 존엄하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리아의 순결한 태중에서 태어나셨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예언자, 임금, 사제로 태어나신 분을 경배하러 급히 달려온 이들에게 그분을 보여준 분은 마리아입니다.

더욱이 그 외아드님은 ‘갈릴래아 카나에서’ 당신 어머니의 기도에 못 이겨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한 2,11)

개인의 죄든 물려받은 죄든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로우시며 언제나 당신 아드님과 긴밀히 일치하시는 마리아는 골고타에서 당신 아드님을 영원한 성부께 봉헌하심으로써, 아담의 참담한 배신으로 죄에 물든 모든 후손을 위해 존재하는 새로운 하와로서, 모성이 지닌 모든 권리와 당신 모생애를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육신으로 | 우리 머리이신 **22**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는 영적으로 모든 지체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로서 고통과 영광의 [어머니라는] 새로운 칭호를 받으셨다.

마리아는 당신의 능하신 기도로 성령강림일에 성령께서 오시어 교회에 놀라운 선물을 내려 주시길 간청하셨다.

마리아가 마침내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를 위해 순교자의 참된 모후로서 굳게 신뢰하며 견뎌낸 엄청난 고통은,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그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채운”(물로 1,24 참조) 것이다.

마리아는 우리 구세주의 찢긴 마음<sup>3</sup>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위해, 아기 예수님에게 당신 젖을 먹여 키우시고 요람에 누이는 모성애와 배려하는 사랑을 보이셨다.

“이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sup>4</sup>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다스리시며 몸과 영혼이 영광에 싸여 빛나신다. 거룩하신 어머니는 탁월한 머리이신 아드님을 통해 신비체의 모든 지체 안에 풍성한 은총의 물길이 끊임없이 흐르기를 간청하신다.

마리아는 어제와 오늘도 한결같이 현존하시는 수호자로서 교회를 보호하시며, 마침내 교회와 온 인류 가족에게 하느님께서 주시는 커다란 평화의 시대를 펼쳐 달라고 탄원하신다.”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 돌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sup>5</sup>고 이사야가 마리아에 대해 전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그 위에 하느님의 영이 내려오실 것이다. 즐거와 가지는

**23** 마리아요, 그 꽃과 열매는 |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리아의 사도직, 곧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지성, 건강, 마음, 시간 등 모든 것을 바치면서 사도직을 위해 삶을 온전히 소모하라고 따로 떼어놓으신 사람

3. 예수 성심 대축일 성무일도, 제2저녁기도 찬미가 참조.

4. 비오 10세, 「그 날에 *Per quel giorno*」, ASS 36, p. 453.

5. “Et egredietur virga de radice Jesse; et flos de radice ejus ascendet.”(이사 11,1)

들이 있다. 주님은 “내가 일을 맡기려고 바르나바와 사울을 불렀으니, 나를 위하여 그 일을 하게 그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sup>6</sup> 하셨다. 수도자, 사제, 수녀, 선교사들은 각자가 수행하는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전했던 것처럼 그들(고해사제, 설교자, 친구, 장상)을 초대한다.

부르심에 응답할 것. 부자 청년은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 재물에 대한 애착 때문에 슬퍼하며 떠났다. 사도들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관대했으며, 한결같았다. “그들은 곧바로 아버지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sup>7</sup>

성소자들을 도울 것. 금전 등의 물질적 도움, 조언을 주는 도덕적 도움, 후원, 교육, 학교, 설교, 고해, 교정 등을 베풀라.

이는 여러 활동 가운데 하나다. 아기 예수님을 돌보라는 위대한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매일 영적 물질적으로 보살피며 배려하는 마리아를 관상하라.

성 요한 보스코와 성 아우구스티노는 그들의 어머니에게 성소의 빛을 지고 있다.

\* \* \*

사도들의 모후님,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추수에 좋은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소서. 목자도 없이, 인도를 받지 못한 채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놓인 이 사람들을 가없이 여기소서.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거룩한 사목자, 교리고

6. “Segregate mihi Saulum et Barnabam in opus ad quod assumpsi eos.”(사도13,2)

7. 마태 4,20,22 참조.

사, 교육적 출판물을 보내시어 그들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해 주소서.

“에스테르 왕비,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오? 그대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오? 왕국의 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소.” 그러자 에스테르 왕비가 대답하였다. “아, 임금님, 제가 임금님의 눈에 들고 또한 임금님도 좋으시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청입니다. 아울러서 제 민족을 살려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에스 7, 2-3)

#### 비오 10세의 생각

하느님의 섭리는 외적 활동<sup>1</sup>을 통해 당신의 길과 법규를 선택했다.

세상은 마리아를 통해, 오로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화했다. 마리아는 많은 사도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사도 이시다. 마리아께서 유일한 사도로 알려져 사람들이 마리아를 본받으며 마리아께 간구하게 되면 이 사실은 더욱 완전해질 것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사제와 그리스도인들이여, 마리아께 이르는 길이 아직 완전히 제시되지 않았기에 세상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이르지 못한 것에 대해 숙고해 보자.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더 깊고 지혜롭게 사람들의 영혼과 사회를 마리아께 이끌자. 이 세상은 마치 방탕한 아들과 같아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을 어렵게 여긴다. 그러나 만일 집 문턱에 서서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

1. 외적 활동은 내적인 삼위일체적 삶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뜻한다.

가 있다면, 그 어머니의 현존이 주는 격려와 희망은 얼마나 크겠는가!

- 25 인쇄물, 연설, 제안, 창안, 노동, 비용은 늘어나기 마련이다. 그러나 목자와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sup>2</sup> 이는 늘 되풀이되어야 하며, 세기가 다할 때까지 거듭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마리아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예수님 또한 만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여전히 “한 여인이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나 모든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깊은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 교회와 성경의 깊은 의미에 따라 마리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람들의 영혼을 덜 잃게 되고, 잘못과 무질서도 훨씬 줄어들 것이다! ... 24억 인구 가운데 4억 명이 가톨릭 신자다!<sup>3</sup> 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되었는가?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자녀들이 성모님을 저버린 까닭에 아직 많은 이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했거나 구원을 잃어버리고 있다.

가정에 목주가 있는 한, 길 진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또한 현존하신다.

인간은 성모님을 따르고, 세상은 예수님을 보여줄 마리아를 따를 것이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380년?~444)는 세상의 사도 마리아를 다음과 같이 찬양한다. “당신을 통해 삼위일체께서 영광을

2. 루카 2,16.

3. 머리말 각주 2번에서 이와 관련해 소개한 최근 통계 자료를 참고하라.

받으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온 세상이 고귀한 십자가를 경배하며 흠송합니다. 하늘은 당신을 통해 기뻐합니다. 천사들과 대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악마들은 쫓겨나고 오로지 인간만이 하늘로 들려 올려집니다. 당신을 통해 우상의 잘못에 휩싸였던 모든 피조물이 진리를 알게 되었고, 사람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았으며, 교회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신의 도움으로 사람들은 회개하게 되고, 당신을 통해 참 빛이신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아래 앉아 있던 | 이들 26을 비추셨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언자들이 예언했으며,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포했습니다.”<sup>4</sup>

## 인자하신 어머니

고아가 된 아이들이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마리아와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다. 가정에 착한 어머니가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생각해 보자. 어머니는 가정의 여왕이다. 인류 가족 안에 계신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는 인류의 어머니시다.

하와의 가엾은 자녀들이 성모님의 위로와 은총의 선물을 그리워하며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게 하지 마라!

악이 세상에 들어왔다. 인간이 선하신 하느님에게서 멀어졌기 때문이다. 세상에 만연된 악은 여전히 세상 속에 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저버리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났듯이 오늘도 그렇고, 여러 세기에 걸쳐

4. 에페소 공의회(431년)에서 발표한 “하느님의 어머니Theotokos”에 대한 연설.

그러할 것이다.

우리는 잘못, 도덕적 무질서, 미신, 거짓된 숭배, 물질적 비참함의 혼란 속에서 살아간다.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부다페스트 대학교 교수요 연설가인 토트 티하메르>Toth Thiamer 주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최종 분석을 통해 보면 전쟁은 통치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교사들, 비종교적이고 세속적인 출판물, 사회 속에 만연된 세속주의, 금권정치에 의해 가중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죽이는 요인이다. 현시대의 전쟁은 반그리스도교적 문화로 인한 논리적 귀결이다.” 거대한 기술

27 정복을 이루었으나 |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가 황폐를 향해 쇠락하고 있다. 문명은 영혼 없는 빈껍데기로 남아 있곤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현실은 몹시 안타깝다.

1942년 5월 14일, 비오 12세는 라디오 메시지를 통해 “우리 시대의 불신”이 바로 “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비오 12세는 같은 해에 인류를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께 봉헌하면서, 이 시대는 “사악한 세상의 희생물”이라고 했다. 이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로마 제국의 부패에 대해 “인류가 번성하여 행복해지려면 정의가 여왕이 되고, 박애를 사랑하며, 영원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한 논평을 되풀이한 것이다.

오늘날, 영혼을 잃어버린 인류는 그 영혼을 찾아 나서고 있다.

비오 11세는 “인류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유일한 수단은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방법과

길은 무엇인가?

### 비오 10세의 가르침

비오 10세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께 간다.”<sup>5</sup>는 그리스도교의 격언을 인용했다. 1904년 2월 2일, 교황은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길이라는 사실을 신학적으로 설득력있게 설명했다. 그 원칙은 매우 명확하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입양이 이루어져 하느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사람이 되게 하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은 바로 마리아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첫 번째 이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sup>6</sup>이라는 말씀대로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을 잉태하여 낳으셨다. 당신 태중에 진리이신 주님의 수태를 수락하신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우리 신앙, 곧 하느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새로운 질서와 탄생을 위해 어머니가 되심을 동의하신 마리아는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 거룩한 신비의 참여자요 수호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마리아는 창조 때처럼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고결하신 분으로서 모든 세대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유: 하느님은 구세주를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5. “Per mariam ad Jesum.”

6. 루카 1,45.

주실 수 있었지만, 마리아를 통해 그분을 맞이들이길 바라셨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비오 10세는 “구세주를 잉태하신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오신 하느님을 우리가 맞이하게 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그분을 맞이하는 길은 없다.”고 했다.

구약성경에서는 마리아의 태중에 아드님으로 오실 구세주를 동정녀의 아드님, 작은 가지의 꽃송이로 예고하고 있다. 이처럼 구세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신앙의] 선조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우리는 마리아 안에서 율법의 목적이시며 신탁의 완성이신 분을 발견한다.”고 결론짓는다.

세 번째 이유: “우리는 그 어떤 수단보다 오로지 동정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 이른다. 마리아는 성가정에서 예수님과 29 30년 동안 친밀하게 지내신 유일한 분이셨다. 마리아는 | 그 누구보다 강생의 신비인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의 경이로운 신비에 함께하신 분이셨다. 이보다 더 깊이 드러난 믿음의 원리와 토대가 어디 있겠는가?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난 일, 또 예수님을 잃었다가 성전에서 다시 찾은 일을 마음에 품고 곰곰이 생각하며 묵상했을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과 신비로운 뜻을 나눔으로써 성자의 삶을 함께 사셨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사람은 없다. 마리아야말로 그리스도의 지혜를 알려 주는 가장 적합한 안내자요 스승이시다.” 인간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데에 동정녀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

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참되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를 얻음으로써 모든 것의 원리요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쉽게 얻는다.

네 번째 이유: 마리아는 좋으신 어머니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또한 우리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느님으로서 사람이신 예수님은 육체를 지니셨고, 구세주로서 신비체의 머리이다. 곧 믿는 이들과 한 몸을 이루셨다.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sup>8</sup> 마리아는 하느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도록 영원한 아드님을 잉태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오늘 너희를 위하여 ...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sup>9</sup> 하고 말했듯이 | 구 30  
세주를 낳으셨다. 가장 정결하고 유일하신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스도는 몸을 취하셨고, “그분을 믿는” 이들과 하나의 신비체를 이루셨다. 자신의 태내에 구세주를 모신 마리아는 구세주의 생명 안에 모든 생명을 가져다주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성 바오로가 쓴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분의 몸과 살을 받아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신비체의 머리에 연결된 몸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녀요 마리아는 모든 이의 어머니라는 신비는 참

7. 요한 17,3.

8. 로마 12,5.

9. 루카 2,11.

으로 진실되다. 마리아는 참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의 영적 어머니이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인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누가 의심하겠는가? 교회라는 신비체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당신의 지체인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 특히 당신을 알고 당신을 위해 살아가는 은총의 선물을 주신다.

다섯 번째 이유: 마리아는 “사람으로 태어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에게 당신 살을 주셨을뿐 아니라 그분을 보호하고 양육하여 때가 되었을 때 희생 제물로 봉헌할 책임을 지니셨다. 이는 지속적인 공유의 삶이다. 최후의 시간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서 계셨다. ... 그분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외아드님을 기꺼이 봉헌하셨다.”

교황님은 마리아께서 공동구속자이심을 암시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과 함께 중재자요 은총의 분배자가 되신 것이다. 예수님은 원천이시며, 그 원천에서 우리 모두는 충만한

**31** 생명을 받는다. | 성 베르나르도에 따르면 마리아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의 물을 전해 주는 수로이시다. 또한 마리아는 온몸이 머리와 하나 되게 이어주는 ‘목’이라고 했다. 머리는 ‘목’을 통해 몸에 힘과 덕을 전해 준다.

여섯 번째 이유: 마리아는 “나자렛 집에서 갈바리아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예수님을 따른 동반자이셨다. 그 누구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속 비밀까지 아셨고, 어머니의 권리로 예수님의 공로의 결실인 보화를 관리하셨다.” 이는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확실한 근본이 된다. 비오 10세는 이렇게 말했다. “악마의 속임수나 편견에 빠져 동정 마

리아의 도움 없이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끔찍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그들은 참으로 비참하고 불행하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흠송한다는 구실로 마리아를 소홀히 여긴다.” 그들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가 없으면 그 아기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며 흠송하는 마음보다 마리아를 더 기쁘게 헤드리는 것은 없다.”

### 맺음말

마리아를 찾아나서는 사람은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러한 이유로 비오 12세는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이 곧 모든 이를 위한 희망이요 구원의 길이라고 제시했고, 또한 세상을 마리아에게 봉헌했다.

“거룩한 묵주기도의 모후이시며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시고, 인류의 피난처이시며 하느님의 모든 전투의 승리자이신 당신의 옥좌 앞에 엎드려 간청합니다. 곤경에 처해 있는 저희를 위해 자비와 은총과 필요한 도움과 보호를 간청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저희는 저희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 | 무한히 선 32 하신 당신 모성애에 의탁합니다.”

### 비오 12세의 기도

“저희는 어머니와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께 의탁하며 인류 역사에서 아주 어려운 운명의 시간을 맞고 있는 저희를 봉

현합니다. 저희는 여러 지체 안에서 고통을 당하며 박해를 받으시는 아드님 예수의 신비체인 성교회와 하나 될뿐 아니라, 불일치로 찢어지고 증오로 파헤쳐져 고통당하는 세계와 하나 되어 고통을 겪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물질적 도덕적 파멸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십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형제, 순진한 어린이들의 영혼 안에 참으로 큰 슬픔과 고뇌로 인해 많은 생명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대학살로 몸이 찢겨지고, 고문 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영원히 멸망할 위협에 처한 이들도 많습니다!”

“오, 자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평화를 얻어 주소서! 특히 한 순간에 인간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은총과 평화를 간구하오니 그 은총을 얻어 주소서! 평화의 모후시여,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고, 전쟁 중인 이 세상에서 깊이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소서. 그리스도의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넘치는 평화를 주소서! 평화로운 질서 속에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해 주시고, 그들의 무기에 맞서는 용기 있는 영혼에게 평화를 주소서.”

“믿지 않는 이들과 죽음의 그늘 아래 놓인 모든 이를 보호해  
**33** 주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태양이 | 떠오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도 저희와 함께 세상의 유일하신 구원자 앞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  
 람들에게 평화’(루카 2,14)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이게 하소서!”

“오류와 불일치로 갈라진 민족, 특히 당신을 각별히 공경하는 사람들, 아름다운 성화를 모시지 않고 (더 좋은 날을 고대

하며 어찌면 그 성화를 한쪽에 밀쳐두었는지도 모를) 이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의 양떼 안으로 이끌어주시어 유일하고 참된 목자 아래 있게 하소서.”

“하느님의 성교회에 평화와 온전한 자유를 얻어 주시고, 신이교주의라는 사상의 거센 홍수를 막아 주소서. 믿는 이들 가운데 정결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교적 삶의 실천, 사도적 열의를 일깨워 주시어 하느님을 섬기는 이들이 더욱 많아져 공로를 쌓게 하소서.”

“마침내 당신 아드님 예수 성심께 봉헌된 성교회와 온 인류가 당신께 모든 희망을 둡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승리와 구원의 표징이요 서약입니다. 저희 또한 티 없으신 당신 성심께, 우리 어머니요 세상의 모후께 저희 자신을 영원히 봉헌합니다. 당신의 사랑과 보호로 하느님 나라의 승리를 앞당겨 주소서. 모든 민족이 하느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며 당신을 찬미하게 하소서. 당신과 함께 모든 민족이 지상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영광과 사랑과 감사의 마니피캇을 예수 성심께 영원히 노래하게 하소서. 모든 민족은 오직 주님 안에서 진리와 생명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 4. 내적 삶의 사도직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루카 2,50-52)

### 사도

사도는 자기 영혼에 하느님을 모시고 자기 주변에 하느님을 빛내는 사람이다.

보물을 쌓아가며 그 넘치는 부분을 영혼들에게 전하는 거룩한 사람이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며,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더는 자신 안에 가두어 두지 못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아 형언할 수 없는 빛을 널리 퍼뜨리는 성광이다.

모든 이를 기쁘게 하는 간택된 그릇이다. 이는 자신 안에 가득한 충만함을 쏟아내기 때문이다.

매우 활동적인 거룩하신 삼위일체의 성전이다.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말과 행동, 기도, 몸짓, 태도에서 하느님이 베풀어 오는 사람이다.

이제 이처럼 특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보라. 그들 안에서 사도의 모습

을 알아보겠는가? 더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사도의 이상을 최대한 | 드러내는 마리아이시다. 그리고 바오로가 그 뒤를 35  
잇고 있다.

내적 거룩함이야말로 으뜸가는 가장 본질적인 사도직으로,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다. 내적 삶이 있는 곳에 사도가 존재한다. 사막의 안토니오, 침묵하는 카르투시오 수도사, 가장 겸손한 노동을 하는 봉쇄 수녀들이 있다.

### 첫 번째 사도직

가) 내적으로 거룩한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곧 교회의 신비체에 생명을 주는 순결한 피를 돌게 하여 모든 지체를 원활하게 성장시키며, 하느님을 닮으려는 투쟁을 통해 지체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성 바오로는 이 신비체에 대해 여러번 언급한다. 비오 12세는 회칙 「그리스도의 신비체 *Mystici corporis Christi*」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밝혔고, 많은 책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인간은 지체인 손과 발, 혀의 움직임은 볼 수 있지만 몸의 내부에서 필요한 모든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심장은 보지 못한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세상에 악과 슬픔을 퍼뜨리는 이들의 활동을 막을 능력이 있고,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항하는 모든 사상을 이기고, 모든 지성을 그리스도께 굴복시킬 수 있는 신적인 것이다. “우리의 전투 무기는 속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 덕분에 어떤 요새라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함

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느님을 아는 지식  
**36** 을 가로막고 일어서는 모든 오만을 무너뜨리며, | 모든 생각을 포로로 잡아 그리스도께 순종시킵니다.”<sup>1</sup>

이처럼 순결한 피, 초자연적 생명,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는 다락방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세세대대로 한결 같이 성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위대하다. “저는 이들(제자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sup>2</sup> 주님에게서 은총이 흘러나와 성인들에게 전해진다. 그들은 은총에 참여하여 자신 안에 차고 넘치는 것을 부어준다.

나) 성인들은 하느님 곁에서 그들의 공로와 성성의 정도에 따라 힘을 지닌다. 그들이 전구하는 힘은 지상에서 하느님과 맞보았던 일치에 상응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기도란 인간의 힘이요, 하느님의 나약함이라고 말한다. 사실 주님은 우리의 청원을 들어주시기 위해 애쓰신다.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sup>3</sup>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셨던가! 예수님은 고통을 겪으시며 “목마르다!” 하고 부르짖으시며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셨다. 그분은 당신을 드러내는 설교보다는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

1. 2코린 10,4-5.

2. 요한 17,19.

3. 마르 11,24.

다) 참된 사도직은 예수님의 사도직에 접목되어 하나로 일치한다. “하느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같은 목표 안에서 영감을 받는다. 그런데 사도라고 하는 이들 가운데 많은 이가 하느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소홀히 하고 있다. 그들은 시끄러운 징과 울리는 종, | 휘몰아치다가 흔적없이 사라 37  
 져버리고 마는 바람과 같다. 많은 사람, 참으로 많은 사람이 “모두 자기의 것만 추구할 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은 추구하지 않습니다.”<sup>4</sup>

하느님의 사람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빛을 받아 사물을 판단하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련된 역할을 이해하게 된다. 그는 실패를 하더라도 그 빛을 상실하지 않는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을 낮추심으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의 목표, 그의 지향은 언제나 하느님과 사람들에게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도직은 점점 더 초자연적 특징과 효과와 생명력을 띠게 된다. 하느님은 전부이시므로 사람들의 영혼이 하느님의 품안에 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 나는 다시 산고를 겪고 있습니다.”<sup>5</sup>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온전히 당신 손으로 하길 바라시어, 모든 것을 무력하게 만든 다음 활동하신다.” 나는 사라지고 하느님께서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따라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 활동한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 “주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

4. 필리 2,21.

5. 갈라 4,19.

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sup>6</sup>는 말씀보다 더 큰 확신은 없다. 사도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sup>7</sup>

### 마리아의 내적 삶

마리아는 가장 거룩하시기에 첫째 사도이시다. 아니 진정한 사도이시다.

38 마리아는 당신의 성성으로,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에 생명력이 넘치도록 풍부한 생명으로 최상의 기여를 하셨다. “은총이 가득하신”<sup>8</sup> 마리아의 충만한 은총이 요한복음사가에서 | 요한 보스코에 이르기까지, 순교자들에서 동정자들에 이르기까지, 교황들에서 경건한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 위에 부어졌다.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이 생명은 머리에서 온 몸으로 내려오며, 매일 세례성사, 미사성제, 고해성사를 통해 영혼들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이렇게 사람들의 영혼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마리아는 하늘님의 간택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들의 위대한 어머니가 되셨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새로운 가족의 가장이시다. 하와가 인류라는 몸의 어

6. 마르 16,20.

7. 요한 14,12.

8. 루카 1,28.

머니인 것처럼, 마리아는 새로운 그리스도인들 곧 거룩한 이들을 낳으셨다. 우리의 영적 어머니는 갈바리아의 고통 가운데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에게 당신 생명을 건네주셨다. 교회는 “살베 레지나” 기도를 통해 ‘생명’이신 마리아께 인사한다.

어머니는 자녀들 안에 당신의 피가 흐르게 하여 당신의 성품과 자질, 성향을 물려주신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영혼에 당신의 성향과 기호, 당신의 사랑, 당신 자신을 넣어주신다. 마리아는 영혼이 당신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풍부하게 주신다. “내 안에 생명과 덕행의 모든 희망이 있다.”

마리아는 여왕이시다. 여왕이신 마리아는 백성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강력한 임금의 백성은 그 임금처럼 강하다. 이토록 위대한 여왕을 모신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마리아는 어떤 “피조물보다도 높으시다.”<sup>10</sup> 마리아의 자산과 힘은 모두 우리를 위한 것으로, 그 모든 것을 당신 백성과 자녀인 우리를 위해 사용하신다.

마리아는 모든 사람, 곧 죄인, 병자, 의인, 가난한 사람, 난민 등 모든 이의 희망이시다.

마리아는 탄원하는 전능자라 불린다.

성 피에르 다미아니는 이렇게 썼다.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어좌 앞에 모습을 드러내실 때는 청원이 아니라 당신 뜻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다. | 곧 여종으로서가 아니라 어머니로서, **39** 그리고 여왕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본성상 하실 수 있는 것을 나는 은총

9. 집회 24, 18 참조.

10. 단테 알리기에리, 「신곡: 천국편」, 33곡 2행.

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의 은총은 교부들의 빛, 박사들의 지혜, 이단을 제거하는 힘, 교회의 생명 등 헤아릴 수 없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효과적인 사도직을 하신다. 성 제르마노는 마리아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 “오, 지극히 순결하신 분,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악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오, 지극히 자비로우신 여인,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선도 받지 못합니다. 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당신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도 최후의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마리아의 기도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징을 일으키신<sup>11</sup> 카나에서 그분의 공생활이 시작되게 하셨다.

## 모든 이의 사도직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기뻐하여라.

세상은 하느님의 분노와 벌을 초래한다! 그러나 보속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구한다.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건설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업을 위해 힘을 소진하는 사람보다 훨씬 유익하다. 수도생활에 부르심 받은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고,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도직을 수행한다. 이들은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나에게는 삶이 곧 그리스도”<sup>12</sup>라고 말하는 새 사람이 된다.

바오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11. 요한 2,11 참조.

12. “Mihi vivere Christus est.”(필리 1,21)

마리아의 지극히 순결한 마음은 | 예수님의 마음 다음으로 40  
가장 사도적이다. 인류를 위한 초자연적 부는 모두 예수 성심  
과 성모 성심에서 나온다.

예수 성심 다음으로 그 어떤 마음도 성모 성심만큼 사람들  
을 사랑한 마음은 없다.

성인은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거대한 조각상을 파손시키  
는 데에는 산에서 떨어지는 작은 돌멩이 하나로도 충분하다.

“데레사에게 돈이 몇 푼 더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돈  
몇 푼이나 데레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데레사  
에게 돈 몇 푼에 하느님이 계시다면 모든 게 있는 것이다.”

양심성찰을 하고 자애심을 극복하며 내적으로 활기차게 지  
내는 것보다 더 폭넓고 더 효과적인 사도직은 없다.

기숙사에서, 학교에서, 교리교육 활동에서, 고해소에서, 설  
교대에서, 가톨릭 연합에서, 수도회에서, 가정에서, 병원에  
서, 신학교에서, 본당에서 내적 삶을 지도하는 사람은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도자의 손 안에 생명과 영원을 향한 제자들  
의 미래가 있다. “일을 조금 줄이고, 묵상과 기도로 하느님께  
30분을 더 바쳐라. 활동을 하더라도 생명을 주는 활동을 하  
라.”고 자주 일러주는 것이 좋다.

씨를 뿌리고 기도로 물을 주어라.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  
느님이시다.”<sup>13</sup>라는 말씀은 신앙의 진리다. 씨를 뿌린 밭에 물  
을 댈 수 있도록 샘을 파라. 크고 완벽한 전력 시설도 필요하  
지만 도시가 밝아지고 공장이 생산 활동을 하려면 전선에 전  
류가 통하도록 콘센트를 꽂아야 한다. 성덕을 추구하자. 마리

13. 1코린 3,7 참조.

- 41 아를 통해 성덕을 추구하자.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 대한 목마름이 없다면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도 있을 수 없다. 사도이신 예수님과 사도이신 마리아를 닮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를 본받는 사람들은 마리아의 자녀이며, 예수님과 일치한다. 예수님과 마리아의 정신과 마음을 간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마리아와 일치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예수님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 못지 않은 둘째 계명, 곧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상기시키신다.”<sup>14</sup>

---

14. 마태 22,39 참조.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 물기 없이 마르고 메  
 마른 땅에서 이 몸이 당신을 애타게 그립니다. 당신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고 이렇듯 성소에서 당신을 바라  
 봅니다. 당신의 자애가 생명보다 낫기에 제 입술이 당  
 신을 찬미합니다. 이렇듯 제 한평생 당신을 찬미하고  
 당신 이름 부르며 저의 두 손 들어 올리오리다.

(시편 63,2-5)

### 은총의 예고

마리아는 잉태 순간부터 순결하셨고 은총으로 가득하셨을뿐  
 아니라, 타고난 지성과 이성을 온전히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갖  
 춘 분이셨다.

그러한 지성으로 동정 마리아는 거룩한 갈망과 열망, 청원,  
 서원의 기회를 간직하셨다. 또한 그러한 지성은 동정 마리아  
 가 거룩한 갈망을 지니고 주님께 탄원하며 서약할 수 있게 해  
 주었다.

P. 로스키니 신부는 이렇게 말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  
 는 잉태의 순간에 성경의 정확한 이해에 필요한 자연적 요소  
 들, 곧 역사와 지리, 천문, 우주기원론 등에 대한 완전한 지식  
 을 지니셨다. 하느님의 어머니요 인류의 공동구원자가 되도록  
 예정되었기에 하느님께 대한 초자연적 질서에 대한 진리를  
 터득하신 것이다. | 따라서 마리아는 천사들이나 현세를 43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깊이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적 진리에 통달하셨다. 구원 업적과 구원 경륜에서 당신이 차지하실 부분도 모두 아셨다. 결핍과 윤리적 비참함, 위험, 유혹, 죄에 대한 규모와 악의까지도 아셨고, 많은 사람의 완고함과 재앙까지도 아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를 위해 고통받고 기도하며 그들이 구원되고 구속되기를 갈망하셨다.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어떤 갈망의 불꽃이 타올랐을까!”<sup>1</sup>

마리아가 처음에는 요람에서, 아버지 집에서, 그리고 후에는 성전에서 지냈는데, 마리아의 성심에는 구원과 구속에 대한 기대와 열망이 당시 사람들의 열망보다 훨씬 더 컸다.

교회는 11월 21일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자헌 기념일”을 지내는데, 이 축일의 주인공인 “어린 마리아는 세 살 때 부모인 요아킴과 안나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되어 주님께 봉헌되었다.”고 몇몇 교부, 특히 요한 다마세노는 말한다.

## 거룩한 갈망

거룩한 갈망은 생생한 믿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활동을 향한 첫 걸음이다. 이는 마치 씨앗이 땅에 심겨져 여린 뿌리를 내린 후 그 뿌리에서 양분을 받아 돌아난 가녀린 식물이 점차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 [갈망이] 기도와 만날 때 소중한 결실을 낸다.

그런데 무익하고 좋지 못한 비판이 있듯이, 아무런 결실도

1. 로스키니 신부의 이 단언은 몇몇 마리아론 전승처럼, 공의회 이후 신학적으로 간결하게 다듬어졌으며, 동시에 성서적 근거가 풍부하게 되었다.

맺지 못하는 헛된 갈망도 많이 존재한다. | 그래서 성 바오로 44  
 는 “청춘의 욕망을 피하라.”<sup>2</sup>고 했다.

반면에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듯이”<sup>3</sup> “하느님,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는 당  
 신을 찾습니다. 제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합니다.”<sup>4</sup>라고 고백하  
 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갈망이 있다.

성 바오로에게는 불타는 갈망이 있었다. “우리는 이처럼 여  
 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려  
 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sup>5</sup> “나의 바람은 이 세상을 떠나 그  
 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sup>6</sup>

시편 42장 2절에서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  
 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라고 기도한다.

선한 갈망을 키워야 한다. 또 시편에서는 “당신의 법규를  
 늘 열망하여 제 영혼이 당신께 대한 갈망으로 지칩니다.”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요아킴과 안나의 가르침에 따라 성경말씀으로 양  
 분을 취하며 푸른 올리브 나무처럼 자랐다. 마리아는 모든 덕  
 의 터전 같았다.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는 가운  
 데, 마리아의 갈망은 메시아의 오심과 사람들의 구원을 고대

2. 2티모 2,22 참조.

3. 1티모 2,4 참조.

4. 시편 63,2.

5. 1테살 2,8.

6. 필리 1,23.

7. 시편 119,20 참조.

하는 사도직으로 모아졌다.

## 기 대

예수님은 모든 민족이 갈망한 분<sup>8</sup>이시다. 성조들과 예언자들, 모든 의인, 구약 시대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을 갈망했다.  
**45** 하지만 |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는 그 누구보다 먼저, 그 누구보다도 열렬하고 지혜롭게 예수님을 갈망하셨다.

그저 감상적인 갈망이 아니라 실제적인 갈망, 곧 마리아의 마음에서 곧장 하느님 마음으로 일치된 갈망이었다.

다니엘 예언자는 “갈망하는 사람”,<sup>9</sup> 곧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고대하며, 자기 백성과 인류의 구원을 몹시 기다린 영혼이었는데, 그에게 바빌론의 종살이와 그가 고대하던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계시가 주어졌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작고 겸손하며 지극히 거룩한 동정 마리아의 갈망을 어찌 들어주시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하늘을 향한 이 탄원의 결실은 무엇이었는가? 동정 마리아는 성조들과 예언자, 착한 히브리인들보다 더 간절히 세상의 구원을 간청하셨다.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sup>10</sup>

천상 아기는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의로움도 함께 싹트게 하여라.”라는 이사야의 기도를 얼마나 힘차게 거듭거듭

8. 하카 2,7 참조.

9. “Vir desideriorum”(다니 9,23 과 10,11 참조). 새로운 성경은 이를 “충애를 받는 사람”으로 번역한다.

10. “Rorate cæli, desuper, et nubes pluant Justum.”(이사 45,8)

마치며, 두 손과 눈을 하늘로 들어 올렸을까?

## 효과적인 사도직

교회 박사들과 신학자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불타오르는 열망 덕분에 구세주의 오심이 앞당겨졌음을 확신한다.

성 팔로티(알베리오네 신부님 생존 당시 복자였으나 지금은 성인이 되었다.-옮긴이)는 이를 요약해 다음과 같이 썼다. “의인들, 그리고 특히 성인들의 모후의 고행과 단식과 갈망으로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이 앞당겨지는 것이 하느님 뜻으로 정해져 있었다. 세상은 죄와 파렴치한 행동으로 대단히 더럽혀졌지만 모든 것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졌다.” 46

윌리엄의 「마리아의 생애 *Vita di Maria*」에는 매우 감동적인 부분이 있다. “마리아의 실존은 당신 태중으로 모든 것, 곧 하느님 말씀을 끌어당기셨는데, 특히 주님께 당신의 동정성을 봉헌한 것이 더 큰 힘을 갖게 했다.”

의롭고 경외심으로 가득한 시메온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한나도 메시아의 도래를 서둘러 주시도록 밤낮으로 주님께 간구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마리아가 더 간절히 청했다.

마리아는 고독 속에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셨다. 그 봉헌은 마치 큰 건물의 폐허 위에서 구슬피 우는 비둘기 같았다. 창조하시고 성화하시는 하느님 손에서 아름답게 빚어진 인간이 원죄로 말미암

아 흥측한 모습으로 변했다. 그리하여 마리아의 탄식을 들으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통해 피조물을 다시 회복시키셨다.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모으시는 계획”<sup>11</sup>이 이루어진 것이다.

시메온도 열렬히 간구했고, 자신의 눈으로 구세주를 뵈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는 계시를 성령에게서 전해 받았다. 성전에서 기도하고 단식하며 하느님을 섬기던 한나도 정결례를 위해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와 함께 나타났을 때 곧바로 메시아를 알아보았다. 그들은 큰 믿음과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드렸다.<sup>12</sup>

47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그분을 갈망했다. 누구보다도 더 사도직을 행하셨다. | 사도직이란 세상에 그리스도를 내어 주는 것이다.

이 거룩한 갈망은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에서 시작하여 마리아의 피앗이라는 응답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당신 태중에 강생한 순간까지 지속되었다.

참으로 “때가 왔다.”(갈라 4,4) 대천사 가브리엘은 동정 마리아에게 파견되어 갈망하는 사람 다니엘이 예언한 순간이 이르렀음을 알리며,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어 주십사고 청했다. 이는 인류의 위대한 시간이었다.

하느님은 사람들이 하느님의 제단 곁에서 부르짖을 때 거룩한 갈망을 충족시켜 주시며 의인들의 열망을 들어주신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수도원의 침묵 속에서, 하느님과의 친밀한

11. “Omnia instaurare in christo.”

12. 루카 2,25-38 참조.

소통 가운데, 어쩌면 비탄과 고통 속에서 주님께 목소리를 들어 높이는지 아무도 모른다! 천상 아버지의 마음은, 온통 아버지께 신뢰하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sup>13</sup> 하고 반복하여 청하는 자녀들을 어여뻐 여기시며 감동하신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이들의 소원을 들어주신다.”<sup>14</sup> “당신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셨다.”<sup>15</sup>

마리아가 지상에 나타나실 무렵 여명이 비추기 시작했다. “솟아오르는 새벽빛”<sup>16</sup>은 “의로움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sup>17</sup>의 사절이자 예수님을 전하는 빛이다.

어린시절 마리아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던 아가 雅歌의 신부였다. “오, 내 영혼의 사랑이여, 당신이 어디서 양을 치는지 알려주세요. ... 내 사랑이 당신 정원에 오시거든 ... 오, 예루살렘의 딸들이여, 그대들에게 부탁하오, 내 사랑을 발견하거든 나 그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쇠약해진다고 | 48 말해주시오. ... 나는 내 연인의 것, 내 연인은 나의 것. ...”<sup>18</sup>

## 거룩한 갈망을 키우십시오

나는 네가 사도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말하는 네 앞에 있다. 네가 너무 작고, 아주 비참한 환경 속에 있으며, 또 너무

13. 루카 11,2.

14. 시편 10,17.

15. 시편 21,3.

16. 아가 6,10.

17. “Sol iustitiæ, Christus Iesus.” 복되신 동정녀 공통 전례.

18. 아가 2,16 참조.

일이 많고 아프다. ... 하는 네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그런데 그 누가, 그 무엇이 너에게 선한 갈망을 갖지 못하게 하는가? 만일 네가 도저히 활동할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군인 대열에서 함께 걸을 수는 없더라도 ... 너는 마음으로 갈망과 희생을 바치며, 생생한 사랑으로 나를 따르면서 적어도 후방에 머물 수는 있을 것이다.

사도적 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예수님은 그 귀감이시다.

- 1)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 암탉이 제 병아리들을 날개 밑으로 모으듯, 내가 몇 번이나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던가? 그러나 너희는 마다하였다.”<sup>19</sup>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sup>20</sup> “내가 받아야 하는 세례가 있다. 이 일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짓눌릴 것인가?”<sup>21</sup>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sup>22</sup>
  
- 2)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은 갈망을 토로한다. “주님을 찬미하라, 모든 사람아. 모든 민족은 주님을 찬미하라. 임금과 백성들, 늙은이들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내 영혼은 평생 당신의 법을 지키기를 바라나이다. 당신 법을 따르지 않는 이들이 참으로 안타깝나니. 그들은 혼란

19. 마태 23,37.

20. 루카 22,15.

21. 루카 12,50.

22. 마태 11,28.

에 빠지리다.”<sup>23</sup> “찬양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sup>24</sup>

- 3) 불타는 영혼의 갈망: “주님, 저는 연옥이 텅 비게 하고 싶 49  
 습니다. 당신 나라가 이 땅의 극변까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천 개의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인의 목소리와 함께 당신을 찬미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간택된 이들의 수가 찰 때까지 살면서, 모든 이가 구원에 들어가도록 모든 이를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겪고 싶습니다. 모든 이를 위해 성체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저를 희생 제물로 봉헌하고 싶습니다. 저는 「교리서 *Catechismo*」와 「기도: 구원과 완덕의 위대한 수단 *Gran mezzo della Preghiera*」, 「죽음을 위한 준비 *Apparecchio alla morte*」<sup>25</sup>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많이 출간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비추임 받도록 모든 사람에게 한 권씩 주고 싶습니다. 모든 죄인이 멸망의 길에서 멈추어 돌아서도록,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도구를 주고 싶습니다. 모든 이가 하느님과 길 진리 생명이신 스승 예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대가 마리아의 영광을 노래하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이 밤에 제 숨결만큼, 제 심장박동만큼, 제 피

23. 여러 시편 인용.

24. “Laudate pueri Dominum.” (시편 113,1)

25. 성 비오 9세 교리서, 나머지 두 권은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의 작품이다. 알베리오네 신부의 제자들이 1900년대 초반부터 출간하려고 서두른 작품들이다.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와 함께하는 죽음을 위한 준비』 한글 번역본은 2017년 아베마리아에서 출간되었다. - 옮긴이)

가 순환하는 만큼 많은 사랑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 “이 불행한 시대에 교회가 맞서고 있는 이 거대한 악을 물리치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압니다. 당신의 열망 속에 불타오르는 영들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활동은 많은 제한을 받았지만 억누를 수 없는 우리의 갈망이 함께 모아져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성녀 제르투르다는 수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했다. “오, 저의 감미로운 사랑이시여, 저는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불타는 사랑을 채워 드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을 제 품에 끌어 안고 맨발로 온 세상을 돌아다닐 준비가 되어  
50 있습니다. | 그들이 당신 성심을 사랑하도록 제 마음을 살아 있는 사람들의 숫자만큼 조각내어 그들의 마음에 심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도 비슷한 말을 했다. “저는 당신의 신부가 되고 싶습니다. … 영혼들의 어머니 …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용사, 사제, 사도, 박사, 순교자의 성소를 느낍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 가장 영웅적인 활동의 선두에 서서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 저는 어린이들을 애뜻한 사랑으로 돌보고자 합니다! 저는 박사들과 예언자들과 함께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일정한 기간이 아니라 세기가 다하는 날까지 선교사로 살고 싶습니다.”

성녀 제르투르다, 성녀 마틸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길 주님께서는 거룩한 갈망을 그 어떤 행위보다 값지게 받

아들이신다고 했다. “예수님께서서는 갈망을 행위처럼 포상하신다.”(성녀 마틸다) “주님은 선한 결심을 활동처럼 받아들이신다.”(성녀 제르투르다)

주님은 제르투르다 성녀가 온 교회의 필요를 마음에 품기를 바라셨다. 성녀는 어느 날, 왜 콤포스텔라(스페인)에서 많은 순례자들의 참회와 기적으로 성 대 야고보를 영광스럽게 하셨는지 여쭙어 보았다. 주님께서서는 성녀에게 “그는 온 세상에 복음을 설교하려는 ‘강한 갈망’을 지닌 채로 가장 먼저 순교했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셨다. 주님께서서는 살아 생전에 갈망했던 것들을 천국에 가서 완수하는 은총을 주신 것이다.

## 씩트는 씨앗

51

두려워하지 마라! 예기치 못한 죽음이 당신의 모든 계획과 활동을 무산시켜버려도 하느님께서서는 생전에 지녔던 열망과 갈망을 헤아리신다.

우리의 짧은 생애도 지나긴 삶이 이룬 만큼의 선을 이룰 수 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지만 세상을 구원하셨고, 하느님 아버지의 사도가 되셨다.

어떤 수녀가 온 힘과 온 생애를 학교와 사명, 자선 사도직에 헌신하려는 갈망과 결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서원했는데, 얼마 안 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죽고 말았다.

어떤 사제는 서품을 받고 난 며칠 후에 갑자기 병에 걸렸으므로 타오르는 열정으로 세운 계획을 하나도 펼치지 못하고 영원으로 건너갔다. … 그들은 과연 모든 것을 잃었을까? 그

렇지 않다. 갈망의 사도직은 수녀 자신, 사제 자신을 위해,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그들이 품었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결실을 거둔다.

우리 마음이 하나의 제단, 거룩한 열망과 갈망,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열망의 난로가 되길 바란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소서!” 마음을 더욱 확장시켜 모든 민족과 모든 필요를 끌어안게 하소서.

### 활동의 갈망?

오, 주님, 당신 힘을 일으키며 힘차게 오소서. 당신께 기도 하오니 저희 죄 때문에 저희를 위협하는 위협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를 자유롭게 해 주소서. 해방하시는 당신 손으로 저희를 구원하소서. 살아 계신 주님.

- 52 스카라멜리 신부는 「영의 식별 *Discernimento degli spiriti*」에서 이렇게 말한다. “가끔 하느님의 영은 실제로 실행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선한 갈망을 일으키신다. 사실 하느님께서서는 준비된 의지와 착한 태도를 보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신다. 이렇게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가 무척 사랑하던 외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제물을 바칠 모든 준비를 하고 아들을 죽이려 칼을 들어 올렸을 때 주님은 ‘충분하다, 그 아이에게 어떤 해도 입히지 마라!’ 하며 그의 손을 막으셨다.

하느님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어주셨다. 하지만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자 하느님은 그에게 나

탄 예언자를 보내어 “아니다, 네가 그것을 짓는 것이 아니라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하고 전하게 하셨다.

순교하려는 갈망을 품은 영혼에게도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결심만을 바라시고 기뻐하시며 이에 대해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느님은 자기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열정으로 가득 찬 결심을 불러일으키신다. 약하고 양분을 섭취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보속과 단식하려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 또는 가정에 남아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고독한 삶에 대한 열의를 불러일으키는 것과 같다.

하느님의 목소리는 이러한 갈망을 통해 또 다른 것을 바라신다. 사명과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겪기를 바라시고, 의지와 혀와 마음의 고행을 바라신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도 위협을 피하길 바라신다.

주님은 거룩한 갈망을 기뻐하고 축복하시며 이에 보답해 주실 것이다.

## 6. 기도의 사도직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루카 1,46-47)

### 기도의 사도직이란?’

성 바오로는 신자 공동체에 “바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sup>2</sup>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열두 사도를 간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sup>3</sup>이라며 성 바오로를 택하셨다. 이러한 말씀으로 바오로는 자신의 사명과 열렬히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그의 개인적 성격까지 잘 알고 있다. 그의 끊임없는 내적 심려는 온 세상을 얻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과업을 결코 중단할 줄 몰랐으며, 세상을 얻려는 의지가 늘 그를 재촉했다. 이렇게 얻어진 세상은 그의 전리품으로 여겨졌고,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 이를 지켰다.

마리아는 늘 평온한 가운데,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강한 의지로 사람들의 구원을 갈망했다.

---

1. Che sia: 라틴어로 “Quid sit” (이는 무엇인가? 무슨 뜻인가?)라는 뜻.  
 2. 로마 1,1.  
 3. 사도 9,15 참조.

갈망을 드러내는 기도는 세 번째 사도직이다. 기도는 일상적인 것으로 매우 소중하며, 보편적인 열정의 모습으로 드러난다. 성 야고보는 “서로 남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낫게 될 것입니다. 의인의 간절한 기도는 큰 힘을 냅니다.”(5,16)라며 기도할 것을 당부한다. 54

성 바오로는 티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편지(2,1)에서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청과 기도와 전구와 감사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느님께서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십니다.”라고 말한다.

성 바오로는 이 구절에서 기도 사도직을 권한다. 하느님은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시며, 사람들의 복음화와 영원한 구원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곧 기도라고 단언한다. 사실 기도 사도직은 죄인, 불충한 사람, 이단자, 히브리인, 이슬람교도를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하느님께 빛과 신앙의 증거, 거룩한 봉사에 열심하며 항구하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총을 청하는 것이다.

## 필요성

인간의 모든 노고와 모든 좋은 창안도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것은 영혼과 생명이 없이 공간만 차지하는 짐과 같을 것이다. “모든 사도직의 녀(영혼)”은 결실, | 지속적인 결실을 내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 없 55

는 활동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아 죽을 운명에 처한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sup>4</sup> 인간이, 그것도 나약한 인간이 자연적 힘으로 어떻게 초자연적인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는가? 사도직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이는 아주 무모하고 어리석은 행위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오류다.

아르스의 성자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하는 삶은 이 지상에 서 누리는 크나큰 행복이다. 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생명! 하느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치여! 내적 삶이란 사랑에 흠뻑 젖는 것으로서, 영혼이 사랑에 빠진 것처럼 그 안에 잠기는 것이다. … 이러한 행복을 이해하려면 영원에 시선을 두어야 한다. … 하느님은 엄마처럼 아이에게 입을 맞추고 사랑 어린 손길로 감싸주신다. 엄마가 아이를 품에 감싸 안듯이 영혼의 내면을 돌보신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말한다. “기도는 은총의 샘이다. 설교는 하늘에서 받은 은총을 나누어 주는 물길이다. 사목자는 하느님의 입과 지극히 거룩한 성체에서 배우고 거두어들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져다주기 위해 간택된 임금의 전령이다.”

“주님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 짓는 이들의 수고가 헛되리라.”(시편 127 참조)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펠리 4,13)

4. 요한 15,5.

## ‘기도’하는 ‘사도’ 마리아

가) 마리아는 기도하는 사도이시다.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셨다. 누구보다 기도를 잘 하셨다. | 거룩한 삶 56  
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효과적인 기도인 것이다.

그 규정은 “언제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sup>5</sup>는 것이다. 이 규정을 그 어느 성인도 마리아만큼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순간부터 주님 탄생 예고 때까지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는지 모른다! ... 마리아는 아버지 품에서 하느님 말씀을 끌어당겨 당신 태중의 결실이 되게 하셨다.

마리아의 삶은 기도 그 자체다. 마리아는 성성 덕분에 하느님 마음에 들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마리아를 당신의 기쁨인 아드님을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거처로 보셨다.

하느님의 말씀은 마리아에 앞서 그분을 맞아들일 준비가 된 합당한 감실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감실을 만드셨다. “하느님, 하느님께서서는 성자의 합당한 거처를 마련하셨나이다.”<sup>6</sup> 하느님 친히 성자의 계획에 따라 만드셨기에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다.”<sup>7</sup>고 말한다. 이는 마리아를 원죄에서 지켜 주시고, 특별한 은총으로 꾸미시기 위해 기적적으로 개입하신 하느님을 뜻하는 것이다. “마리

5. 루카 18,1.

6.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본기도.

7. 요한 1,3.

아의 동정성이 마음에 드셨고, 마리아의 겸손이 마리아를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마리아는 아름다운 자신의 매력 안으로 강생하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끌어당기셨다. “나의 비둘기, 나의 티 없는 여인은 오직 하나.”(아가 6,9) 성령께서도 마리아 안에 풍성하게 내려오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 오시리라.”<sup>8</sup> 마리아는 아가에 기록되어 있듯이 | 그 마음의 정원에 매혹되어 오시도록 덕행의 향기로 사랑하는 분을 끌어당기셨다.

나) 영적 기도와 염경기도로. 교부들과 박사들은 마리아가 당신의 기도로 구세주께서 오시는 시간을 앞당기셨다는 데에 일치한다.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마리아는 당신 안에 세상의 세 시대, 곧 구약성경을 통해 펼쳐지는 예수님 이전 시대, 예수님과 함께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곧 교회 안에 접목되어 시작된 시대를 품어야 했다. 마리아는 구약에서 간택된 사람들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신 그분께 목자들과 동방박사들, 성 요셉과 함께 흠숭을 드렸으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는 교회에서 가장 거룩하신 분, 가장 존경받는 분이 되셨다.

준비기간에 드러난 마리아의 직무가 더 두드러진다. 구세주의 기다림은 유다 백성의 한결같은 관심사였다. 때가 찰수록 그 관심사는 한층 더 생생해졌다. 그러나 가장 큰 특혜를 입으신 마리아는 히브리인 가운데 그 누구도 뒤따를 수 없었다. 마리아는 그 모든 사람보다 더 간절히 구세주를 기다리셨다.

8. 루카 1,35.

성전에서 배운 성경 주석은 메시아의 위대함과 더불어 사람들 중에서 으뜸인 마리아 자신의 승고하고 아름다운 사명뿐 아니라 그의 전망을 폭넓고 새롭게 열어주었다. 인류가 빠졌던 오류와 악습, 우상숭배의 깊은 나락을 마리아는 이해했다. 마리아는 구세주께 성조들보다 더 힘차게 간구하셨다. “오소서, 늦지 마소서. 오시어 당신 백성을 구하소서.” 이 목소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더욱 힘을 실어드렸고, 성자의 강생을 앞당기게 했다. 기도는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과 순결과 애덕에서 출발할 때 천상 아버지의 마음을 더 온전히 사로잡는 힘을 지닌다. | 하늘은 이 같은 마리아의 애원에 응답한다. 어느 날, 58 마리아가 영혼을 더욱 드높여 청원을 드리며 그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때,<sup>9</sup> 대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은총이 가득한 이여 ... 기뻐하여라. 너에게서 태어나시는 분은 거룩하신 분이라 불릴 것이다.”<sup>10</sup> 하고 인사한다. 마리아의 기도의 무게는 하나님 저울의 추가 자비 쪽으로 기울게 했다.

기도는 설교자, 저술가, 교사, 교리교사, 선교사, 강사 ... 활동과 말, 저술과 출판 사도직을 수행하는 모든 이에게 항구함과 효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사도직이다. 그리하여 성 바오로는 테살로니카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3,1)에 이렇게 썼다. “형제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서처럼 빠르게 퍼져 나가 찬양을 받고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 설교자가 매우 겸손한 사람과 이러한 약속을 했다. “내

9.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는 말은 오래 잡혀 있었다는 뜻과 상통한다.

10. 루카 1,28 이하 참조.

가 설교하는 동안 그대는 내 설교가 회심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모든 사람의 사도직

기도 사도직은 단순하고 쉬우며, 모든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하는 사도직이다.

많은 고해사제, 선교사, 저술가, 주교는 선행과 기도를 바치며 탄원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진다. 그들은 일하고 투쟁한다. 이들은 고독 가운데, 또는 수도원에 있으면서 산 위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하늘을 향해 마음으로 팔을 벌리고 서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기도 사도직은 잘 조직된 단체처럼 광범위하게  
**59** | 퍼져나갔다.<sup>11</sup> 가톨릭 세계에 널리 퍼져 가입자가 몇 백만에 이르렀다. 열심한 사람의 기도가 그토록 큰 효력을 지닌다면 한마음으로 청하는 많은 사람의 기도는 얼마나 큰 효력을 지녔겠는가!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이든 청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마태 18,19) 예수 성심의 갈망과 심려가 이룩되기를 바라는 이러한 단체는 다음과 같은 봉헌기도를 바친다. “예수 성심이시여, 마리아의 티 없는 성심과 일치하여 제 모든 기도와 활

11. 기도 사도직은 1844년 예수회 라미에르 신부가 프랑스에서 시작한 운동으로 그 조직이 널리 퍼졌고, 이를 교황 비오 9세가 승인했다. 정보지 「예수 성심의 배달부」가 그 가르침과 보급을 촉진했다. 몇 백만의 사람들이 알베리오 네 신부가 아침마다 바치던 기도 “예수 성심이시여...”를 날마다 봉헌하며 실천했다.

동과 고통을 우리 제대 위에서 계속 당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지향과 함께 바칩니다. 특히 이 달과 오늘, 기도의 사도직 회원들에게 권고하신 지향에 따라 이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인류의 절반 이상이 아직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기쁜 소식이 아직 많은 사람의 귀에 울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인류가 처했던 똑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느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발전하고, 양떼가 하나 되고, 목자가 하나 되도록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라.

오, 주님, 어서 오소서. 오시어 가톨릭교회의 사명을 축복 하소서!

나자렛의 어린 아이 마리아, 성전에 있는 소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큰 신비 속에서 성령의 활동을 자신의 영혼에서 점점 더 확실하게 의식한 소녀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자.

## 7. 모범의 사도직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도록,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저마다 이웃이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당신 좋으실 대로 하지 않으시고 ...

(로마 15,2-3)

### 모범의 사도직이란?

성 비오 10세는 이렇게 말한다. “활동의 사도직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려면 하느님의 은총이 필요하다.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은총을 받지 못한다. 오로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습을 갖추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과 사회에 예수님을 쉽게 내어줄 수 있다. 사도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참된 심신을 지녀야 한다.”<sup>1</sup> 또 위대한 교황 비오 10세는 계속해서 “우리의 정신을 먼저 거룩한 행위로 다스리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게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사도직을 위해 자신을 봉헌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의 얼룩에서 완전히 벗어난, 참으로 훌륭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성녀 데레사는 이렇게 썼다. “덕스럽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박학다식하고 활동적이면서도 영적으로는 단순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한다.”

1. 비오 10세 교황의 회칙, 『확고한 목적 *Il Fermo Proposito*』, 1905년.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마리아는 자신의 덕행의 향기로 사람들을 끌어당기신다. “신자들은 뽑힌 이들 공동체에서 덕행의 모델로 빛나는 마리아를 바라본다.”(『교의현장』, 65항)

아버지를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신 진정한 사도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사도를 위한 길이요 귀감이요 원칙이시다. | 거룩한 **61**  
복음은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셨다.”<sup>2</sup>고 말한다.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그 다음에 선포하셨다. 곧 먼저 실천하신 다음 권고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들을 빛과 소금에 비유하셨다.

사도는 자신이 거룩해지는 만큼 소금이 된다. 소금이 되지 못하는 사도는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것이다.

경건하고, 덕스러우며, 참된 소금과 같은 사도는 사람들의 영혼을 타락에서 구할 것이다. 사도의 삶과 귀감은 많은 사람의 길을 비추는 등대와 같다. 참된 “세상의 빛”<sup>3</sup>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행복” 선언에서 표현하신 이상을 환히 비추어 줄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실천적 삶으로 신앙인을 이끄는 것은 분명 가르치는 사람이 지닌 덕행의 힘이다. 아름다운 말보다 훌륭한 귀감의 불꽃이 필요하다. 스승 예수님께서서는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sup>4</sup> 하고 말씀하셨다.

2. “face e insegno”라는 말은 사도행전에 나온다. 불가타 번역본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Coepit facere et docere.”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 사도 1,1)

3. 마태 5,14.

4. 마태 5,16.

성 그레고리오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은 위대한 덕행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바오로는 사랑하는 두 제자 티토와 티모테오에게 좋은 본을 보이라고 자주 권고한다. “그대 자신을 모든 면에서 선행의 본보기로 보여주십시오.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sup>5</sup> 동시에 “나에게서 본 것을 그대로 실천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sup>6</sup> 라며 믿는 이들을 초대한다.

## 결 실

와이즈맨 추기경의 「파비올라*Fabiola*」<sup>7</sup>를 보면 그리스도교는 62 토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선, 인내, 선행의 모범을 통해 더 잘 전파되는 것이 분명하다.

귀감은 의지에 큰 힘을 발휘한다. “말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지만 행동은 사람들을 끌어당긴다.”<sup>8</sup> 본당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전문가들, 성실한 노동자, 진실한 그리스도인 부모들의 모범적 행동은 감탄과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나,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위선과 부도덕함, 무절제한 삶은 교회

5. 참조 : 티토 2,7; 1티모 4,12.

6. 참조 : 필리 4,9; 1코린 11,1 참조.

7. 웨스트민스터 대교구의 대주교 니콜라스 패트릭 와이즈맨(1802-1865)이 1854년에 쓴 역사순교소설.

8. “Verba movent, exempla trahunt.” 본보기가 되는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뜻의 고대 라틴어 속담.

의 추문이요 불명예다.

반면에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감탄스런 삶은 세기에 걸쳐 영원히 지속되는 설교다.

동정녀들은 마리아의 원죄 없는 삶의 향기를 지닌다. 이러한 동정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동정의 삶을 택한 수녀들이 8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치는 알베리오네 신부가 이 책을 쓸 무렵인 1940년대의 통계다. 2019년 교황청 연감에 따르면 64만8천9백 명에 이른다. - 옮김이) 마리아는 동정녀의 모후 Regina Virginum 이시다.

고해사제들은 마리아에게서 기도와 믿음과 자선의 정신을 배운다. 마리아는 고해사제의 모후 Regina Confessorum 이시다.

순교자들은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고통받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았다. 마리아는 순교자의 모후 Regina Martyrum 이시다.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받아 열정으로 불타오른 사도들은 세상을 두루 다니며 그들이 선포하는 말이 널리 메아리치게 했다. 마리아는 사도들의 모후 Regina Apostolorum 이시다.

## 귀감의 사도 마리아

마리아의 생애에서 특별히 부각된 모습은 겸덕과 애덕이다. 겸덕은 주님 탄생 예고 때 잘 드러나고, 애덕은 성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잘 드러난다. |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사랑 63  
이 있는데, 이는 찬가 “마니피캣”에서 그 표현이 절정에 이르며, 사랑으로 생을 마무리한 마리아의 죽음이 이를 완성한다.

마리아의 생애는 믿음의 삶이었다. 그러기에 성녀 엘리사벳

은 “믿으셨기에 복되십니다.” 하며 마리아가 복되신 분이심을 선포했다.

마리아의 삶은 사랑으로 가득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마리아의 삶은 노동하는 삶이었다. 나자렛의 작은 집에서 강인하고 부지런하며 지극히 섬세한 여인으로 사셨다.

마리아의 생애는 인내하는 삶이었다. 일곱 가지 고통의 시련을 겪으셨다. 갈바리아의 마지막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동정녀들 가운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지극히 순결하신 어머니, 지극히 지혜로우신 동정녀, 관대하신 동정녀, 믿음이 충만하신 동정녀, 성덕의 귀감, 참 신심의 귀감, “모든 성인의 모후”이다. 마리아는 모든 덕행에서 성인들을 앞섰고, 성인들 각자가 행한 덕행을 모두 실천하셨다. 성인들, 가장 뛰어난 성인들이 몰라서 실천하지 못했던 여러 덕행까지 모두 실천하셨다.

마리아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로, 깊은 종교심으로, 겸손으로, 고유한 사랑스러움으로, 뒤로 물러섬으로, 늘 한결같이 과묵하며 기쁘고 사랑스러운 겸손으로 모든 덕을 실천하셨다. 마리아는 거룩한 생각, 실천적 덕행, 드높은 갈망에서 우리나라의 특별한 태도를 지니셨다.

귀감은 평소애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삶을 통한 무언의 설교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자기 방에 혼자 있

을 때도 마치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고, 늘 그렇게 살았다. | 그가 64  
 설교한 것을 본인이 그대로 실천하는지 언제나 볼 수 있도록  
 그의 방 벽에는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었다. 성당에 있을 때  
 나 대화할 때나 사람들과 음식을 함께 나눌 때나 그의 행동은  
 늘 한결같았다. 아무리 고결한 외적 행위도 사람들의 영혼을  
 성장시킬 수 없다. 오직 신념과 내적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것  
 이어야 한다.

공심판이 벌어질 어느 날, 하느님의 큰 빛 속에서 모든 사  
 람은 자기가 행한 모든 것, 자기의 모든 행동을 보게 될 것이  
 다. 모든 말과 행동 하나 하나, 모든 생각과 마음속 느낌까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 베르나르도는 “어디서나 너답게  
 처신하라.”고 말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위선자는 배신행위를 감출 수 없을 것이다. 하느님은 마음속  
 을 꿰뚫어보신다. 모든 것이 하느님께 알려진다. 어느 날, 사  
 실을 숨기거나 속인 이들은 큰 수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참으로 덕스러운 사람만이 덕스럽게 나타날 것이다.

## 모든 이의 사도직

성 바오로는 설교하는 내용과 다르게 행동하는 이를 심하  
 게 책망한다. 형제들의 잘못을 단죄하면서 자신도 똑같은 악  
 을 저지르는 것을 엄하게 꾸짖는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이웃에게는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위선자들에게 이렇게 말한  
 다. “아,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 변명의 여

지가 없습니다. 남을 심판하면서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있으니, 남을 심판하는 바로 그것으로 자신을 단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에게 내리는 하느님의 심판이 진리에 따른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한 짓을 저지르는 자들을 심판하면서도 스스로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여, 그대는 하느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로마 2,1-3)

- 65 우리는 자신이 보여지는 모습대로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적 삶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내적 삶은 하느님께 대한 신앙과 덕행과 사랑에 진보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이다.

첫째가는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길 바라신다. 이는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들도 우리 영혼을 더 잘 돌보라는 것이다. 우리의 열정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사랑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다.”<sup>10</sup>

성 알폰소 데 리구오리는 이렇게 썼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영혼들, 무엇보다 내 영혼을, 그 다음에 수많은 이웃의 영혼을 데려가려는 갈망으로 불타오릅니다.” 이는 또한 성 베르나르도가 가르친 실천적 교훈이기도 하다. “자기를 돌볼 줄 모르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 베르나르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자신이 먼저 실천했다. 그의 전기를 쓴 비서 고프레도 Goffredo는 그에 대해

10. “Prima sibi caritas.”

이렇게 말했다. “그는 모든 것을 먼저 자신을 위해 했고, 그런 다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했습니다.”<sup>11</sup>

성 베르나르도는 에우제니오 3세 교황에게 이렇게 썼다. “교황님이 하시는 일이나 직무에서 온전히 물러나시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교황님께 권고를 드립니다. 그런 것들에 빨려들지 않도록 하시라는 것입니다. 교황님은 온 세상을 위한 분이시니, 먼저 교황님 자신이 되셔야 합니다. 모든 이를 사로잡으려다가 교황님 자신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황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모든 이가 교황님의 샘으로 물을 마시러 올 것이므로, 먼저 교황님 자신이 그 샘물을 마시십시오. 교황님 자신은 목이 말라서야 되겠습니까? … 교황님의 모든 목상이 교황님 자신에게서 시작하여 교황님 안에서 마무리되게 하십시오. 교황님 자신이 첫째요 마지막이 되어야 합니다. 교황님을 구원하는 일에 성모님의 외아드님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은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관대한 모든 사도는 자기가 먼저 목상한 다음에 다른 이들 66에게 설교하거나 훈화해야 한다. 먼저 자기 행동을 바로잡은 다음에 다른 이들을 바로잡아야 한다. 먼저 하느님과 긴밀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른 이들과 대화를 나누며 훈계할 수 있다. 내적 삶이 먼저고, 외적 삶은 그 다음이다. 먼저 뒤로 물러서서 피정을 한 다음에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

먼저 자신을 위해 고해성사, 월피정, 대피정, 미사, 목상,

11. “Totus primum sibi et sic totum omnibus.”

영성체, 성체방문, 묵주기도 등으로 규칙을 세워놓은 다음,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어떤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양성해야 한다. 내어 주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무엇인가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가르치려는 사람은 먼저 배워야 한다.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루카 2,35)

### 고통의 사도직이란?

고통의 사도직은 거룩한 갈망, 기도, 좋은 귀감의 사도직의 화관이며 완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수난과 죽음으로 당신 삶을 마감하셨다. 예수님의 귀감을 따르는 성인들은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페이버 신부는 “고통은 가장 큰 성사”라고 했다. 깊이 있는 이 신학자는 고통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그 고통에서 영광을 이끌어낸다. 그러므로 그가 다룬 모든 주제는 행동이 가져다주는 풍요로움에 적용할 수 있다.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 된 사도직의 희생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한다. 우리의 한숨과 눈물이 예수님의 고뇌와 죽음을 눈앞에 둔 변민과 하나 될 때, 우리의 한숨과 눈물은 거룩한 힘을 얻게 된다.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 자신이 옛 시대의 모든 희생자를 대신하는 희생 제물이요 봉헌임을 보여주신다고 말했다. “보소서, 제가 왔습니다. … 저는 당신의 뜻을 즐겨 이룹니다.”(시편 40,8-9) 이 행위는 평생 변함이 없고,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되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희생하는 순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룩한

- 68 갈망을 지니셨다. |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 동안에도 “세상에 생명을”(요한 6,51) 주시기 위해 당신이 마셔야 하는 수난의 잔을 미리 맛보셨다.

마리아는 순교자의 모후이시기 때문에 고통의 사도이시다.

## 결 실

어느 날, 몹시 낙담한 사목자가 아르스의 본당신부 요한 마리아 비안네에게 자신의 근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자기 본당에 대해 말했다. 본당 활성화를 위해 기울인 자신의 많은 노고에도 결실을 맺지 못하니 실망에 빠져 이제는 그 본당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커진다고 성인에게 털어놓았다. 성인은 몇 마디 위로를 한 다음, 그 사목자의 영혼을 꿰뚫는 물음을 던졌다. “신부님, 당신은 얼마나 자주 단식했습니까? 휴식시간을 얼마나 줄였습니까? ... 이러한 수단들을 활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실과 위안을 안겨줄 것입니다.”

영혼들의 속죄와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의 고통만으로도 충분하고 완전하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머리이신 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신비적 지체들인 우리에게는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여전히 필요하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고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하지만, 여러 지체 안에서는 그 고통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머리가 되어 앞서 가신 그리스도를 지체들이 따라가야 합니다.”라고 단언하였다.

이것이 바로 성 바오로가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스도의

환난에서 모자란 부분을 | 내가 이렇게 그분의 몸인 교회를 69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우고 있습니다.”(콜로 1,24)

모든 사도가, “이 몸은 바로 나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고통의 부족한 부분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안에서 완성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고통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구나 바칠 수 있는 사도직이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통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은 가장 효과적인 사도직이다. 인내하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이처럼 필연적인 고통은 종종 덕이 된다.

고통은 이름뿐인 사도와 참된 사도를 구별하게 해 준다.

하나님은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희생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길 바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 생애는 십자가요 순교였다.”<sup>1</sup>

동정 마리아는 구유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동반하셨다. 성 리구오리는 동정 마리아의 순교는 가장 긴 순교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지향과 목적,<sup>2</sup> 내적 태도는 예수님의 지향과 목적, 내적 태도와 흡사했다고, 아니 똑같았다고 말한다.

## 귀감의 사도 마리아

“오, 동정 마리아님, 시메온이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했을

1. “Tota vita Christi crux fuit et martyrium.” 「그리스도를 본받아」, 제2권 12장 “왕도인 거룩한 십자가”, 3번.

2. 계획, 목표, 의도.

때 당신 마음에 꽂힌 그 고통의 칼을 기억하시어, 참회의 칼로 저희 마음에 고통을 주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당신이 이집트로 가는 길을 걸어가셔야 했을 때 겪으셨던 고통을 기억하시어, 추방된 당신 자녀들  
70 인 저희를 어둠에서 | 광명으로, 영원한 본향의 찬란한 빛으로 이끌어 주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3일 동안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성전에서 찾으신 고통을 기억하시어, 저희도 언제나 그리스도를 목말라하며, 언제 어디서나 그분을 찾게 하시고, 예수님을 찾는 저희가 승리의 화관을 얻게 하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결박되어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을 쓰셨을 때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시어, 당신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저희 죄악의 사슬을 끊어 주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아버지께 당신 영혼을 돌려 드리셨을 때 겪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시어, 저희도 십자가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처에 참여하게 하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깊은 흠숭 가운데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당신 품에 안겼을 때 겪으신 그 고통을 기억하시어, 저희가 당신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당신 품에 저희를 안아 주소서.”

“오, 동정 마리아님, 아마포로 싸 예수님을 무덤에 모셨을 때 당신이 겪으신 고통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피로 저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저희가 죽음을 맞이할

때 저희 앞에 천국문이 열리도록 진정한 통회의 마음을 저희 안에 불어넣어 주소서.”

마리아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다. 마리아의 고통은 순교자들의 고통보다 더 강렬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셨기에 고통을 받으셨다. 사랑의 깊이는 고통의 깊이와 같다.

교회는 예레미야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언급한 것을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도 적용한다. “이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여, 잠시 멈추어 내가 겪는 고통과 같은 것이 또 어디 있는지 살펴 보시오.”<sup>3</sup>

마리아의 순교는 한층 더 강렬했다. 그것은 그분의 민감한 71 감수성, 뛰어난 성덕, 하느님에 대한 많은 지식, 완덕, 하느님을 모독하는 것에 대한 깊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리고 마리아의 순교가 더욱 강렬했던 것은 예수님께 대한 열렬한 사랑에서다. 이러한 사랑의 불꽃이 강렬하게 타오를수록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칼날은 더욱 예리하고 날카로워졌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같은 사랑을 드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께서 마리아를 당신 외아드님의 어머니로 택하셨을 때부터 마리아의 마음에 대단히 강렬한 불꽃이 타오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불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원에서부터 당신 아드님을 위해 지니셨던 것과 같은 사랑의 불꽃이었다.

3. “O vos omnes qui transitis per viam attendite et videte si est dolor sicut dolor meus.”(애가 1,12)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저녁기도 후렴 참조.

## 인내롭게 예수님을 따른 마리아

이 불꽃은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피난하는 가운데, 나자렛에서, 그리고 아드님의 수난을 향해 계속 타올랐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당신 아드님으로만 아니라 하느님으로 사랑하셨다. 마리아는 가장 거룩한 마음으로 모든 것에 앞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

보쉬에는 이렇게 말한다. “동정 마리아께서 순교하기 위해 장작더미에 불을 붙일 필요가 없다. 사형집행인들의 날카로운 칼이나 박해자들의 분노를 키울 필요도 없다. … 마리아가 사랑하는 분과 십자가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오, 영원하신 아버지, 마리아가 상처로 뒤덮이길 바라십니까? 마리아가 당신 아드님의 상처를 보게 하소서. 마리아를 십자가의 발치로 이끌어 가소서. … 채찍질이 예수님의 몸에 깊은 상처를 낼 때 마리아는 그 상처를 더욱 생생하게 느끼십니다. 가시관이 예수님의 머리를 찌르면 마리아는 더 혹독한 고통을 받으십니다.

72 예수님께 식초와 쓸개즙을 드리면 마리아도 | 똑같이 식초와 쓸개즙을 맛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실 때 마리아는 그 모든 고통을 오롯이 받으셨습니다. …”

순교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지만,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증폭시킬 뿐이다.

이 때문에 성 베르나르도는 마리아를 순교자일뿐 아니라 “순교자를 넘어선 분”<sup>4</sup>이라고 했다.

성 베르나르디노는 이렇게 썼다. “마리아가 받은 고통을 모든

4. “Plusquam Martyr.”

사람이 나누어 받는다 해도 모두 죽을 만큼 격심한 것이었다.”

성 일테폰소는 마리아의 고통은 순교자들이 당한 모든 고통은 능가한다고 했다. 성 아우구스티노도 순교자들의 고통은 마리아의 고통에 비하면 아주 가벼운 것이라고 했다. “순교자들의 육신에 가해진 그 어떤 잔혹함도 마리아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나 아주 가벼운 것이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는 반대받는 표적이다. 적대자들의 분노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를 거슬러 그분을 겨냥한다. “너희는 세상에서 이리 떼 가운데 있는 양들과 같으리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사람으로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sup>5</sup>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거룩한 모성애에 결합된 고통을 받아들이셨다. 의로운 시메온이 마리아의 영혼이 칼에 찢리듯 아플 것이라고 예언했을 때, 마리아는 머리를 숙이며 사람들의 구원과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준비하는 일에 온전히 응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 승리하셨다. 예수님은 “...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sup>6</sup> 하고 가르치셨다. 중도란 없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하느님과 함께하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복음과 하느님을 거슬러 가는 것이다.

5. 참조: 마태 10,16; 요한 15,18-19.

6. 요한 16,33.

## 모든 이의 사도직

성 야고보는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는 자는 하느님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야고 4,4)라고 말한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시험해 보는 것은 무익한 일이다. 악마와 놀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즐겁게 지낼 수 없다.

주님은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에 대해 하나니아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도록 내가 선택한 그릇이다.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sup>7</sup>

발전소가 모든 지역에 빛과 전력을 보내는 것처럼 고통의 사도직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속죄, 보속, 날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일 이상으로 세상의 선을 위해 공헌하는 것이다. “인내가 자만보다 낫다.”(코헬 7,8)

성 베드로는 이렇게 말한다. “선을 행하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을 견디어 내면, 그것은 하느님에게서 받는 은총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시다.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면서,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본보기를 남겨 주셨습시다.”<sup>8</sup>

### 74 짧은 생을 마감한 가르멜회의 가난한 아기 예수의 성녀 데

7. 사도 9,15-16.

8. 1베드 2,20-21.

레사는 교회의 선교 수호자로 선포되었다. 인도의 선교사였던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된 것인데,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는 행동하는 사도였고, 성녀 테레사는 고통의 사도였다. 성녀 테레사는 예수님에게서 매일 매 순간 선교를 위해, 사람들의 영혼과 사제들을 위해 내적 외적 고통을 봉헌하는 법을 배웠다.

누구나 그 성녀를 본받을 수 있다.

파리 신학교 학생들의 영적 지도자였던 한 사제가 어느 날 중국인의 방문을 받았다.

그 방문객은 이렇게 말했다. “저는 무신론자 협회 회장입니다만, 가톨릭이라는 종교에 대해 가르침을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먼저 말해줄 것이 있는데 저는 개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중국으로 돌아가 당신네 종교에 대해 더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제는 잠시 생각한 다음 공부 시간과 기간을 정했다. 그리고 사제는 그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몇 주 전부터 심한 병마에 시달리는 신심 깊은 아가씨를 찾아가 그 고통을 무신론자의 회심을 위해 바쳐 달라고 부탁했다. 그 환자는 이를 기쁘게 받아들이며 자기 생명까지 바쳤다.

여러 차례 수업을 하던 사제는 중국인의 회심에 대해 회의가 들기 시작했다. 그가 점점 더 완고해져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며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1시쯤, 사제관의 초인종이 울려 현관문을 열던 사제는 몹시 초조해하는 그 중국인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75 “신부님, 저는 이제 더는 제 양심의 소리에 저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하루 빨리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교리를 더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되자 대화가 매우 길어졌다.

다음 날 사제는 기도를 부탁받았던 환자가 그 전 날 저녁 10시 무렵 선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제는 무신론자인 그를 위해 생명을 바친 젊은 아가씨의 죽음에 대해 사실대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 은총이 누구의 덕분인지 분명하게 깨달았다.

몇 년 후, 가톨릭 신자로 다시 태어난 그는 고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며, 자신의 모범을 따라 선교사들의 권고에 귀 기울일 것을 권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 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루카 1,39-41)

## 선행

선행에는 거룩한 갈망의 사도직, 기도의 사도직, 좋은 귀감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 그리고 (선행) 활동의 사도직이 따른다.

귀감의 사도직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며 설득한다. 선행의 사도직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좋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려면 우리의 고민에 대해 함께 공감하며 필요한 도움을 받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예수님은 많은 선을 행하셨다. 육신의 질병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질병과 연관된다.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 병자들과 중풍 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마태 4,24)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지극히 온화하신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신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이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다. 77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루카 6.19)

당면한 삶에 대한 걱정에 짓눌리고 질병이 있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배가 고프는 사람에게 영적 양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양성시키셨고, 예수님은 충실하게 받아들이셨다. 마리아는 선행의 사도이시다.

### (선행) 활동의 사도직

하느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지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학교, 단체, 전례, 환자들, 그리스도교 가르침, 사명, 수도회, 출판물 위해서는 물질적 재화와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일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아 마땅하다. 제대에서 봉사하는 이는 그 봉사의 대가로 살아야 한다. 사실 성 바오로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에서 봉직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양식을 얻고, 제단 일을 맡은 이들은 제단 제물을 나누어 가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복음으로 생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sup>1</sup> 관대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마태 5.7) 한편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는 가차 없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야고 2.13) 금전적인 기부가 좋은 일임을 우리는 안다. 그러나 더 좋은 일은 선행을 하는 것, 희생하는 것, 병자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 하느님

1. 1코린 9.13-14.

말씀을 전하는 것, 무지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 하느님 말씀을 인쇄하여 보급하는 것, 교육적이고 종교적인 영화를 제작하여 상영하고, | 상본과 성물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것이 78  
다. ... 선행은 모든 필요를 채워준다.

### 은총을 베푸시는 마리아

예수님은 30년 동안의 사생활 후에 공생활을 시작하셨다. 예수님은 요르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단식하신 다음, 첫 제자들을 모으셨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

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요한 2,1-11)

- 79** 마리아는 신랑신부의 친척이나 친지로서 그들의 초대를 받아 혼인 잔치에 가셨다. 여기서도 마리아는 섬김을 받기보다 봉사할 일을 찾으셨고, 특히 예수님과 제자 일행이 도착한 다음에는 결혼 잔치를 적극 도우셨다. 그러므로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아차린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마리아는 그 가족이 겪을 난처함을 눈치채자 곧바로 움직이셨다. 당신 아드님의 신원을 알고 계셨던 마리아는 예수님께 기적을 청하셨다.

모든 것이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조용하게 진행되었다. 몇 마디 말과 아름다운 기도가 뒤따랐다.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소란스러움이나 특별한 움직임은 없었다. 마리아의 품위 있는 말과 조용한 움직임은 그 영혼의 고결한 품위를 드러낸다. 또한 모든 것은 마리아 자신이 아니라 그 가족을 위할 것임이 드러난다.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자 잔치는 기쁨 속에서 계속되었다.

이처럼 선행과 자선의 사도직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도와주며, 자선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여종으로 선포되었으나, 그분의 선한 행위는 하느님 종들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마리아는 사람

들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들과 당신 아드님의 형제들을 보신 것이다. 이처럼 더없이 숭고한 선행의 귀감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

마리아는 카나에 앞서 친척 엘리사벳의 집에서 경건하며, 집안일에 헌신하는 여인으로 드러나신다. 마리아는 모든 이를 위해 어머니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행위로, 아주 작은 그러나 꼭 필요한 이웃의 어려움을 알아채고 재빨리 도와주기 위해 마음 쓰신다.

기적을 이끌어내신 마리아의 애덕은 | 제자들과 잔치 손님 80  
들이 예수님을 참 메시아요, 참 하느님으로 믿게 하는 초자연적 목표를 이룬다. 마리아는 물질적 자선을 통해 영적 자선을 목표로 삼는다.

교회의 적대자들은 흔히 자기들을 민중의 친구라고 말한다. 그들은 재물을 건네며 참으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하지만, 결국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재화인 신앙을 앗아가 그리스도교적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을 분열시키는데 이는 죄악이다.

## 결 실

성 요한 사도는 말한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요한 3,18)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면서 선행의 사도직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다른 기적, 곧 모든 세기에 걸쳐 성인들이 행한 “이웃 사랑의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있다.

이러한 기적은 진리를 믿게 하며, 교만에 찬 이들을 굴복시킨다. 가톨릭이 운영하는 단체들에는 병원, 요양원, 가정 방문 등의 조직과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환자 돌봄과 여러 가지 자선 활동의 사도직이 있다.

막달레나, 더 정확히 말해 베타니아의 라자로의 동생 마리아<sup>2</sup>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닦아드리자 누군가가 돈을 낭비한다고 투덜거렸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변호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을 테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 해 줄 수 있다.” 하느님을 찬미하기  
**81** 위한 헌금과 | 가난한 이들을 돌보기 위한 헌금은 모두 좋은 일이며 합당한 일이다.

선행의 목적은 이중적이다. 곧 사람들의 영혼을 돕고 몸에도 유익하다. 예수님은 치유를 통해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혈루증을 앓는 여인, 가나안 여자, 벧자타 못가의 증풍병자가 좋은 예다.

육신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을 주라. 환자들의 영적 돌봄이 육체적 돌봄으로 연결되어 하나가 되게 하라. 그뿐 아니라 고아와 노인들에게 종교교육을 하라. 예수님은 빵을 많게 한 다음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하늘나라의 빵인 성체성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가톨릭 신자들은 교회가 원하는,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사회 자선단체에 가입할 것이다.

또한 선거할 때에는 교회를 존중하고 자유롭게 하는 이들을

2. 요한 12,1-8; 참조: 마르 14,3-9.

뽑을 것이다.

## 모든 이를 위하여

교황 비오 11세는 가톨릭 사도직회 창립자 성 빈첸시오 팔로티<sup>3</sup>를 “가톨릭 활동의 선구자”라고 했다. 팔로티는 열렬한 자선 행위를 통해 가난한 이들의 빵, 목마른 이들의 물, 헐벗은 이들의 옷,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 듣지 못하는 사람의 귀가 되길 바랐는데 … 그 모든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자선은 가장 가까운 친척, 가족,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한다. | 사도는 말한다. “어떤 사람이 자기 82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믿음을 저버린 자로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티모 5,8)

신앙에 이르게 하는 마음의 길은 위대하다.

자신을 가톨릭 신자라고 하면서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의 신심은 헛된 것이다.”<sup>4</sup>

그리스도교의 적대자들도 사랑을 통해 참 그리스도인을 알아본다.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성스러운 무엇인가가 배어 나오기 때문이다.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시는데, 그 ‘하느님은 사랑이시다.’<sup>5</sup>

3. Vincenzo Pallotti(1795-1850), 1963년에 시성됨.

4. 야고 1,26.

5. “Deus caritas est …”(1요한 4,8).

할 수 있는 만큼 내어 주어라.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sup>6</sup> 사람들이 내어 놓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서 가난한 이에게 주어라. (물질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동정심, 조언, 위로의 말, 미소, 기도, 고통, 믿음을 주어라. ... 모든 그리스도인은 마음속에 모든 부를 능가하는 훌륭한 재물을 지니고 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여 고통 받는 이에게 그 믿음을 나누어야 한다.

주 하느님, 겸손되이 비오니,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언제나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복되시며 평생 동정이신 마리아의 전구로 저희가 이 세상의 슬픔에서 벗어나 하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

6. “Quod superest, date pauperibus.” 마태 19,21; 루카 18,22.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루카 2,22-23)

## 희생 제물 준비

주님 탄생 예고 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속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자시고 마리아는 공동구속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에페 1,7-8) 달리 말하면, 원수였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화해를 이루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우리의 화해는 마리아께 달려 있다. 마리아는 우리를 늘 당신 곁에 두고 영적으로 지켜 주시며, 지극히 고통스러운 순간과 날들을 지내시는 가운데, 특히 갈바리아에서 겪으셔야 했던 그 고통의 시간에 당신이 하셨듯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게 하시고, 마음과 영혼이 꺾일리는 그 고통에 우리도 영적으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구원사업에 전념하는 모든 행위에 늘 함 84

께하셨다. 마리아는 지극히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 그 자체로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지만, 하느님의 구원경륜과 일치함으로써 마리아는 영원한 구원의 주역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을 따르신다.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우리의 희망이시여!”

### 마리아는 어떻게 일하셨나?

강생으로 희생 제물인 성체가 준비되었다. 이에 성 바오로는 말한다. “...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까닭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실 때에 [당신의 영원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제물과 예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히브 10,5 참조) 이 말씀으로 구약시대의 희생 제물은 폐기되고, 새롭고 거룩하며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희생 제물이 마련된다. 이 희생 제물은 마리아의 의지와 활동의 참여로 마련된 것이다.

마리아는 자유롭고 사랑스러운 의식적인 행위로 동의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시며 사람이신 예수님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구원사업을 가능케 하셨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이러하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 85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루카 1,26-38)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거룩하신 분, 메시아, 구원자, 새로운 임금이 되어야 하는 분임을 알았다. 그분이 세상에 태어나 아버지께서 아드님에게 맡기신 사명을 수행하도록 동의하는 것은 온전히 마리아에게 달려 있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마리아의 자유를 존중하셨다.

우리 또한 하느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자유롭게 동

의할 수 있다! 마리아는 당황하며 설명을 부탁했지만, 곧바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셨다.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의 구원은 마리아께 달려 있다. 성 베르나르도가 마리아께 건넨 말에 귀 기울여 보자.

“보십시오, 당신께 우리 구원의 대가(代價)가 제안됩니다. 당신께서 동의하시면 저희는 곧바로 해방될 것입니다. 영원한  
86 말씀으로 창조되었는데도 저희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라는 당신 응답은 저희에게 생명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인류, 곧 아담, 아브라함, 다윗, 등의 성조들을 뒤이은 인류가 당신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의 ‘예’라는 응답을 애원하듯 간구합니다. 오, 마리아님, 지체하지 말고 오시어 천사에게 응답하소서. … 모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의 임금이며 주님이신 분께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사랑하여 천사를 통해 당신께 간청합니다. 당신의 ‘예’라는 응답에 저희 구원이 달려 있습니다.”<sup>1</sup>

마리아의 활동이 여기서 멈추었다 해도 마리아는 이미 공동 구속자, 하느님 영광의 사도, 인류의 모든 선과 영원한 구원의 사도가 되셨을 것이다. 그러나 마리아의 활동은 계속되고, 간택된 이들의 수효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이어짐을 우리는 보게 될 것이다.

## 마리아의 활동

마리아를 보라! 마리아는 관상의 삶과 활동의 삶을 일치시

1. 담론 “In adventu Domini, Super Missus est.”

키신다. 마리아는 활동에서 오는 노고를 신비적 일치의 기쁨과 하나 되게 하신다. 기도에 활동을 결합시키신다. 성 바오로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2코린 12,15)라고 하였다.

영혼은 관상으로 양육되고, 사도직으로 자신을 내어 놓는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한다. “그저 타오르는 것보다 빛을 밝히는 것이 더 위대하듯, 오로지 관상하는 것보다 관상한 진리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더 위대하다.”

여기서 예수 성심께 가정을 봉헌한 사도 마태오 크롤리 신부의 생각을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것은 놀라울 만큼 마리아께 잘 적용된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가득한 성작입니다. | 그 넘치는 은총은 사람들의 영혼 위 87  
에 부어졌습니다. 마리아의 성심은 하느님으로 가득 찼고, 마리아는 사악한 욕정으로 괴로워하는 인류에게 하느님을 내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탁월한 이 직무는 마리아 자신의 영혼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득이 되었으며, 모든 이의 구원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마음속에 품는 것은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이웃 또한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사를 봉헌하는 사제의 이상은 하느님으로 채워진 다음, 그 충만한 하느님을 영성체를 통해 각 신자에게 온전하게 분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와 사도들은 관상생활과 함께 활동의 삶을 사셨는데,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

성 피에르 크리솔로고는 이렇게 말한다. “형제들이여, 그대

들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천사가 어떻게 여인에게 다가갔는지 들었습니다. … 악마가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와를 유혹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 토마스는 마리아의 피앗이 왜 이치에 맞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는 인간의 내면에서 인성과 신성의 결합인 영적 혼인이다. 마리아는 인류의 이름으로 동의하며 자신을 바치셨다.”

보쉬에는 이렇게 썼다. “하느님께서 말씀의 강생과 인간의 구원을 마리아의 자유의지에 맡기셨는데 이는 과도한 것처럼 보인다! 천사는 마리아의 동의를 구하며 기다리기보다 하느님의 명령을 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방법이다! 하느님은 인간에게 지성과 의지를 주셨다. 계명, 권고, 각자의 상황에 따른 의무로 인간을 억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구원을 위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을 요청하신다.”

이처럼 인간은 공로를 세워 천국을 얻을 수 있다.

- 88 성 이레네오는 이렇게 표현한다. “하와가 불순종으로 아담을 끌어내려 세상을 파멸시켰듯이,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당신의 피앗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도록 끌어당겨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

오, 피앗: 하느님께 위대한 영광을 드리는 ‘예!’라는 응답이여!

오, 피앗: 죄를 소멸시키는 능력이며, 악마를 이기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다시 열어주는 ‘예!’라는 응답이여.

오, 피앗: 하늘나라를 열어 하느님 아드님이 내려오시게 하는 ‘예!’라는 응답이여!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어 인간 본성을 입고 죽기 위해 내려 오신다.

은총, 성성, 진리, 영광의 모든 선은 마리아의 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졌다. 우리 모두는 마리아께 빛을 지고 있다.

마리아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 선택된 길이었고, 중재자였으며, 은총의 어머니셨다.

교회는 집회서<sup>2</sup> 말씀을 인용하여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모든 인류의 축복을 주셨도다.”(44,15 참조)라고 마리아를 찬미한다.

오, 피앗: 마리아의 사도직의 첫 번째 행동인 ‘예!’라는 응답이여!

마리아는 세상에 구원자 하느님을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도직인가! 앞으로는 마리아의 삶을 ‘마리아의 사도직’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는 마리아의 첫 번째 사도직이며, 다른 사도직도 ‘공동구속’이라는 흐름을 지닌다.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그리고 사도의 모후, 모든 사도의 모후이시다.

이 피앗은 위대한 사랑과 지혜로움으로 영감을 받은 가장 완벽한 사도직, 하느님 뜻에 가장 합당한 응답이다.

마리아는 인류를 위한 봉사에 자신을 내어놓으셨다. 마리아의 위대한 영혼은 인류를 위한 사명에 밀접하게 연결된 거룩한 기쁨, 고통, 시련, 아픔 등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셨다.

오, 피앗: 마리아의 영웅적 행위, 사도적 정신,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라는 응답이여. 89

2. Ecclesiastico: Siracide의 고대 명칭.

## 일합시다!

하느님은 사도직에 대해 얼마나 여러 번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지 모른다! 관대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 “제 마음은 준비되어 있습니다.”<sup>3</sup> 무감각한 마음은 현실에서 게으름과 어려운 일에 대한 도피나 희생의 기회를 피할 구실만을 찾는다. “저는 당신의 종, 당신 여종의 자녀입니다.”<sup>4</sup> 하고 응답하자.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sup>5</sup> 하고 응답하셨다.

우리가 바치는 ‘예’라는 응답이 하느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있게 하자. 언제나 ‘예!’ 하고 응답하자. 그러면 우리가 죽는 순간, 영원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예수님의 동의를 구할 때, 예수님은 가장 사랑스럽고 영원한 ‘예!’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오, 주님, 저희 마음에 당신 은총을 가득 부어 주시어, 천사의 알림으로 당신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을 깨닫고 당신의 수난과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sup>6</sup>

3. “Paratum cor meum.”(시편 57,8)

4. 시편 116,16 참조.

5. “Ecce ancilla Domini fiat mihi secundum verbum tuum.”(루카 1,38)

6.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영성체 후 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 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요한 19,25)

### 의 미

속죄란 사람이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벗어나 원상태를 회복시키는 데 필요한 대가를 뜻한다.

초자연적 질서에서 볼 때, 속죄는 원죄에서 기인된 것이나 또한 개인의 죄로 말미암은 과멸에 대한 보상이다.

인간은 아름다움과 형언할 수 없는 위대함으로 빛나는 하느님의 창조와 성화의 손길에서 비롯된 작품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는 인간의 영혼과 육신에 상처를 입혔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당신 피로 인류의 빛을 기워 갚으심으로써 잃어버린 선을 되돌려주기 위해 오셨다.

구원은 구세주의 모든 행동으로 완성되었다. 우리는 특히 강생, 성전에서의 봉헌, 갈바리아, 하늘나라의 중개,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곧 태어난 지 40일이 되자 아기를 성전에 봉헌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들어오시게 된 것은 마리아  
**91** 의 위대한 사도직을 통해서다. |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탁월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시는 길에 참여하셨다.

희생 제물의 봉헌에서 산 제물의 파괴는 희생제사의 주요 부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죽이는 행위, 곧 죽음을 받아들이심으로써 자신을 봉헌하셨다. 어떻게 바치셨는가? 마리아의 협력을 받아 바치셨다. 우리가 단지 미사에 참례하며 바치는 것과는 달리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을 희생물로 바치셨다. 예수님은 “하느님께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당신을 봉헌하셨다. 마리아 또한 아드님을 봉헌하셨다.

아기 예수님의 성전에서의 봉헌과 갈바리아의 희생은 준비와 완성이라는 면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리아에 대한 위대한 박사요 신심가인 성 알폰소는 이에 대해 잘 설명한다. “첫 아드님의 탄생에 관련된 두 가지 규정이 있는데,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정결례요, 두 번째는 첫 아들과 관련된 것으로 그를 봉헌하여 몸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첫 번째 규정은 물론 두 번째 규정에도 순종하셨습니다. 마리아는 하느님 아버지께 아드님을 봉헌하셨습니다. ‘주님께 봉헌하고 내어 드리기 위해 첫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동정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을 여느 어머니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른 어머니들에게는 봉헌이 법적 예식일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첫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의무를 수행한 뒤

1. 히브 9,14 참조.

에 아무 걱정 없이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봉헌은 당신 아드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봉헌하는 것이었습니다. 몸값은 다만 예식이었지만, 그 봉헌은 확실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당신 아드님은 하느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봉헌되셔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봉헌은 하나의 선약이고, 갈바리아를 향한 예시였습니다.”

보쉬에는 이렇게 말한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강생을 통해 세상에 들어오시어 | 마음속에 숨겨진 희생 제물로서 자신을 92 봉헌하는 공적 봉헌으로 하느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심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는 복음구절을 잘 읽어보면 우리는 자신을 아버지께 봉헌하는 아기와 십자가를 아기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드님을 봉헌하시는 마리아, 희생되시는 아드님과 함께 자신을 봉헌하시는 마리아, 당신 영혼을 칼날이 꿰뚫는 아픔을 느끼시는 마리아를 보게 될 것이다. 자연법에 따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속해 있으므로 이 고통은 마리아가 받게 되는 것이다.

### 승고한 행동

마리아에게 건네는 시메온의 예언은 명확하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sup>2</sup>

보쉬에에 따르면 마리아의 역할은 정확히 말해 수난의 계약을 승인하고 준비하는 것이었다.

마리아의 아드님은 영감을 받은 시메온의 팔에서 마리아의 품으로 다시 안기지만 사형집행인들에 의해 십자가의 품에 안기는 날이 올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는 거기서 다시 주님을 봉헌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 계셨다.”<sup>3</sup>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분을 받아들여 주셨다. “당신의 친 아드님마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드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로마 8,32)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을 바치기로 합의하

**93** 셧고, | 사랑을 다해 아버지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긴 아드님은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46)라고 외치신 다음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요한 19,30)

여러분의 사도직이 지속적으로 성공을 거두기 바라는가? 다시 말해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기를”<sup>4</sup> 바라는가? 그렇다면 미사가 지닌 축성 봉헌의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온 존재를 다해 미사에 참례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마리아는 이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으셨다.” “저희는 온 교회와 일치하여 우리 주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시며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

2. 루카 2,34-35.

3. 요한 19,25 참조.

4. 요한 15,16.

이신 마리아를 공경하나이다.”<sup>5</sup>

세상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과 하나 되시어 성전에서 갈바리아의 봉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시신을 내리기까지 예수님과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려 보라.

지극히 복된 성체방문과 열렬한 영성체와 거룩한 미사는 성체적 삶을 살아가게 한다. 또한 성체방문과 미사는 평생 동안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 제물로 봉헌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 너그러움

사도직의 풍요로운 결실은, 사제요 살아있는 제물이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온 성체적 삶의 정도에 비례한다. 실제로 참 사도직의 열매, 곧 참되고 구체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비록 저마다의 걸음은 다를지라도 믿는 이들을 성체의 식탁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 밖의 다른 성공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실은 오로지 우리가 어느 만큼 성체적 영혼이 되는가에 달려 있다.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것[神化]에 대해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하느님이 되게 하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sup>6</sup> | “우리가 당신 신성에 참여하길 바라시는 외아드님은 ‘옛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해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94

5. “Communicantes et memoriam venerantes ... in primis B. Mariae Virginis.”(성찬기도 제1양식)

6. 성 아우구스티노는 정확히 말해 “Deus homo factus est, ut homo Deus fieret.”라고 썼다.(설교 371)

니다.”(성 토마스) 성체를 통해, 더 정확히 말해 완전한 내적 삶을 통해 사도는 신적 삶에 동화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요로워질 것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sup>7</sup>

영성체와 미사, 참된 현존은 모든 활동의 중심, 모든 신심의 핵심이며, 교회에 참으로 유용한 모든 사도직의 비결이다. 누구든 사람들의 영혼에 생명을 주기를 바랄 뿐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 거기서 길을 발견한다. “나는 길이다.”<sup>8</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최후 만찬 후 포도나무 비유에서 내적 삶이 없는 활동은 쓸모없음을 강조하며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sup>9</sup> 그리고 이어서 성체적 삶을 살아가는 사도가 행하는 활동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해 주셨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5,5)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 오직 주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성 아타나시오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우리 자신을 살찌우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고 했다.

하느님과 자주 만나 신적 생명이 스며든 마음에서 분출하는 열기와 거룩한 광채는 얼마나 놀라운가! 사제든 평신도든, 학교나 병원, 단체 또는 어떤 장소에서 일하든 간에 그 말씀은

7. 요한 6,54; 10,10.

8. 요한 14,6.

9. 요한 15,4.

열정에 넘친다. “내 말은 영이요 | 생명이다.” 열정이 없는 말 95  
은 단순한 소리, 수사학적 표현, 알맹이 없는 문장과 같아, 갈  
채를 받을지 모르나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성체는 비참한 삶에서 일으켜 주고, 자양분을 주고, 회복시  
키고, 굳건히 하며, 삶에 기쁨을 준다.

오늘날에는 악과 맞서고, 진흙탕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걸으며, 온전한 가톨릭 신자로서 사도가 되기 위한 예수  
님과 끊임없는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수셨습니다.”(유딧 13,14)

### 공동구속자

미사는 우리의 제대 위로 옮겨온 십자가의 희생제사다. 우리는 매일 아침, 십자가와 고통의 성모님을 관상하며, 구원의 결실을 나누기 위해 갈바리아로 간다. 미사는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얻게 하는 제사이기에, 사랑이 넘치는 마음으로 바치는 위대한 사도직이다.

우리는 미사의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주역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미사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바친다.

우리의 공동구속자요 속죄자인 성모 마리아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마리아는 예수님께 살과 피를 주어 우리 구원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 더 나아가 마리아는 당신의 동의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양육하셨으며, 때가 되자 십자가의 제단에서 예수님을 봉헌하셨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니에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기로 동의하신 것처럼 | 마리아 또한 희생 제물의 봉헌을 받아들이셨다.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한 당신 아드님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이는 형태가 다를지라도 강생을 위한

동의이다.

어머니와 아드님의 의지와 지향과 고통의 일치는 살아가는 동안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다. 갈바리아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도 마리아는 십자가 곁에 계셨고, 그 일치는 어그러지지 않았다.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의지와 지향의 일치로 인해 마리아는 속죄자, 우리의 공동 구속자, 십자가의 열매를 나누어 주는 분이 되셨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에 협력하셨고, 일치하셨다. 예수님은 사명을 띠고 중재자로 오셨으며, 마리아는 하느님의 위대한 구원 업적에 동참하신 분이다.

마리아는 은총의 샘이 아니다. 하느님 홀로 은총의 샘이시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합당한 일치로 우리를 위해 은총을 받을 자격을 지니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sup>1</sup>를 통해서 그러하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인류의 구원사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협력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마리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은 당신 수난을 통해, 마리아는 연민, 곧 예수님의 고통과 일치된 고통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모든 고통을 겪으셨다. 아버지께 대한 순명과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 갈바리아에서 바친 고통의 마지막, 고난의 끝까지 이어진 마

1. 합당한 일치와 공로. 스콜라 신학의 표현으로 각각 적합한 도덕성과 굳건한 공로를 뜻한다.

리아의 연민은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날, 구세주의 어머니  
**98** 가 되기로 동의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다. | 마리아는 평범  
 한 어머니가 아니라,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로 작  
 정하시고 인간이 되신 분의 어머니가 되기로 하셨다. 마리아  
 의 연민은 마리아와 함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성 요한과 경  
 건한 여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단순하고 동정적인 애정이 아  
 니다. 또한 마리아의 연민은 성 요한과 경건한 여인들이 지니  
 고 있던 것과 같은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고통도 아니다. 마  
 리아의 연민은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라는 위대한 활동의 협력자로서 인류의 구속과 구원을  
 위해 참아낸 모든 고통을 뜻한다. 이 연민은 고유한 마리아의  
 사랑이다.

## 교 황

비오 9세 교황은, 마리아는 아드님과 함께 아드님을 통해  
 악마를 이기셨다고 한다.

레오 13세 교황은, 우리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공로는 묵주  
 기도의 신비에서 빛난다고 했다. 당신 아드님과 함께 인류의  
 구원사업에 참여하신 독특한 공로에 대해 묵상해 보자. 마리  
 아는 구원사업에 함께하셨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셨  
 기에 공동구속자이시다.

성 비오 10세 교황은 이렇게 가르친다. “마리아는 한결같이  
 당신 아드님의 노고와 고뇌에 참여하셨기에 타락한 인류의  
 속죄자, 공동구속자로서 공로를 세우셨다. 예수님은 당신의

위대한 구원 사명에 마리아를 참여시키셨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이렇게 썼다.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99  
있는 것을 다 하셨다. 곧 마리아는 하느님께 대한 인류의 빛  
을 갚기 위해 당신 아드님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으므로 당신  
아드님과 함께 세상을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스  
도와 함께 세상을 구원하신) 결과인 구속을 통해 우리에게 주  
어진 은총은, 통고의 동정 마리아의 손을 통해 실행되고 분배  
되었다.

비오 11세 교황은 이렇게 말했다. “통고의 동정 마리아는  
구세주 예수님의 활동에 참여하고 협력하셨다. 그리스도와의  
형언할 수 없는 일치와 마리아의 고유한 은총을 통해 마리아  
는 속죄자라 불리셨고, 참으로 속죄자이시다. 우리에게 주어  
지는 은총은 그리스도의 수난의 결실인 동시에 마리아의 연  
민의 결실이다.”

이러한 가르침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에게 주는 하느님의 선  
포였음을 생각한다면 최근 교황들<sup>2</sup>의 가르침에 대해 놀랄 사  
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나는 너[악마]와 그 여자 사이에,  
네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  
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리라.”(창세 3,15)

구원은 악마에 대한 보복이며, 그 보복은 여인과 그 아드님  
을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거룩한 교부들은 이 창세기 구절에서 구세주와 지극히 거

2. 저자가 이 책을 발행하려 했을 때 비오 12세(1939-1958) 교황은 이를 허락  
했으나 그 전에 비오 11세는 이 책에 인용된 글의 출처(E. Campana와 G.M.  
Roschini)를 보고 중단시켰었다.

룩하신 어머니, 곧 악마에 대항하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투쟁, 적대감의 선언을 발견한다. 악마의 머리를 짓밟음으로써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느님의 감탄할 만한 섭리에 따라 함께 일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바라보자.

## 100 어머니와 아드님

성 알폰소는 이렇게 말한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먼저 마리아가 하느님 뜻을 명확하게 동의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한 거룩한 당신 말씀이 마리아의 아드님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곧 예수님이 마리아의 동의와 협력 없이 인류 구원을 위해 당신 생명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어머니 스스로 아드님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내어놓아야 하며, 어머니 마음도 함께 희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세상의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하느님께 봉헌한 이 놀라운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위대한 공로로 인하여 성 아우구스티노에 의해 인류를 위한 속죄의 성모라 불리게 되었다. … 하느님은 마리아가 우리 구원에 협력하시고 우리 영혼의 어머니가 되도록 준비하셨다.”

갈바리아에서 우리는 두 개의 제단, 곧 예수님의 몸이라는 제단과 마리아의 마음이라는 제단을 관상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 육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고, 마리아는 당신 영혼을 바치셨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그곳에 계시면서 악마에게서 그의 먹이

를 빼앗아 은총과 천국으로 가는 권리를 우리에게 되돌려주셨다. 두 분은 각기 다른 위치에 계시지만, 활동과 지향과 열매는 공통된 것이다. 칼이 마리아의 영혼을 얼마나 깊이 찔렀던가! 오, 같은 수난으로 하나가 되신 예수님과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이여, 저희는 당신들을 사랑하고, 당신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또한 당신들의 고통과 하나가 됩니다! 저희로 하여금 거룩한 미사를 통해 당신들의 사랑과 고통을 더욱 깊이 관상하게 해 주소서! 아침마다 드리는 미사는 사도적 영혼들이 만나는 자리다. 거룩한 미사가 없으면 태양은 떠오르지 않을 것이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미사 때 열기와 빛과 생명 등 모든 것이 주어진다. | 미사에 대한 신심은 세상을 위해 영적 태양에 불을 지피는 것이다. 101

“하느님께서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어 주셨다.”(요한 3,16)

아드님은 세상을 몹시 사랑하여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다.

마리아는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어 당신 아드님을 내어 주셨다.

## 미사

미사는 십자가의 희생 제물을 새롭게 바치는 것이다. 미사에 대한 신심은 매우 특별한 사도직이라고 할 수 있다. 미사를 거행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미사에 참례한다. 미사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갈바리아다. 갈바리아에서 행한 것이 미사에서 모두 새롭게 이루어진다.

미사를 통해 우리는 온전하게 헤아릴 수 없는 넓이와 높이,

깊이와 깊이를 지닌 큰 열매를 맺는다. 미사의 결실을 명심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결실: 미사는 엄위하신 삼위일체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다. 미사는 모든 사람, 이미 축복받은 이들, 이 땅에 사는 이들, 하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마지막 준비 중인 연옥에 있는 이들에게 선을 나누어 준다.

일반적 결실: 미사에 참례하는 이들, 미사 때 복사하거나 성가를 부르는 이들, 사제들을 돕는 이들, 사제가 되기까지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준 이들, 교회, 제단, 비품들, 포도주, 초, 성체 등을 제공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결실.

특별한 결실: 미사를 드리는 이들, 미사 지향으로 바쳐진 이들에게 주어진다.

가장 특별한 결실: 미사 주례자에게 유보된 결실이다.

- 102** 미사에는 목적이 있다. 미사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신 하느님께 드리는 크나큰 영광인 동시에 착한 의지를 지닌 이들에게 주는 크나큰 평화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 영광과 합당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미사는 인류에게 넘쳐흐르는 기쁨과 청원에 대한 응답이지만, 그 효과는 각 개인의 필요와 원의에 달려 있다.

미사를 시작하면서 통고의 마리아와 함께 갈바리아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영적으로 동반할 때 유익함을 얻는다.

거룩한 미사는 사도의 학교, 사도의 길, 사도의 생명이다. 미사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부분은 교육적이며 사

도직에 많은 빛을 비추어 준다. 미사 시작에서 봉헌을 제외한 부분까지 이어진다. 둘째 부분은 제물 봉헌으로 이루어지며,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열정을 지니도록 가르쳐 준다. 이 부분은 제물 봉헌에서 주님의 기도까지다. 셋째 부분은 완성과 일치로 이루는 부분이다. 예수님은 사도의 생명이며 힘이시다. 예수님은 영성체를 통해 자신을 사도와 일치시키신다. 셋째 부분은 주님의 기도에서 영성체까지다.

수난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전례서나 다른 방법을 따라서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도록 하자. 구원자 예수님과 공동구속자 마리아의 정신에 깊이 들어갈수록 거룩한 미사의 결실 또한 커질 것이다.

그[아브라함]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로마 4,20-22)

### 참된 믿음

활기찬 믿음은 사도직의 기본 토대이다. 두 번째는 교회와 함께 느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다.

한 마디로 말해 가톨릭 신자인 우리는 또한 사도들이다. 예를 들어, 트라피스트 수도회의 경우 사도직의 수단은 오직 기도일 수 있다. 기도는 거룩한 설교처럼 말로 표현될 수 있다. 사도적 영혼은 근본적으로 가톨릭적인 영혼이다. 신앙은 열정의 불꽃을 일으키고, 마음은 모든 힘을 활성화한다.

교황 비오 12세는, 북아메리카 최초의 순교자인 조그Jogues 신부와 두 명의 평신도로 의사 랄랑드Lalande와 목수 구필Goupil에 대해 “그들은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똑같은 사랑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사심 없는 용기를 드러내는 그들의 기질 또한 같았다. 그들의 갈망은 그리스도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104** 라는 고귀한 이상을 향해 방향지어졌다. | 그들은 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길 바라지 않았다. 자신들의 신앙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임을 알고 있는 그들은 다른 이들과 나누려는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가톨릭 신자가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이에 게 빛을 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들은 선교정신이 일반적인 덕이 아니라 몇몇 간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것임을 알았다. 선교정신과 가톨릭 정신은 하나이며 동일하다. 보편성은 참된 교회의 필연적 표지이다. 누군가 교회에 참여하지 않고 교회의 보편성, 곧 이 땅에 뿌리내려 번성하려는 활동에 투신하지 않는다면, 그는 교회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들의 지도신부는 물론 두 평신도는 몇 백만 사람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생각에 편히 쉴 수 없었다. “... 그들의 선교적 열정이 담긴 메시지는 하느님과 영혼들에 대한 사랑으로 불타올라 지금 이 순간, 전쟁과 그 후유증이 선교사들의 무리를 감소시키고 선교사 활동의 원천을 피폐하게 했음에도 더 크고 강한 목소리로 울려 퍼진다.”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는 선교사의 영혼을 지녔다. 성녀 테레사는 이 지상에서 기도와 고통의 선교사가 되었고, 하늘나라에서도 선교사다. 천국에서 성녀 테레사는 선교사들의 모든 활동에 장미 비를 내린다. 성녀 테레사는 선교의 수호성인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와 함께 교회의 선교사로 선포되었다.

## 마리아의 믿음

105

마리아는 매우 생기찬 믿음을 지니셨다. 마리아는 천사가

말을 건넰을 때,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이르는 성삼일 동안에도 생생한 신앙을 보여주셨다.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께 예수님의 강생과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계획을 전했다. 마리아는 놀라서 천사에게 물었다. 성 토마스의 표현에 따르면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한 것은 이 계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동정성과 모성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믿음은 한 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섬세하고 완전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엘리사벳은 거룩한 영감을 받아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sup>1)</sup> 하고 마리아에게 인사했다. 즈카르야는 의심을 풀어 병어리가 되었으나 마리아는 믿고 천사의 말에 순종했다. 참으로 복된 믿음이다! 기적을 낳는 것은 바로 믿음이다. 그 순간 하느님의 아드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강생하셨다.

마리아는 당신 삶의 모든 순간을 신앙으로 사셨다. 마리아는 인구조사 때 이름을 등록하러 나자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자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피난을 떠나셨다. 그 후 다시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 준 소식에 따라 그들은 나자렛에 정착하셨다. 카나의 혼인 잔치 때 마리아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신혼부부를 도와 주시도록 청하셨다. 예수님이 아직 당신 때가 아니라고 표현하셨을 때 희망이 없는 듯 보였으나 마리아는 당신이 청한 은

1. 루카 1,45.

총이 이미 허락된 것처럼 행동하심으로써 마침내 청이 허락 되는 은총을 받으셨다.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기 위해 마리아를 떠나셨다. | **106**  
 리아는 그 동안 예수님을 거룩하고 유순한 아들로 바라보셨으며, 이제는 스승으로 여겨 공경하고 따르며 귀를 기울이셨다. 예수님이 걸으신 사생활과 공생활의 모든 걸음을 그대로 따르신 마리아는 크나큰 믿음을 지니셨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예수님은 매우 가난하게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하셨다. 마리아의 젖을 먹고, 마리아가 마련해 준 옷을 입고, 마리아의 기도와 가르침을 받으며 마리아의 이끄심에 따르셨다. 마리아는 집안일, 심부름, 덕행의 실천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은 요셉에게서 대패질과 톱질하는 법, 가구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다. 자신이 가난한 마을에 사는 평범한 사람과 다르다는 사실을 내세우거나 과시하지 않으셨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처럼 허름한 옷차림으로 일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셨다. ... 우리가 빵 조각을 통해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분을 알아 뵙는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이 전적으로 감추어져 있지만 마리아는 마치 하느님을 대하듯 예수님을 대하셨다. 사제가 성체의 관리자이듯 마리아는 예수님의 후견인이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흠송했고, 감탄했으며, 예수님에게서 배우셨다. 예수님이 어린아이였을 때도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에게 영원한 지혜의 말씀이었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마리아는 그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묵상하셨다고 복음서(루카 2,51)는 말한다. 마리아

아는 그 단순한 소년의 모습 이면에 현존하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당신 안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여느 사람 처럼 나타나셨는지”<sup>2</sup> 어떻게 마리아의 동정성을 존중하면서 태어나셨는지, 그분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어떻게 천상의 “대영광송”을 노래했는지, 목동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요람까지 어떻게 이끄셨는지 알았다. 성전에서 시메온이 “주님 …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107**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 마리아는 결코 의심하지 않으셨다. 마리아는 “성실하신 동정녀”<sup>3</sup>이셨다. 마리아는 성경을 읽었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 내용을 마음에 품으셨으며, 그 완성의 때를 기다리셨다. 비록 단순한 노동자와 같은 예수님의 삶이 세상의 눈에 본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이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셨다.

마리아의 믿음은 당신 아드님의 수난 때에 더욱 두드러지게 빛났다. 예수님이 실패자, 사람들의 수치,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처럼 여겨졌을 때 사도들은 도망쳤으나 마리아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깊어졌다.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안았고, 시신의 보존을 위해 향유를 바르는 것을 도왔으며, 무덤까지 예수님을 동반하셨다. 그리고 침묵과 기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리라는 확신으로 가득한 기대 속에 머무셨다.

2. 필리 2,7.

3. “Virgo fidelis.”(성모 호칭 기도)

## 우리의 믿음

“주님, 저희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약한 신앙, 종교적 무지, 교의에 대한 그릇된 시각은 결코 사도적 마음을 자아내지 못한다. 사도들을 형성하는 것은 열렬하게 타오르는 올바른 믿음이다. 바오로는 처음엔 교회를 박해했으나 예수님께서 일깨워주셨을 때 믿게 되었고, 그 순간부터 교회를 세상의 여왕으로 들어 높이려는, 그 무엇으로도 끌 수 없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보라, 그는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여행하며 말하고 저술하고 권고하고 위협을 받고 고통을 겪으며 자기 생명을 내어 주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완수하라고 나에게 주신 직무에 따라, 나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은 과거의 모든 시대와 세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입니다. 그런데 그 신비가 이제는 하느님의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콜로 1,25-26)

그리스도의 교회가 다시 일어나 발전하며 번창하는 것이 역사의 목표가 아닌가? 예언자나 복음선포자, 영혼을 돌보는 사목자나 교사, 가정의 아버지나 군인들, 단순한 그리스도인이나 수도자들 ... 그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기”<sup>4</sup> 위해 큰 건물을 세우는 임무를 부여받은 일꾼들이다. 굳건하고 끈질긴 힘으로 일하라는 바오로가 옳다. “그분 덕분에, 영양을 공급하는 각각의 관절로 온몸이 잘 결합되고 연결됩니다. 또한 각 기관이 알맞게 기능을 하여 온몸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에페 4,16)

4. 에페 4,12.

교리를 연구하고, 설교를 자주 들으며, 좋은 책과 간행물을 읽고, 종교 교육 수단을 확장해야 한다. 순수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 다시 말해 교회에 대항하는 사람들과 일하거나 담화와 독서를 피해야 한다. 믿음은 성령을 통해 마음에 스며들기에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 ... 믿음의 풍성한 부는 “풍성한 영광”<sup>5</sup> 속에 스스로 퍼져 나가게 마련이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고 변호하며 널리 퍼뜨린다. “사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sup>6</sup> 왜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가? “깨닫는 이 없고 하느님을 찾는 이 없다.”<sup>7</sup>

### 믿음의 결실

성 바오로는 세례 때 해야 할 수 없는 믿음의 선물을 받고, “곧바로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선포하였다.”<sup>8</sup> 여기서 ‘곧바로’라는 말에 주목하라. 세상의 길로 나서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신앙은 사도를 형성한다.

- 109** 관대함은 사도 성 바오로의 특징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sup>9</sup>

그의 관대한 정신은 “다른 민족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도록 선택한 그릇”(사

5. 에페 1,18 참조.

6. “Ex abundantia cordis os loquitur.”(마태 12,34)

7. “Non est intelligens, non est requirens Deum.”(로마 3,11)

8. 사도 9,20.

9. 2코린 5,14.

도 9,15)이 되기에 합당했다.

자기의 승고한 생각 덕분에 들어 높여진 성 바오로는 “어떠한 인간도 발설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는 말씀”(2코린 12,4 참조)을 들었다.

이러한 그의 교의로 인해 성 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해설자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신학자가 되었다. “내가 비록 말은 서툴러도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든 일에서 갖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었습니다.”(2코린 11,6)

바오로의 관대함은 그리스도 왕국을 위한 그의 노동과 고통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나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결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한결같이 인내하며 여러 표징과 이적과 기적으로 참사도의 표지들을 드러냈습니다.”(2코린 12,11-12)

교란시키는 사목자들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는 말입니다만,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였고 옥살이도 더 많이 하였으며, 매질도 더 지독하게 당하였고, 죽을 고비도 자주 넘겼습니다.”(2코린 11,23)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함도 모욕도 재난도 박해도 역경도 달갑게 여깁니다.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기 때문입니다.”(2코린 12,10) 성 바오로는 교회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그의 교의와 애정과 모든 것을 소모하며 고뇌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

사도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을 쇠신해야 한다.

## 14. 마리아의 마음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로마 5,8-9)

### 영혼들에 대한 사랑

사랑에 앞서가는 믿음, 믿음을 따르는 사랑은 사도를 형성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를 왜 사도라 하는가?

아버지 마음을 닮았고, 아버지의 모습을 지니고 계시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다.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에 참된 신심과 선과 사랑을 불어넣으셨다. 사도직은 마음에서 탄생한다.

하느님과 사람들을 그토록 사랑하신 마리아의 마음을 보라.

가) 하느님께 대한 참사랑과 이웃에 대한 참사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두 개의 불꽃을 지닌 불과 같은데, 하늘로 솟아 오르는 것은 하느님 사랑이라 불리고, 그 주변에 열기를 퍼뜨리는 것은 이웃 사랑이라 불린다. 환경, 학교, 가정, 사회 등

모든 곳에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하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이 줄 수 있는 것을 모두 내어 준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마저 내어 준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참된 종교는 | 하느님을 닮게 한다. 111  
우리 안에 하느님의 생명을 살게 하는 그리스도교는 본성상 사도적이고 광활하고 활기차고 생산적이다. 하느님에게서 배우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아버지는 당신을 완벽하게 닮은 아드님을 사랑하셨으며 ... 또한 인간을 사랑하셨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는가? “하느님은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드님을 내주셨다.” 아드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인간을 위해 돌아가셨으며, 인간에게 당신의 지혜와 성성, 교회, 성사들, 성체,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를 주셨다.

나) 하느님을 본받을 것.

“하느님 아버지 앞에서 깨끗하고 흠 없는 신심은 어려움을 겪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 주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야고 1,27)

첫째, 아버지와 아드님이 하신 것처럼 영적 부와 자연적 재화를 내어 주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느님 자녀가 될 수 있겠는가?

모든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사랑을 거스른다면, 하느님께 온갖 선물을 바친다 해도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

1. 요한 3,16 참조.

다.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sup>2</sup> 사랑이 없고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혹독한 심판을 예상해야 한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행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양식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이 녹이고 배불리 먹으시오.’ 하고 말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야고 2,15-16)

- 112**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과 같은 것처럼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서 악을 향해 울부짖는 것은 악이 커지게 할 뿐이다.

행동으로 사랑하라!

우리는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sup>3</sup>해야 한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영혼 안에 있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의 깊이는 그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다. 선행으로 이루어진 이웃 사랑은 하느님 사랑의 시금석이며 잣대다.

어떤 율법교사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열성을 다해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율법의 두 가지 명령, 곧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

2. 마태 5,24.

3. 1요한 3,18.

다.”고 거듭 말씀하셨다. 그가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대답하셨다. (루카 10, 25-37 참조)<sup>4</sup>

이 비유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드님의 사랑의 사명, 곧 **113** 활동과 희생의 사랑을 암시한다.

강도들의 손에 넘어간 인간은, 악마의 희생 제물이 되어 초자연적 은총의 선물을 잃어버려 자연 재화를 손상시킨 인류를 가리킨다. 옛 희생 제물과 율법은 인류를 회복시킬 수 없었으나 사마리아인으로 표현된 하느님의 아드님이 강생하여 상처 입고 약탈당한 사람에게 허리를 굽혀 은총으로 치료해주셨다. 그런 다음 그를 교회에 넘겨주어 교회가 그를 돌보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게 하셨다.

이 같은 사도직이 바로 사제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이다.

다) 다른 한편 선은 스스로 퍼지기 마련이다. 하느님의 본성은 자유롭고 무한한 선이시기에 당신 자신을 언제나 더 많이 내어 주려 하신다.

강생하신 하느님 아드님의 지상 삶이 이를 보여준다. 예수 **114**님은 온갖 선행을 베푸시고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며 일상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착한 목자,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여인, 잃었던 아들을 기다리다가 기쁘게 맞이하는 아버지, 당신 생명을 내어 주는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사도적 불꽃, 곧 당신 사랑의 선물인

4. 원문은 이 비유 전체를 전한다.

생명을 널리 퍼뜨리고 진리를 드러내시며 뛰어난 당신 성덕을 교회에 전해 주셨다.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신부인 교회는 거룩한 창립자의 사도직 활동을 세기에 걸쳐 계속 이어가며, 그리스도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른다. 사도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마르 16,20)

##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모든 이의 모든 것이 되었다.”(1코린 9,22 참조)

이는 참으로 놀랍고 거룩한 교환이다!<sup>5</sup> 교황 레오 13세는, 인간은 인간을 통해 구원의 길을 배울 것이라고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보화의 분배자와 협력자들과 하나 되길 바라셨다. 사제로서 전방에 선 그들은 교황과 선교사와 거룩한 사제들, 그리고 매우 뛰어난 사제와 주교들이다.

그들과 함께 모든 신자는 사도직에 협력한다. 교회 초기부터 공적 사목자들 가까이에선 자원봉사자들과 잘 선별된 단  
**115** 체들이 육성되었다. 이를 통해 교회는 영속적으로 | 활기찬 성장을 이루며 언제나 젊음의 활력을 지닌다.

이처럼 세기마다 열렬한 마음을 지니고 행동하는 사람들, 열심한 가톨릭 신자들은 악의 세력에 대항해 악을 물리치고, 대중에게 파고들어가는 활동을 전개했다. 그들은 밀가루 반죽

5. 라틴어 표현: Ammirvole scambio.

속에 들어 있는 누룩이며, 음식의 부패를 막는 소금이었다. 그들은 서품을 받지 않아 교계제도에 속하지 않음에도 놀랄 만큼 크게 기여했다. 활동은 언제나 적절한 때에 행해져 필요에 응답했고 번창했다.

성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이렇게 권고한다.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중상을 버리십시오.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단, 거룩한 민족으로 행동하여 어둠에서 불러내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분의 영광스러운 업적을 선포해야 합니다.”(1베드 2,1,9 참조)

성 바오로는 평신도 사도직과 관련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에우오디아에게 권고하고 신티케에게 권고합니다. 주님 안에서 뜻을 같이하십시오. 그렇습니다. 나의 진실한 동지여, 이 여자들을 도와주도록 그대에게도 당부합니다. 이들은 클레멘스를 비롯하여 나의 다른 협력자들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싸운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이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적혀 있습니다.”(필리 4,2-3)

로마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자매이며 켄크레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로마 16,1-2) 여 부제들의 임무는 가난한 이, 아픈 이, 여성 예비신자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며, 거룩한 성전을 관리하고, 여성들을 동반하며, 그들이 세례 받을 때, 그리고 이와 유사한 봉사 활동에 함께하는 것이었다.

성 바오로는 다른 서간에서 프리스카와 아퀼라를 | 그리스도 116  
안의 협력자들로 기억한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일했으며, 잦은

박해를 견뎌냈다. 또한 성 바오로와 함께하며 목숨이 위태롭게 되기도 했다. 그들은 사도에게서는 물론 이방인 세계의 모든 교회에게서 감사를 받아 마땅하다.

### 평신도 사도직<sup>6</sup>

교황 비오 11세와 비오 12세에 따르면, 평신도 사도직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날 더 유용하고 필요하다. 우리는 조직적인 평신도 활동을 가톨릭 운동이라 한다. 비오 11세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활동 가운데 사도들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나 남자와 여자, 군인과 상인, 행정관과 어린이 등 평신도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내적 삶, 좋은 귀감·고통·말씀·활동의 사도직이 있다.

교회, 선교 사명, 빈민가, 교도소, 공장, 출판물, 영화, 라디오, 어린이와 젊은이, 성인 남녀, 죄인과 수녀와 대학생, 육체적 자비의 일곱 가지 활동(배고픈 이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이에게 마실 것을, 헐벗은 이에게 입을 것을 주고, 나그네를 따뜻이 맞아주며, 병든 이를 돌보고, 감옥에 있는 이를 찾아가며, 죽은 이를 묻어 주는 것-울긴이)과 영적 자비의 일곱 가지 활동(의심하는 이에게 조언하고, 모르는 이에게 가르쳐주며, 죄인을 꾸짖고, 상처받은 이를 위로하며, 모욕한 자를 용서하고, 괴롭히는 자를 인내로이 견디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위해 하느님께 기도하는 것-울긴이), 교리와 세미나와 권고 등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피어

6. Apostolato laico라고 되어 있는데 Apostolato laicale가 더 적합한 표현이다.

나고 있는가! 추수하러 나가라. 좋은 일꾼들을 보내 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라.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와 천사의 언어로 말한다 하여도 나  
 에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요란한 징이나 소란한 팽과리에 지  
 나지 않습니다.”(1코린 13,1)

그런데 이러한 하느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웃을  
 향한 선행에서 드러난다.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 사랑 117  
 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뽀내지 않으며 교만하  
 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  
 으며 성을 내지 않고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sup>7</sup>

보쉬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들이 믿음이 깊은 영혼들이라고, 그들 마음이 하느님 마  
 음과 비슷하다고 저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사람들  
 의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 하느님은 내어 주십니다. 하느님  
 은 당신 아드님을 내어 주셨고, 그 아드님은 사람들에게 자신  
 을 온전히 내어 주었습니다. 어떤 이들의 신심이 우리로 하여  
 금 하느님을 닮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신심행위라  
 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향해 거룩한 목  
 마름을 느낀다.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연민은 언제나 이웃을  
 향한 연민과 일치한다.

7. 1코린 13,4-7.

주님, 제 마음 다하여 찬송하며 당신의 기적을 날날이 이야기하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저는 당신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당신 이름에 찬미 노래 바칩니다.(시편 9,2-3)

### 하느님께 영광

사도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지닌다.

이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 아드님의 계획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잘 이해한 천사들로 하여금 “지극히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하게 하셨다. 교회는 우리가 보다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해설이 따른 거룩한 전례 안에 그 메시지를 포함시켰다.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송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

1. “Gloria in excelsis Deo et in terra pax hominibus bonae voluntatis.”(루카 2,14)

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후 “하나님께 영광, 사람들에게 평화”라는 119 이 두 가지 바램은 그 어떤 천사나 성인보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는 공동사도이시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다른 위치에 계시지만 그 목적은 같다.

열정은 사랑의 향기다. 사도적 영혼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때문에 사도적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고 추구하며 준비한다.

사도적 영혼은 자신을 사랑하기에 먼저 자신을 구원하고 성화하려는 선의를 지닌다.

사도적 영혼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므로 이웃의 평화를 바라고 추구한다. 평화는 하나님과의 우정이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사랑이며,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다.

성 토마스는 “열정은 강렬한 사랑에서 나온다.”(『신학대전』, 제2권, 제28문제, 제4절)고 말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열정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속담이 있다.

## 두 가지 결실

열정에는 “저항과 행동”이라는 서로 다른 두 성향이 있다. 곧 악에 저항하고, 선을 얻기 위해 행동한다.

어떤 악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누군가 우리가 바라는 것에

반대할 때 우리는 투쟁한다. 누군가 우리의 자리나 특권을 빼앗으려 하면 시기나 질투의 감정이 올라온다.<sup>2</sup> 이러한 뜻에서 하느님은 자신이 질투하는 신이라고 선언하신다. “주 너의 하느님인 나는 질투하는 하느님이다.”(탈출 20,5) 하느님은 당신 영광을 포기하길 바라지 않으시며 또한 포기하실 수도 없다. |  
**120** “나는 내 영광을 남에게 돌리지 않고 …”(이사 42,8) 누군가 그 영광을 두고 겨루면 하느님께서 맞서신다. “하느님께서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야고 4,6)

친구에 대한 열정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호하듯 악에 맞서 친구를 변호한다. 우리는 여기서 하느님 아버지의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열정을 이해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주님의 집에 합당하지 못한 이들을 쫓아내셨다. 시편 저자는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불태웁니다.”<sup>3</sup> 하고 예언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사람의 선을 위한 행동이 있다. 철학자와 신학자들은 참 사랑은 “선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 동의한다. 이기적인 사랑도 있는데,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를 풍자하여 이렇게 말한다. “식도락가들이 ‘나는 개똥지빠귀를 좋아해.’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개똥지빠귀를 죽여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참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을 가져다주며, 어떤 경우에는 생명까지도 희생한다. 사랑스러운 아드님은 어머니의 선을 바라며, 어머니가

2. “Zelus invidiae.”

3. 시편 69,10.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애정과 열망의 불모지에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은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자신을 내어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해.”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성 요한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sup>4</sup> 하고 권고한다.

하느님은 무한하신 분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께 선을 바랄 수 있겠는가? … 우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갈망할 수 있다. 언제나 더 열렬히 갈망할 수 있다.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sup>5</sup> 살아가라. 이것이 우리 사랑의 첫째 가는 불꽃이다. 이 불꽃은 하느님을 향해 타오르는 | 열정으로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121 자아낸다. 이는 “모든 것을 제 목적대로 만드시오”<sup>6</sup>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이들”<sup>7</sup>이라고 선포하시는 하느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하느님의 갈망이 우리의 갈망이 되게 한다. 자비심이 어떻게 선행善行이 되는지 보라. “선행은 자비의 실현이다.”(성 토마스) 바로 이것이 “가장 높은 데에 계시는 하느님의 영광”이다.

## 마니피캣

마니피캣은 천사들의 노래를 반향하고 설명하며 해설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성녀 엘리사벳을 만나러 가

4. 1요한 3,18.

5. “Ad maiorem Dei gloriam.”

6. 잠언 16,4.

7. 이사 43,7.

섰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 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루카 1,39-55)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기에 걸쳐 땅 끝까지 성모 마리아의 찬가를 전파하는 라디오와 같다. 사도들의 말이 세상 곳곳에 울려 퍼지듯, 마리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마

리아의 찬가는 언제 어디서나 울려 퍼지며, 하늘에서도 영원히 울려 퍼진다.”(에라스무스 박사, P.S.M.)

보쉬에는 이 찬가가 무엇보다 열렬한 영혼을 움직여 평화와 기쁨을 감미롭게 전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코르넬리오 아 라피데는 이 찬가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찬가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말한다.

영혼이 감미롭고 온화한<sup>8</sup> 성 베르나르도는 “마니피캇은 겸손한 마리아의 황홀경”이라고 외친다. 이는 마리아의 열렬한 마음에서 타오르는 분향이다.

교회는 성무일도 저녁기도에 성모의 노래를 삽입했으며, 다른 전례 때도 몇 구절을 인용한다.

## 가르침

123

성무일도서는 전체적으로 마니피캇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니피캇은 피조물이 모든 선의 근원, 사랑의 유일한 목적, 겸손하고 약한 이들의 갈망이며 희망이신 하나님께 바치는 찬미와 흠숭과 감사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마리아의 기쁘고 보편적인 사도직이 교회 안에 펼쳐진다.”

마리아는 찬미를 받으시지만 그 모든 영광을 오로지 한 분이신 하나님께 돌려 드린다.

마리아는 성함처럼 자신 안에 모시고 다니는 구세주 때문에 기뻐하신다. “그분께서 당신 여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시어” 모든 은총을 쏟아 주셨다. 마리아는 이처럼 풍성한 은총의 선물

8. Mellifluo: di spirit dolce e soave.

을 보고 놀라는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 하며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할 것을 아신다.

마리아는 당신 태중의 복된 결실, 곧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될 일을 내다보신다. 예수님의 자비는 죄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해 세세 대대로 지속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이 모든 이에게 빛과 평화와 화해가 되리라 믿으신다.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선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예전과 같이 새로운 시대에도 겸손한 이들은 받을 것이고, 배부를 것이며, 교만한 이들은 빈손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하느님은 온 인류를 축복하며 복되신 분을 보내시어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아브라함과 족장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다.

교회는 마무리 기도로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는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하며 영광송을 덧붙인다.

영혼은 자기자신을 구원하고 성화를 위해 일하는 만큼 참된  
**124** 열정을 지니게 된다. | 그 열정은 또한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향구할 것이고, 그 열매는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목표하는 만큼 지혜롭고 풍성해질 것이다. 열정에서 우러나오는 활동은 은총에서 주어지는 한 활력을 주며 안정적일 것이다.

예수님은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라고 기도하셨다. 참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찾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실 뿐 아니라, 사도의 길이지요 생

명이시다.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다.

###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의 기도를 아는<sup>10</sup>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주님의 기도는 첫 부분에 나오는 세 가지 청원에서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나머지 네 가지 청원에서는 “땅에서는 마음이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고 기도한다. 주님의 기도는 마니피캇과 매우 유사하다.

주님의 기도는 사도적 영혼에게 가장 적합한 기도다.

그리고 가장 선교적인 기도다.

마리아는 주님을 찬양하신다. 마리아는 당신 자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드러나는 영광으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신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리며 하나님을 선포하신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드님에게 몸을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으며, 성부의 사도, 사제, 성체, 성부와 같은 참된 스승이 되게 하심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셨다. 인류는 마리아를 통해 찬미와 사랑의 합당한 희생 제물을 성부께 영원히 봉헌한다. 하나님은 |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래 이보다 더 많은 사랑 125  
과 흠숭을 받으신 적이 없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10. 정서적 의미에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이름을 드러냈습니다.”<sup>11</sup> 예수님은 성부의 위대하심, 아름다우심, 어지심, 약속, 섭리, 보상을 드러내셨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자. 우리 마음은 마리아의 마음에 들겠는가? 우리 마음은 예수님 마음에 들겠는가? 예수님과 같은 지향과 같은 목적과 희망을 지니고 있는가? 모든 것에서 오로지, 언제나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찾고 있는가?

마리아의 찬가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이 강생하신 것을 노래하는 찬가이기에 가장 순수한 기쁨의 찬가이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sup>12</sup>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퍼뜨리십시오.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언제나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리십시오.”<sup>13</sup>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라. 미사, 저녁기도, 행렬 등 여러 형태로 마련된 사은찬미가Te Deum와 같은 아름다운 전례에 참여하라.

성무일도에는 여러 형태의 찬미가가 있다.

기도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두 가지는 흠숭과 감사 기도다. 다른 두 가지는 죄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영광을 잃은 것에 대한 보속의 기도와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청하는 탄원 기도다. 마리아를 통해 기도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거룩한 기쁨 가운데 기도하게 될 것이다. 마리아는

11. 요한 17,6.

12. 필리 4,4 참조.

13. 콜로 3,16-17 참조.

“우리 즐거움의 샘”<sup>14</sup>이다. 성 베르나르도는 말한다. “마리아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모든 기쁨을 능가하는 기쁨, 모든 고통을 덜어주는 감미로움을 느낍니다.”

찬미, 흠송, 감사, 보속, 마음의 봉헌, 자선 행위 등은 “하느님께 대한 열성”<sup>15</sup>을 나타낸다.

---

14. 성모 호칭 기도.

15. 1마카 2,54 참조.

나는 교훈을 새벽빛처럼 다시 밝히고 그 빛을 멀리까지 보낸다. 나는 가르침을 예언처럼 다시 쏟아 붓고 세세 대대로 그 가르침을 남겨 주리라.(집회 24,32-33)

### 선을 바라는 것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둘째 계명<sup>1</sup>은 첫째 계명과 같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에 대해 어떤 원칙을 세울 필요가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웃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듯 동등한 기준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아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듯 하라는 요청일 뿐이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해 주길 바라는 대로 행하며, 우리가 바라지 않는 것은 다른 이에게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구원된 것처럼 다른 영혼들도 구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안에 내재된 이기심을 거슬러 행동하려면 “그리스도의 양떼를 보살피는 이들이 양떼를 자기 것인 양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의 선(자비)을 바라고, 이웃에게 선(선행)을 행하는 것이며, 선을 기뻐하며(친절), 기꺼이 함

1. 복음적이고 율법적인 말씀. 참조: 마태 22,37; 신명 6,5.

께 | 머무는 것(수도회나 가정, 사회에서 함께 사는 것)이다.

127

이웃의 선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가, 어떻게 가능한가, 누구에게 가능한가, 언제 가능한가?

분쟁이나 중상, 절도와 같은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

각자의 위치에 따라. 재력가는 재력가로서, 소박한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은 가장으로서, 글을 잘 쓸 수 있는 훌륭한 문학가는 문학가로서,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사에 맞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과 장소와 개인 상황에 따라 기도와 봉사, 좋은 표양을 통해서 선을 행할 수 있다.

누구에게 가능한가? 어린이에게는 교리를, 허약한 이에게는 성사를, 가까운 이들에게는 좋은 모범을 보인다.

언제 가능한가? 이주민과 환자와 고아를 위한 계기와 순간들을 마련한다. 고통 받을 때, 고난의 때와 젊을 때.

선을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사는 이들과 잘 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에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더 폭넓게 다룰 것이다.

지상적인 재화로 돕는 것은 물질적 사랑이다. 지금 우리는 교육, 좋은 모범, 기도, 성사, 위로, 영적 지도, 용서, 동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삶, 믿음 안에 알게 되었고, 은총으로 소유하게 되었으며,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된 하느님의 영적 재화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고 있다. 자, “선한 의지를 지닌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는 모든 이에게 참으로 필요한 선물이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 성부의 사도로서, “많은

형제 가운데 만이”<sup>2</sup>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빛을 비추기  
 128 위해 오셨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 참빛이 세상에 왔다.”<sup>3</sup>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를 비추는 참빛이시다. 예수  
 님은 사랑이 활활 타오르게 하려고 오셨다. “나는 세상에 불  
 을 지르러 왔다. 그 불이 이미 타올랐으면 얼마나 좋으랴?”<sup>4</sup>  
 그리고 잘못된 이를 다시 부르러 오셨다. “사람의 아들은 잃  
 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sup>5</sup>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하느님을 전해 주러 오셨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  
 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sup>6</sup>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  
 심으로써 우리에게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알려주셨다. “그리  
 스도는 우유와 같은 양식이 되려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는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바로 그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은  
 그대에게 먼저 우유를 주신 다음 빵을 먹게 하여 만족하게 하  
 십니다.”<sup>7</sup>

### ‘선’을 내어 줌

선을 내어 주는 행위에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셔  
 가는 영원한 성함인 사도 마리아를 알 수 있다. 마리아는 당  
 신 태중에 하느님의 아드님이 육화하심으로 수행하게 된 일

2. 로마 8,29.

3. 요한 1,9.

4. 루카 12,49.

5. 루카 19,10.

6. 요한 10,10.

7. 성 아우구스티노, 설교 3.

을 모든 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가실 것이다.

마리아는 곧바로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나셨다. 요한은 마리아가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고 거룩하게 되어 어머니 태중에서 기뻐 뛰놀았다.

마리아는 당신의 첫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서둘러 가셨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승리자 예수님과 하나님을 전해 주시는 분이다.

이는 악에 대한 승리의 시작이요, 처음 시도한 위대한 사도직으로 요한을 죄에서 해방시켰다. 참으로 많은 은총을 받아 이러한 일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이들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sup>8</sup>고 증언하셨다. 악의 사슬이 끊어졌고, 천상 은총의 선물이 풍요롭게 퍼져 나갔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어린 요한을 장차 다가올 수 129  
난 공로에 참여하게 하셨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기와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마리아는 파견된 분, 사자(使者), 거룩한 기쁨의 사도요, “우리 기쁨의 원천”이시다.

마리아는 은총의 중재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달자시다. 마리아는 천상의 향기를 퍼뜨리는 백합이요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이시다. 마리아는 은총의 전달자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주는 어머니로서, 당신 아드님에게서 얻어지는 수난 열매를 말없이 전해 주신다. 마리아는 메시아와 그의 선구자, 천상 스승과 전령(傳令)이 서로 만나게 하셨다.

천사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어머니가 되었다고 마

8. 루카 7,28.

리아에게 알려주었다. 이는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sup>9</sup>는 천사의 전언이 진실임을 증명한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가득한 엘리사벳에게 일어난 기적을 목격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다. 마리아는 즈카르야가 다시 말을 하게 되었을 때도 함께 있었다.

모든 것은 마리아를 통해 온다. 마리아가 당신께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따로 마련하신 은총의 선물은 얼마나 놀라운가!

인류를 깊이 사랑하시는 마리아는 당신이 지니신 모든 것, 곧 당신의 아드님인 예수님을 모든 이에게 내어 주신다.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당신이 사랑하는 이에게 주시는 선은 참된 선, 최상의 선이다. 그 외의 다른 선은 유일한 은총의 선물을 준비하는 것, 또는 그 일부다.

마리아는 선, 곧 정의와 성성과 구원이신 성부께서 행하신 것처럼 사람이 되신 하느님, 메시아, 구세주, 스승을 주신다.

**130** 즈카르야의 집을 찾아가신 마리아의 방문은 얼마나 놀라운가!

이는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든가 단순한 예의, 또는 일과 관련한 방문이 아니다. 마리아를 재촉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다그칩니다.”<sup>10</sup> 영혼 안에 불꽃이 있으면 게으름과 차가움은 사라진다. 누구나 깊은 감동을 받으면 기꺼이 나누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이 잉태되셨을 때 마리아가 느낀 심정이다.

9. 루카 1,37.

10. “Caritas Christi urget nos.”(2코린 5,14)

## 진리의 애덕

인간적 사랑은 너무나 자주 이기주의로 가득하게 된다. 사람들에게 물질적 재산을 나누어 주다 보면 정작 그 사람은 가난해진다. 그러나 영적 재산을 나누면 내어 준 그 사람이 오히려 풍요로워진다. 도움을 받은 형제의 선은 우리 자신의 선을 배가하여 초자연적 공로는 물론 마음의 위로가 커진다. “...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마태 18,15)

성 베드로는 성전 문 곁에서 자선을 청하는 불구자를 바라보고 나서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sup>11</sup> 하며 그에게 건강을 되찾아 주었다. 우리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숭고한 보물, 곧 믿음과 사랑과 희망, 하느님의 평화를 내어 주도록 하자.

또한 이 세상에는 성 바오로의 마음이 필요하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2코린 12,15)

이 세상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위대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끊임없이 체험하게 한다. “사람들을 그토록 깊이 사랑하신 저 마음을 보라!” 사실 세상은 | 목자 없는 길 잃은 양떼, 131  
 굶어 죽어가는 이들, 죄의 무게에 짓눌리는 이들, 고통스러운 회한으로 괴로워하는 이들로 가득 차 연민을 불러일으킨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

11. 사도 3,6.

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sup>12</sup> 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연민의 말씀을 건네신다.

음으로 양으로 봉사하겠다고 서원한 관대한 사제들은 훌륭한 귀감을 보이며 사람들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 사도직도 그래야 한다. 인류복음화성의 활동, 교황청 어린이 전교회, 지역 사제들의 목표는 참으로 거룩하다. ... “하느님께 선택받은 사람답게 ...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 ... 을 입으십시오.”<sup>13</sup> 연민의 마음은 천사와 성인들과 같은 심성이다.

하느님의 아드님은 인간이 되시어 “무지하여 길을 벗어난 이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게 되었다.”<sup>14</sup> 길을 잃고 헤매는 수많은 사람에게 연민을 지닌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라고 당신 스스로 선포하심으로써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은 또한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sup>15</sup> 하시며 천국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셨다.

모든 사도적 영혼 안에, 악의 길을 따라 지옥으로 걸어가는 많은 이에 대한 깊은 연민의 섬세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과 형제들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자. 영원한 삶이 믿는 이들 앞에 놓여 있다.

주님의 기도 후반부는 우리 자신의 필요와 형제들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간청한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

12. 마태 15,32.

13. 콜로 3,12.

14. 히브 5,2.

15. 요한 14,4.

서.” 하고 청하는 것은 진리의 양식, 곧 성체적 양식을 달라는 뜻이다. |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들을 용서하듯이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이는 곧 우리의 죄악과 하느님께 범한 잘못을 용서해 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방심하여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떨어지지 않도록 “유혹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어제든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과 화해할 때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132**

기회가 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특히 믿음의 가족들에게 좋은 일을 합시다.(갈라 6,10)

## 가정

사도직 터전의 기초는 가정이다. 하느님께서 이를 바라신다.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가정 또한 거룩하게 해야 한다.

성가정 축일에 우리는 성 바오로가 콜로새 신자들에게 보낸 서간을 봉독한다.

“하느님께 선택된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답게 마음에서어나오는 동정과 호의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참아 주고 서로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입으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 지혜를 다하여 서로 가르치고 타이르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시편과 찬미가와 영가를 불러 드리십시오

오.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이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서,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주님 안에 사는 사람 134  
은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오. 그리고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여러분, 무슨 일에서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일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들을 들볶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그들의 기를 꺾고 맙니다.”(골로 3,12-21)

레오 13세 교황은 우리 자신과 가정을 거룩하게 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하느님의 명령으로 예정된 시간이 다가와 오랜 세기에 걸쳐 기다려온 인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일이 완성될 때,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질서와 경륜을 드러내 이러한 사명을 거룩하게 시작한 가정의 품위 있는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모든 인간은 한 가족이라는 사회와 덕과 성성을 드러내는 가장 완전한 모범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모든 민족에게 제시된 나자렛 가정입니다. 정의의 태양, 곧 우리 하느님이며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충만한 빛을 웅장하게 드러내시기에 앞서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와 당신의 아버지로서 충실했던 거룩한 사람 성 요셉과 함께 숨은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 공동체에서, 같은 지붕 아래 사는 이들 사이의 일상적인 관계 안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삶, 관습의 성화, 신심 실천, 곧 모든 이의 귀감이 되기로 예정된 성가정에서 무엇보다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덕을 보고 기뻐할 때 우리는 다른 곳에

- 135 서도 덕을 실천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나님의 섭리는 온통 선으로 가득한 계획 안에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상황이나 출신지 여하를 불문하고 이러한 귀감을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써 모든 덕의 귀감과 그 덕을 실천하라는 초대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 나자렛에서

복음은 실제로 이렇게 말한다. “헤로데가 죽자, 꿈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아르켈라오스가 아버지 헤로데를 이어 유다를 다스린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러다가 꿈에 지시를 받고 갈릴래아 지방으로 떠나, 나자렛이라고 하는 고을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이로써 예언자들을 통하여 ‘그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마태 2,19-23)

성가정은 나자렛에서 사랑을 나누며 조용히 살았다. 그 시기에 대해 복음이 전하는 유일한 일화는, 과일절 축제 때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잃었다 되찾은 이야기다. 이 일화는 많은 논거를 제공하는 짧은 말씀으로 마무리된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총애

도 더하여 갔다.”<sup>1</sup>

복음은 예루살렘에 가신 예수님의 | 범상치 않은 지혜를 전 136  
하며 그 사명을 미리 알려 주는 이야기 외에는 30년이 넘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해 침묵한다.

여기서 우리는 신뢰할 만한 줄거리로 이야기를 재구성하여  
잘 살펴볼 수 있다.

성 요셉은 성인이며 노동자, 예수님의 양부, 지극히 거룩하  
신 마리아의 남편으로 성가정의 참된 가장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참된 어머니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성 요셉의  
순결한 아내, 인류의 공동사도요 공동구속자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성화하는 분이신 성부의 활동의 증보자,  
마리아의 참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이다. 예수님은 말씀  
과 당신의 죽음으로 초자연적 생명을 사람들에게 되돌려줄  
때를 기다리며 거룩한 삶의 귀감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신다.

인류의 가장 장엄한 성전인 작은 집에 계시던 지극히 거룩  
하신 세 분에 대해 관상해 보자. 날마다 얼마나 많은 천사들  
이 그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와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지키며  
침묵의 성인 요셉을 공경했을까!

바로 거기에 어린이와 젊은이들의 귀감이 있다.

바로 거기에 세 송이 백합, 곧 요셉과 마리아, 가장 향기로  
운 예수님이 계셨다. 바로 거기서 개인의 모든 책임, 가정적  
인 모든 덕, 모든 종교적 실천, 모든 예의와 사회적 책임이 완  
벽하게 실천되었다.

성가정에서는 모든 것이 단순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감이

1. 루카 2,51-52.

될 고귀한 모습과 위엄이 있었다.

성가정에서 나는 모든 대화는 지극히 거룩했다. 가장 충만한 일치와 참된 이상이 성가정에서 실현되었다. 성가정은 지상생활의 본보기로서 하늘나라를 이 지상에서 미리 살아가게 해 준다.

### 137 덕이 있는 집

참된 근면함에 대해 감탄해 보자. 성 요셉은 작은 마을의 목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마태 13,55) 하고 수군거렸다. 요셉은 자연법과 율법이 요청하는 대로 기꺼이, 자발적인 초자연적 정신으로 열심히 일했다.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작은 수입에 만족하면서 소박한 일을 기꺼이 했다. 성가정에서 요셉은 하늘에 계신 성부를 드러낸다. 가장 활동적이신 하느님은 또 순수하게 활동하신다. 성 요셉은 한 인간으로서 가장 온전히 하느님을 받았다. 성 요셉의 마음속에는 천상의 것들로 가득했다. 그의 심장은 언제나 하느님을 위해 뛰고 있었다.

예수님은 처음에는 요셉을 도왔으나 차츰 주도적으로 일을 했으며, 마침내 성 요셉의 목공소 일을 물려받으면서 모든 것을 책임졌다. “저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그분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스승의 모습을 드러내셨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 마을의 목수가 아닌가?” 하고 서로 물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요한 5,17 참조)

그분의 영혼은 활동을 하시면서 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셨다. 그분의 심장은 하느님과 인류를 향해 끊임없이 뛰고 있었다.

마리아는 히브리 여성들의 관습에 따라 집안일에 바빴다. 노동은 성화의 기반이 된다. 게으른 사람은 결코 성인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음식을 준비하고 옷을 만들고 집안을 정리하며 물레를 돌리는 마리아를 떠올릴 수 있다. 또 예수님과 요셉을 보살피고 친척과 친구들과 적절한 관계를 맺는 마리아를 떠올려 볼 수 있다. 마리아의 생각은 얼마나 드높았던가! |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민첩하게 움직였던가! 마리아 138  
는 구유에서 들은 말씀과 성전에서 잃었던 예수님을 되찾았을 때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곱곰이 되새겼다.

신심생활. 복음은 마리아와 요셉이 해마다 파스카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전한다. 실제로 율법은 남자들만의 소관이었고(탈출 23,17), 여성들은 기도생활 외에는 율법에 관여하지 않았다. 여기서 마리아의 종교적 영혼에 한줄기 빛이 비치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지혜와 키가 자랐고 ... 총애도 더하여 가는 것'을 보면서 형언할 수 없는 위안을 얻으셨다. 우리가 성당 안에 모셔진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늘 찾아 뵙는 것처럼, 마리아는 사람이 되시어 함께 사시는 하느님을 향해 늘 큰 사랑을 불태웠다.

성가정은 히브리 관습에 따라 나자렛 집에서 매일 아침과 밤에, 특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드렸고, 안식일에는 함께 회당에 가곤 하셨다.

그 작은 집은 모든 덕을 배우는 학교였다. 예수님은 아이들

가운데 가장 잘 순종했고 온순했다. 마리아는 어머니들 가운데 가장 사려 깊었고, 요셉은 최고의 가장이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늘 주의를 기울였고, 그 뜻을 언제나 널리 알리며 실행하고자 했다. 순종적인 아내 마리아는 요셉이 무언가를 필요로 할 때마다 늘 주의를 기울여 채워나갔다. 예수님은 양부 요셉을 하늘에 계신 성부의 참 대리인으로 모시며 순종했다. 요셉은 이 모두를 단순하고 온화하게 받아들였다.

평화 속에, 그리스도교적 정신 안에, 그리고 합당한 질서 아래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존중하며 충실하게 걸어간다. | 하느님께서 맡기신 자녀들을 보물로 이해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영적 물질적 행복을 준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한다. 가정은 평화, 질서, 정직, 노동, 신심으로 늘 풍요롭다.

## 성가정 신심

성가정 신심이 곳곳에 퍼지고 있다. 레오 13세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영감을 준다.

“이러한 이유로 가톨릭 신자 사이에 빠르게 스며든 올바른 성가정 신심이 날마다 성장합니다. 이는 성가정에 개별적으로 주어진 명예로움만 아니라 성가정이라는 이름을 지닌 그리스도인 단체가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성가정 신심에 대한 열정이 타오르도록 전임 교황들이 다져 놓은 특징과 영적 호

의가 이를 드러냅니다. 성가정 신심은 17세기부터 높이 평가되면서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유럽 전역으로 퍼졌으며,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와 미국에도 전파되어 많은 후원을 받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완전함과 가정적인 모든 덕을 지닌 성가정의 모범보다 더 완전하고 유익한 본보기는 그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 구성원들이 간청하면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이 도와주러 오시어, 그 가족이 사랑을 보존하며 서로 덕을 본받도록 재촉하실 것입니다. | 사방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시련을 견디게 하며 완화시킬 것입니다.” 140

레오 13세 교황은 성가정 신심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이 성가정이 되도록 봉헌해야 한다고 권한다. 베네딕토 15세는 모든 성당에 성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미사를 봉헌하라고 권했다.

가정 구성원의 성모 신심은 서로 더욱 일치하도록 하며 가정의 모든 구성원 사이에 온화한 연대를 이룬다. 성모 신심은 격정과 분노를 없애고 권위와 자유의 조화를 이룬다. 자녀 교육에 큰 도움을 주며, 부모는 권위를 지닌 하느님의 대리인임을 가르친다.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게 한다. 순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며, 기쁘고 안전하게 잘 걸어갈게 한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

(사도 1,14)

### 교회의 사명

교회는 여러 세기에 걸쳐 시간 속에서 구체화되고 확장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는 그분의 신비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며 성화하신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신다.

마리아는 교회의 생명이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참된 “교회의 혼”<sup>1)</sup>이다.

교회를 통해 선이 구현되며, 초자연적 삶과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은 성모 마리아를 거쳤고, 지금도 여전히 성모님을 거친다. 따라서 마리아의 사도직은 교회만큼이나 넓다. 교회의 사도직은 이미 자녀가 된 교회 구성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과 너희) 죄로

1. 이 표현은 성령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는 마리아를 언급하는 이 표현을 주의 깊고 명확하게 숙지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나올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표현에서는 더 그러하다.

인해 잘못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는 모든 이여, | 나에 142  
 게 오라.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하며 부르시는 모든 사  
 람이 사도직 대상이다.

마리아는 왜 교회의 생명이신가? 그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시기 때문이다. 교회의 모든 지체는 “모후이시며 생명이신 마리아를 찬미”한다. 마리아는 교회의 머리와 하나 된 모든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의 생명이시다. 마리아는 왜 교회의 영혼이신가? 영혼은 몸의 활력과 활동의 시작이며 근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교회의 창립자, 첫 시작, 신비체의 머리요, 실제로 교회이시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라고 말씀하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생명이요 감미로운 희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시다. 교회의 창시자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함당하게 탄생하셨으며, 생명과 구원이 예수님에게서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갈바리아에서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로 선포하셨다. 자녀들에게 생명을 전해 주시는 분은 어머니시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마리아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당신에게서 태어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 지체를 이루는 자녀들을 교회에서 낳고 또 자라게 하신다고 가르친다.

## 교회 안의 마리아

엔리코 롤랑은 「마리아의 영광스러운 영혼 *La gloriosa anima di Maria*」에서 마리아가 교회의 생명이요 혼이라고 일컬을 수 있

는 가장 아름답고 심오한 이유를 설명한다. 대수도원장인 롤랑은 또 말하길, 신비로운 교회는 참되고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강생이라고 한다.

사람이 되신 말씀의 신비는 마리아의 참여와 강력한 협력을  
**143** 통해 | 교회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교회도 잉태기, 탄생기, 어린 시절, 사춘기, 성장기가 있다.

이 모든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요한 2.1 참조)는 복음사가의 말씀이 거듭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는 성령강림절에 다락방에서 탄생했다. 다락방은 교회의 베들레헴이다. 신약시대의 목자들이 거기 있었고, 마리아 또한 거기 계셨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서 유년기를 보냈다. 힘있는 이들과 박해자들이 교회의 목숨을 노렸다. 교회는 또한 연약한 인간처럼 악마의 세력 때문에 시련을 겪었다. 교회도 기도하고 격려하며 말과 귀감으로 비추어주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이는 몇 세기에 걸쳐 또한 여러 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한 모든 단체의 첫 걸음을 이끄는 문제였다. 마리아 또한 거기에 계셨다.

교회는 사춘기를 겪었다. 그것은 외부와 또 내부의 이단과의 싸움이였다. 교회의 적대자들과 함당치 않은 자녀들은 교회를 박해하며 교회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스럽고 거룩한 화관을 벗기려 했다. 이에 교회는 교회를 지키기 위해 에페소 공의회를 소집했다. 마리아 또한 거기 계셨다.

코르넬리우스 아 라피데는 “오, 지극히 선하신 예수님! 당신은 당신 어머니가 이 땅에 더 사시어 교회를 도와주시길 바

라며, 당신 대신 성모 마리아께서 교회의 굳건한 기둥이 되시어 사도들의 박사, 신자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길 바라셨습니다.” 하고 외쳤다.

이후 수세기에 걸친 교회 역사의 장이 시작된다. 그 역사의 모든 시기에, 교회에 닥친 외적 내적인 모든 박해와 이단 가운데, 교회에 몰아친 온갖 폭풍과 공격 속에서 교회는 언제나 승리했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 씬처럼 악마의 머리가 짓밟힌 것이다. 마리아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놀랍게도 끊임없이 확장되었고, 경이롭고도 평화로 144  
운 방법으로 온갖 어려움을 극복했으며, 탄복할 만한 성성의 결실을 거두었다. 교회는 놀랍고 영원하며 늘 새로운 활력이 생겨났다. … 마리아께서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빛을 비추고, 변호하고, 지지하며, 활력을 불어넣으신다. 마리아는 생명이시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영혼이시다. 마리아께서는 늘 거기 계셨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의 말씀은, 교회를 활성화하여 교회가 행동하도록 고무하는 마리아를 기리는 감탄으로 가득하다. 요한은 마리아께서 태양처럼 끊임없이 햇살을 퍼뜨리며 지구를 따뜻하게 한다며 찬미를 드린다. 태양은 자연에게 영혼과 같아 비옥함과 생명, 꽃의 활기, 빛과 열매를 끊임없이 생성한다. 어딘가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이 거룩한 찬가를 바쳤다. “오, 마리아여, 당신은 끊임없이 비추는 햇살, 은혜로운 생명의 보물, 축복이 넘쳐흐르는 시냇물, 모든 은총의 근원이요

중재자이십니다.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영혼들 가운데 당신의 빛과 기쁨과 생명을, 그리고 폭포처럼 쏟아지는 사랑과 한없는 축복을 끊임없이 내려 주십니다.”

## 해설

마리아의 사도직이 지닌 위력과 다함없는 풍요로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한다면, 지상에서의 마리아의 내적 삶과 천국에서 마리아가 누리는 무한한 영광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마리아는 내적이고 영적이며 관상적인 매우 깊은 영혼을 지니셨다. | 복음사가 성 루카는,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루카 2,19,51)고 두 번이나 언급한다.

우리는 마리아를 ‘교부들의 모후’라고 부른다. 메시아를 향한 마리아의 갈망이 모든 교부를 능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예언자들의 모후’라고 하는데, 이는 마리아가 신비로운 하나님에 대해 모든 예언자보다 더 잘 아셨기 때문이다. 또한 ‘사도들의 모후’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리아가 자신에게만 알려진 여러 사실과 말씀을 사도들에게 드러내셨기 때문이다.

마리아에 대해 깊은 신심을 지닌 어느 작가는 이렇게 말한다. “사도들은 성령강림으로 모든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만,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그보다 더 빨리, 더 깊이 그 모든 것을 이해하셨다. 마리아는 거룩한 은총과 거룩한 덕은 물론 거룩한 진리로 가득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며 인사했다. 하느님께서 마리아와 함께 계셨

기에 천사는 마리아와 함께 기뻐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사랑으로 하느님과 일치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해 마리아에게 사도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다.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요한 16,13)

천사적이라 이르는 성 토마스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자. 예수님과 마리아가 등장하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성 토마스의 해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운 혼인이 지닌 상징성에 대해 숙고하게 한다. 마리아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모든 영혼의 혼인에서도 기도를 통해 은총을 얻어 주시어, 그리스도와 영혼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

교회 안에서 마리아는 ‘거룩한 상지의 옥좌’에 앉아 계시며, 교황, 박사, 글 쓰는 이와 설교가들에게 거룩한 지혜를 전하신다. 마리아는 ‘천상 은총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이다. | 사람 146  
들의 영혼은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다.

“은총과 진리가 충만하신”<sup>2</sup> 그리스도에게서 주어지는 진리와 은총은 교회의 생명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

##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은 “교회를 말씀과 더불어

2. 요한 1,14.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 주름 같은 것 없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당신 앞에 서게 하시며,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에페 5,26) 따라서 우리는 교회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따르며,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옹호하며, 교회를 확장해야 한다. … 우리는 교황과 주교, 교회의 모든 사목자를 사랑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들, 그리스도 신비체의 살아있는 지체요, 하늘나라의 계승자임을 나타낸다. 이는 일반적인 현실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각 사람은 자기 교구와 본당, 그리고 본당신부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므로 본당과 교구, 본당신부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려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다. “사제는 교회의 인격을 대변하고, 교회의 말씀을 전하며, 교회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어떤 독실한 과부는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키웠으므로 그들은 매우 반듯하게 성장했다. 또한 이 과부는 병든 남편을 오랫동안 정성껏 돌보았다. 예순 살이 되자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역량을 본당을 위해 쏟았다. 새로운 성당 건립을 위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 액수의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봉헌금을 모았고, 자선 단체를 조직하고, 교리와 성가와 기도를 가르쳤다. … 새로운 성당이 완공되자 가톨릭 단체들이 번창했고, 본당의 모든 신자의 삶이 향상되었고, 도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를 뚜렷이 인식한 사람들은 그 과부에게 ‘본당의 어머니’라는 놀랍고도 뜻깊은 이름을 헌정했다.

우리도 이처럼 착실한 본당신자로서 본당과 함께 살아가자. 교구의 착실한 지체가 되어 교구와 함께 살아가자. 교회의 충실한 자녀로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착실한 본당신자가 되자. 교구의 착실한 지체가 되어 교구 활동에 참여하자.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영원히 그리스도께 속하는 길이다.

본당에는 성사 집행, 하느님 말씀의 설교 등 여러 직무가 있다. 한결같이 좋은 모범을 보이며, 본당사제의 요청에 적극 응하자.

남성과 청년은 강론대와 성가대 앞줄 난간에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은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므로 남성들이 그러해야 한다.

본당에는 자선 활동, 가톨릭 협회, 봉사 단체 등이 있다. 좋은 본당신자는 자기 신분과 처지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단체에서 활동하며, 이런 활동에 대해 좋게 말하고 열심히 참여한다.

본당에는 교리수업이 있고, 그리스도교적 신앙에 기반을 둔 사회적 정치적 활동도 있을 수 있다. 또 학교 운영이나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자선 활동이 활발한 곳이 있을 수도 있다.

각 본당에서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고 나쁘게 살아갈 수도 있다. 구원 받을 수도 있고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도 있다. 가라지는 좋은 밀과 함께 자란다. | 주 148  
 님이 영원한 곳간에 모을 곡식을 수확하러 오실 때 선택 받은 밀알이 되도록 하자. 그날 가라지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자신의 본당에서 참된 사도, 곧 겸손하고 신심 깊고 끈기

있는 사도가 되라.

“나는 가톨릭 신자이지만 성직자를 좋아하지 않아.”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종교인이지만 신앙을 실천하진 않아.”라고 말하지 마라. 길은 하나뿐이다.

“나는 비록 기도하지 않고, 고해성사를 보지 않지만 그래도 신자야.”라고 말하지 마라.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다.

“사제들은 다 좋아. 그렇지만 내가 다니는 본당신부는 아니야.”라고 말하지 마라.

그대의 본당신부, 그대가 다니는 본당과 교구, 오늘날 교회를 이끄는 교황과 함께 살아가라.

선의를 지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선을 위해 작용하고, 선의를 지니지 않은 사람에게는 빛이 어둠이 되고, 십자가가 어리석음이 되며, 성사는 무미건조한 것이 된다. 그러나 올바른 마음, 신실한 신앙, 순수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는 큰 평화를 얻는다.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분 때문에 수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의 행실이 아니라 당신의 목적과 은총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히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은총은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2티모 1,8-9)

### “가르치십시오”

마리아는 영적 삶을 통해 자녀들을 키우며 하느님께 이끄는 어머니이다. 다음은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의 말이다. “마리아와 함께 일치하지 않은 채 여러 해를 살아간 사람보다 한 달이라도 어지신 이 어머니와 일치하여 살아간 사람이 하느님 사랑에 있어서 더 많이 진보한다.”

성 바오로는 에페소 사람들에게 이렇게 썼다.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150**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 만물 안에 계십니다. ... 그분께서 어떤 이들은 사도로, 어떤 이들은 예언자로, 어떤 이들은 복음 선포자로, 어떤 이들은 목자나 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직무를 수행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서 일치를 이루고 성숙한 사람이 되며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에페 4.1-6.11-13)

하느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람, 곧 설교하는 사도, 사도들을 돕는 복음사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이끄는 사목자, 믿는 이들을 가르치는 교회박사 등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가 완전해지도록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숙해질 때까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당신 자신을 점진적으로 형성하신다. 어린아이에서 온전한 어른이 될 때까지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성장하게 하신다.

마리아는 가장 고귀한 역할을 하셨다. 마리아는 설교하지 않으셨지만 모든 이의 입에 오르내리셨다. 마리아는 모든 이를 가르치셨고 근본적인 신비를 알려주셨다.

## 스승이신 마리아

교회의 첫 순간부터 함께하신 마리아는 사도들과 신자들의 든든한 지렛이 되어주셨다. 마리아는 어떠한 권한도 지니지 않으셨지만 하느님 어머니로서의 위엄과 성덕, 거룩한 말씀

으로 지극한 존경을 받으셨다.

성령강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려고] 세상으로 흩어졌다. 전승에 따르면 마리아는 복음사가 성 요한을 따라 에페소로 가셨으며, 사도의 설교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범으로 | 그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151**

회심한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어머니를 알아 뵙고 경의를 표하기 위해 에페소를 찾았다. 마리아는 그 모든 이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다.

순교자 성 이냐시오는 이렇게 썼다. “안티오키아의 많은 신자처럼 저는 물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 뵈려는 열렬한 갈망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께서는 풍성한 은총으로 가득하시며 그 마음에 숭고한 보물인 덕을 넘치도록 지니신 분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으셨습니다.”

성 이냐시오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이렇게 간청했다. “저는 이미 수없이 당신께 기도했습니다만,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 최근 회심하여 신앙을 받아들인 신자들을 굳건하게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성 바오로의 제자인 성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는 그리스에서 에페소로 가 마리아를 뵈었다. 그는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지니신 단순함과 존엄하신 모습을 뵙자 감탄하며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가 그곳에 함께 계신 하느님을 믿지 않았다면 성모님의 발치에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의 유년시절에 대해 마리아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었다. 마리아는 성 루카에게 예수님의 유년시절, 곧 강생, 탄생,

이집트 피난에 대해 이야기하셨을 것이다.

마리아의 말씀과 가르침, 사도직에 대한 대주교 성 일테폰 소의 글은 마음에 새길 만하다. 그는 마리아가 지니신 거룩한 지식과, 마리아가 복음사가들과 오늘날 ‘선한 출판’이라고 일컫는 사도직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하셨고, 그 가운데 일어난 많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셨기에 | 그 일화들에 확신을 갖고 정확하게 사도들에게 전하실 수 있었다. 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자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때가 되자 명확한 저술 형태로 영구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성모 승천에 대한 설교 5)

성 베다 베네라빌리스 사제 학자도 성 루카복음 2장 19절과 51절의 “이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라는 말씀을 해설하면서 이와 유사한 설명을 한다. “동정 마리아는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셨다. 성모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여 마음속에 간직하며 곰곰이 새기셨다. 이는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사실을 사도와 신자들에게 들려주어, 온 세상을 위해 저술하고 선포하기 위함이었다.”(주님 공현 대축일 후 첫째 주일 강론)

## 마리아의 공로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적 명료함으로 그 견해를 밝혔다. “마리아는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사도들과 복음사가들이

공로를 얻게 하셨다.”(성모 승천 대축일 독서 설교)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강생, 마리아의 성녀 엘리사벳 방문과 같은 특별한 계시에 대해 듣지 못했다면 그렇게 설교하거나 저술하지 못했을 것이다. 성 암브로시오의 저술에서도 우리는 소중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여느 사도들보다 성 요한이 거룩한 신비에 대해 더 깊이있게 말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성 요한은 하느님의 계획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던 마리아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다.”

데우츠의 대수도원장 루페르트는 하느님의 어머니를 “스승 중의 스승”이라고 칭하며 다음과 같이 | 말했다. “사도들은 153 성령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에게는 아직도 마리아의 가르침이 필요했다. 이는 성령께서 전하시는 내용을 더 잘 이해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리아가 교회 안에서 이루신 직무에 대한 성 토마스 주교의 성찰은 매우 아름답고 값지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성모 마리아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마리아의 남은 생애는 길고 힘든 가운데 한숨과 눈물로 예수님과 다시 만날 때를 앞당기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뜻이라 여기시며 위안을 받으셨을 수도 있다. 반면에 당신의 가르침과 지탱으로 신자들이 일깨움을 받고 힘을 얻어 성장해야 하는 교회의 필요를 마리아는 깊이 의식하셨다. 게다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으뜸가는 분, 곧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에 협력하신 분을 보려고 곳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모여들었다. 마리아를 직접 뵈는 것은 그분에 대한 명성과 모든 예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마리아

께서 며칠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교회가 마리아의 가르침과 성덕을 통해 굳건히 서게 하려는 것이었다.”(사도들의 모후께 바치는 의무기도)

## 설교합시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마태 28,19)라는  
**154**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시다. 그 명령을 가능한 한 |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하느님 말씀을 인쇄  
 된 말씀으로 널리 퍼뜨린다면, 영화가 참으로 효과적으로 폭  
 넓게 이야기한다면, 라디오가 광대한 지역에 있는 가정과 각  
 개인에게 말씀을 전한다면 그것들이 가져오는 특별한 결과가  
 과연 어떠할까? 비오 11세 교황과 비오 12세 교황이 이에 대  
 해 이미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과 조연과 호소는 가톨릭  
 신자와 사제들에게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사용  
 하라고 촉구한다. … 사도들은 하느님이 파견하시며 맡기신  
 사명 수행을 완수하기 위해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우리 의무  
 는 복음을 위해 사용할 수단을 가지고 모든 이에게 다다른  
 것이다. 이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  
 여라.” 하신 명령을 완수하는 것이다.

## 출판

나폴레옹은 출판을 “막강한 힘”이라 했고, 은수자 피에르는

1. 마르 16,15.

“지상의 전능한 힘”이라고 했으며, 스탈즈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제비뽑기를 하는 자리”라고 했다.

콩브는 반反성직파들의 출판으로 인해 프랑스는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되었다고 말한다. 무신론자들의 신문은, 아동 문학이 하느님께 대한 신앙에서 어린이들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레오 13세는 악한 출판물은 엄청난 해를 끼친다고 단언했다. 성 비오 10세는 세상에 가톨릭교회를 옹호하는 가톨릭 출판물이 없다면 성당을 짓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했다!

비오 11세는 리에티 주교에게 “출판 사도직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최상의 사도적 활동”이라고 했다.

비오 11세는 성 안토니오 마리아 클라렛과의 담화에서 이렇게 덧붙였다. “출판, 서적은 고대에는 알지 못했고 가지고 있을 수도 없던 수단과 방법을 가져다준다. | 오늘날 출판과 서적은 우리 삶에서 참으로 중요한 활동영역을 제시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출판 사도직은 설교 사도직처럼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느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이다. 출판 사도직은 인쇄물을 사용하고, 설교 사도직은 생생한 목소리를 사용하듯이 각 사도직이 사용하는 수단은 다르다.

155

비오 11세는 성 안토니오 클라렛을 출판 사도라고 칭송하며 이렇게 말했다. “더욱 폭넓고, 더욱 현대적이고, 더욱 신중하고, 더욱 활기차고, 더욱 창의적이며, 더욱 대중에게 호감을 주는 책, 소책자, 거리와 공간의 한계를 없애는 신문을 통해 사목 효과를 배가시킨 것은 그가 수행한 직무 가운데 으뜸가는 것으로, 그의 지위와 영광과 특별한 공로를 드러낸다.”

그는 사도 성 바오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쓰고 또 이야

기했다.

비오 12세는 추기경이었을 때 이렇게 썼다. “사도직을 위해 힘을 쏟는 이들이 가톨릭 신문을 첫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신문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편견을 없애며, 가톨릭 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 현대적 수단

### 영 화

비오 12세는 이렇게 말했다. “[영화] 가정과 대도시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거대한 힘을 영화 제작자들이 제대로 깨닫고 있는지 때때로 의문이 든다. 눈과 귀는 곧장 인간의 영혼에 이르는 드넓은 길이다. | 그들이 동시에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눈과 귀는 모두 활짝 열리게 된다.

화면을 통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일까? 젊은이의 지식 창고가 채워지고, 결정적으로 인격을 형성하는 행동 규정과 동기는 어디서 형성되며 어떤 자극을 받을까? 그것은 그들을 더 나은 시민이 되게 하여 법규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일까? 건전한 기쁨과 위로에서 위안을 찾고 재충전하게 될까? 성 바오로는 고대 그리스 시인 메난드로스가 고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라고 쓴 글을 인정했다. 그 당시에 진실했던 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진실하다. 인간의 성품은 몇 세기가 흘러도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 나쁜

교제가 좋은 관습을 망치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느님의 법규와 품위를 조롱하는 행동을 영화에서 생생하게 보여줄 때 좋은 관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영화 산업이 제공하는 선물의 창고는 얼마나 방대한지 모른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늘 활발하게 움직이는 악령이 불경한 목적으로 그 수단을 왜곡하는 이유다.”<sup>2</sup>

### 라디오

“거룩한 업적을 남기신 전임교황 [비오11세]께서 바티칸 라디오 방송국을 세운 지 어느덧 14년이 지났다. 라디오 방송국을 세울 당시 그분은 방송국을 설계하고 감독한 마르코니를 동반하셨다. 그분이 맨 먼저 하신 말씀은 하느님께 드린 감사였다. | 인간에게 기술을 발견하고 완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시어 사람의 목소리가 지구 끝까지 전파되어 태양 아래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이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157

인간의 모든 발명처럼 라디오도 선과 악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라디오는 거짓을 퍼뜨리고, 단순하고 무지한 이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여러 나라와 민족 간에 평화를 깨뜨리는데 사용되었고 또 사용되고 있다.

이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을 남용하는 것이다. 남용을 방지하고 없애는 것은 제작자들의 책임이요 의무다. 라디오가 전하는 선이 악을 능가하여 악을 소멸시킬 수 있기를 빈다.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일까? 분명 이는 인간의 가장 큰 노

2. 비오 12세, 할리우드 영화위원회 집행위원들에게 한 연설, 1945년 7월 24일.

력을 요구하는 숭고한 목표이며 우리의 간절한 기도다.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국을 축복해 주시기를 청한다.”

이제 교황 비오 11세의 회칙 「그리스도교적 교육 *Dioini Illius Magistri*」의 말씀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자.

“그 어느 때보다 특별히 지금은 더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한다. 도덕적 종교적 좌절의 위험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다. … 특별히 요즘엔 불경스럽고 비도덕적인 책들이 아주 저렴하게 널리 유통되고 있고, 각종 영화도 점점 더 많이 유포되고 있다. 또한 라디오도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을 조장하고 있다.

이처럼 새롭고도 절박한 사도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세상 곳곳의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 올바른 사고와 활동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는 벌써부터 위로를 주고 있다. | 그러나 아직 많은 것이 미흡하다. 교회의 목소리, 모든 사도직의 스승과 귀감, 하느님 말씀이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는 적절한 수단과 편리한 형태를 통하여 널리 퍼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예수님처럼 영혼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을 위한 기도(바로 오로인의 봉헌기도, 기도서 47쪽)

주님, 오늘 미사성제를 드리는 사제들과 하나 되어 성체이신 예수님과 작은 제물인 저 자신을

1.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는 많은 오류와 나쁜 표양을 보속하고

2. 이 강력한 수단에 속거나 유혹되어 아버지 당신 사랑에서 멀어져 가는 이들을 위해 당신의 자비를 구하며

3. 이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과 행동을 이처럼 빛나게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는 이들의 회심을 위하여

4.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시며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만을 따르기 위하여

5.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알게 하고, 그분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는 확실한 길이며 완전한 승수라는 것을 알고 전하기 위하여

6. 교회 안에 사회 커뮤니케이션 사도직에 봉헌된 사제, | 159  
수도자, 평신도들이 많아져 온 세상에 구원의 소식을 널리 전하기 위하여

7. 저작자와 기술자, 그리고 보급자들이 복음의 정신으로 슬기롭게 되어,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증거하도록

8. 사회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가톨릭 창안이 점점 증가하고, 인간적이고 그리스도교적인 참된 가치를 효과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9. 저희 모두가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과 신뢰로써 생명의 원천으로 나아가, 당신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양육될 필요성을 느끼도록 당신께 바치오니, 아버지,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빛과 사랑과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라오.(유딧 13,18)

### 투쟁과 승리

마리아는 교회를 보호하신다. 로레토의 성모 호칭 기도에서 마리아는 “다윗의 탑, 상아탑”이라 불린다. 마리아는 여러 번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위협에서 구해내셨다. 아기 예수님의 목숨을 요셉과 함께 사악한 헤로데에게서 구해낸 것처럼 말이다. 예수님의 삶은 반대받는 표징이 되셨다. 예수님은 많은 사랑을 받으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미움을 받으셨다. 이와 같은 일은 교회에도 일어난다. 여러 세기에 걸쳐 새로운 헤로데, 새로운 빌라도, 새로운 카야파들이 나타나 계락을 꾸미며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했다. 동정 마리아는 언제나 교회에 승리를 가져다주셨다. 예수님은 교회에 영원한 평화만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다. 마리아는 언제나 악마의 머리를 짓밟고 계신다.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sup>2</sup>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한 후 고향으로 돌아가자 질투

1. “Turrus Davidica, Turrus eburnea.”

2. “Et portae inferi non provalerunt adversus eam.”(마태 16,18)

심에 사로잡힌 헤로데는 자신이 속은 것에 크게 화를 냈다고 성 마태오는 전한다. 헤로데는 동방박사들이 돌아와 그들이 유다인의 임금을 발견했는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이야기해 주길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꿈에서 지시를 받고 |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러자 헤로데는 베들레헬과 그 일 161  
대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다. 그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내가 너에게 일러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헤로데가 아기를 찾아 없애 버리려고 한다.”<sup>3</sup>고 알렸다.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데리고 곧바로 떠났다. 전승과 미술 작품은 이집트로 피신하는 길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추위에서 보호하려고 품에 안고 앉아 있는 작은 나귀를 요셉이 끌고 가는 모습을 즐겨 보여준다. 그들은 고향의 안락함을 버리고 히브리인들에게 적대감을 지닌 나라를 향해 떠났다.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갈지, 또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채 지내야 했다. 그들은 아기 예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머뭇거릴 틈이 없었다. 누군가 ‘박해는 부당하다. 왜 하느님은 헤로데의 사악한 계획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고 무력하게 피하도록 하셨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인간적인 것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지 않고 너희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sup>4</sup>고 성경은 말한다.

3. 마태 2,13.

4. 이사 55,8 참조.

동정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다. 마리아는 당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셨다. 그것은 희생 제물이 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준비시키며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의 섭리가 결정한 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이렇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신한 것은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의 신비이다. 이는 창조주의 자유로운 안배였지 결코 위험한 일이 아니었다. 이는 거룩한 덕이었지 인간의 나약함이 아니었다. 생명을 지어내신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워 피신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내어 주기 위해 피신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태어나셨는데 | 왜 죽음을 피하셨을까? 만일 예수님이 유년시절에 죽으셨다면 예수님은 구원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가르침과 계명을 주며,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오셨다.”

아기 예수님이 헤로데의 희생자가 되셨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마리아는 선교사다.

성 토마스는 “하느님은 왜 다른 지역이 아닌 이집트를 선택하셨는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이렇게 답한다. “분노 속에서도 자비를 기억하는 것이 하느님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이집트에 분노하셨다. 이집트인들이 선택된 백성을 박해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느님은 거룩한 방법으로 복수하셨다. 하느님은 먼저 이집트인들을 방문하여 일깨우며 영적 보화를 주신 것이다.”

사실 성가정의 현존은 그 지역에 많은 축복을 주었다.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마리아가 성녀 엘리사벳을 방문하여 그 가정을 성화시켰듯이 성가정의 이집트 방문은 그 지역이 거룩한 이들의 땅이 되게 했다.”고 말한다. 성령강림 후 성 마르코의 복음 전파로 이집트는 성 아타나시오, 성 치릴로, 성녀 가타리나, 성녀 아폴로니아 등을 배출한 성인의 나라가 되었다.

사막에는 은수자들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 가운데는 성 바오로와 성 안토니아도 있었다.

### 마리아의 활동

마리아는 예수님을 내어 주신다. 모든 박해 이후 하느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악에서 선을 이끌어내 시는지 볼 수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 이방인들에게 내어 주셨다. 마리아는 첫 번째 선교사,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한 선교사이셨다. **163**

200년 후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들은 새로운 헤로데들, 로마 황제들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다. 그 땅은 그리스도인 삶과 완덕의 중심이 되었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교의와 미덕, 그리스도교 신심이 세상에 전파되었다. 그곳에서 수도생활이 구체적인 형태로 시작되었다. 헤아릴 수 없는 하느님의 계획을 찬미하자.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결과는 하느님께 달려 있다.” 헤로데는 박해하지만 하느님은 당신 계획을 이루신다. 헤로데는 죽이지만 하느님은 영혼을 구원하신다.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부음받은

이를 거슬러 ...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sup>5</sup>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십니다.”<sup>6</sup>

승리는 마리아의 것이었다. 2월 17일, 몇몇 장소에서 거행하는 이집트 피난 기념 미사 본기도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 “오 하느님, 당신 외아드님을 이집트로 피신하게 하여 구원하신 당신께 청하오니,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몸과 마음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주시어 천상 낙원에 들어가게 하소서.”

특별히 미사, 영성체, 성체방문, 복음 봉독 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늘 은총과 축복을 전한다.

이러한 사실은 모든 세기에 걸쳐 거듭 반복된다. 신성을 모독한 혁명적인 알비파 이단자들은 신앙이 전하는 진리를 부인하며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의 주요 지역을 휩쓸어 갔다. 164 다. 성 도미니코는 이러한 사태가 시작될 무렵 사도적 권고로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는 마리아께 달려가 묵주기도를 바쳤고, 여러 지역의 신자들에게 거룩한 현의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게 했다. 결국 마리아가 승리하여 평화를 되찾았다.

터키인들은 여러 세기에 걸쳐 교회에 끔찍스러운 악의 화신이었다.

스페인과 아프리카를 비롯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인의 노예가 되

5. 시편 2,2,4.

6. 교황을 선출할 때 드리는 찬사.

어 물건처럼 팔렸으며 비인간적인 취급을 받았다. 그때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가 개입하시어 성 베드로 놀라스코, 페냐포르트의 성 라이문도, 아라곤의 제임스 1세 왕에게 나타나셨다. 이처럼 거룩한 세 사람에게 나타나신 성모님은 노예 해방을 위해 수도회를 세우길 바란다는 원의를 드러내셨다. 그래서 자비수도회(속광회)가 창립되었다. 그 회원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도와주고 해방시키는 사명을 지녔으며, 위험에 처한 그리스도교 포로들을 대신하여 자신들이 인질이 되는 영웅적인 모습을 보였다.

1571년 10월 7일, 돈 후안 데 아우스트리아 사령관이 이끄는 그리스도인 함대가 레판토 해전에서 터키군을 무찌르고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었다. 성 비오 5세와 모든 신자는 하늘의 모후 마리아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 해전에서 2백 척의 배가 가라앉고, 90척의 배가 불에 탔으며, 3만 명의 터키군의 죽음으로 2만5천 명의 그리스도인이 해방되었다. 해상을 장악했던 터키군의 위력이 모두 무너졌다. 성 비오 5세는 승전을 기념하기 위해 “신자들의 도움”이라는 호칭을 기도문에 넣었으며, 마리아를 ‘승리의 성모님’으로 모셨다. 2년 후 교황 그레고리오 13세는 10월 7일을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로 제정했다.

1683년, 터키인들은 가톨릭교회를 다시 공격했다. 이번에는 육지였다. 그들은 유럽, 특히 이탈리아를 함락시킬 계획으로 무시무시한 군대가 먼저 비엔나를 공격했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폴란드 국왕 얀 소비에스키에게 비엔나를 도와 주

기를 청했다. 폴란드군대의 수효는 적었지만 국왕은 성모님의 이름으로 강력한 군대를 공격하자 터키군이 완전히 패배했다. 이에 교황은 ‘지극히 거룩한 마리아 성명 축일’을 제정했다.

1716년, 성모 신심이 깊었던 에우제니오 디 사보이 왕자도 이와 비슷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는 묵주기도를 하지 않고는 공격하는 일이 없었다. 교황 클레멘스 11세는 ‘묵주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을 제정했다.

16세기에는 개신교가 가톨릭교회를 괴롭혔다. 이 시기에 성모 신심을 지닌 수도회들, 예수회원들의 특별한 활동을 통해 신자들을 독려하여 마리아께 희망을 두게 했다.

캄파나는 이렇게 썼다. “개혁은 치솟아 오르는 화산의 용암처럼 유럽 전역으로 번지며, 고대 가톨릭 단체와 이탈리아 주변에 자주 발현하시는 마리아를 없애려 했지만, 복되신 마리아 신심은 이처럼 대대적인 파괴력에서도 가톨릭의 중심이요 심장인 이탈리아와 로마를 구했다.”

승리를 거두어 자만에 찬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교회를 박해하고 교황 비오 6세를 사보나에 투옥시켰을 때, 동정 마리아께서 도움을 청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구해주셨다. 그때 비오 6세는, 자신을 해방시켜 주시면 사보나의 자비의 성모님께 왕관을 씌어드리겠다고 서약했다. 드디어 나폴레옹은 패배하여 1814년 4월 11일 왕위에서 물러나야 했고, 자유롭게 된 비오 6세는 성모님께 드린 서약을 지켰다.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성모님 축일을 제정한 교황은 기쁨에 찬 환호 속에 로마로 돌아왔다.

지난 세기 동안 진보주의와 이성주의가 신앙을 반격하며 이

성을 신격화했다. | 이 때도 티 없이 깨끗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개입하셨다. 마리아는 루르드에 발현하시어 많은 기적으로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믿음을 일깨우셨다. **166**

그 다음엔 관능주의와 물질주의가 나타났다. 교황 레오 13세는 묵주기도 신심을 다시 일깨웠고, 가톨릭 신자들은 교황의 가르침에 진심으로 귀 기울였다. 교황에 대한 존경심이 놀랍게 퍼져나갔다. 교회의 이상은 곧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상이다.

### 기도하고 일하십시오

세상에는 가톨릭교회와 무신론을 주장하는 공산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동정 마리아는 이러한 투쟁에 개입하셨다. 성모님은 파티마에 발현하시어 당신을 신뢰하도록 회개를 요청하며, 러시아의 회심을 예고하셨다. 마리아는 당신 모성애로 세상을 구원하신다.

“우리 주 하느님을 찬양하나이다.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당신 자비를 거두지 않으시고, 바로 이 밤에 제 손을 통하여 적군들을 쳐부수셨나이다.<sup>8</sup>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움트고 동정 마리아께서 하느님의 아드임을 낳으셨나이다. 하느님께서 평화를 회복하여 지극히 미천한 것과 드높은 것을 화해시키셨나이다.”(사도들의 모후 미사)

“천주의 성모여, 당신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 곤경중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저희

**167**

8. 유딧 13,14 참조.

를 구하소서. 아름다우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여.”<sup>9</sup>

“저희의 몸과 마음을 모든 위험에서 구해 주소서. 복되고 아름다우시며 평생 동정이신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여, 당신과 함께 모든 성인의 전구로 저희에게 자비로이 구원과 평화를 주시어 모든 반목과 오류를 몰아내소서. 당신 교회가 평화 속에서 자유롭게 당신을 섬기리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전례기도문)

---

9. Sub tuum praesidium confugimus, Sancta Dei Genetrix; nostras deprecationes ne despicias in necessitatibus nostris; sed a periculis cunctis libera nos semper, Virgo gloriosa et benedica.”(고대 성모 찬가)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거레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유딧 13,20)

### 죄인들의 피난처

강생의 목적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화해다. 바로 이 사명에 하느님은 마리아를 참여시키셨다.

하느님은 자비 외에 그 어떤 속성도 드러내길 바라지 않으셨다고 거룩한 임금 다윗은 말한다. “그 자비 당신의 모든 조물 위에 미치네.” 자비는 또한 눈물의 골짜기에서 울며 탄식하는 인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 이는 마리아의 첫째가는 직무의 본질이요 활동이다. 모든 덕과 은총의 선물은 우리를 찬미에로 이끌지만 자비는 신뢰로 이끈다.

성 베르나르도는 “우리는 마리아의 동정성을 찬양하며 겸손을 선포합니다. 불행한 이들을 위한 자비는 더욱 소중합니다. 우리는 이를 사랑에 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자주 기억하며 의지합니다.”라고 말한다.

마리아는 ‘죄인의 피난처’이다. 마리아의 사명은 위대한 사도직인 진리의 말씀을 위한 것이다.

1. 시편 145,9.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sup>2</sup>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님의 사명과 같다.

루카복음에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루카 15,2) 하며 그리스도께 투덜거리는 대목이 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sup>3</sup>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

2. 1티모 1,15.

3. 루카 15,4-10 참조.

다. …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sup>4</sup>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사랑을 귀감으로 삼는 마리아의 사랑은 갈바리아에서 자신의 고통을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고통에 일치시키셨다. 예수님이 착한 목자시라면 마리아는 착한 목자의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주의 깊게 돌보시고, 잃은 양과 잃어버린 은전을 찾듯이 하느님 품으로 돌아온 죄인들을 보고 기뻐하신다. 마리아는 은전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되찾으려고 하느님께 다가가 간청하신다.

## 마리아의 마음

170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누가 마리아의 자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고 묻는다. 마리아는 우리의 어머니이시다. 이사야의 말씀은 매우 적절하다.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이사 49,15) 이는 주님께 관한 말씀이지만 가장 좋고 완전하신 어머니 마리아께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마리아는 자비의 어머니이시다. 죄인의 상태가 비참할수록 그 죄인은 하느님의 심판대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논리는 온화하고 자애롭다. “마리아의 거룩한 아드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사시다가 의로운

4. 요한 10,14-15.

이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다면, 나는 나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분께 감히 자비를 청하지 못하고, 마리아께 자비를 청한다고 해도 마리아는 ‘이 가엾은 사람아, 참 안타깝지만 너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하고 대답하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렇지 않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드님이 의로운 이들보다 ‘죄인들을 부르리’(마태 9,13 참조) 오셨다는 것을 잘 아신다.”

강생의 동기와 목표는 죄인들을 구하기(1티모 1,15 참조) 위한 것이므로 교회는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sup>5</sup> 하고 고백한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것을 아신다. 마리아는 어머니들이 더 약하고 부족한 자녀들,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각별한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리고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에게서 능력을 받으신 것은 바로 이처럼 연약한 자녀들을 위한 것임을 아신다.

171 마리아는 마음으로 겪는 질병의 빈도와 형태를 아신다. 성 암브로시오는 이렇게 썼다. | “우리의 열병은 인색입니다. 우리의 열병은 탐욕입니다. 우리의 열병은 정욕입니다. 우리의 열병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열병은 야심입니다. 우리의 열병은 분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심한 열병에 걸릴지라도 영혼을 잃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리아의 자비로움 안에서 거룩함과 건강을 다시 얻게 된다.

마리아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이길 단념하

5. “Propter nostrum salutem descendit de coelis.”(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

지 않으신다. 교회와 함께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마리아께 기도하자. 마리아는 앙심을 품는 일 없이, 평화롭고 섬세하게 배려하시므로 우리가 간청하면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신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단죄가 아니라 죄인들의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다. 마리아는 천국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sup>6</sup> 하고 늘 기도하신다. 교회는 마리아가 “나를 얻는 이는 생명을 얻고 주님께에서 총애를 받는다.”(잠언 8,35)는 말씀을 하시도록 한다.

## 마리아의 활동

무엇보다 마리아는 빛나간 이들을 부르신다. 가장 좋은 회심은 임종 때가 아니라 살아있을 때 참된 신자생활, 곧 보속의 삶을 사는 것이고, 더 좋은 회심은 마태오, 베드로, 바오로, 아우구스티노, 코르토나의 마가렛이 살아낸 사도적 삶을 사는 것이다. 나는 젊은 여성들이 자기가 걸던 사악한 길에서 벗어나 착한 어머니로 사는 여러 경우를 보았다. 나쁜 습관에 빠졌던 남성도 모범적인 아버지로 변하고, 한때 죄에 떨어졌던 소년도 열렬한 사제, 또는 수도자가 된다.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했지만 그 서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이들도 마음을 바꾸어 다시 열심한 수도자가 된다. 성 바오로처럼 한때 박해자였다가 | 사도가 된 사람들도 보았다. 신앙심이 없던 172 작가, 화가, 예술가들이 하느님과 교회의 목소리가 된다. 아

6. 루카 23,34.

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처럼 타락한 삶을 살던 이들도 귀감이 되는 올바른 삶의 길로 들어선다. 부정직하던 사람들이 타인의 귀감이 되고, 탐욕에 빠졌던 이들이 선을 베풀며, 야망에 불타던 이들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 이 모든 경우에 마리아의 손길이 함께했음을 나는 확신한다. 어린이가 세상을 올바르게 알아가는 것도 그의 어머니 때문임을 우리는 안다.

이집트의 성녀 마리아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전구로 죄에 물든 삶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성덕에 이르렀다. 어느 날 마리아는 ‘성 십자가 현양 축일’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단에 합류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헛된 것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 마리아는 성전 문 앞에 이르러 들어가려고 하자 어떤 강한 힘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을 느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허사였다. 그 순간 천상에서 밝은 빛이 자신을 비추는 것을 느끼면서 비로소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리아는 하늘로 눈을 들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자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께서 연민 가득한 눈길을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동정 마리아께 성전으로 들어가 고해성사를 보게 해주십시오고 간청했다. 마리아는 고해성사를 본 후 사막으로 가 17년간 참회의 기도를 바치면서 천국만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다.

로울라의 성 이냐시오는 회개한 후, 세상에서 위대한 선을 행하는 예수회의 창립자가 되었다. 성 카밀로 데 렐리스도 그랬다. 이처럼 마리아의 은총으로 위대한 회심자들이 된 이들의 전기를 읽게 되면 큰 도움을 받게 된다.

마리아는 죽음을 앞둔 죄인들을 성자와 화해시켜 주신다. 갈  
 바리아에서 두 죄인이 십자가형을 받고 똑같이 | 구원자 하 173  
 느님 곁에 있었다. 그러나 그곳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과 마리아는  
 마지막 순간에 한 영혼만 악마에게서 빼앗는 승리를 거두셨다.  
 곧 두 도둑 가운데 한 사람만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여 천국을  
 보장받았는데, 마리아의 기도 덕분이다. 마리아가 자신과 아드님의  
 고통을 봉헌하고 기도하시자 예수님께서 이를 받아들여 죽어가는  
 이를 용서하셨다. 이는 지금도 매일 반복되고 있다. 마리아는  
 영원히 악마의 희생물이 되는 위험에 빠져 죽어가는 자녀들을  
 한결같이 보살피시고 구원해 주신다.

경건한 몇몇 저자는 착한 도둑이 회심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예수님의 그림자가 착한 도둑 쪽으로 드리웠기 때문  
 이며

둘째, 성자의 십자가와 회개한 도둑의 십자가 사이에 마리아가  
 서 계셨기 때문이라고 했다.

A. 살메론은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했고,<sup>7</sup> A. 스피넬로도  
 이를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오른편에 드리웠기에 그 도둑은 회심했다. 사도들의 주장인  
 성 베드로의 그림자가 불구자를 고쳐 준 적도 있다. 도둑의 영혼을  
 구원하여 끔찍한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우리는 얼마나 더 높이 우리러 보아야 할까!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도 중재자로서 예수님과 도둑 사이에  
 서 계셨다. 그러므로 훌륭한 중재자이신 마리아

7. 「복음의 역사 논평 *Comm. in Evang. Historiam*,」 t. IX, 논문 40.

아의 기도를 통해 도둑이 단번에 회심하여 그리스도께로 돌아섰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sup>8</sup>

## 174 죄인들의 친구

묵주, 성모님의 메달, 신심 깊은 9일기도, 완고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성모님께 바치는 보속은 얼마나 많은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던가!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말한다. “천국에는 어머니, 곧 구세주께서 거절하실 수 없는 변호자이신 모후가 계시다. 어머니 마리아는 가장 견고한 죄인들의 피난처시다. 마리아는 내 희망의 굳건한 토대이다.”

동정 마리아의 사도직의 힘은 연옥에까지 이른다. 마리아는 연옥 영혼들의 가장 강력한 중재자시다.

아르스의 본당신부 성 요한 비안네는 죄인들과 연옥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친구와 같은 존재였다. 완고함으로 절망에 빠졌던 수많은 영혼이 그의 기도 덕분에 하느님과 화해했다. 거룩한 신부는 하느님이 주신 놀라운 은총의 선물을 가지고 있고, 초자연적인 것을 꿰뚫어보는 은총도 받았다.

신심 깊은 한 여인이 아르스의 본당신부를 찾아가 남편이 죄를 짓고 고해성사도 보지 못한 채 갑자기 죽었다고 하소연했다.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것이다. 가난한 여인은

8. “De Virginis Beatissimae Deiparae laudibus praeclarissimis” 하느님의 어머니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에 대한 교회 찬가.

남편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렸을 거라며 눈물을 흘렸다. 성인은 잠시 침묵한 후에 이렇게 말했다. “남편이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성모님께 바칠 꽃다발을 만들 때 도움을 주었던 작은 선행이 성모님께 받아들여져 죽을 때 통회할 수 있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파티마의 세 목동들에게 나타난 동정 마리아는 | 늘 죄인들 175  
을 위해 기도하며 보속할 것을 당부하셨다.

로마의 사도 성 빈센트 팔로티는 임종자들을 방문하려 갈 때 늘 묵주기도를 했다. 비엔나의 사도 성 클레멘스 호프바우어는 많은 죄인과 임종자들을 회심시켰는데, 모두 성모님 덕분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꼭 묵주기도 세 번째 현의인 영광의 신비를 바쳤고, 다른 이들에게도 묵주기도를 하도록 권했다.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는 구속주회 사제들의 강론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마리아의 자비에 대한 것이라고 했다.

거룩한 어느 주교는 팔로티 사도회의 사제들이 대피정에서 많은 사람을 회심시킨 것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동정 마리아께서 자유로이 일하시도록 간청했습니다. 성모님은 그들이 부탁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들어주십니다.”[Jean-Aime de Levezou de Vesins: (1793-1867) 1841년부터 아쟁의 주교]

1836년, 죄인들의 회심을 바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원의에 따라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성모성심수도회가 창립될 때의 그 과정이 흥미롭다.

성모성심수도회의 창립자 승리의 성모성당 주임신부는 본

당을 위해 혼신을 다 바쳐 노력했지만 그 결실이 매우 빈약했다. 몇몇 여성만이 성사생활에 열심할 뿐 사치와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 여전히 파멸의 길로 내닫고 있었다. 그들을 굽어보시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의 자비와 연민으로 보살피 주시며 때를 기다리셨다. 1836년 12월 3일 아침, 미사를 드리던 본당신부는 더 큰 실망감에 빠져 지금까지 기울인 모든 노력이 헛수고인 것만 같아 |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께 도움을 간청하며 성찬 기도를 바치는 순간 “네 본당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라.”는 소리가 내면에서 들려왔다. 바로 그 순간 마치 악몽에서 깨어난 듯 그의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미사 후 그는 수도회 창립을 위한 서류를 대주교님께 제출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성모 성심수도회 창립 준비에 착수했다. 신부는 창립기념식에 5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5백 명이 모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회심하여 본당이 열정적인 공동체로 변모했다.

죄인들의 회개를 위한 성모성심수도회는 다른 성당으로도 퍼져 나갔고, 지금은 거의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회개하는 이들을 거룩하신 당신 아드님께 데려가 은총과 용서를 받게 하여 죄인들의 피난처이심을 보여주시며 그 숭고한 사명을 계속 수행하신다.

마리아와 친밀한 이들은 마리아의 자비로우심을 널리 전하며, 불신에 사로잡혀 배은망덕함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저버린 완고한 이들의 마음이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막아낼 줄을

안다!

마리아를 잊고 오직 정의로우신 하느님만을 찾는 것 같을 때 확신을 가지고 죄인들의 피난처이신 천상 어머니에 대해 알려준다면 사람들이 희망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된다.

### 섬세한 마음

177

아르스의 본당신부는 비참한 망상에 사로잡힌 죄인들을 만나곤 했다. 신부님은 그들이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충실히 실천하여 굳건해지고, 비록 죄 가운데 있을 지라도 지옥의 불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성인의 그런 가르침은 불길처럼 타올라 마리아를 모욕하는 말이나 행동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불행한 그들이 알아듣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극복하고 생활방식을 바꿔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마리아께 끊임없이 기도하길 권했다.

성모 신심이 부족한 사도의 미지근한 말은 가련한 죄인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마저 놓치게 할 것이다. 하지만 마리아께 열렬히 기도하는 사도에게 마리아는 모성적인 따뜻한 말씀으로 가련한 이들을 낮게 하고, 고통을 없애주며, 치유되어 구원받게 해 주신다.

마리아의 가장 큰 영광은 큰 죄인을 성인과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열네 살 때부터 영혼들을 향한

목마름이 강렬했다. 어느 날 데레사는 프란치니라는 죄수가 끔찍한 범죄로 사형선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다.

데레사는 그가 회개하지 않고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두려웠다. 그의 영혼이 영원한 파멸에서 구원되길 바라는 큰 열망에 사로잡힌 데레사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데레사는 ‘내 첫 번째 죄인’이라고 이름붙인 프란치니의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교회의 기도를 하느님께 바쳤다. 단순한 성녀 데레사는 그의 회개만 아니라 그가 회개했음을 보여주는 표징을 주시기를 청했다. 하느님은

**178** 데레사의 기도를 | 받아주셨다. 프란치니는 고해성사를 보지 않은 채 사형을 당할 뻔했는데, 갑자기 옆에서 함께 걸어가던 사제가 들고 있던 십자가를 잡고 예수님의 거룩한 상처에 세 번이나 입을 맞추었으므로 사제는 사죄경을 바쳤다. 그때부터 성녀 데레사는 주님께서 “나에게 마실 물을 좀 나오.” 하며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던 말씀을 자신의 기도로 삼았다. 성녀 데레사는 영혼들을 향한 타는 목마름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워하시던 바로 그 목마름을 위로해 드리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행을 견뎌냈다.

현 시대는 마리아의 보편적 중재, 곧 은총의 분배자인 마리아의 임무, 마리아의 보편 사도직을 참되게 알아들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기를 펼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며, 인류가 성부를 만나도록 하신다. 예수님은 동정 마리아와 친밀한 일치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허락하신 사도직의 훌륭한 결실인 공덕을 마리아께 돌리길 바라신다. “오늘 당신께서는

9. 요한 4,7.

당신 백성의 적군들을 섬멸하셨습니다.”<sup>10</sup>

마리아의 참된 아드님이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언제나 새로운 수단과 활동, 시대의 필요에 맞는 창안을 이끌어내시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건네시며, 구원과 생명을 이르는 길을 모색하신다.

---

10. 유딧 13,17-18 참조.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루카 1,39-41)

### 완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인생은 죽음으로 변화하지만 파괴되지 않습니다.” 선한 영혼은 우리 몸 안에서 환대받고, 나중에는 천상의 집에서도 환대받는다. 이는 아주 다른 모습의 삶이지만 초자연적이고 영원한 삶이라는 점에서 같은 것이다. 하느님의 참된 자녀로 입양된 사람은 천상에서도 지상에서 수행한 것과 같은 사도직을 이어서 하게 된다. 지상에서 순결한 향기를 퍼뜨린 성 루이는 천국에서도 순결한 이들을 보호해 준다.

지상에서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을 기꺼이 받은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하늘나라에서도 ‘선교의 공동 수호 성인’이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거룩한 학문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일깨운다.

지상의 사도이셨던 마리아께서 지금은 천국의 사도이시다. 지상에서 가장 완전한 사도직을 하셨던 마리아가 천국에서는 보편 사도직을 하신다. 죽음 직전에 예수님이 맡기신 자녀들

1. 위령미사 입문.

을 마리아가 어찌 잊으시겠는가?

성모 마리아의 사도직의 첫 번째 직무는 악을 없애기 위해 180 악마를 짓밟는 것이고, 두 번째 직무는 선을 행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안에 사시도록 헤드리는 것이다.

악 가운데 첫째가는 악은 오류, 곧 이단이고, 두 번째 악은 죄, 다시 말해 거짓된 것을 숭배하는 것이다.

교회가 “오, 동정 마리아님, 당신은 세상의 모든 이단을 없애셨으니 기뻐하소서.”라고 노래하는 이유를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므로 “당신은 방황하는 모든 이가 신앙으로 하나 되도록 이끄실 수 있습니다.”<sup>2</sup>라며 믿는 이들의 신앙의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교황 레오 13세는 회칙 「인류의 도움 *Adiutricem*」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는 모든 이를 섬세하게 배려하는 어머니로서 교회를 보호하며 도와주기 시작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무한한 힘으로 모든 은총의 분배자가 되시어 구원의 신비를 전하는 사목자로서 끊임없이 그 결실을 나누는 사목을 하신다. 마리아는 천국에서도 그 어떤 성인보다 더 풍요롭고 강력한 사도직을 계속 하신다.”

가장 큰 선물은 모든 덕의 기초이며 뿌리인 신앙이다. 신앙 없이 하느님을 기쁘게 헤드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앙은 ‘하느님께 나아가는 첫 걸음’이다. 신앙이 없으면 하느님을 기쁘게 헤드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

2. 그리스도교 일치를 위한 기도.

니다.”<sup>3</sup>

마리아는 이러한 은총의 선물을 간청하시어 분배하고 지켜 주신다. 곧 마리아는 은총의 선물이 처음 주어질 때 함께 계셨던 것처럼 모든 위협에서 그 선물을 지켜 주신다. 악마는 성자의 피로 세워진 교회를 거슬러 집요하게 깊은 함정으로 이끌거나 공격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181 믿느냐 악마를 믿느냐’에 달려 있다. 하와는 악마를 믿음으로써 모든 이에게 파멸을 초래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말씀하신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졌다.

교회는 전례문을 통해 이렇게 말한다. “천사 가브리엘을 믿으셨기에 동정녀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으신 당신은 언제나 동정녀로 계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사람이 되신 말씀은 그리스도교 교의의 기초이며,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라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 아드님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치러 오셨다. “하느님께서 ...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sup>4</sup>

마리아는 가장 먼저 강생을 믿으셨다. 마리아는 존엄성과 완전성만이 아니라 그 때를 감지하신 면에서도 위대하시며 또 무엇보다 충실하셨다. 마리아 다음에 성녀 엘리사벳과 성 요셉과 목자들이 있지만, 온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처음으로 소개하신 분은 바로 마리아이셨다. 성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루카 1.45)이라고 했고, 이

3. 요한 17,3.

4. 히브 1,1-2.

렇게 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하느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모습을 취하여 우리 스승, 우리 사제, 우리 임금이 되었다.

믿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것이다. 이는 곧 3월 25일에 시작되어 교회의 모든 이에게 빛과 힘과 활력을 주는 나자렛 발전소의 축복의 전류에서 이탈하여 배제되는 것이다.

전선을 잘라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하는 악마는 이단의 씨앗을 심어 신앙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안센파들은 그들이 바치는 성무일도에서 신앙의 일치에 관련된 구절을 삭제했다. 세상에 처음 나타난 이단은 사탄이다. “너는 하느님처럼 될 것이다.”(창세 3,5 참조) 많은 철학자와 문학애호가들은 이런 식의 악마의 부추김에 속아 이성을 여신화하여 신봉하기에 이르렀다. 예수님과 마리아, 교회에서 이탈한 그들은 | 어둠 속을 헤매며 여러 갈래의 길로 흩어져 빛에 이르지 못했다. 182

가장 불행한 이들은 이단자다. 마리아는 이단이 새로 생길 때마다 개입하셨다. 이단은 악마다. 마리아는 이 악마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 마리아의 활동

저명한 교의신학 저자들은 모든 이단을 소멸시킨 공덕을 객관적이며 주관적인 두 가지 측면에서 마리아께 돌린다.

1)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마리아는 진리의 어머니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진리다.”(요한 14,6 참조)라고 말씀하셨다. 이단은 오류다. 빛은 어둠을 몰아낸다. 마리아께서 빛을 가져와 모든

어둠을 몰아내셨다.

2) 마리아는 티 없으시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원죄에서 면제되는 고유한 특권을 누리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한 인격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본성과 신적 본성의 일치를 본다. 마리아는 동정녀이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교의의 참됨을 증거하는 여러 기적으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라. 마리아는 하늘로 올라가셨다. 마리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인류의 첫 결실이며, 성인들의 통공으로 이루어지는 천상 은총의 분배자시다. 따라서 주요 교의는 마리아에게서,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를 통해 온다. 우리는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교의를 읽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믿는다. 마리아는 위대한 책이시다. 예수님을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게 내어 주신 것처럼 모든 이에게 주어질 복음을 간직하셨고, 또 간직하고 계시다.

**183** 마리아는 형언할 수 없는 책<sup>5</sup>이시다. 성 바오로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sup>6</sup> 하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하시다.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는 마리아를 “신앙의 총원장”이라고 한다.

5. 원본에는 ‘modo’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잘못 필사한 것 같다. 마리아를 언급한 ‘책’의 이미지가 성 에피파니우스에게로 거슬러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1950년에 이러한 책 이미지를 가져와 성 바오로 정보지의 머리글 주제로 자주 사용했다. “Ave Maria, liber incomprehensus, quae Verbum et Filium Patris mundo legendum exhibuists.”(이해할 수 없는 책이신 성모님, 당신은 세상에 말씀과 성자를 읽으라고 내어 주셨습니다.)

6. 2코린 3,2 참조.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는 마리아를 “정통 신앙의 요새”라고 한다.

크레타의 성 안드레아는 마리아께 “그리스도인 신앙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드렸다.

성 소프로니우스는 마리아를 “이단의 근절자”라고 했다.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는 사람들을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려는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신다.

레오 13세가 성 도미니코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마리아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지키는 수호자들을 끊임없이 도우신다.

마리아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 해박한 교의와 뛰어난 성덕으로 빛나는 이들을 일으키고 양성하셨고, 그들은 다양한 [이단의] 공격에 맞서 그리스도교 교의를 설파하고 수호하였다.

성 아타나시오는 마리아를 “아리우스주의의 망치”라 했고, 성 레오는 “에우티케스주의의 망치”, 성 아우구스티노는 “펠라시우스주의의 망치”, 예수회를 창설한 성 이냐시오는 “개신교의 망치”, 성 비오 10세는 “현대주의의 망치”라고 했다. 이처럼 가톨릭 진리를 수호한 신앙의 기수들은 마리아께 기도했고, 마리아는 그들을 이끄시어 당신과 함께 승리하도록 하셨다.

콘스탄티노플의 불행한 총대주교<sup>7</sup>는 마리아의 거룩한 모성을 완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예수님 안에는 두 개의 본성과 두 개의 위격, 곧 인성과 신성이 있으나 마리아는 인간의 어머니일뿐 하느님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가르쳤다. | 그는 마 184

7. 네스토리우스(381-451)는 시리아 수도승으로 428년 콘스탄티노플의 주교가 되었다.

리아가 지닌 모든 특권의 바탕이 되는 자질을 부정하고 짓밟았다.

오류는 강경했고 그 파급력은 무척 거셌다. 주교들은 이를 우려했다. 성모 마리아는 지중해의 다른 연안<sup>8</sup>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이자 성 아타나시오의 후계자인 당신의 사도 성 치릴로를 준비시키셨다. 그는 교황과 교회의 이름으로 일어나 불행한 네스토리우스와 맞서 콘스탄티노플 주교좌의 모독을 반박했다.

성 치릴로는 가톨릭의 진리를 수호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위격을 지니셨으며, 마리아는 참된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네스토리우스에 반대하는 강력한 논문 「이단반박론 *Anathematisms*」을 썼다. 바로 여기서 사도들의 모후 축일에 우리가 읽는 가장 아름다운 가르침이 나왔다. 이 논문에서 성 치릴로는 마리아를 “전통 신앙의 요새”라고 불렀다.

교만하고 완고한 이단자는 굽히지 않았으므로,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와 신학자 요한을 환대하며 받아들인 도시 에페소에서 431년 제2차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켈레스티노 교황은 성 치릴로에게 위임하여 그의 이름으로 모임을 주도하게 했다. 공의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로 불리며, 참으로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라고 가톨릭 신앙의 교의를 정의했다.

늦은 시간에 공의회장場的 문이 열리고, 초조하게 결정을 기다리던 많은 사람에게 네스토리우스의 단죄와 가톨릭의 진리가 선포되었다. 이에 신자들은 “오, 영원한 동정 마리아님, 찬미받

8. 아프리카 해안, 곧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오소서. 당신 홀로 온 세상의 모든 이단을 짓밟으셨습니다.”라는 성가로 응답했으며, 끝없이 이어지는 박수갈채가 도시에 울려 퍼졌다.

비오 11세는 다음과 같이 썼다. | “하느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에 대한 열렬한 신심과 사랑으로 가득찬 에페소 사람들은 기쁨의 영으로 넘치며 교부들에게 환호를 보냈다. 활활 타오르는 햇불을 든 큰 무리가 그들이 머무는 곳까지 따라갔다.” 185

이처럼 이단은 극복되었고, 동정 마리아의 머리 위에는 거룩한 모성의 화관이 더 환하고 온화하게 빛났다.

공의회는 천사의 인사인 성모송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라는 두 번째 부분을 덧붙였다.

네스토리우스는 국외로 추방되어 생을 마쳤고, 벌레들이 그의 혀를 먹어 치웠다고 전해지고 있다. 성 치릴로는 복되신 어머니의 영광을 위해 네스토리우스의 거짓 고발로 투옥되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의 옹호로 교회는 오류에서 영원히 구원되었다.

1931년, 온 교회는 영광스러운 공의회 1500주년을 기념하여 로마에서 마리아 대회가 열렸으며, 교황 비오 11세는 널리 알려진 회칙 「진리의 빛」<sup>9</sup>을 반포했다.

콘스탄티노플의 로마 황제 레오 3세는 성화상 공경을 반대하는 운동<sup>10</sup>을 전개했다. 성화상 공경을 금지하고 성화상을 파

9. 알베리오네 신부가 마리아 잡지 ‘하느님의 어머니’를 발행하길 바랐던 해와 같은 해다.

10. 이콘과 성화상 숭배에 반대하는 이단자들이 일으킨 성화상파괴운동이다.

괴하며, 성화상을 공경하는 가톨릭 신자들을 우상숭배자로 고발했다.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교회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그러자 황제는 성인의 오른손을 잘라버렸으나 동정 마리아가 성인의 오른손을 예전처럼 온전하게 되돌려 놓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성 요한은 더욱 큰 열정으로 계속 가톨릭 교리를 옹호하는 글을 썼다.

- 186 다마스쿠스의 성 요한은,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 나오는 것과 같은 가톨릭적 가르침을 구축하여 명확하게 설명함으로써 교회 박사라는 칭호를 받았다.

13세기에 하느님의 어머니는 교회 안에 위대한 스승이요 박사인 성 대 알베르토를 준비시켰다.

마리아에게서 영감을 받은 성 알베르토는 도미니코회에 입회했으나 자기가 하던 공부를 계속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모든 것을 버리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그를 동반하며 좋은 결실을 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사실 그는 짧은 기간에 큰 성공을 거두어 지혜와 성덕이 탁월하여 교회에서 '보편 박사'로 불렸다. 또한 그는 위대한 신학자로서 그의 문하생 중에는 '천사적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다.

우리와 가까운 시대에 아주 잘 알려진 윤리신학박사 성 알폰소 리구오리는 하느님의 어머니께 대한 신심이 깊어 「마리아의 영광」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 책은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졌다. 그 덕분에 윤리신학은 견고한 기반을 갖추게 되었고, 악마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는데 큰 몫을 했다.

## 확실한 길

성 빈첸시오 팔로티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의 회개를 위해 그들 안에 성모 신심을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모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갈라진 형제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찾을 생각이 없었지만 | 가톨릭에는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sup>11</sup>라는 오랜 187 격언이 있다.

마리아를 사도들의 모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다.

“일본 선교” 역대기에는 일본인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파한 인물의 감동적인 일화가 나온다. 인도에서 [복음을 전한] 불굴의 사도 성 프란치스코 하비에르의 이야기로, 그는 1549년 8월 15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승천 대축일에 일본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선교 사명을 마리아의 보호 아래 맡겼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자 열심한 신자들이 많아졌다. 그 당시 예수회, 도미니코회, 아우구스티노회, 프란치스코회가 활동하여, 그들의 노력이 일본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었지만, 1617년부터 1852년까지 끔찍한 박해가 일어났다. 천여 명의 수도자와 20만 명에 이르는 신자들이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그때 일본에는 이 땅에서 가톨릭 신앙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박해가 끝나면 다른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리라는 예언이 조심스럽게 퍼져나갔다. 실제로 일본과 서방

11. Per Mariam ad Jesum.

세력 간의 새로운 관계로 인해 1861년 선교사들이 “태양의 나라”에 다시 들어오게 되었다.

나가사키에 선교회의 작은 성당이 문을 열었을 때 곳곳에서 예전의 신자들이 미사에 참례하러 모여들었다. 그들은 놀라며 “선교사들이 우리 신부님들과 똑같이 한다!” 하고 외쳤다. 특히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에 대해 모든 이가 관심을 보였다.

- 188** 미사가 끝났을 때 신자들은 새로 온 선교사들에게 “로마 주교가 당신을 보냈습니까? 결혼하지 않고 금욕하십니까? 하느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라는 세 가지 질문을 했고, 그렇다는 선교사들의 답변에 신자들은 몹시 기뻐하며 땅에 엎드려 참 하느님을 믿는 사목자들을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렸다. 선교사들 또한 200년이 넘는 긴 박해 속에서도 충실하게 남아 있는 신자들에게 기쁨을 전했다. 초창기 신자들의 후손은 거의 4,000명에 이르렀다. 이는 충실한 영혼들과 함께 해 주신 하느님을 증거하며, 또한 신앙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게 해 주신 마리아의 자비를 드러내는 표징이다.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특별히 어려울 때 자녀들을 돌보아주신다. 신자들은 “당신은 하느님의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하고 물을 정도로 동정 마리아께 대한 돈독한 신심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드러내는 표징, 곧 마리아께 대한 사랑을 내보일 때 참된 선교사를 알아볼 수 있다고 믿었다.

마리아께 기도하는 한 우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으며 이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마리아는 신앙의 깃발이며, 상지의 옥좌요, 가장 충실한 동정녀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일

하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셨다. 무엇보다 일치는 신앙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 통치와 사랑의 일치 안에서 이루어진다. 우리 또한 같은 신앙 안에 하나 되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sup>12</sup>라고 기도하신 예수님의 크나큰 갈망을 이루도록 마리아께서 전구해 주시기를 기도하자. 모든 초대와 이끄심이 일치<sup>13</sup>를 목표로 하도록 서로 돕자.

---

12. “Ut sint unum”(요한 17,11).

13. Unionismo: 교회 일치(l'unità ecumenica)를 뜻하는 옛 표현.

당신께서 말씀하시자 생겨났으니 모든 조물은 당신을 섬겨야 합니다. 당신께서 영을 보내시니 그것들이 지어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에 거역할 자 하나도 없습니다. 산들이 그 밑바닥부터 바다와 함께 뒤흔들리고 바위들이 당신 앞에서 밀초처럼 녹을 것입니다.

(유딧 16,14-15)

### 오늘의 문제

현대는 안타깝게도 인류 발전의 모든 발명과 발전이 남용되어 오류와 악덕과 무종교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선의 수단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도 전에 이러한 일이 자주 일어난다! 이는 사악함을 드러내는 인간의 간계다. 하지만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은 수도자의 사도직에 대한 방대한 가능성을 새롭게 펼쳐주었다.

사도들이 필요하다! 거짓 은수자를 자칭하는 신자, 무관심 속에 감추어진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 통합적 가톨릭 교의를 선포할 줄 모르는 신자들은 악마의 속임수에 쉽게 놀아난다. 그들은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땅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둔다.

출판에는 출판으로, 영화에는 영화로, 라디오에는 라디오로 맞서야 한다. 교황은 모범과 말씀으로 앞서 가신다.

## 거룩한 혁명

190

깊은 내적 영혼을 지닌 마리아는 그 시대의 사도가 되셨다. 그때는 놀라운 혁명의 시대, 곧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가는 시기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사회적, 영적, 종교적, 법적, 도덕적 혁명을 이루셨다. 예수님은 사회의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성전에서 하신 것처럼 행동하셨다. 곧 채찍을 들고 성스러움을 더럽히는 이들을 쫓아내셨다. 마리아는 그 뒤를 따르며 협력하셨다. 회당은 쇠퇴했고, 교회는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서 탄생했다. 하느님 아드님의 설교는 율법을 폐지시켰고,<sup>1</sup> 한번도 들은 적이 없는 신비를 드러내며, 새로운 사목과 성사와 법을 제정한 종교를 예시했다. 마리아는 스승이요 귀감, 사도들의 모후, 예수님의 어머니, 공동구원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맡으셨다. 곧 예수님은 남성 사도이시고, 마리아는 여성 사도이시다.

마리아는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거룩한 대담함을 보이셨다. 마리아는 인간의 모든 예지를 거슬러 거룩한 희망을 보여주셨다. 마리아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했다. 마리아는 강인한 여성, 굳건한 사도이시다.

가톨릭 신자들은 일어났다. 악의<sup>2</sup>로 부패한 물이 가득 차올라 모든 단체와 온갖 거룩한 진리를 가라앉히려 하고 위협했기 때문이다.

1. 부적절한 표현이다. 마태 5,17 참조: “나는 율법이나 예언서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2. male(악의): 원본에는 ‘mare바다’라고 나오는데, 이는 명백한 실수로 보인다.

마리아론에 있어 가장 존경받는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로스키니는 이렇게 자문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다양한 사도적 여정을 걸어가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따르셨는가? 복음은 이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다. 적어도 명확히 표현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통적이고 굳건한 기반이 되는 응답은, 마리아는 갈릴래아, 유다, 트랜스요르단 등을 거쳐 긴 사도적

**191** 여정을 걸으신 | 하느님의 아드님을 따르셨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이유를 제시했다. 스승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성은 예수님 주변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였듯이 자연스럽게 마리아 주변에 모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동반자가 아니신가?” “마리아는 공적인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느 경건한 여인처럼, 아니 그들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로서 군중 가운데 자신을 숨기며 예수님께 귀 기울이고 섬기기 위해 따랐다. 이는 군중이 자신에게 관심을 쏟는 것을 피하고 오로지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였다. 더욱이 마리아는 지극히 겸손한 태도, 친절하고 섬세한 마음, 사려 깊은 말, 드러나지 않게 희생하려는 열망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경건한 여인들 가운데서 하느님 말씀의 효과를 더욱 확장시키면서 예수님을 섬겼다.”

마리아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 곧 행동하는 복음을 충실히 반향하는 메아리처럼 모든 이에게 드러났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의 아드님이 3년 동안 사도직을 하는 동안 줄곧 따라다니며, (예를 들어 베타니아에서처럼) 예수님을 환대했던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과 함께했다. “마리아

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동반자로서, 예수님의 일행과 늘 함께했다.”고 성 에피파니우스(4세기)는 기록했다. 마리아는 당신이 처한 상황의 한계를 받아들이면서 기도와 모범과 말씀의 사도직으로 영혼을 사로잡으셨다. 예수님은 대중과 함께 움직이셨다. 마리아는 교회의 심장으로 숨어 계시면서도 역동적으로, | 드러나지 않게 행동하셨다. 두 분은 헌신적으로 인류를 섬기셨다. 192 그분의 말씀의 사도직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종드는 이들에게 건넨 좋은 권고에서 잘 드러난다.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복음은 이 탄복할 만한 마리아의 개입 외에 예수님의 공생활 동안 (수난시기를 제외하고) 마리아에 대해 단지 네 번 언급한다. 두 번은 첫 해에, 또 다른 두 번은 마지막 무렵에 언급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떠올려 보자.

예수님은 설교하고 계셨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 드렸다.”(루카 8,19-20) 그러자 예수님은 이 상황을 예로 들어 당신에게는 영적 가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곧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모든 이가 가족이라는 것이다. 영적 가족에 속하는 것, 이러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은 혈연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영예롭다.

또 한번은 스승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예수님과 그 어머니를 보고 감탄하며 기쁨에 넘쳐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와 선생님께 젖을 먹인 가슴은 행복합니다.” 하고 외

치자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7-28) 하고 덧붙여 이르셨다. 이 두 예화에서 우리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자연적 어머니가 되는 영예보다 더 큰 행운, 곧 하느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행운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늘 함께 계심으로써 하느님의 아드님을 이중으로 들어 높이셨다.

- 193** 예수님 또한 당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를 들어 높이며 | 하느님께 입양된 자녀들이 지닌 위대한 존엄성을 갈망하게 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마태 12,50) 하느님의 뜻을 실행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자매가 된다. 그리고 사도직은 영혼들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한다.

### 새로운 사도직

마리아는 거룩한 전환을 가르친다. 출판, 영화,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영향력이 큰 사도직에 대해 생각해 보라. 교황은 다음과 같이 우리를 일깨웠다.

1) 성 비오 11세 교황은 회칙 「천상 스승이신 그분 *Divini illius Magistri*」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 시대에는 도덕적 종교적인 면에서 더 혼란해졌기에 더욱 폭넓고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 특히 영화로 보여주고 라디오로 들려주는, 다시 말해 영화와 라디오를 통해 확산되고 활성화되는 불경스럽고 음란한 서적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많은 책이 저렴한 가격에 독약처럼 퍼지고 있다.)

이처럼 새롭고 절박한 사도직의 필요성은, 모든 분야의 가톨릭 단체에서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훌륭한 기폭제가 되었다. 그 결과는 많은 희망을 주며 장차 약속하는 바가 크다. 모든 사도직의 스승이며 귀감인 교회가 한결같이 내는 목소리와 사회의 다양한 필요성은, ‘하느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영광받으시도록’ 적합한 수단과 적합한 형태를 알려주게 된다.”

성 비오 12세 교황은, 글을 쓰거나 말할 때 언제나 진리를 194  
전해야 할 의무를 떠올리도록 미국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편집자, 저자, 연설가로서 자신이 지닌 드높은 소명과 이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는 이는, 자기 말로 인해 강력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늘 깨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늘 사람들에게 진리를 주려고 합니다. 진리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인 거짓과 중상모략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는 ... 거짓말하는 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손, 간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을 미워하십니다.’(잠언 6,16,17)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상모략은 바람처럼 빠른 발을 지니고 있으므로 책임을 지닌 이들, 특히 종교와 그리스도교적 도덕성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려는 이들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 달려갑니다. 희생자가 거부하며 방어하는 기사는 흔히 외면당하거나, 거의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신문 한쪽 구석에서 그 소식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자신들이 쓰는 기사로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거짓 정보로 그 상황을 악화시키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그들은 같은 하느님 아버지의 자녀들의 영혼에 치명타를 안겨주며 나라의 평화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립니다. 합법적인 시민 당국의 개입이 필요할 때 이러한 일탈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는 분명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 195 오늘날 세계는 재앙과 불행에 짓눌려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교만하고 야심 가득한 사람들의 저술이나 말에서 파급된 오류와 거짓 도덕의 풍조에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소명을 통해, 봉사하려는 여러분의 제안과 보람있는 길을 가려는 동료들에게 하느님께서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성화와 인류 사회의 윤리 기반을 수호하기 위해 기여하려는 여러분을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2) 비오 11세는 영화에 대한 회칙 「비질란티 쿠라 *Vigilanti Cura*」에서 이렇게 단언한다.

“나쁜 영화가 영혼에게 미치는 해악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젊은이들이 죄를 범하도록 욕정을 부추기며 사악한 길을 따라가도록 유혹합니다. 거짓된 빛으로 조명된 삶의 허상으로 이상을 흐리게 하며, 순수한 사랑과 결혼에 대한 존중, 가정에 대한 애정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편견을 조장하며, 나라와 사회 계층과 모든 인종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교황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한편, 좋은 영화는 이를 감상하는 이들에게 도덕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분전환만 아니라 삶에 대한 드높은 이상과 가치로운 개념, 진리와 미덕을 매력적으로 제시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회 계층과 인종간의 올바른 이해를 다시 일깨워, 정의로운 대의명분을 위해 나서게 하고, 적어도 호의를 지니게 합니다. 그리고 미덕을 일깨우며 세상 속에 윤리적 사회적 질서를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비오 12세는 영화 제작 관련 그룹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므로 친애하는 대표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직책 196  
에 함께하는 분들은 의식 없이 영화를 보는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을 지닙니다. 영화를  
이용하여 절반의 진리를 전하거나, 다른 요소들은 거의 다  
루지 않거나 생략해 버려 불균형과 불합리함을 과도하게 드  
러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화를 보는 이들은 거짓에 속아  
비참한 결론에 이르고, 인류 가족의 사랑하는 구성원 사이에  
있어야 할 조화로움마저 잃게 됩니다.”

이어서 교황은 영화의 한 장면에 대해 이런 설명을 덧붙였다.

“때로는 영화 한 편이 가정이나 대도시, 공동체의 사회생활  
에 영향을 끼치는 거대한 힘을 영화 감독이 온전히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람들의 눈과 귀는 인간의 영혼으로 곧  
바로 이어지는 드넓은 길과 같습니다. 그 길은 영화 관람자들  
이 의식없이 들어설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영화 장면을 통해 젊은이들이 깊이 알아듣고, 결정적으로  
성격을 형성하는 행동과 동기가 이루어지는 마음 깊은 곳까

지 침투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건전한 즐거움과 위안을 통해 활력과 기쁨을 발견하고 더 나은 사람, 보다 건전한 시민이 되어 법규를 사랑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도록 기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오로는 코린토 교회 신자들에게 ‘나쁜 교제는 좋은 관습을 망칩니다.’(1코린 15,33)라고 쓰면서 고대 그리스 시인 메난드로스에게

**197** 감사했습니다. | 긴 세월이 흘러도 인간의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에 그 당시의 진실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윤리를 거스르게 만드는 것이 나쁜 교제(교류)로 이끌듯, 하느님의 법도와 품위를 경멸하며 악을 조장시키는 그 내용에 어찌 물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영화라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람을 타락시키려는 불경스러운 목적을 위한 사악한 영이 세상에 늘 도사리고 있는 까닭입니다. 오! 영화 제작으로 얼마나 많은 선을 쌓을 수 있는지!”

3) 라디오 청취자들에게 전한 성 비오 12세 교황의 말씀도 이 책 156번<sup>3</sup>에 실려 있다.

### 성모 마리아의 망토 아래

우리는 마리아의 보호 아래 위의 세 가지 사도직을 맡겨야 한다. 우리는 그토록 많은 시련과 환상을 겪은 후에도 여전히 물질이 생명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하는가? 생명 없이 살 수 있는가? 사도직처럼 사람들의 영혼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3. 이 책 156-158번 내용 참조.

계서만 생명을 얻는다. 원천은 언제나 마리아의 태중에 있다.  
어머니가 없으면 자녀들도 있을 수 없다.

여러분은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나은 길을 찾고  
자 하는가? 예수님은 마리아의 귀감과 “이분이 네 어머니시  
다.”(요한 19,27)라고 사도 요한에게 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  
치셨다. 마리아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보살피야 하는 사도가  
요한만 아니라, 요한은 모든 이를 대표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의 승천 직후 다락방에서 열두 제자들을 돌보아 주셨  
다. 그후 몇 세기가 지나는 동안 마리아는 수많은 사도를 보  
살피셨다.

## 24. 마리아와 여성 사도직

우리의 자매이며 켈크레에 교회의 일꾼이기도 한 포이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성도들의 품위에 맞게 그를 주님 안에서 맞아들이고,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무슨 일이든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는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의 후원자였습니다.

(로마 16,1-2)

### 여성 사도

“나의 하느님, 저는 당신의 배우자가 될 운명이 아니었기에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 뜻을 따라 결혼생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어 그들을 모두 당신께 봉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어머니는 이렇게 기도했고, 마침내 꽃같은 아홉 자녀들이 태어났다. 그 가운데 넷은 일찍 천국에 들어가 천사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남은 네 아이는 가르멜의 정원에서 꽃으로 피어났고, 한 아이는 성모마리아방문봉쇄수녀회에 들어갔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꽃은 성녀 데레사였다.

가정에서 여성은 위대한 사명을 지닌다!<sup>1</sup> 가정은 여성이 머무는 으뜸가는 자리다. 비오 11세는 여성가톨릭연합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의 특별한 목적은 가정을 훼손하

1. 저자는 여기서 「사제적 열의에 참여하는 여성」 제2부 제2장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고 있다.

려고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종교, 윤리, 문화,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에 덧붙일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가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 악을 저지하고 뿌리뽑고자 할 뿐 아니라, 선을 도모하여 확장시키며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사활동은 참으로 가치로운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의 근본 바탕이요, 한 나라의 백성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선이나 악이 자리하는 곳입니다. 가정은 모든 종교와 시민의 미덕이 자리하는 성스러운 곳이요, 개인적, 공적, 정략적인 자리입니다.”

가정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더 영성적으로 일할 수 있다.

여성은 딸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 사도가 될 수 있다.

딸로서. 딸에게는 대체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므로 열정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열정을 지녀야 하며, 딸로서 형제, 부모, 그리고 집안일과 관련해 고용인에게도 겸손해야 한다.

형제들에게. 부모가 돌아가셨거나 힘이 없는 부모를 대신하여 신체적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형제들을 키우느라 모든 것을 희생한 어린 소녀들이 많았다. 어떤 소녀들은 부모님의 일을 도우며, 선한 언행의 모범으로 본보기가 되기도 한다. 그런 이들 가운데서도 한 여자아이는 ‘평화의 천사’라 불렸는데, 그 아이는 관대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형제들을 돌보아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부모에게. 딸은 스승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다. 기도하고, 근면하면서도 정감있고 평온하게 인내할 줄 알며, 드러나지 않게 삶의 모범이 되는 딸은 부모를 위로하고 격려한다. 부모가 임종 중에 하느님과 화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딸은

**200** |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는 많은 눈물과 희생이 헛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고용인과 이웃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고용인과 이웃,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 애정 어린 보살핌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자세는 종교인들이 한결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했다. 이는 삶에서 비릇되는 어려운 상황을 위로할 뿐 아니라 천국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착한 딸은 향기를 퍼뜨려 감탄하게 한다. 행동이 진지하고 자연스러울수록 더 많은 것을 얻을 것이다.

아내로서. “남성은 법을 만들고 여성은 관습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빵을 주고, 여성은 남성에게 믿음과 기쁨을 준다. 하와는 아담을 끌어내려 죄에 빠뜨렸다. 성녀 체칠리아는 남편 발레리아누스를 회심시켜 우르바노 교황에게서 부지런한 일벌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믿음이 없던 남편은 신심 깊은 아내 덕분에 성화되었다. 길은 오직 하나다. 훌륭한 아내가 바치는 기도는 참된 선으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남성은 돈, 직위, 고집스러움에 지배되지 않고, 마음이 유순한 아이처럼 된다. 선은 미덕, 포기, 친절, 인내, 배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사랑에 마음씀으로써 이루

어진다.

아내는 남편을 악에서 떼어놓을 수 있을까? 과연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 많은 여성이 그렇게 해냈다. 많은 여성이 매일 성공을 거두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도록 남편을 이끈 여성이 얼마나 많은가! 자녀들은 **201** 일치된 부모의 힘, 곧 모성의 선과 부성의 권위를 느낄 때 쉽게 바른 길을 걷게 된다.

어머니로서, 어머니는 언제나 자녀들의 양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어머니는 자신의 사랑과 정성, 신앙과 신심, 생명을 전한다. 어머니로서 하는 일은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남성도 어머니의 무릎에서 양육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어머니의 가르침, 마음, 훈계, 깨어 보살핌, 지도, 좋은 모범, 기도 등은 여성이 지닌 강력한 수단이다. 드 메스트르는 말하길 “어머니가 아들의 이마에 십자성호를 그어주는 순간 악은 그 힘을 잃게 된다. 그러나 악이 뿌리뽑히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프랑스 국왕 성 루이의 어머니 블랑슈는 아들에게 “네가 대죄를 하나라도 범했다는 사실을 아느니 차라리 네가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여성, 딸, 아내, 또는 어머니를 위한 드높은 이상, 가장 큰 미덕, 가장 큰 사도직은 자녀들이 사제, 수녀, 선교사, 사도가 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림에 협력하는 것이다.

## 마리아는 어떻게 활동하셨는가?

마리아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라고 전했다. 마리아는 가장 높고 영원한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초대를 받으셨다. 마리아는 성경을 통해 미래의 메시아가 지니게 될 직무, 곧 왕, 스승, 대사제의 직무를 잘 알고 계셨다.

마리아에게는 다만 한 가지 설명이 필요했다. 어머니로서 어떻게 동정성을 간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대천사는 마리아에게 육화는 성령의 활동이시라는 확신을 주었다.

그러자 마리아는 “피앗”, 곧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응답하셨다. 마리아는 대사제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모성을 받아들여셨다. 마리아의 모성에는 영광과 뼈를 깎는 큰 고통이 결합되어<sup>2</sup> 있었다. 대사제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부르며 사랑 어린 순종으로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 대사제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마리아는 사랑과 헌신으로 예수님을 당신 태중에 품고 가슴에 안으셨다. 그때부터 마리아의 사랑은 더욱 뜨거워졌고,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일치되어 갔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마리아는 공동구원자시다. 마리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은 당신 아들의 마음 곁에서 똑같이 뛰었다. 마리아

2. *connesse*: 원본에는 *commesse*라고 쓰여 있다. 아마도 맡겨진(*affidate*)이라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판본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인 결합된(*connesse*)으로 바로잡았다.

는 구유에 누워 계신 아기를 요셉에게 보여주셨고, 요셉은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포대기로 감쌌고, 젖을 물렸으며, 옷을 입혔고, 키우시면서 30년 동안 온갖 정성을 다해 돌보셨다. 마리아는 첫 사제를 위해, 사제로 태어나신 분을 위해, 성부께 바치는 희생 제물로서 봉헌되기 위해 태어나신 분을 위한 지극한 헌신과 온화한 어머니로서 맡은 직무를 완수하셨다. 대사제의 어머니로서 사명을 다하신 것이다. 마리아는 히브리 백성을 대표하는 목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동방박사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셨으며, 희생 제물이요 사제이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셨다.

마리아는 카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였고, | 예수님의 공생활에 동의하셨으며, 예수님의 전도 여정에 제자처럼 따르셨다. 갈바리아에서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성부께 당신 아드님을 바치셨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늘 동반하신 마리아는, 그분이 승천하시는 날에 다시 하늘에 돌려 드리셨다. **203**

## 여성 사도직

널리 알려진 영국 웨스트민스터의 본 추기경 Herbert Alfred Vaughan, 1832-1903의 어머니는 자녀들이 사제나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봉헌되길 열렬히 원했다. 그 어머니는 이러한 지향으로 날마다 한 시간씩 성체조배를 했는데, 하느님께서 그 기도를 흔쾌히 들어주셨다. 다섯 명의 딸이 수녀가 되고, 여덟 명의

아들 가운데 여섯 명이 사제가 되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추기경, 다른 두 사람은 대주교가 되었다.

다른 운 좋은 거룩한 어머니는 젤리아 불호에스 페드레이라 아브렌 마갈라네스 Zelia Bulhoes Pedreira Abren Magalhaes이다. 그녀는 아홉 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그 가운데 셋이 빈첸시오회와 프란치스코회, 예수회 사제가 되었다. 여섯 명의 딸도 모두 수도회에 들어가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였다. 과부가 된 어머니는 성체조배수도회에 들어가 1917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선종하였다.

독일의 케틀러 대주교<sup>3</sup>는 여기저기서 훌륭한 사제들을 보내 달라는 끈질긴 요청을 받을 때마다 “예, 그렇다면 저에게 훌륭한 어머니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사제들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하고 응답했다.

- 204** 성 요한 보스코에게도 거룩한 여성이요 | 어머니인 마르게리타가 있었다. 그 어머니는 보스코 성인이 그리스도교 교육을 하는 훌륭한 사명을 이루도록 준비시켰다.

성 빈센트 팔로티의 어머니도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성당에 데려가서 그를 성모님께 봉헌하였다.

교회박사 성 아우구스티노는 어머니 덕분에 회심했다. 그는 “나의 하느님, 이 모든 것은 제 어머니 덕분입니다.” 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3. 정확히 말해 빌헬름 폰 케틀러는 독일 마인츠 교구의 대주교, 베를린 국민의회 대리, 카를 마르크의 반대자였다. 그리스도교의 사회교리를 발전시킨 카리스마적 인물인 그를 알베리오네 신부는 크게 존경하였다. 알베리오네 신부는 케틀러 주교의 표현인 “지금 성 바오로가 살아 있다면 기자가 되었을 것이다.”라는 말을 자주 인용했다.

세계의 그리스도교화를 위한 기본 활동은 바로 이것이다. 부모들이 자녀 중에 몇 명이라도 하느님께 봉헌하고자 하는 생생한 갈망을 갖는 것이다. 부모들이 결혼생활을 하며 이러한 갈망으로 끊임없이 주님께 은총을 간청하면, 그 자녀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부모들은 생생한 갈망과 거룩한 야심을 갖고 힘껏 노력하며, 자녀들이 적합한 길을 선택하도록 자유를 주자. 무엇보다 그들이 순수하고 덕스럽고 온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헌신하며 동반해 주자.

열심한 사제가 있기를 바라면서도 자기 아들이 사제가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 신자 부모들이 있다. 그들은 여러 구실을 붙이고 변명을 하며 자녀들의 성소를 방해하고 반대하기에 이른다.

“착하고 똑똑한 한 소년이 매일미사 때 복사를 서곤 했어요. 나는 그 아이가 사제가 되길 열심히 기도했지요. 그 아이가 자기 열망을 아버지께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기뻐하는 것 같았는데,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어요. 6개월 후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들을 죽게 한 질병의 원인을 어떤 의사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에라스무스)

예수회 로메우 파리아 신부<sup>4</sup>는 이렇게 회고했다. “에드워드  
는 | 신학교에서 기쁘게 살았어요. 그는 기쁨과 열정으로 가  
득 차 다가오는 서품을 기다렸지요. 장상들도 그에게 큰 기대  
를 했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의사가 되는 것이 더 좋아. 205

4. 원본에는 “Romen Faria”라고 쓰여 있는데, 이는 아마도 Romeu를 잘못 표현한 것 같다. Romen이라는 이름은 없으며, 포르투갈-브라질 문화권을 보면 Faria 가문에 속하는 두 인물, 곧 Roman과 Romeu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유명한 인물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사람들이 네 지위를 보고 더 존경할 거야.’라는 말로 그를 귀찮게 했어요. 아들은 힘겨운 투쟁으로 맞섰지만 결국 유혹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0개월 후 에드워드는 발진티푸스에 걸렸고, 서품을 받기로 한 바로 그날 숨지고 말았어요.”

성 아타나시오의 어머니는 “제 아들을 성인으로 만들고 싶어요.” 하고 말했다.

성 바실리오와 니사의 성 그레고리오는 어머니 성녀 아멜리아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오, 주님, 저희에게 성인 어머니를 모시게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사제를 둔 어머니의 기쁨은, 널리 알려진 예수회 윌리엄 도일 신부의 편지에 잘 묘사되어 있다. 다음은 리플릿에 소개된 편지 내용이다.

“사랑하는 친구여, 나와 함께 하느님을 찬미해요. 지금 나는 한 사제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24년 전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눕혔던 요람을 어루만지면서 내 갈망과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래요. 그것은 내 아들에 대한 갈망이었어요.

오늘 내 영혼에 가득한 기쁨은 얼마나 새롭고 드높은지요! 이처럼 순수한 감정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나는 한 사제의 어머니랍니다!

24년 전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입맞춤했던 작고 여린 손이 이제 축성되어 생명의 빵을 다루게 되었어요.

**206** 나를 통해 처음으로 빛을 받아들인 아들은 이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어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아이를 지켜보고 돌보았는데, 이제 그의 몸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사제가 된 그의 몸은 죄인들을 화해하게 하고,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맞아들이기 위해 다가오는 이들에게 그 몸을 정성스럽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닿을 수 없던 순진무구한 그의 마음이 이제 온전히 성화되었어요.

하느님께서 그 앞에 죄인들이 있도록 하시면 그는 그들을 격려하여 진리의 길로 돌아서게 일깨우는 법을 터득할 거예요! 그래요, 그는 선을 행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제가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제가 저의 아들입니다. 그의 영혼은 저의 성품을 닮았으며, 저를 통해 당신 사랑에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는 제 아들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악의 그늘에서 그를 보호해 주소서. 그는 인간이기에 연약하오니 모든 죄에서 지켜주소서. 당신을 모욕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오, 전능하신 저의 하느님, 당신을 사랑하고 또 저의 아들을 사랑합니다. 아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당신의 사제이기에!’

성체를 모시는 순간이 되자 아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손으로 성합<sup>5</sup>을 들고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 만남이 얼마나 경이로웠던지! 하느님, 사제 그리고 나!

그 순간 내가 기도했을까요? 온통 경이롭고 평온함이 감돌 **207**

5. 원본에 ciborio라고 쓰였는데, 이는 옛 표현으로 성체를 넣는 성합(pisside)을 가리킨다.

았어요. 내 영혼은 열렬한 감사기도로 흘러 넘쳤어요. 나의 하느님! 내 아들! 나는 무척 행복했어요. 내 삶에서 행복했던 순간이 참 많았는데, 그 순간처럼 행복했던 적은 없었어요. 처음으로 나는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순간을 스쳐 지나가게 되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럼 안녕! 더는 아무말도 덧붙일 수가 없네요.”

하느님 안에 잠기십시오. 하느님이 주시는 영감을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루카 1,48)

### 여성을 들어 높이십시오

마리아는 마음, 가정, 성당, 지방, 나라, 그 어디에든 거처 하신다. 마리아는 다음의 세 가지 열매를 맺으신다. 첫째, 마리아는 당신 빛을 비추어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강생, 가르침, 수난, 죽음, 부활,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영원한 삶이라는 주요 가르침을 인류에게 밝히신다. 둘째, 덕과 순수함, 그리스도교적 사도직의 위대한 이상을 지니도록 마음을 들어 높여 굳건하게 하신다. 셋째, 당신 은총을 나누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사람들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하늘나라를 향하게 하신다.

성모 신심은 여성의 지위를 들어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드 메스트르는 “고대의 모든 율법은 대체로 여성을 비하하고, 학대하며 거칠게 다루었다.”고 했다.

라틴 사람들은 문명을 크게 발전시켰지만, 오늘날 은총과 아름다움과 신심이 깃들여 있다고 일컫는 성성을 | “약하고 열등하고 무가치하며 헛된 것”이라고, 독창성과 힘과 남성적

1. “Imbecillis, impar laboribus, levis, ambitiosus.”

위엄<sup>2</sup>과는 달리 정의했다. 하와를 벌하시는 하느님의 소리가 있었다. “네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sup>3</sup>

집회서는 “죄는 여자에게서 시작되고 여자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는다.”(집회 25,24)고 한다. 죄에서 모든 악이 나오는데, 죄가 처음 세상에 들어오게 한 것은 하와였다.

반대로, 원죄에 물들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온갖 선이 나온다. 그리하여 여성은 명예를 회복하였고, 인류는 여성의 덕을 입었음을 안다. 마리아를 바라보라. 인류 역사에서 마리아는 발현하여 모두를 사로잡고 들어 높이셨다. 하늘에 나타난 경이로움의 표상인 마리아는 참으로 복된 이들을 황홀하게 한다. “태양을 입고 발 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난 것입니다.”<sup>4</sup>

여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마리아와 같은 성성을 지녔으니 얼마나 복된가! 위로자요 보호자이신 마리아에게 전구를 청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여성을 하찮게 여기겠는가? 악마가 두려워 떠는 군대보다 강한 대천사들의 모후이신 마리아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찌 그러겠는가? 사람들은 본성상, 은총과 영광을 입은 이로서 “모든 피조물보다 드높은”<sup>5</sup> 마리아를 사랑하여 여성이 예전에 저지른 잘못을 용서하였다. 따라서 여성에게 존경을 표하는 기사도 정신은 그리스도교 정신의 결실이다.

2. maiestas virorum.

3. 창세 3,14,16.

4. 묵시 12,1.

5. 단테 알리기에리, 「천국」, 제33곡 2행.

복자 헨리코 수소의 이야기다. “한 사제가 비좁은 시골길을 걸어가다 가난한 여인을 만났다. 그가 여인이 지나가도록 진 흙탕 쪽으로 걸어가자 그 여인은 물었다. ‘신부님, 사제인 당신이 저처럼 미천한 여인에게 | 길을 비켜주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길을 비켜야 마땅한데요.’ 복자 수소는 이렇게 대답했다. ‘모든 여인을 존경하는 것은 저의 습관입니다. 모든 여인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거룩한 어머니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인은 눈을 하늘로 향하며 소리 높여 말했다. ‘하늘나라의 모후께서 신부님께 모든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신부님은 미천한 여인을 통해 성모님을 공경하셨습니다.’ 그러자 겸손한 사제는 ‘지극히 순결하신 동정 마리아께서 천국에서 저를 도와주시길 빕니다.’ 하고 대답했다.”(요르겐센) 210

마리아의 덕에서 빛을 받은 여성은 자신의 삶과 사명 가운데서 자신을 드높이는 법을 배웠다. 마리아는 침묵 가운데 당신의 모습을 닮은 여성들에게 성 아우구스티노와 성 예로니모의 훈계를 건넨다. “오, 여인이여, 그대는 자신의 존엄성을 깨달아야 하오. 하느님의 아드님이 한 여인에게서 탄생했기 때문이오. 거룩한 자긍심을 배우시오.”<sup>6</sup>

마리아의 학교에서 교육받은 새로운 여성은 하와를 능가하는 법을 배운다. 이 여성은 자기의 사명을 수행하기에 앞서 먼저 자신을 드높인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기억해 보면, 성 아우구스티노를 위한 성녀 모니카, 성 베네딕토를 위한 성녀 스킨라스티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를 위한 성녀 글라라,

6. 성 아우구스티노, 「그리스도인의 투쟁 *De Agone christiano*」; 성 예로니모, 「동정녀 에우스타키오에게 *Alla vergine Eustochio*」.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를 위한 성녀 요안나 프란치스카 드 샬탈, 성 빈센트 드 폴을 위한 성 루이스 마릴락 등이다. 그리스도인 여성은 남성이 천상의 것에 매료되게 한다.

더 감탄해야 할 것은 여성을 순교자, 동정녀, 사도, 사랑의 영웅으로 들어 높이는 것이다.

### 여성의 용감한 행위

여성 순교자. 마리아는 순교자의 모후이시다. 이 때문에 연  
**211** 약한 성<sup>性</sup>은 마리아의 모범에 매료되고, | 그 은총에 힘입어  
 압제자와 박해자들 앞에서 강인한 여성이 되었다. 예를 들면  
 성녀 루시아, 성녀 아가다, 성녀 아네스, 성녀 테클라 등 수많  
 은 성인이 있다. 교회는 [전례를 통해] 굳건한 기적의 결실로  
 서 그들을 공경하라고 초대한다. “오 하느님, 당신은 당신의  
 경이로운 힘으로 연약한 성을 지닌 이들에게도 순교의 승리  
 를 안겨주셨습니다. ...<sup>7</sup> 날카로운 칼에 심장이 찢린 채 십자  
 가 아래 서 계신 통고의 어머니를 관상하는 영혼들 안에 불러  
 일으킨 용기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동정녀. 이교도 여인은 늘 경망스러움과 타락한 불결한 모  
 습을 보인다. 그러나 마리아는 원죄 없는 순결함으로 단순하  
 고 순수한 영혼들을 강력히 끌어당기신다. 프리스킬라의 묘  
 지 그림은(2세기로 거슬러올라가는 듯함) “주교가 부제의 도움을 받  
 아 거룩한 동정녀에게 베일을 건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는

7. 동정 순교자 미사 본기도.

품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계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모델로 제시한다.”(마루키)

성 암브로시오의 책에서 마리아는 그리스도인 동정녀들의 빛나는 이상으로 제시되었다. (『동정녀 *De virginibus*』) 그레고리오의 예식에서 동정녀들은 베일을 받자 하느님의 어머니께 맡겨졌다. “그들이 언제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망토 아래 순결한 사람으로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다.”(무라토리)

마리아는 동정녀들에게 당신 성덕의 결실을 주신다. 마리아는 동정자들을 탄생시키는 빵, 곧 밀을 주신다.

여성 사도. 마리아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널리 전하셨습니다.” “스승 예수님께서는 성부께 돌아가시면서 | 당신의 학교와 강단講壇을 마리아께 맡기셨습니다. 212 이는 교회, 곧 교계제도에 관련한 직무를 통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배운 천상 지혜를 제자들에게 계속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빌라노바의 성 토마스) 세기에 걸쳐 마리아는 계속 사도직의 불꽃을 전하며 사도들이 불어나게 하셨다. 교리교사, 학교의 선생 수녀들이나 선교사명을 수행하는 수녀들, 많은 미혼 여성, 가톨릭 액션 단체에 가담한 여성들은 세상 곳곳에서 놀라운 사도직을 수행했다. 성녀 테클라와 사도 시대의 여러 여성, 성녀 논나, 성녀 모니카, 성녀 마르첼리나, 성녀 풀케리아, 성녀 헬레나, 성녀 에우도시아, 성녀 플라시다, 성녀 바울라, 성녀 마르첼라,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아빌라의) 예수의 성녀 테레사, 아기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마리아의 사도적 마음을 귀감으로 삼은 이들이다.

자선을 베푸는 여인. 사랑으로 고동치며 여성성을 신적 불꽃으로 태운 으뜸가는 마음은 바로 마리아의 마음이었다. 수녀들은 마리아에게서 배웠다. 동양에서는 수녀들을 종종 마리아의 사람들이라고 부른다. 몇 세기에 걸쳐 마리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의 추종자들, 곧 병원과 수용소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여성, 수많은 가난한 이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자신의 소유와 거룩한 일을 통해 성소와 신앙에 기여하는 여성들이 마리아를 본받았다. 타비트, 도미틸라, 바울라, 엘리사벳과 같은 이들, 과장이 아닌 수많은 여성, 젊은 미혼 여성들과 수녀들은 교회의 영광이며, 그리스도교의 살아 있는 변호자요, 마리아의 참된 딸들이다.

## 213 여성들에게

비오 12세는 1947년 1월 21일, 가톨릭 여성과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이 염원하는 바에 비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아직 굳건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용기도 아직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빛나는 열정의 불꽃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아가씨, 아내, 어머니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거룩한 법을 온전히 실천하려는 여러분은, 섭리가 마련한 상황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여 유일한 주님이요 스승께 나아가도록 이끌며, 하느님 뜻에 순종하고, 그르칠 수 없는 교의에 온순하며, 은총으로 거룩함 안에서 잘못과 악의 굴욕적인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게 하는 참된 자유를 제시하

기 위해 협력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 활동의 의미입니다. 형식 여하를 막론한 모든 사도직이 그리스도의 구원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교와 삶, 초자연성과 자연성, 교회와 세상 사이를 줄곧 명확하게 분리한다면, 마치도 이들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느님의 권한이 인생에서, 또는 사회생활이나 일상의 다양한 현실에서 아무 가치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것은 가톨릭 사상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고 맙니다. 명백히 반그리스도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두운 세력이 억압하면 할수록 또 교회와 종교가 세상과 삶에서 배척당할수록 교회는 | 끈기있고 항구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왕국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분의 성령이 더 넓게 숨을 불어넣고, 그분의 가르침이 여러분을 더 활기차게 다스리며, 그분의 사랑이 더 승리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뜻하는 것입니다. 214

이러한 교회 직무는 매우 어렵습니다. 초자연주의를 곡해한 나머지 교회를 ‘전적으로 종교적인 분야로만 국한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기만하는 자들이거나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수들의 유혹에 놀아났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이런 양상에 용기있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성과 체험, 여러분이 해낸 자랑스러운 일에 대해 알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활기찬 여러분을 치하하며 여러분 위에 그리스도의 힘과 은총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아들이 일어나 그를 기리고 남편도 그를 칭송한다.  
(잠언 31,28)

### 가장 큰 공로

여성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지니는 최상의 영예와 공로는 여러분의 아들이 수도자나 사제가 되도록 주님께 봉헌한 데서 기인하는지도 모른다. 또한 딸을 수녀로 주님께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녀들을 남녀 선교사로 봉헌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러한 봉헌이 여러분의 끊임없는 갈망이 되고 항구한 기도가 되길 바란다.

마리아가 당신 태중의 아기를 봉헌하신 것처럼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큰 공로가 된다. 이는 주님께 꽃이나 초나 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가장 소중한 보물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모든 어머니는 자녀들을 바치면서 무척 흡족해하며 “이 자녀들은 저의 진주요 기쁨이며 보석입니다.” 하고 말할 수 있다.

부모의 잘못으로 자녀들이 보금자리에서 활발하게 재잘거리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가정은 더없이 불행하다! 그곳에는 노동과 삶의 목적<sup>1</sup>만 존재하고 슬픔과 이기심, 어쩌면 즐거움이 결여된, 고독하고 황폐한 노년과 방

1. Scopo, finalità.

치된 죽음, 망각, 눈물을 흘리는 이나 명복을 빌어주는 이가 없는 무덤이 존재할 뿐이다.

부모들이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꽃과 같은 아이 216  
를 예수님이 선택하시도록 내어드린다면 그들의 희생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합당한 응답이 된다!

최고의 영예. 일반적으로 그 가정에 신앙과 도덕성, 일에 대한 사랑과 질서가 있음을 뜻한다. 착한 아들은 부모의 영예요 그 부모의 덕망을 증거한다.

은총의 샘. 아들이나 딸을 주님께 바친 가정에는 축복이 넘친다. 이는 큰 기쁨이며 수많은 천상 은총을 보장한다. 힘든 희생으로 느끼더라도 신앙과 사랑으로 바치는 희생은 구원의 표징이다.

죽을 때 얻는 위로. 영혼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장례식을 합당하게 치른다.

천국에 마련된 특별한 상. 하느님이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빛을 지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인간의 살을 주신 마리아께 빛을 지고 있다.

수도 성소의 양성기는 가정에서 사랑 어린 보살핌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것처럼 소중하다.

일반 학문에서 말하듯 어린이는 어머니에게서 성격과 정서와 성향 대부분을 물려받는다.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사제가 되길 바란다면, 또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어린 피조물인 아들에게 그와 같은 성향을 각인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어머니의 기도는 하느님 마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움직이겠는가! 본성과 은총은 같은 목적을 향해 작용하며 협력한다.

**217**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위대한 | 사제의 어머니이신 동정 마리아의 망토 아래 놓인다. 어머니의 말, 모범, 성물聖物, 기도, 교육 등 모든 것은 성소를 키우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성소가 싹트고 자라게 한다.

어린 자녀를 죄에서 보호하고, 그 안에 신심과 덕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보살핀다.

어머니는 자녀를 가까이 두고 가르치며 교정하고, 나쁜 친구와 영화, 오락, 좋지 않은 교육 등 모든 위험에 이끌리지 않도록 한다. 어머니는 아이를 성당에 데리고 가 교리를 배우게 하고, 좋은 학교에 다니게 한다. 어머니는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에게 귀 기울이고, 아이의 정서를 살피며, 늘 온화하면서도 단호하게 아이가 덕을 쌓아 튼튼해지게 한다. 성소의 징조가 드러나는 것을 보기 위해 조심스레 살피며 침묵 가운데 기다린다. 신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아들이 신학교에 가겠다고 할 때 어머니는 선뜻 동의한다.

### 거룩한 어머니들

큰 열정을 가지고 활동한 성 아타나시오의 어머니는 어느 날, “나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내 외아들을 교회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어머니의 기도와 조언 덕분에 그 아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변호했다.

우리가 미사 때 공경을 드리는 또 한 분의 어머니는 성녀 논나Nona다. 논나는 아기가 태어나자 하느님께 봉헌하며 아기

의 손에 성경 사본을 들려주었다. 그 아기는 위대한 성경 해석자요 해설자, | 교회의 뛰어난 박사<sup>2</sup>가 되었다.

218

착한 젊은이가 나쁜 친구들 때문에 죄를 범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훌륭한 어머니의 조언과 기도가 그를 회개하도록 이끌지 못하자 가엾은 어머니는 상심한 나머지 병에 걸렸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가까워진 어머니는 교도관에게 한 번 만이라도 아들을 보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아들이 두 감도관에게 끌려 어머니 곁으로 오자 어머니는 말없이 간절한 탄원의 눈길로 바라보기만 했다. 감옥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그러자 나무라듯 바라보던 어머니의 애절한 눈길이 드디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는 마침내 회개하여 고해성사를 보았고, 복역 기간이 끝나자 그는 생활방식을 바꾸어 예수회에 들어가 훌륭한 설교가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회개는 완전했다. 그가 바로 스타슬라케르 신부다. 그는 생전에 이 일화를 자주 언급했다.

성 요한 보스코의 어머니 마르게리타는 젊은 사도의 모범적인 교육자였다. 어머니의 훌륭한 모범과 기도, 지혜로운 조언, 끊임없이 바쳐진 희생은 착한 요한의 마음과 영혼에 감동을 주어 사제직과 수도생활에 관심을 갖게 했다. 요한이 조언을 청할 때 마르게리타는 “나는 너의 영원한 구원을 확신하는 것 외에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요한은 프란치스코수도회 회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요한의 어머니가 가난한 과부라는 것을 알고 있는 본당신부는 어머니에게 요한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머니에게 먼저 그 사실

2. 나지안의 성 그레고리오.

을 알렸다. 마르게리타는 요한에게 말했다.

- 219 “본당신부님이 오셔서 | 네가 수도자가 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나는 네가 자신을 잘 살피고, 필요한 단계를 잘 밟기를 바랄 뿐이다. 나를 생각하지 말고 네 성소를 따라가거라. 무엇보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본당신부님은 내가 너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너를 설득하길 바라시지만, 성소에 대해서만큼은 하느님이 우선이란다. … 나는 너에게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또 가난하게 죽기를 바란다.” 요한 보스코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도 사제가 되어 많은 남녀 수도자의 아버지가 되었다.

교황은 성소에 대한 가정의 협력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 성전의 꽃들이 자연스럽게 싹이 트고 피어나게 하는 첫 번째 가장 좋은 정원은 진실하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입니다. 회중이 칭송하는(집회 44,15 참조) 거룩한 주교와 사제들 대부분의 성소와 성덕의 시작은 믿음과 덕이 충만한 아버지가 보여준 모범과 가르침, 순결하고 신심 깊은 어머니, 순수한 관습에 따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가정적인 덕입니다. 이처럼 가정은 일상적인 섭리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확인시켜 줍니다. 가정의 부모들이 토비아와 사라(토빗 8,4-7)의 모범을 따라 하느님께 많은 자손을 청하며 하느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랄 때, 자녀를 하늘이 내린 선물로, 소중한 담보물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시초부터 자녀들에게 하느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교 신심을 지니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께 대한 온화한 신심을 지니며, |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공경할 것을 가르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솔직하고 근면하며 신심 깊은 삶의 귀감을 볼 때, 부모가 하느님 안에서 거룩하게 서로 사랑하고 성사생활을 잘 하며 금욕과 단식 등 교회법에 순종할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고행하는 모습을 볼 때, 부모가 집에서 기도하는 모범을 보이며 온 식구가 집에 함께 모여 하느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볼 때 궁핍한 이웃에게는 연민을 갖고 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처럼 자녀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범을 본받게 됩니다. 모두가 아니더라도 한둘은 그 영혼 안에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마태 4,19) 하고 말씀하시는 스승 예수님의 초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들이 하느님의 방문이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을 수 있기를 열렬히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걱정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주님께서 아들을 따로 뽑으셨다는 큰 은총을 깨닫는 부모들은 참으로 복됩니다!"(사제직에 대한 회칙)

### 성소자를 위해 일하십시오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외아들을 바치라고 요구하셨다. 성녀 모니카는 눈물과 기도로 아우구스티노가 회개하는 은총을 청했고, 사제직을 받도록 준비시켰다.

마리아는 가장 훌륭한 사랑하는 외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하셨다. 221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부모 또한 자녀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자녀가 하나뿐이라면 공로는 더욱 크다. 자손의 대가 끊기게 된다 해도 그 아들은 부모에게 더 큰 감사를 드릴 많은 영적 자녀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큰 희생을 치른 성소가 더 가치롭다.

당신이 자녀를 하느님께 바치길 거절한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를 뽑지 못하시겠는가?

자녀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가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은총을 빼앗기고 비뚤어져서 부모에게 십자가가 될지도 모른다. 하느님께서 현세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은총을 주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자녀가 자기 성소를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며 매우 중대한 죄가 된다.

아들이나 딸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려는 바람을 알릴 때 때로는 부모 편에서 거센 반발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며, 실제로 신앙을 실천하는 가톨릭 신자라고 말한다!

부모에 앞서 하느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그들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가 없다. 이것은 본질적인 권리다. 자녀들은 우선적으로 하느님께 속하며, 그 다음 부모에게 속한다.

하느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자매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자격이 없다. 그는 죄를 짓는 것이다. 부르심을 받았지만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해 달라고 청하는 젊은이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죽

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마태 8,22)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sup>3</sup>

예수님은 열두 살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율법학자들에게 귀 기울이며 | 장차 주어질 사명과 소명을 예시하셨다. **222**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성 요셉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한 이유를 묻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라는 말씀으로 그러한 선택은 자유로운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이는 하느님, 사명, 성소 문제에 관련된 것일 때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해신부가 확신한다면 부모의 허락은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뜻한다.

### 교황님께 귀 기울이십시오

이 견해에 대한 비오 11세의 말씀은 매우 명확하다. “부모들과 자신이 진지한 그리스도인 또는 가톨릭 신자라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이들, 특히 지위가 높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주, 너무 자주 자녀들의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를 수공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갖 변명을 늘어놓으며 노골적으로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항합니다. 또 더 완전한 신분에 이르는 성소를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본인들의 양심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구원까지도 위협에 빠지게 하는 이런저런 수단들을 동원하면서까지

3. 루카 9,60 참조. 중요한 것은 복음의 표현을 정확히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4. 루카 2,49.

그분의 부르심을 거역하며 버팁니다. 지난 몇 세기 동안 부당하게 만연하던 남용, 자녀들에게 성소에 적성이 없는데도 교회 내 성직자 계열에 들도록 자녀들을 강요하는 개탄스러운 남용은, 지금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사회 고위층 사람들에게, 또 일반적인 성직자 편에서 보더라도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토록 부유하고 품위 있는 가정에서 자란 이들의 수도 성소가 줄어들게 된 원인과 이유는 방탕한 현대 생활,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자극하는 유혹의 손길, 223 | 그리고 성소가 성장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여러 지역의 학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슬프게도 가정에서 믿음이 감소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실 신앙의 빛으로 상황을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랄 수 있는 더 높은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했듯이 사람들과 천사들을 공경하는 것보다 더 숭고한 직무는 무엇일까요? 오랜 슬픔의 체험, 그리고 배반당한 성소 — 지나치게 가혹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의 표시는 자녀들만 아니라 사려 깊지 못한 부모들에게도 눈물의 샘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느님은 이러한 눈물이 시기를 놓쳐 영원한 눈물이 되지 못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사제직에 대한 회칙)

그런데 저는 딸들만 있어서 ...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딸들 가운데 하나에게 수도 성소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교회를 위한 꽃들이 우리 눈에 아름답고 흡족하며

향기롭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부지런히 돌봐야 한다. 덜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꽃을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 ... 카인은 땅에서 얻은 가장 보잘것없는 결실을 하느님께 바쳤지만 아벨은 가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바쳤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서는 아벨의 봉헌물은 받아들여시고 카인의 것은 거절하셨다. 가장 훌륭한 자녀들을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정원에서 자란 가장 아름다운 꽃, 가장 건강하고 가장 똑똑한 자녀는 세상을 위해 남겨두고, 가장 뒤처지고 흠이 많고 허약한 자녀를 하느님께 드리려는 것은 왕이신 하느님께 심각한 모욕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느님께! 하느님께 대한 불의는 여러분 가 224  
정에서 많은 축복을 앗아가며 처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저는 딸도 없는데요 ... 그렇다면 사제나 수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학생을 위해 장학금을 제공하여, 하느님께 그를 봉헌하라.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말했다. “저희가 자녀를 갖게 되길 그토록 갈망했는데도 하느님께서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돈을 저축하여 세 명의 학비를 대줄 수 있을 만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돈을 신부님께 드리니 우리나라를 위해 일할 두 명의 수도 사제와 외국에서 봉사할 선교사 사제의 학비로 써 주십시오.”

어느 가장은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매우 소중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병에 걸렸어요.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마땅히 흠송드려야 할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이 받기로 되어 있던 몫의

유산을 이제 신부님께 드립니다. 제비를 뽑아 제 아들의 이름을 받게 될 학생의 학비로 사용해 주십시오. 저는 그를 제 아들처럼 사랑하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의 유일한 갈망은, 제가 죽으면 저를 위해 연미사를 드려주겠다는 약속뿐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요한 19,26-27)

## 마리아와 사제

마리아는 교회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지니셨던 것과 같은 사랑과 보살핌과 책임을 지니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아드님이신 것처럼 교회는 마리아의 딸이다. 갈바리아에서 예수님께 대한 임무를 다하신 마리아는, 임종중이시던 예수님께서 당신 신비체인 교회에 대해 같은 임무를 받으셨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요한 19,26) 마리아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보호하고 일깨우며 성화시키는 임무를 받으셨다. 그리스도는 물리적으로나 초자연적으로 한 분이시며, 공동구원자요 중재자이신 어머니 마리아도 한 분이시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사람의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sup>1</sup>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1. 요한 3,16 참조.

두 번째 조건은 은총의 상태, 곧 생명이다.

세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모범대로 그 뒤를 따라 걷는 것이다. 마리아는 믿는 이들의 어머니, 모후, 은총 226 의 어머니, 구원받은 이들의 어머니시다. | 또한 모든 성인의 모후 Regina Sanctorum omnium 이시다. 마리아는 성덕에 이르는 길로 모든 사도와 순교자, 고해신부와 동정자들을 초대하고 지지하고 보호하며 위로하신다.

마리아가 지상에 살아 계실 때 행하신 첫째가는 중요한 임무가 목자요 사제요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것이었듯이, 영원한 삶 속에서도 마리아의 으뜸가는 주요 임무는 언제나 사제 성소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요, 사제는 목자다. 인간은 죄인이며, 사제는 중재자다. 종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하고, 사제가 그 희생 제물을 봉헌한다. 성사에는 영원한 생명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제는 성사를 집행하는 사목자다. 구원의 뿌리요 기반은 믿음이며, 사제는 스승이다. 인간은 천국을 향해 정의롭게 걸어가야 하며, 사제는 그 길의 안내자다.

사제직에는 고귀한 존엄성과 위대한 힘과 책임이 존재한다. 이것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마리아가 구원 활동의 선두에 계신 까닭이다. 종교는 사제직 없이 존재할 수 없다. 거룩한 사제들에게서 진리, 덕, 은총, 평화, 정의, 학문, 그리스도교 문화 등 온갖 선이 전해진다. “사제는 인류를 위해 그리스도를 존속시키며 영속하게 한다. 사제는 길 진리 생명이신 천상 스승의 모든 직무를 수행한다. 사제의 보물은 복음, 성체성사, 교회다.”

마리아는 훌륭한 사제의 어머니로서 은총이 충만하셨다. 마리아는 모든 사제가 필요로 하는 은총을 지니셨다.

마리아는 추수의 주인이신 분께 기도하신다. 마리아의 간구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마리아는 사제들을 불러 모아 양성하신다.

227

성 안드레아 코르시니는 마리아를 통해 가르멜 수도생활에 부르심을 받아, 참으로 완벽한 사제요 주교가 되었다.

성 요한 보스코는 젊었을 때 계시에 관련된 꿈을 많이 꾸었다. 그는 착한 아이가 되길 바라는 소년들의 큰 동아리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때 깊은 정감이 느껴지는 부인이 나타나 그 방법을 가르쳐 주며 당신 은총으로 위로해 주었다. 신자들의 도움이신 성모님은 청년기 사도들의 별이 되셨다.

순결을 보존한 성 요셉 베네딕토 코톨렌고는 지성의 은총을 많이 받았고, 마리아의 감탄할 만한 활동으로 이끄심을 받아 제대 앞으로 인도되었다.

성 대 알베르토는 오로지 마리아를 통해 사제직분의 길을 인내롭게 걸어갔으며, 훌륭한 주교, 교회 박사, 성 토마스 아퀴나스의 스승이 되었다.

성 토마스는 동정으로 살았고, 성소를 지키기 위해 영웅적인 용기로 인내롭게 살았으며, 교회의 교의를 꿰뚫어 빛을 비추었다. 그 비결은 마리아께 대한 지극히 온순한 신심이였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놀라운 온순함과 정직함으로 사제직에 충실하여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지닌 주교, 참된 신심을 지닌 저술가요 설교가로 그를 따르는 충실한 신자들에

게 기적처럼 여겨졌다.<sup>2</sup> 어떻게 그리 되었을까? 그는 날마다 묵주기도의 신비 전체를 바치겠다는 서약으로 가장 어려운 시험을 극복했으며,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다.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는 윤리신학박사로 구속주회 창립자요, 지칠 줄 모르는 민중의 선교사, 저명하고 지극히 겸손한 **228** 주교였다. 이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은 그가 저술한 | 마리아 신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마리아의 영광 *Le glorie di Maria*」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리아는 사제들을 돕고 일깨우며 위로하신다. 마리아는 사제들의 사도직을 풍요롭게 하신다. 그 누구보다도 사제들이 마리아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마리아께서는 사제에게 가장 큰 도움과 위로를 주신다.

## 사제와 마리아

예수님은 당신 사도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위로자를 약속 하셨으며, 성령을 보내주셨다.

또한 당신 사도들에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위로자를 남겨 주셨는데 그분이 곧 마리아시다.

마리아를 사랑하는 사제는 마음이 삭막하지 않으며, 애정이 고갈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자신이 세상에 두고 온 모든 것에 대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기쁨과 순수하고 풍요로운 위로를 발견할 것이다.

2. 원본에 'un prodigio per i suoi prodigi'라고 되어 있는데 prodigi를 fedeli로 바로 잡았다. prodigi는 잘못된 표현으로 보인다.

여성은 자연적 생명을 다스리는 사목자다. 사실 하와는 “모든 살아 있는 것의 어머니”이다. 하느님은 낙원에 있던 하와가 죄를 짓자 그에게 고통 중에 자식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하느님은 한 여인이 초자연적 생명에 개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녀가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sup>3</sup>라고 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예고하셨다.

하느님 홀로 은총과 생명의 샘이시고, 마리아는 사목자시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는 감미로운 공동구원자시며, 하늘에서는 은총, 곧 생명을 분배하는 분이시다.

우리의 보잘것없는 지성을 위해 | “그녀는 그분을 통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sup>4</sup>라고 명확히 표현하셨다. 마리아는 갈바리아에서 아드님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229

거룩한 교부들은 하느님 말씀과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사이의 일치를 남편과 아내의 일치에 비유한다. 그들은 마리아를 “말씀의 정배(Sponsa Verbi)” 또는 “강생하신 말씀의 정배”라고 일컫는다. 성 이레네오와 성 유스티노는 이 표현을 아담과 그리스도, 하와와 마리아 관계의 바탕으로 삼았다.

한편 쉘벤(Scheeben) 박사는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몸과 피를 주셨다고 설명한다. 그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들에게 은총의 삶을 얻어주시고, 예수님의 삶과 사명, 관심과 열망을 공유하기 위해 고통으로 협력하셨다. 이처럼 예수님과 마리아는 서로 다른 직무를 통해

3. “Ipsa, conteret caput tuum.”(창세 3,15)

4. “Ipsa, per Ipsum, conteret caput tuum.”

같은 사명을 이루신 것이다. 예수님과 마리아는 각별한 애정으로 그분들의 구원 사명을 공유하는 가운데 사제들과 사도적 영혼들을 한결같이 사랑하셨다.

“동정녀와 사제”라는 제목으로 마리아께 바친 모르간티 대주교의 기도를 통해 마리아와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오, 마리아, 자비의 어머니시여, 당신은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느님이신 분의 어머니요 따님, 하느님의 아드님이 주신 보물의 분배자, 하느님의 사목자, 대사제 그리스도의 어머니십니다. 당신은 사제요 제단, 하느님 말씀의 원죄 없는 성전, |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도와 제자들의 스승이오니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합당하게 되어 거룩한 잔치에 경건한 마음으로 나아가리다.

오, 원죄 없으신 동정 마리아여, 당신은 저희에게 천상 음식을 주셨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당신은 하느님께 바치는 최상의 희생 제물이며 사제단의 영광이십니다. 지극히 복된 종 성 안토니오가 증언하듯이 당신은 비록 거룩한 신품성사를 받지 않으셨지만 신품성사가 주는 위엄과 은총으로 가득하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은 동정녀요 사제라는 칭호를 받으셨습니다. 오, 마리아님, 당신 아드님의 사제들인 저희를 어여뻐 보소서. 저희를 구원하고 정화하며 거룩하게 하시어, 저희가 형언할 수 없는 성사의 보화에 거룩하게 참여하며, 저희 영혼이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오, 자비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오, 영원한 사제의 어머니,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추수의 일꾼들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제들, 곧 인류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제를 양성하는 일에 관여한다.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기 핏줄이나 양자 가운데서 사제가 나오길 갈망해야 한다. 모든 신자는 노동과 기도와 봉헌으로 사제직에 공헌해야 한다. 공무원이 국가에 공헌하는 것 이상으로 공헌해야 한다. 여왕벌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일벌처럼.

이 때문에 성소자들을 돌보는 | “사도의모후수녀회”를 계획 **231** 했다.<sup>5</sup> 그 목적은 모두가 사람들의 영혼, 교회와 인류를 위해 필요한 성소에 협력하도록 초대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사도의모후수녀회 회칙의 일반 지침이다.]

1) 이중의 목적: 마리아와 일치하는 삶을 살며, 모든 사목과 사도직을 위해 각 본당에서 거룩한 성소자들을 많이 배출한다.

이상: 모든 본당이 적어도 한 사람의 수도자, 사제, 선교사, 수녀를 배출하도록 한다.

2) 방법: 사도들의 모후께 기도한다. 성소자들을 찾아 고무하고 이끌고 교육하고 물질적 도움을 베푼다. 그들이 사도직 터전에 이미 들어섰더라도 계속 동반한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제와 수녀들을 위해 기도한다.

3) 회원: 모든 사람, 곧 사제, 수녀, 젊은이들, 어른들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5. 15년 후 알베리오네 신부는 1963년 2월 19일자로 교황청이 승인한 “모든 성소를 위해 기도와 고통과 사랑을 바치는 모임”의 출범으로 이 계획을 수행했다. 한편 알베리오네 신부는 1959년 9월 8일, 카스텔간돌포에 창립한 사도의모후수녀회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4) 열심한 사람들: 모든 본당과 수도회에서 회원을 관리하고, “사도들의 모후” 정기간행물을 구독하도록 홍보하고, 구독자들을 활성화하여 연대 활동으로 이끈다.

5) 의무: 성소자들을 위한 매일의 기도, 매월 고해성사와 영성체, 각자의 신분에 따라 성소자들을 위해 협력한다. 공식 정기간행물 “사도들의 모후”<sup>6</sup>는 모든 연대 활동에 빛을 비추며 이끈다.

조직: 일정 기간 동안<sup>7</sup> 활동하는 총책임자를 나라마다 한 사람씩 둔다.

제안하는 활동: 본당 구역내의 착실한 가정들을 방문하고, 좋은 젊은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성소자 홍보지를 배포한다.

### 232 ‘센터’는 로마에 두며, 수도회의 목적을 위해 | 지속적인 성체조배를 바친다.<sup>8</sup>

매달 첫 토요일은 사제들을 위한 기도의 날로 바친다. 모든 본당의 열심한 신자들로 그룹을 형성하여 로마에 센터를 세운다.

모든 본당과 단체, 사회 계층에서 회원을 찾을 수 있다. 많은 사람을 찾기보다는 열정적인 사람, 사도적인 마음을 지닌 사람들을 선택하라.

모임의 첫 부분을 성령께 바치고, 그 다음에 사도직에 대해

6. 정확히 말해 성바오로딸수도회 내부 회람지에서 이미 시도한 바 있는 정기간행물 “사도들의 모후”는 빛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사도의모후수녀회 수녀들은 「당신이 원한다면 *Se vuol* [완전하십시오]라는 포켓용 잡지를 펴내 지금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7. pro tempore.

8. 저자가 이 글을 쓸 당시(1948)에는 사도의 모후 성당 건축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1954년 완공되었다. 이 성당 건립 목적에는 모든 성소를 위해 기도한다는 지향도 담겨 있었다.

다룬다. 모든 그룹은 모두의 선을 위해 참여하나 자치권을 갖는다. 본당 근처나 다른 편리한 곳에서 매월 모임을 갖는다.

로스키니 Roschini 신부는 「마리아의 삶 *Vita di Maria*」에서 “예수님은 설교하시는 동안 공공연히 대중 앞에서 행동하셨으나 교회의 심장과 같은 마리아는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고 말한다.

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여, 일어나라!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려고 어둠을 이용하고 있다.

오, 마음이 냉랭한 신자들이여, 일어나라! 얼마나 많은 영혼이 지옥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지 보라!

교황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추방되었고, 사제들은 살해되고, 주교들은 감옥에 갇혔으며, 오류와 불경스러움이 판을 치고 있다!

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위협받는 아이들, 살해된 젊은이들, 어둠의 심연에 던져진 여인들을 가엾이 여기라. 교회와 사회, 영혼들에게 인류의 구원자, 불꽃 같은 사제들을 보내라. “십자가 나무와 동정녀의 즐기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당신 어머니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는 교회의 호소이고 탄원이다. | 160만 명의 사제가 필요하다.

233

성 빈센트 팔로티는 이렇게 기도했다.

“사도들과 모든 천사와 성인의 모후여, 추수 주인께서 당신

9. 창세 30,1 참조. “나도 아이를 갖게 해 주셔요. 그러지 않으시면 죽어 버리겠어요.” 이는 라헬이 남편 야곱에게 한 말이다.

포도밭에 일꾼들을 보내시어 당신 백성을 구원하도록 기도하시어, 우리 모두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아멘.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선교의 모후시여, 저희의 보잘것 없는 기도를 당신의 강력한 목소리로 굳건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방황하는 자녀들을 교회와 일치하도록 부르시고, 아직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복음의 빛으로 이끌게 하소서. 오, 성모 마리아여, 당신 모성의 도우심으로 세상 곳곳에 흩어진 선교사들의 사도적 노고의 결실이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확실한 길을 가르치게 하소서.

오, 지극히 거룩하고 원죄 없는 동정녀, 사도들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시여, 가장 사랑스러운 당신의 보호 아래 복음 선포자와 신자들을 모아들이소서. 그들이 당신 아들 예수님과 그분의 크신 영광을 위해, 교회의 성장을 위해 성덕으로 빛나게 해 주소서. 회개하여 새로 세례받은 이들이 죽을 때까지 순수한 신앙과 불타오르는 열정 안에 티없이 순결을 보존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친 희생과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의 선교지는 물론 그들이 떠난 조국에도 신앙이 널리 퍼져 불경과 오류에 빠지게 하는 모든 노력을 거슬러 활기차고 굳건한 신앙을 지니게 하소서. | 원죄 없이 잉태되신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여, 저희에게 귀를 기울이시어 거룩한 사도들이 많이 나게 하시며, 세상 곳곳에서 활발한 활동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저희 가운데 신앙이 성장하여 언제나 더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당신에게서 멀어진 이들이 회개하는 가장 큰 은총을 얻게 하소서. 아멘.”

힘과 위엄이 그 아내의 옷, 앞날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입을 열면 지혜이고 자상한 가르침이 그 입술에 배어 있다.(잠언 31,25-26)

### 부르심 받은 이들의 자질

기본 원칙: 참된 사도에게는 개인의 성화와 열정과 실천적 삶이 분리될 수 없다. 사도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을 때,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줄기 안에 있을 때, 발전소에 연결된 빛과 열이 흐르는 전류일 때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열매는 뿌리가 공급해 주는 양분에 비례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에 대해 다루는 것이므로 지금 언급하는 내용은 초자연적 양분에 대한 것이다. 사도가 좋은 자질을 지니고 있다면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며 자신도 잘 돌볼 것이다.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성 스테파노의 [죽음]이 성 바오로의 회개를 이끌어냈다. 순교자들의 피는 그리스도인들의 씨앗이다.

사도의 직무를 확실하고 풍요롭게 하는 세 가지 자질은 하나님께 내어 맡김과 굳셈(불굴의 용기)과 순결함이다. 이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안에서 충만하게 발견된다.

## 236 첫 번째 자질

하느님께 내어 맡김이란 관대함에서 우리나라 온 활동, 곧 우리 자신의 인격, 건강, 평판, 미래, 심지어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는 우리 사도직의 외적 성공이나 실패 여부에 대한 염려까지 하느님께 맡기는 것을 뜻한다.

성 대 그레고리오의 다음의 말을 기억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모든 것에서의 이탈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이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우리 자신을 하느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다.

사도로서 노고와 활동의 결실을 맺기 위한 조건은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 손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예수님은 당신을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고 계셨다.”(마태 26,63) 이처럼 감탄할 만한 모범은 이사야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양처럼,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에서 이미 예견된 것이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마르 15,5)

사도는 열렬한 마음으로 일할 것이다. 사도직 현장은 메마르거나 풍요로울 수 있고, 악마의 반대와 싸우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십자가 위의 예수님처럼 죽을 수만 있다면 ...’ 하고 갈망하는 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 개인

1. 이사 53,7.

의 공로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뿌려진 씨앗은 싹이 돋을 것이고, 수많은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 하느님만이 자라게 하실 수 있기에 하느님께 모든 염려를 내어 맡기며 일해야 한다.

성 바오로는 자신의 사도적 고충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단언한다. 이는 교만해서가 아니라 |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리기를 위한 것이었다. 바오로는 동방의 여러 교회에 씨앗을 뿌렸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에서 거두어들인 것은 고통과 반대, 박해와 채찍질, 투옥뿐이었다. **237**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에게 보여주겠다.”<sup>2</sup> 하고 하나니아스에게 말씀하시며 예고하신 것이다.

이는 놀랄 일이 아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sup>3</sup> 시메온은 예수님에 대해 “이 아기는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될 것입니다.”<sup>4</sup> 하고 예언했다.

구속은 고통, 곧 속죄, 보속, 희생, 배상을 통해 이루어진다. … “피를 쏟지 않고서는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sup>5</sup>

마리아의 가장 위대한 사도직은 사도가 되는 것이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명확히 밝혀 말하였으며, 주님은 마리아를 종으로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셨다. 마리

2. 사도 9,16.

3. 요한 15,20.

4. 루카 2,34 참조.

5. 히브 9,22.

아는 끊임없는 시련, 베들레헴에서의 배척, 이집트 피신, 성전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림,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sup>6</sup> 하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신비와 고통 등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공생활에서 여러 번 반대받고 배척되고 함정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마리아의 영혼은 슬픔의 창에 찢렸다. … 하지만 불평하거나 반대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셨다. 하느님께 내어 맡기는 기쁨이 슬픔보다 더 컸던 것이다.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고백은 실패한 적이 없다.

한때는 예수님의 모든 노고가 완전히 허사인 것만 같았다. 그를 따르던 무리는 흩어졌고, 사도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었

**238** 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므로 | 원수들은 일시적인 승리 앞에서 기뻐했다. 마리아는 슬퍼하셨으나 절망하지는 않으셨다. 마리아가 겪은 고통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사도직이요, 빛이며 생명이요, 구원이었다. 마리아는 세상과 사람들의 구속을 깊이 확신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마리아를 인류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성모님을 남겨두시어 사도들을 위로 하셨다. 마리아는 천국에 계신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드님과 하나 되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셔야 했다. … 마리아는 여타의 이런저런 것을 바라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느님의 뜻만을 바라셨다. 마리아는 모든 것이 사람들의 선을 위해 작용하리라는 것을 깊이 확신했다. 승리와 모욕, 기쁨과 고통 등 모든 것이 사도직에 협력하는 것이다. 이 땅에 남아

6. 루카 2,49 참조.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구원의 사도직, 곧 고통의 사도직은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이다. 고통이 끝나면 사도는 하늘로 올라가, 더 효과적이고 방대한 새로운 사도직, 곧 전구의 사도직을 할 것이다.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는 말하길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지상에 장미비가 내리게 하겠습니다.” 하였다.<sup>7</sup>

## 두 번째 자질

굳셈. 투쟁하고 굴욕을 참아야 할 때 이를 견디어내고, 자신을 희생하며 끈기있게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다. “그들은 인내로써 열매를 맺는다.”<sup>8</sup>라는 말씀처럼 인내하기 위해 굳셈이 필요하다.

우리의 편의, 돈, 우리가 선호하는 것을 늘 포기하는 굳건한 의지. “나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sup>9</sup>

언제나 새로운 수단, 새로운 길, 새로운 협력자를 찾아나서는 굳건한 의지.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모든 것을 더없이 기쁘게 내놓고 나 자신도 남김없이 내놓겠습니다. | 여러분을 **239** 더 많이 사랑할수록 내가 그만큼 덜 사랑받아야 합니까?”<sup>10</sup>

“훌륭한 아내를 누가 얻으리오?”<sup>11</sup> 하고 성경은 묻는다. 강

7. 이 생각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70세 때에 맺은 계약과 비슷하다. “나는 이 훌륭한 바오로가족에 지금도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종으로 속해 있기를 바란다. 하늘나라에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겠다.”(AD 3항)

8. 루카 8,15 참조.

9. “Omnibus omnia factus.”(1코린 9,22)

10. “Impendam et superimpendar ipse pro animabus vestris...”(2코린 12,15)

11. “Mulierem fortem quis inveniet?”(잠언 31,10)

인한 여성의 가치는 모든 보화, 가장 진기한 보물을 능가한다. 이는 강인한 여성이 진주나 보석보다 더 값지다는 것을 뜻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감탄할 만한 여성은 유딧이다. 유딧은 베툴리아와 히브리 민족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위협하는 홀로페르네스의 마음을 정교한 책략으로 흘렸다. 유딧은 홀로페르네스를 죽이고 아시리아 군대를 모두 몰아내어 하느님의 도성과 백성을 구했다.

신약성경의 유딧은, 강생을 승낙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아드님을 봉헌함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다.

이스라엘의 임금 우찌야가 칭송한 유딧의 찬가는 마리아에게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교회는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9월 15일)에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당신 백성의 적군을 섬멸하신 저희 하느님께서서는 찬미받으소서.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은 이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우리 적군 수장의 머리를 치도록 그대를 이끌어주신 주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바라오. 그대의 희망이 하느님의 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어 그대가 영원한 영광을 얻고, 그대에게 좋은 상이 내리기를 비오. 우리 겨레가 비참하게 되었을 때, 그대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 하느님 앞에서 똑바로 걸어, 우리에게 닥친 파멸을 물리쳤소.”(유딧 13,18-20)

## 세 번째 자질

240

순결. 순수한 영혼들은 강인하며 사도적이다.

이러한 용기와 강인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설명은 성경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대사제와 원로단은 감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베들리아에 있는 유딧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한 목소리로 “그대는 예루살렘의 영예고 이스라엘의 큰 영광이며 우리 겨레의 큰 자랑이요. 그대는 이 모든 일을 그대의 손으로 이루었소. 그대는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하였소. 하느님께서도 그 일을 기쁘게 여기신다오. 그대가 전능하신 주님께 영원히 복을 받기 바라오!”(유딧 15,9-10) 하자 온 백성이 “아멘.”하고 응답했다.

유딧은, 주님께서 홀로페르네스가 아첨하며 유혹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느님 앞에서 선언했다. 유딧은 죄를 짓지 않고 돌아왔다.

구약에 나오는 유딧을 통해 신약에 나오는 새로운 유딧의 모습, 곧 마리아를 바라보기가 쉬워졌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두려움 없이 갈바리아에서 당신 아드님을 세상을 구원하는 번제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봉헌하셨다.

마리아를 순교자의 모후가 되게 한 그분의 영웅성은 지극히 순결한 잉태에 깃든 순수함과 순결함에서 기인된 것이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뱀을 압도하셨다. 마리아는 악마의 노예가 된 적이 없으셨다. 마리아는 잉태 첫 순간부터 언제나 사탄을 이기셨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바로 이 면에서 마리아는 하와와 전적으로 대조된다고 말했다.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241 죽음이 왔지만, | 다른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왔다.  
하와 때문에 파멸되었지만 마리아 때문에 구원되었다.

갈바리아에 서 계시던 마리아 곁에서 우리는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장 강인하고 용감한 성 요한을 보게 된다. 성 요한은 순수함으로 사랑받은 제자였다.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은 당신 어머니를 성 요한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이신 당신 어머니를 동정인 요한에게 맡기셨다.”<sup>12</sup>

교회는 용감하게 사제적, 사도적 사명을 자유롭게 수행하도록 사제 독신제를 규정했다.

성인들, 사도적인 사람들, 영웅들과 인류의 은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이 절제하고 정결했기에 강인할 수 있었음을 보게 된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 하는 성 루카복음(12,35)에 대한 성 대 그레고리오의 주해가 꼭 교훈적이다. “주님은 두 가지 것, 곧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길 바라신다. 다시 말해, 이는 세상에서 순결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활활 타오르는 것을 뜻한다.”

“이 두 가지, 곧 정결과 일에 대한 열정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나,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 분명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동정녀이신 사도는 자신의 순결과 굳셈과 열정을 통해 열정

12. “Matrem Virginem, Virgini commendavit.”

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이의 모범이 되신다.

정결한 사람은 자기 육체를 통제하는 법, 세상의 매력에 저항 242  
하는 법, 지옥의 유혹에 저항하는 법을 알기 때문에 강인하다.

정결한 사람은 강인하다. 그는 자신의 순결함으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 자기 영혼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정결한 사람은 자신을 성화하고,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관대하기에 강인하다.

한편 무절제와 불결함은 판단을 흐리게 하고, 의지를 약화시키며, 감정을 무디게 한다.

불결한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원한 행복보다 지상의 쾌락을 찾는다. 그는 악을 정복하고 구원해야 한다는 거룩한 사고思考를 망각한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 전서에서 “현세적 인간은 하느님의 영에게서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기에 그러한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2,14)라고 말한다

천상 스승께서는 순수한 이들을 향해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sup>13</sup>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오로의 감수성이 지닌 품위와 열심히 일하는 강인함, 그리고 하느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을 간직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떤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하나는 끌로 대리석을 다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준비

13. 마태 5,8.

된 주형에 녹은 금속이나 부드러운 석고 반죽을 부어 만드는 것이다. 첫 번째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지만, 두 번째 방법은 쉽고 빠르며 기쁨을 준다. 마리아의 사도직의 모범을 따라 사도가 자신을 형성해 나간다면, 그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사목을 수월하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 243** 마리아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참된 주형이시다. 마리아께 맡겨진 영혼은 마리아와 쉽게 하나가 되어, 수월하고 빠르게 그리고 확실하게 일할 것이다. 다른 길은 멀고 고단하여 치러야 하는 대가가 크다.

지혜가 이끌고 왔으므로 나는 그 모든 것을 즐겼다. 그러나 그것들이 지혜의 소산임을 몰랐다. 나는 욕심 없이 배웠으니 아낌없이 나누어 주고 지혜가 지닌 많은 재산을 감추지 않는다. 지혜는 사람들에게 한량없는 보물, 지혜를 얻은 이들은 그 가르침이 주는 선물들의 추천으로 하느님의 벗이 된다.(지혜 7,12-14)

###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여,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내어 주라. 사제든 평신도든 수도자든 믿는 이든, 또는 올바른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든 모든 이에게 어머니를 내어 주라.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했고, 하느님의 정의에 반발했으며, 오류와 악, 우상을 섬김으로써 그릇된 길을 걸어 하느님에게서 멀어졌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맹목적으로 걸어가는가! 이러한 자녀들에게 사랑스러운 어머니를 내어 드려라. 그 어머니는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아 노여워하시는 하느님 아버지와 그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그들을 비추어 주고 위로하며 아버지와 화해하게 해 주시리라. 어머니다운 어머니가 되어 주시리라. 이는 마치 스승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는 것이다. 인간의 사악함이 극에 달하여 신을 사형에 처했을 때, '하느님의 성전'(예수님을 일컬음)에 황량함이라는 증오가 깊이 스며들었을 때, 고통받는 목자와 그리스도

245 를 따르는 모든 무리, 곧 사도와 신자들이 흠어질 때, |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 하시며 어머니, 곧 희망과 구원을 안겨주셨다. 그날부터 인류는 고아가 아니었다. 사도들은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고, 사도들이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자 성령께서 내려오셨다. 교회는 앞서 가시는 마리아의 깃발 아래,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곳곳에 자리 잡았다.

인류를 구원하라.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구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마리아의 사도직을 하라.

마리아의 사도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최대한 기억하며 그 귀감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 곧 교의, 모범, 교회, 성사, 피 등 온갖 도움을 주셨다. 그럼에도 부족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이는 성모님의 지성과 마음으로 자녀들을 풍요로운 잔치, 은총의 샘, 위로자, 스승께 이끄는 것이었다. 보라, 마리아가 선택되었다. 우리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안전한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많은 교훈과 조언, 방법과 길이 제시되었지만 동정 성모 마리아처럼 내어 주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사랑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성모님의 사도직이야말로 위대한 해결책이다. 모든 것에 실패하여 절망한다 해도, 지옥의 세력 앞에서 약해지는 것을 느낀다 해도, 사방이 온통 막혀버렸다고 해도, 하늘조차 여러분의 부르짖음에 귀를 막아 버린 듯해도 확실한 희망이신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남아 계시는 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예수님을 모셔가는 것이 성모님의 직무이기 때문이

다. 성모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 아드님께서 따라가실 것이다. 새벽이 동트면 태양이 곧 떠오를 것이다. 예수님은 “동정 성모 마리아의 꽃”이며 “성모님 태중의 복된 열매”이시다.

마리아는 위대한 어머니시다. 모든 어머니의 사랑을 한데 모으면 거대한 불꽃을 이루겠지만, | 자녀들에 대한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은 그 불꽃을 훨씬 능가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사랑에 불을 붙이셨다. 마리아는 우리 기쁨의 원천이며 죄인들의 피난처,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 믿는 이들의 도움, 상지의 옥좌, 착한 의견의 어머니,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시다. 여러분이 햇살을 쬐며 만끽하듯, 여러분의 형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모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모두 돌보신다. “아무것도 그 열기 앞에서 숨을 수 없네.”<sup>1</sup> 성모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쓰실 수도 있다. 하느님과 모든 피조물을 향한 성모님의 사랑이 무한한 것처럼 그분의 힘도 무궁무진하다.

교황 레오 13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교회박사들과 교부들의 모범을 따라 성모 마리아의 망토 아래로 자주 피신합시다. 성모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우리 어머니라 부르며 간청합시다. ‘성모 마리아님, 당신이 저희 어머니이심을 보여주소서. 당신 아드님이 되길 바라셨던 예수님께서 저희 기도에 귀 기울이시도록 간청해 주소서.’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성모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성모님이 지니신 이중의 모성을 공경하도록 이끈다. 이는 하느님께서 지니신 이중

1. 시편 19,7.

의 부성을 공경하도록 초대하는 것과 같다. 곧 타고난 모성과 부성이다. 이처럼 하느님은 외아드님을 존중하는 아버지시다. “내가 너를 낳았노라.”(시편 2,7) 마리아는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신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마태 1,16) 우리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부성애도 있다. 또 영적 모성애도 있다. “오, 주님, 당신은 당신 어머니를 저희에게 어머니로 주셨습니다.” 하고 교회는 기도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 가운데 말이”(로마 8,29)시다.

## 247 양자들

우리는 마리아의 양자들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은총으로 우리의 참된 영적 어머니가 되셨다.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오, 구원된 사람들이여, 동정 마리아를 통해 받은 생명을 환호하여라.”<sup>2</sup> 이 생명은 마리아가 영보를 받으신 날, 우리의 영적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셨을 때 나자렛 집에서 우리를 잉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바리아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우리를 낳으신 것이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시며 성모님이 우리 어머니심을 장엄하게 선포하셨다. 성 안셀모는 “오, 안전한 피난처요 행복한 믿음이며, 하느님의 어머니께서 곧 우리 어머니십니다.” 하고 기도드렸다.

2. “Vitam datam per Virginem, gentes redemptæ plaudite.”

레피시에 Lepicier 추기경에 따르면 이는 신앙으로 이끄는 ‘가톨릭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레오 13세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류의 어머니로 선포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의 어머니께 겸손되어 기도합니다.”라고 하였다. 또 “교회는 요한복음에서 마리아가 온 인류를 대표한다고 봅니다.”라고 했다.

비오 11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리아를 온 인류에게 건네주셨으므로 성모님은 모든 이를 사랑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이들은 물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미 그 결실을 맛본 이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다.

베네딕토 14세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가톨릭교회는 성모 신심을 향상시키고자 늘 노력했으며, 여러 면에서 구원자의 어머니시요 하늘의 모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를 공경해 왔습니다.” 하고 말했다.

그레고리오 16세는 “마리아는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경건한 248 은총의 어머니, 온유와 자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는 성자께서 성부께 탄원하듯 성모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간청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주님은 스승 예수님의 신비체와 관련해 마리아에 대한 큰 계획이 있으셨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빚어내려고 성령과 함께 협력하셨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 불릴 것이다.” 이

제 성모님은 신비체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성령과 함께 협력 하셔야 했다. 그 교회는 성령강림일에 탄생했다. 마리아는 사도들과 함께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 협력하셨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위로자, 곧 보호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가정에서는 어머니가 자녀들의 중심이요, 심장, 생명, 기쁨, 빛이며 위로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여러 형제들 사이에 평화의 대변자요 중재자다.

어머니는 고통을 덜어내고 그림자를 몰아내며, 의견충돌과 다툼이 생길 때 원만하게 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께 그리스도인 가정, 곧 교회를 어머니의 사명에 맡기셨다.

이는 모성과 보편성을 지니신 마리아의 사도직이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마리아는 이미 예정된 모든 이를 당신 품에 안고 가십니다. 마리아는 그들을 키우고 양육하고 보호하며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십니다.” 하였다.

249 어머니라는 말은 성모 마리아의 보편적 모성이라는 사도직을 요약한다. | 이는 마리아가 당신 자녀들을 위해 영적 육체적으로 자비의 활동을 동시에 이루심을 뜻한다.

성모님은 가정의 여왕이시다. 마리아는 보편 교회의 어머니 시기에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도직의 모후시기도 하다. 이러한 성모님의 사도직은 천국과 연육, 지상, 그 어디에서든 펼쳐진다.

## 마리아의 사도직

마리아의 사도직이라는 의미는 성모님을 널리 알리고, 성모님을 본받으며, 성모님께 기도하는 것을 뜻한다.

마리아를 널리 알릴 것. 이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의 여러 교황과 박사들처럼 성모님을 널리 알리는 것이다. 수많은 저술가, 설교가, 교사, 가정을 이끄는 아버지와 어머니, 예술가, 착실한 신자들은 성모님을 널리 알렸다. 성모님을 다룬 문학 작품들은 그리스도교를 전하는 강물이다. 따라서 가장 훌륭한 활동은 성모님에 대한 작품을 신자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다. 널리 소개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참으로 많은 보화가 서원 안에 갇혀 있다. 오류에 빠진 이와 무지한 이들을 예수님께 이끄는 별이신 마리아를 밝히 드러내라. 많은 이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sup>3</sup>

마리아를 본받을 것. 아담 이래 모든 이가 죄에 물들어 상처를 입었다. 마리아 홀로 하느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천사들을 감탄하게 하며, 수많은 예술가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아름다움과 무구無垢함, 빛과 은총의 이상이다. 도덕적 아름다움을 통해 성모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더러움과 죄를 몰아내는 것을 뜻한다. 이는 영혼을 더 높은 이상과 한층 더 거룩한 길, 고상함과 천상적인 방향으로 들어 높이는 것을 뜻한다.

마리아께 기도할 것. 세상 곳곳에 교회와 성전, 경당과 제단 **250**에 마리아 상을 세우라. 곳곳에 성상을 세우고, 기도와 찬가를 가르쳐 모든 이가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 마리아를 기억하

3. “In tenebris et in umbra mortis sedent.”(루카 1, 79)

는 습관을 들이게 하라.

여러분이 타오르는 열정을 지니고 있다 해도 혼자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과연 한마디 말로 철학을 지배하고, 체계를 통제하고, 공산주의가 퍼지지 않게 하고, 라디오와 영화의 윤리를 바꾸며, 법률과 학교와 관습을 그리스도화하거나 지옥을 무장 해제시킬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교의적 이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실행하려다가는 실제로 이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마리아는 빛이요 힘이요 은총이시기에 언제든지 다시 일어나 악마의 머리를 짓밟으실 것이다. 지혜로워라. 미혹당하지 말고,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을 잘 따라 가라.

지혜는 자기에게 맞갖은 이들을 스스로 찾아 돌아다니고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상냥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그들을 만나준다.

(지혜 6,16)

### 전면적 사도직

사실을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다음가는 인물은 바로 사도인 마리아뿐이다. 다른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사도직에 참여할 따름이다. 그들은 부분적으로 사도직에 참여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전적으로 참여하신다.

우리 마음은 대단히 편협하고 우리의 말은 불충분하지만 “마리아께서는 사도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해야 한다. 따라서 마리아께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한 마리아께도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모든 것은 마리아의 “피앗”에 달렸었다. 피앗은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모든 것을 얻기를 바라신”<sup>1)</sup>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이 많은 지혜와 사랑을 담아 설교한 마리아께 대한 완전한 신심을 실천하고 널리 알리자.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곧 결정적이고 중요한 관점에서 마리아는

1. “Totum nos habere voluit per Mariam.”

사도 그 이상의 존재이므로 모든 이는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와 함께할 때 비로소 사도가 된다는 것을 모든 것에 적용해야 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 신심은 구

**252** 원은총의 확고한 표지이다. | 그 특별한 계시가 없다면 그 누구도 예정되었다고 확신할 수 없다. 그러나 성 안셀모, 성 베르나르도,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 성 안토니오 등은 가장 확실한 성모 신심에는 표지와 표징이 있다고 가르친다. 밀로 Millot는 그들의 가르침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한다. “마리아께 신심 깊은 영혼들이 구원된다는 것은 사실이 되었다. 신자들이 그것을 확신했고, 영적 저자들이 날마다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가! 하느님은 그리스도교 교의나 완덕에 관하여 당신 백성 그 누구도 오류에 빠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성 베드로 다미아니는 “살아있는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보호를 확신하는 사람은 심판 날에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하느님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무한한 활동으로 널리 퍼져나가시는 하느님께서 자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린다. 선과 진리와 사랑<sup>2</sup>은 행하심에 비견되는 잠재된 힘으로 햇살처럼, 불꽃의 열기처럼 퍼져 나간다. 예수님은 절친한 벗 성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에게 나타나시어 “인류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 마음을 보라. … 이제 더는 그 사랑의 불꽃을 억누르고 제압할 수 없기에 사람들에게 이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고 말씀하셨다.

사도직은 그 자체가 지닌 풍요로움을 드러내는 큰 빛이요

2. Bonum, Veritas, Amor.

사랑이다. 마치 큰 물통에 물이 가득 차 넘쳐흐르는 것과 같다.

마리아는 모든 시대의 사도이시다. 하느님이 마리아를 한 여  
인, 위대한 아드님의 어머니, 구원자로 선포하셨을 때, | 마 253  
리아는 지상과 천국에 있는 모든 인류의 희망으로 나타나셨  
다. 하느님은 “마리아가 네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고 말씀하  
심으로써 무엇보다도 마리아의 활동을 강조하려고 하셨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은 생명을 회  
복시켜 줄 구원자를 내어줄 여인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  
기 시작했다.

때가 차자 마리아는 우리에게 세상의 구원자를 내어 주셨  
다. “동정녀 마리아는 모성의 기쁨을 간직하고 온전한 영예  
를 보존하면서 영원한 빛을 낳아 주셨다. 이는 예전에는 결  
코 허락되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도 결코 허락되지 않을 일  
이다.”(성탄 찬미가 후렴 2)

그로부터 몇 세기에 걸쳐 마리아는 영광과 은총으로 둘러싸  
인 영예로운 옥좌에 앉아 은총을 나누어주신다. 이는 마리아  
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신다는 뜻이다. 마리아는 세기가  
다할 때까지 선택된 이들의 숫자를 채우신 모든 시대의 사도  
이시다.

보편 사도. 마리아는 모든 것, 곧 온갖 선을 다 주신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의신학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께 대한 지식을 역설하고 설명했다.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는  
윤리를 통해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역설하고

설명했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와 십자가의 성 요한은 수덕신학과 신비신학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설파하고 설명했다.

자비를 드러내는 일곱 가지 육체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1)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 2)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물을 주는 것. 3) 헐벗은 이들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4) 집 없는 이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것. 5) 환자들을 찾아가는 것. 6) 감옥에 갇힌 이들을 방문하는 것. 7) 죽은 이들을 묻어주는 것이다.

- 254** 자비를 드러내는 일곱 가지 영적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의심하는 이들에게 조언하는 것. 2) 무지한 이들을 가르치는 것. 3) 죄인들을 훈계하는 것. 4)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것. 5) 모욕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것. 6) 괴롭히는 이들을 인내롭게 참아주는 것. 7) 산 이와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시면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이러한 열매가 달리는 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 마리아는 장식등이 달린 상들리에이다. “마리아는 진리의 빛을 세상에 퍼뜨리신다.” 마리아는 “상지의 옥좌”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어야 하는데 동정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 주신다.

## 마리아의 전구

마리아의 전구는 보편적이다. 마리아는 교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온전한 신비체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

늘에 계신 하느님을 뵈고 소유하고 누리도록 예정되었기 때문에 지상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초자연적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계시와 의화와 성화 활동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으며, 말씀께서 마리아 안에서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셨다. 교회에 존재하는 모든 선은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마음과 태중에서 시작된다.

“우리 안에 희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은총이 있다면, 우리 안에 구원의 원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성 베르나르도)

## 모든 사도직

255

많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으며, 그들 모두가 빛과 위로, 성소와 사도직의 결실을 마리아에게서 받았다.

예수님이 첫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따라갔다. 어지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예수님은 카나에서 마리아의 중재를 통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다. 그때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메시아, 곧 하느님이심을 믿은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자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다. 그러나 동정 마리아는 ‘교회의 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셨다. 레피시에 추기경은 이렇게 말했다. “우

리는 인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을 동정 마리아가 미리 하셨다고 확신하며 믿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히 성경이 명확하게 전하는 것처럼, 사도와 제자들에게 내려오신 성령께서 보여주시듯 말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마리아의 자애로운 그늘 아래 그들의 사도적 삶을 시작했다.

이는 모든 시대의 사도들에게 똑같이 전해진 내용이다.

주목할 것은 참되고 완전한 성모 신심의 원조인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이 언급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도 마리아를 통해서”라는 원리이다.

15세기에 이탈리아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좋은 관습을 회복시켰다. 그의 성공은 그가 열두 살이었을 때 사촌 토비아에게 다음과 같이  
**256** 확신에 차 전한 말에서도 드러난다. | “저는 지극히 품위 있는 여인을 무척 사랑해요. 그 현존을 맛보기 위해서라면 제 생명을 기꺼이 바칠 거예요. 그 여인을 뵙지 않고 하루를 보낸다면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할 거예요.” 그가 말한 여인은 바로 마리아였다.

1827년, 이탈리아 브라의 사제 성 요셉 베네딕토 코톨렌고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께 대한 신뢰로 토리노에서 자선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애덕의 신비적이며 기념비적인 일이었는데, 코톨렌고 자신도 마리아께 신뢰를 둔 기적과 같은 사람이었다. ‘꽃의 성모’ 성당 가까이에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마리아의 사도였다. 그는 마리아에게서 면학을 위한 지력을 선물 받았고, 자신의 사명 계획도 배웠다.

14,000명을 수용하는 “작은 집”<sup>3</sup>에서 성모 마리아는 문지기, 관리, 위로자, 하느님 은총의 어머니 등 모든 역할을 하셨다.

살레시오의 성 프란치스코는 샤블레의 사도로 참되고 온화한 성모 신심을 지닌 사도다. 태어나기 전부터 성모님께 봉헌된 그는 파리와 파도바에서 심각한 영적 위험에 처했을 때 성모님에게서 큰 도움을 받았다. 그는 세례 때 받은 순수함을 간직한 채 선했다. 그는 자신이 서약한 대로 날마다 묵주기도의 모든 현의를 다 바쳤다. 그는 샤블레 사람들을 회개시켰으며, 제노바의 훌륭한 주교로서 많은 저서를 남겨 교회박사가 되었다.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는 사랑의 사도요, 천사들과 성모 마리아에 대한 신심이 깊은 사도였다.

성 도미니코는 진리의 사도요, 묵주기도에 대한 깊은 신심의 사도였다.

성 요한 보스코는 젊은이들의 사도요, 믿는 이들의 도움이신 마리아께 대한 불굴의 의지를 지닌 열렬한 사도였다.

성 이냐시오는 몬세라트 성모 성당의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발치에서 | 위대한 활동을 시작했다.

257

성모의 종 수도회를 창립한 일곱 분의 성인도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의 발치에서 시작했다.

성 빈첸시오 드 폴도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발치에서 사도직을 시작했다.

리구오리의 성 알폰소는 「마리아의 영광」의 저자요 구속주회 창립자다.

3. “천주 섭리의 작은 집”이다.

복음사가 성 요한은 최초로 예수님의 마음을 드러낸 사도, 수명을 다하고 숨을 거둔 순교자, 가장 사랑받은 사도, 교회의 예언자다. 그는 예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를 맡기신 동정자로서 오랫동안 마리아와 함께 살았다.

모든 성인 가운데 특별히 젊은이들의 각별한 수호자요 모범으로 꼽을 수 있는 네 분의 성인이 있다. 성 알로이시오 곤자가, 성 스타니슬라오 코스트카, 성 요한 베르크만스, 성모 통고의 성 가브리엘이다. 그들은 온전히 마리아에게서 태어났고, 양육되었고, 성화되었으며, 성모님의 참된 아들로서 살았다.

마리아는 어린 사도들과 여성 사도들도 양성하셨다.

원죄 없으신 성모님의 사도 성 베르나뎃다 수비루를 생각해 보라. 성모 신심이 무척 깊었던 베르나뎃다는 읽거나 쓸 줄도 모르던, 첫 영성체를 받기 전에 선택되었다.

파티마의 순진한 어린 세 목동은 원죄 없으신 성모 신심의 사도가 되었다.

기적의 메달이라 일컫는 사도 카타리나 라보레도 있다. 비오 11세는 카타리나에 대해 “이 영혼의 모든 것은 순결과 겸손과 단순함에 달려 있다.”고 했다.

- 258** 오늘날에도 다양한 가톨릭 액션의 여러 단체, 곧 학교, 자선 활동, 출판, 선교 등을 통해 겸손하고 용감한 사도가 된 젊은 여성들의 단체가 널리 확산되는 것은 칭송할 만한 일이다. 그들 모두는 빛이요, 위로요, 스승이며 보편 사도이신 마리아에게서 모든 것을 길어낸다.

## 모든 이를 위하여

마리아는 연옥에까지 사도직을 펼치신다. 마리아는 두 가지 방법으로 연옥 사도직을 하신다. 한 가지 방법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마지막 단계인 고통을 완화하여 마리아의 자애를 느끼게 하는 것이다. 성 빈첸시오 페레리오는, “마리아는 연옥에 있는 이들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라고 말했다. 마리아는 고통이 빨리 끝나도록 앞당기신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해 “평생 동정이신 복된 성모 마리아의 전구로 [하느님께서서] 그들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

병자들과 임종자들을 위한 사도직은 아름답고 위대하다. 성 요셉은 임종하는 이들의 수호성인이시다. 그러나 가장 거룩한 죽음을 맞으신 분은 마리아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하고 기도한다.

날마다 18만 명이 영원으로 돌아간다. 영원은 마지막 삶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마리아는 갈바리아에서 죽어가는 아드님과 함께하셨다. 이처럼 마리아는 임종중에 있는 모든 이의 머리맡에서 함께해 주신다.

마리아는 모든 이를 돌보신다. 마리아는 젊은이를 위한 출판 259 사도직, 선교 사도직 등 한 가지 사도직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모든 사도직을 마음에 품고 실행하시며 모든 사도를 돌보신다. 마리아는 죄인들을 회개로 이끌고, 완덕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이들을 이끌며, 완전함에 이른 이들을 보호하

신다. 고아들을 돌보시고, 순진한 이들을 죄에서 보호하시며, 죄와 맞서 싸우는 젊은이들에게 힘을 주신다. 수도생활과 사제생활에 부르심 받은 이들을 돕고, 약혼한 이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시며, 결혼한 부부들을 축복하신다. 마리아는 갓 태어나 요람에 누운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에게 망토를 펼쳐 감싸주신다. 마리아는 노인, 가난한 이, 환자들을 위로하신다. 위정자, 스승, 사제, 선교사, 판사, 상인, 육지와 바다와 창공을 가로질러 여행하는 모든 이가 성모님의 보살핌을 받는다. 마리아는 모든 은총을 지니셨기에 모든 은총은 마리아에게서 나온다. 마리아는 우리 생각에 합당치 않아 보이는 것까지 개입하신다! 마리아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신혼부부가 처한 난처한 상황에서 구해 주셨다. “바로 이때 마리아가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심을 보여주셨다.”고 성토마스는 말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지극히 기록하신 동정 마리아에 대한 책이 4만 종류가 넘는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교회의 모든 위대한 활동, 성모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모든 단체, 사도직의 모든 창안 가운데 한 여인, 곧 마리아를 찾으라. 마리아의 사도적 모습은 얼마나 위대한가! 마리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신 채 우리에게 온갖 선을 베푸신다. 세상에 무언가 선한 것이 있다면, 그 선의 근원은 마리아에게서 찾을 수 있다. 하느님이 근원이신 것처럼 마리아도 그와 같으시다.

사도직을 잘 하길 바라면서 마리아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은 날개 없이 날아가려고 하는 새와 같다.

**260** 사도요 모든 종교의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보라. 모든 사도직과 모든 사도는 언제 어디서나 마리아의

품에서 태어나고 양육되고 성장하며, 자애로운 마리아의 보호 아래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마리아의 품에서 이루어진 결실은 소중하며 풍성하고 탄탄하다.

마리아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마리아가 안 계시면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 처음에, 그리고 수 세기 전, 마리아는 사도로서 하느님의 마음속에, 하느님이 ‘사목하시는 거룩한 집에’ 계셨다. 마리아는 창조 계획과 구원 계획을 통해 인류의 사도로 미리 생각하여 내정된 분이시다. 마리아는 사도요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모든 사도의 어머니, 모든 사도직의 빛이요 안내자요 도움이셨다.

사도직에 임하는 이들은 사도들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sup>4</sup>를 자주 바치자.

---

4. 사도들의 모후께 바치는 주간기도는 이 책 340쪽에서 소개된다.

### 31. 마리아와 성령

당신께서 하시는 일을 아는 지혜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께서 세상을 만드실 적에도 지혜가 곁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당신 눈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 계명에 따라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거룩한 하늘에서 지혜를 파견하시고 당신의 영광스러운 어좌에서 지혜를 보내시어 그가 제 곁에서 고생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깨닫게 해 주십시오. 지혜는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기에 제가 일을 할 때에 저를 지혜롭게 이끌고 자기의 영광으로 저를 보호할 것입니다.(지혜 9,9-11)

#### 거룩한 불꽃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후 지상에 사십일을 머무셨는데 그동안 자주 나타나시어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확신을 주며 권능과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을 나누어 주셨다. 특히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내 양들을 돌보아라.”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일치시키고 안심하게 하며, 당신 활동을 완성하셨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당신이 행한 것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8-20) 또한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약속을 확인하셨다. “그

1. “Pasce agnos..., pasce oves...”(요한 21,15,17)

리고 보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분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 높은 데에서 오는 힘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루카 24, 49)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베타니아 근처까지 데리고 나가신 다음, 손을 드시어 그들에게 강복하셨다. 이렇게 강복하시며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루카 24, 50-51) “...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사도 1, 9)

“그 뒤에 사도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 산은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었다. 성안에 들어간 그들은 자기들이 묵고 있던 위층 방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아, 필립보와 토마스, 바르톨로메오와 마태오,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혈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그들은 모두, 여러 여자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사도 1, 12-14)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사도 2, 1-4)

마리아의 영혼은 잉태를 통해 은총으로 가득 차 성부의 딸로서 지극히 거룩하게 되었다. 마리아는 같은 성령에게서 받은 영보를 통해 은총으로 가득 차 사람이 되신 말씀의 어머니가 되셨고, 그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하기에 합당하도록 은총

263 으로 충만하셨다. 또한 성령강림을 통해 성령의 활동으로 교회의 어머니가 되셨고, | 아기와 같은 교회를 당신 품에 안아 먹이고, 기르고, 당신 존재와 모범과 기도로 굳건하게 하는데 합당한 분이 되도록 은총으로 충만하셨다. ...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몇 세기에 걸쳐 마리아는 교회를 위해 착한 의견의 어머니, 신자들의 도움, 기쁨의 샘, 모후, 스승이 되셨다.

### 마리아 안에 계신 성령

이처럼 성령은 새롭게 내려오시면서 대신덕, 사추덕, 일곱 가지 성령의 은혜, 열두 가지 성령의 열매, 경신덕, 참행복, 보편적 사랑, 자애로운 모성, 새로운 열정을 불어넣어주셨다. 마리아의 마음에서 성령이 빛나신다.

성경 말씀과 대조해 보면 마리아의 활동이 잘 드러난다.

마리아는 모든 이가 피신하여 구원을 받게 한 방주시다.

마리아는 하늘나라에 이르는 계단이요, 문이시다. 마리아께 봉헌하는 사람은 빨리 성덕에 이르며, 하느님과 하나되게 하신다.

마리아는 전투 태세를 갖춘 매우 강력한 군대로서 악마를 무찔러 승리를 보장하신다.

마리아는 정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새벽이시다.

마리아는 달콤한 향기를 품은 장미원이시다.

마리아는 오류와 악의 어둠을 몰아내는 밤의 달이시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에 따르면 하느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여 직무를 주실 때 그에게 필요한 선물과 은총을 함께 주신다. 다시 말해 그 은총은 교회, | 세상의 직무, 권력, 미 264  
 래에 대한 넓은 지식과 믿음, 자녀들에 대한 희망과 사랑, 보편적인 전구의 힘이다. 그렇게 하여 거룩한 선물에 대한 새로운 직무, 새로운 성소, 새로운 참여가 이루어진다.

상존은총<sup>grazia abituale</sup>에는 세 종류가 있다. 성화은총은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어 성령의 선물을 받기에 ‘합당하게 한다<sup>dignificante</sup>’<sup>2</sup> 그 영혼은 하느님의 양자로서 공덕을 받을 능력을 지님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는다. 이 생명은 죄 없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느님의 충실한 종들,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하고 합당하게 따르는 신자들이 소유한다.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sup>deificante</sup>’<sup>3</sup> 성화은총은 위에서 언급한 선물에 무한한 가치를 더해 주는 성령의 선물이다. 한 인격체 안에 하느님이 사시게 한다는 점에서 인간 본성을 거룩하게 한다. 유일한 귀감은, 당신의 수난과 죽음으로 우리를 성화시켜 성부께 이르는 무한한 영광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 은총은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어머니<sup>generatrice di Dio</sup>’<sup>4</sup>가 되게 하는 성화은총이다. 이는 하느님의 종인 모든 성인에게 주어진 은총보다 월등한데,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이다. 이는 한편으로는 종속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의 어머니가 되시는 것이다.

2. dignificans: 영혼을 합당하게 함.

3. deificans: 영혼을 거룩하게 함.

4. deipariens: 하느님을 낳으심.

##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

동정 성모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에 위격 신분<sup>5</sup>에 속한다. ‘하느님의 어머니에게 특별한 공경’<sup>6</sup>을 드리는 근본적인 참된 근거는 마리아의 위대한 성덕이 아니라 인간의 성덕을 뛰어넘는 | 신적 모성 때문이다. 그 신적 모성은 마리아의 뛰어난 특별한 결실이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이러이러한 성인이라고 말하며)) 일반 성인으로만 공경하는 것도, 하느님의 어머니로만 공경하는 것도 아니다. 마리아는 성인인 동시에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다,

새롭고 특별한 이 은총은 마리아를 그리스도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지체인 인류의 어머니가 되시기에 합당한 분이게 한다.

마리아는 이러한 은총으로 충만하셨다.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요, 인류의 어머니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은총을 지니셨으므로 “이처럼 풍성한 은총을 모든 이에게 쏟아 주셨고, 계속 쏟아주고 계신다.”

처음에는 마리아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하나이셨으나 지금은 예수님의 활동, 신자들의 공동체와도 하나가 되셨다.

성령강림일부터 마리아와 모든 시대의 사도, 사제, 주교, 교황들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 마리아는 교회의 삶과 복음선포에도 전적으로 참여하신다. 이로써 교회는 언제나 마리아께 희망을 둘 수 있는 것이다.

5. 삼위일체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신분.

6. 예외적인 위격적 공경.

마리아는 신자 개개인에게 하듯, 교회 사목자들에게도 조언을 주신다. 복음서에는 마리아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씀, 삶과 사도직을 위해 충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 마리아는 카나의 일꾼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sup>7</sup>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와 관련된 마리아의 새로운 이 사명은 사도들의 모후께 바치는 공식 기도문에 제시되어 있다. “성령강림일에 마리아는 성령의 은총으로 가득 차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나눠주실 수 있었다.”

마리아께는 사도들에게 나누어 주실 만큼의 | 충만한 은총 266  
이 이미 주어졌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는 성모송에서 “은총이 가득하신”이라는 말을 심도있게 설명하면서, 충만하다는 말을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숙고해 볼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죄를 피하고 덕을 실천하기 위한 충만한 상태,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서 직무와 관련된 충만한 상태, 셋째, 모든 인류를 위해 행해야 하는 분배와 관련된 충만한 상태이다. (신학대전 39, 27, a.5, ad 1) 또한 마리아는 하느님과의 일치를 통해 온 세상에 관여할 수 있을 만큼 충만하셨다고 그는 덧붙여 말한다. 마리아는 온 인류의 영적 어머니가 되신 순간부터, 곧 영광스럽게 하늘에 들어올림을 받은 순간부터 이를 실현하셨다. 마리아는 모든 이의 어머니, 특히 사도들의 어머니시다.

7. 요한 2,5.

##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성 요셉 카파소는 이렇게 썼다. “천국에 계신 마리아는 가정을 보살피는 어머니와 같다. 활기찬 모습으로 집안을 돌보는 어머니를 보라. 어머니 홀로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살핀다. 가정에 식구가 아무리 많아도 어머니는 모두를 헤아리며, 모든 이의 필요에 대비한다. 자녀들이 먼저 칭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먼저 각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챈다. 사실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를 준비하여 적절하게 제공한다. 인자한 어머니라면 마땅히 이렇게 할 것이다. 마리아는 그렇게 하셨다. 우리 모두는 가장이며 아버지이신 하느님의 대가족에 속한다. 이 대가족의 어머니는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시다. 하느님은 마리아의 손 안에 모든  
267 은총을 맡기셨다. | 마리아는 인자한 어머니처럼 우리의 모든 필요에 늘 주의를 기울이신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누군가에게는 이 은총을,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은총을,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거나 청하지 않은 은총까지도 나누어주신다.”

마리아의 중재는 우리의 통상적인 기도만 아니라 당신 뜻을 드러내시고 이루신다.

성령은 세례 때 초자연적 생명을 전해 주신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sup>8</sup>

생명을 주는 것은 위대한 일이지만 사도직을 위한 힘과 열정과 불꽃을 전하는 것은 더욱 위대하다. 또한 이 힘과 열정

8. 요한 3,5,7.

과 불꽃은 다양한 단계와 분량이, 시기에 따라 사제와 신자들에게 전해진다.

사제에게는 서품식 때 전해지며, 신자들에게는 견진성사 때 전해진다. 서품식 때 사제는 거룩하게 축성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여러 성사를 집행하는 능력을 받는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견진성사를 통해 성령을 받아 선한 전투를 위한 용감한 군인이 되며, 단지 믿을 뿐 아니라 신앙을 전하고 옹호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의 실질적 사랑이다. 성령은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 빛, 기쁨, 힘, 교회의 영혼, 모든 사람의 영혼이 되어주시며, 가시적으로 비둘기와 불꽃 형상으로 당신을 드러내신다. 은총으로 모든 영혼에게 오실 때에는 비가시적으로 내려오신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느님의 영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었고 | 또 의롭게 되었습니다.”(1코린 6,11) 성령이 안 계시면 생 268  
명도 공로도 없다.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1코린 12,3)

견진성사는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타오르는 열정과 열의, 사도적 활동의 성사다.

미사에 경건하게 참례할 때, 화해성사를 받을 때, 성체를 모실 때, 예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어 우리의 사도적 열정이 커지도록 기도하자.

9. 요한 20,23.

비오 11세 교황은 여러 문헌에서 교회의 교계제도에 협력하는 가톨릭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는 가톨릭 액션에 대해 피아자Piazza 추기경에게 보낸(1946년 10월 11일) 교황 비오 12세의 서한에 요약되어 있다. 교황은 새로운 법령을 승인하며 그 원칙과 행동방침에 영감을 불어넣는다.

“이 문헌을 시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굳건한 사랑으로 무장하여 최근 그리스도인 대열에 가치 있는 기여를 한 가톨릭 신자들의 지칠 줄 모르는 끈기있는 노력을 합당하게 인정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위로가 됩니다. 이에 저의 전임 교황들의 지속적이고 지혜로운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가톨릭 액션 단체에 대한 [교회의] 자애로운 독려는 이 단체가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굳건하고 충실한 도구가 되게 합니다. 우리는 풍요로운 활동이 펼쳐질 새로운 시기에 가톨릭 액션 단체가 협약 규정을 따르며 마음을 열게 되리라 희망합니다. 주교들은 영적 성장과 사회 활동에 충실한 이들의 운영 방침을 교회와 공유하며, | 합당하게 선택된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다양한 조직 안에서 책임감 있는 행정 기능과 행정 체제를 완성할 것을 바랍니다. 네트워크를 창출하고 새로운 기관을 덧붙여 확장할 가능성을 열고, 현존하는 여러 가톨릭 단체를 합법화하며 무엇보다 형제적 연대와 협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탄생한 활동 단체와 교회 안에 설립되어 오늘날에도 계속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기관들 간에 알맞은 균형과 활력이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복잡적이며 섬세한 이 문헌의 내용 그 이상으로 교

계적 사도직과 평신도들의 협력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격려로서 이제 시행되는 교황청 인가라는 데 의미를 두고 관심을 기울이는 바입니다. 곧 시대의 필요성을 참되게 의식하도록 모든 선한 가톨릭 신자들을 권고하고 초대하며 신앙의 공적 표현인 [가톨릭 액션]을 효과적으로 모을 수 있는 하나의 정신을 불어넣으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액션 단체의 사제단은 현대 생활의 조건과 사제의 감소 현상으로 말미암아 절박하게 느낀 필요성을 확인하고 그들 가운데 관대한 평신도 협력자들을 조성하며 시도하여 충분히 검증된 평신도 양성과 조직을 강구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가톨릭 액션에서 활동하는 평신도들이 교회에 자발적으로 그러한 규칙적으로 봉사하게 하는 촉진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 또 270 그들의 활동이 그리스도 때문임을 일반신자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모든 이가, 가톨릭 액션 단체가 배타적 이상을 갖고 시작한 폐쇄된 무리, 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투쟁이나 야심으로 가득한 정복을 이루려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이를 구원하려는 교회의 모성적 지향을 자기 것으로 하여 진정한 문명의 대체불가능하고 필수적인 효능을 사회에 보장하려는 수단이라고 보게 되길 바랍니다.”

유다 지방의 목자들은 가톨릭 조직의 첫 번째 활동가였다. 목자들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다. 천사에게서 구세주께서 탄생하리라는 위대한 선포를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 마리아가 보여준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들은 또한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들이 들은 “하느님께 영광,

마음 착한 이들에게 평화”라는 천상 노래와 메시아의 탄생 이야기를 전했다. 복음사가는 이 모든 진실에 대해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sup>10</sup>고 결론지었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사명에 대해, 그리고 당신이 공동구속자가 되리라는 것을 더 잘 이해하고 깨달았다. 마리아는 단순한 이들과 기쁨을 나누며 마음으로부터 마니피캇을 되뇌었다. 양떼와 가족에게 돌아간 목자들은 그날 밤 자기들이 본 놀라운 일에 대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찾았는지를 모든 이에게 전했다. 그들은 아기와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전한 설교자가 되었다.

하느님은 당신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겸손한 사람들, 곧 목자, 어부, 단순한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 271**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성령강림 9일기도를 잘 바칠 것.
1.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2. 가난한 이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3.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4.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5.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6.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 뿐 이리라.
  7.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 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8. 굳은 마음 풀어주고/ 차디 찬 마음 데우시고, 빛나간길 바루소서.

10. 루카 2,19.

9.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칠은을 베푸소서.
  10. 덕행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 아멘, 알렐루야.<sup>11</sup>

교회는 사도들의 모후 축일에 이렇게 기도한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기도하며 모여 있던 사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우리 어머니요 모후이신 분의 전구로 무한하고 엄위하신 당신을 충실하게 섬기고, 말과 모범으로 거룩한 당신 이름의 영광을 전하게 하소서.”

---

11. 성령강림 부속가.

집에 들어가면 지혜와 함께 편히 쉬리니 그와 함께 지내는 데에 마음 쓰라릴 일이 없고 그와 같이 사는 데에 괴로울 일이 없으며 기쁨과 즐거움만 있기 때문이다.

(지혜 8,16)

### 그리스도교 문화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타고난 사도이시다.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내어 주고 생명을 가져다주는 중개자, 은총의 분배자가 되기 위해 오셨다. 마리아에게서 이러한 후광을 없앤다면 마리아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며, 마리아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요한 10,10) 오신 사도이시다. 마리아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오셨다.

마리아는 사도이시다. 예언 안에서, 삶에서, 하늘나라에서 사도이시다.

마리아께 대한 신심을 확고히 하려면 인류와 각 개인, 시민 사회와 교회 안의 사도직 현장과 하느님 나라와 그 영광 가운데 동정 마리아를 모셔야 한다. 하늘의 모후이신 마리아는 비가시적으로 당신 직무를 수행하시나 프랑스의 루르드, 멕시코의 과달루페, 포르투갈의 파티마, 아르헨티나의 루한, 브라질의 아파레시다의 발현을 통해서도 당신 일을 행하신다.

나는 스승 예수님께 봉헌하는 모든 미사에서, 사도들의 모 273  
후의 전구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 곧 종교 문화의 고양高揚을  
위해 기도하기를 권고한다. 오늘의 지도계층, 전문가, 이른바  
교양이 있다는 이들은 가장 숭고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지식  
에는 놀랄 만큼 무지한 가운데 살아간다. 이탈리아와 교황청  
의 협약<sup>1</sup>으로 종교교육은 모든 학교교육의 기반이며 완성이어  
야 한다. 이는 거룩한 지식에 제 자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그  
런데 일반사회에서는 이성과 신앙, 그리스도교 교리와 시민  
문화 사이에 커다란 심연이 가로놓여 있다. 문학과 학문 분야  
에서 앞선 사람이 가장 기초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라는 사실을 자주 보게 된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  
해서 부끄러울 만큼 무지하다. 세상의 명예로운 일 앞에서는  
스승처럼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은 기껏해야 100년  
을 넘기지 못할 세상의 삶을 위해 그토록 많은 공부를 하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다. 그런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천억  
세기가 지나도 끝나지 않을!) 삶에 대해서는 단 5분도 내놓지  
않는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게 가장 값진 것이며 꼭  
필요한 지식, 가장 큰 풍요로움이다.

지성인들을 위한 복음화<sup>2</sup>는 훌륭한 사도직이지만, 인간의  
교만으로 인한 드높은 장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움이 많다. 자  
기 학식에 도취한 그들은 숭고한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들어  
높이는 겸손한 이들을 경멸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좋은

- 
1. 라테라노 조약은 1929년 2월 11일 로마 라테라노 궁전에서 체결되었다.
  2. 알베리오네 신부는 1954년, 이 사도직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바오로인들의  
우선사항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 AD 188항 참조)

결과로 이끄는 길이 있는데, 바로 마리아시다.

지성인, 철학자, 사회학자 등의 박식한 이들이 범하는 오류  
**274** 는 진리의 길을 떠난 데서 기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 진리 이시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시다. 마리아는 상지의 옥좌이신데 왜 우리는 참 지혜가 아닌 지혜를 찾으려 하는가? 마리아는 착한 의견의 어머니시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눈먼 사람의 인도를 받으려 하는가? 마리아는 “빛을 탄생시킨 분”<sup>3</sup> 이시다. 마리아는 빛이 아니시지만 빛을 가져오는 새벽, 빛을 반사하는 달이시다. 한편 우리에게는 마리아를 깊이 공경하여 마리아의 자녀가 된 철학자, 사회학자, 문화가, 지성인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영원한 철학, 그리스도교 사회학, 교육학, 고상하고 심오한 지성주의<sup>4</sup>를 꽃피웠다. 피상적인 지식은 우리를 하느님에게서 멀어지게 하지만, 심오한 지식은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 하느님은 지혜 자체이시다.

### 참된 문화의 어머니 마리아

한 백성을 위한 참된 문화는 네 가지 요소에서 비롯되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는 본질적인 것으로 진리, 좋은 관습,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네 번째 요소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간의 드높은 생활방식이다.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마리아에게서 온갖 덕과 숭고한 신심을, 마리아에게서 단순하지만 정돈되

3. “Ex qua lux est orta”(“하늘의 영원한 여왕” 후렴).

4. 긍정적 의미에서 지성의 삶, 곧 생각의 체계.

고 평온한 삶의 귀감을 받아들인다.

전례적, 대중적, 공동체적, 또는 개인적으로 마리아께 바치는 신심행위를 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교회의 행렬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행렬을 앞세우거나 그 행렬과 함께한다. 이는 모든 나라에서 또 온 교회가 보편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탈리아 문학의 수필과 시詩에서 마리아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삭제된다면, 마리아에 대한 그림, 조각, 음악, 건축물이 사라진다면, | 교회의 신앙과 신심에서 마리아께 바치는 전례와 신심, 기도, 그리고 마리아와 연계된 단체의 설립이 사라진다면 ...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 내용이 얼마나 빈약할까! 마리아께서 안 계신다면 세상은 어두워지고, 차가운 냉기가 몰아칠 것이다. 이는 아버지와 자녀들의 보금자리인 가정에서 심장과 같은 어머니를 앗아가는 것과 같을 것이다. 275

삶의 관습을 드높이는 마리아. 땅을 향해 기울어지기 쉬운 인간에게는 하늘을 향해 자기 지성과 마음을 드높여줄 누군가가 필요하다. 마리아의 가르침은 삶의 목표를 가르쳐준다. “네가 무엇 때문에 창조되었는지, 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살펴보아라.” 마리아는 하늘의 모후, 하늘의 문, 천사의 모후, 모든 성인의 모후<sup>5</sup>이다. 바로 여기에 온갖 선의 근원이며, 우리 삶을 천국으로 이끄는 지혜가 있다. 바로 여기에 개인적 공적 삶의 관습에 생기를 주고 드높여주는 힘이 있다.

마리아는 모든 이가 쉽게 본받을 수 있는 귀감이시다. 하느

5. Regina Cœli, Regina Angelorum, Regina Sanctorum omnium.

님의 거룩함은 인간적, 신적 귀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나신다. 우리와 같은 모습을 취하신 예수님은(필리 2,7 참조) 영원한 아름다움이시다. 그러나 동정 마리아는 은총으로 드높여진 인간이시므로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다. 마리아는 순수하시고 굳건하시고 인내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마리아. 동정 마리아 앞에서 이방인들은 들었던 칼을 칼집에 꽂고, 잔혹함을 자제하며 공격을 중단했다. 마리아는 온유함으로 오만함을 정복하셨다.

276 교회의 생명이신 마리아. 니콜라우스는 “마리아 신심은 에페소 공의회 정신을 이어간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마리아께 대한 신심은 그리스도교 정신 안에서 마리아의 참된 모성과 그리스도의 신성과 진리로 | 악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확립하기 위해 서로 비추고 보완한다.

성모 마리아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자녀들을 낳으신다.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는 에페소 공의회를 폐막하면서 “찬미받으소서, 하느님의 어머니. 당신의 활동을 통해 도시와 마을과 섬에 교회가 태어났습니다.”라고 마리아를 칭송했다. 신자, 본당, 수도회는 모두 성모 마리아의 자녀들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끊임 없이 활동하신다. 마리아의 모든 힘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모든 수도자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수도자는 교회에서 가장 드높은 완전한 형태의 생활을 한다. 수도회는 교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수도회는 문명의 역사에서 지적 도덕적

물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동정 마리아의 삶과 정신에서 영감을 길어낸 수도회는 성모 마리아 신심을 널리 퍼뜨려, 그 신심이 세상에 강력한 기여를 하게 한다. 수도생활은 정결, 청빈, 순명이라는 세 가지 서원의 준수로 이루어지는데, 마리아는 그 귀감이시다. 수도자는 관상, 노동, 사도직, 가톨릭을 수호하는 활동에 전념하는데, 바로 마리아 안에서 이러한 네 가지 형태의 활동을 볼 수 있다.

수도가족의 창립자요 생명력이신 마리아. 마리아와 함께 수도회를 창립하고 첫 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많은 은총은 오직 마리아 안에서만 기대할 수 있으며, 아무리 힘들고 불가능해 보여도 쉽게 해낼 수 있었다. 특히 카르투스시오회와 시토회 창립은 마리아의 덕분이라고 한다. 자비의메르세다리아스수녀회, 가르멜회, 마리아의종수도회 회원들은 | 자 277  
기네 수도회는 직접 마리아에 의해 창립되었다고 증언한다. 도미니코회, 프란치스코회, 예수회, 살레시오회, 마리스타교육수도회, 그리스도교교육수도회, 라자로회, 구속주회, 성바오로수도회와 모든 여자수도회는 마리아와 밀접히 연결된 생활과 사목, 사도직 활동을 한다. “그들의 발전은 성모 신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선 단체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자선 단체는 대개 마리아와 연결된 수도회가 이끌고 있다. 현대의 선교 수도회는 더 풍요로운 현대적인 사도직으로 사회 안에서 활발하게 활동한다. 자비의형제회, 카밀리니수도회, 삼위일체회, 라자로회, 아우

구스티노회, 예수회, 고난회 등의 자선 활동 수도회가 있고, 각계 각층의 자선 단체에서 봉사하는 수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다. 그들은 놀라운 꽃을 피우는 하늘의 정원사인 마리아에게서 영감과 도움을 받는다. 이러한 자선활동이 멈춘다면 우리는 고대 로마 제국이나 오늘날 이교인들 가운데서 보게 되는 가난한 이, 고아, 노인, 젊은이들을 마주할 것이다.

니콜라스는 이렇게 썼다. “마리아는 모든 일과 활동의 중심이시다. 마리아는 뛰어난 은총을 지닌 노동자, 그런 노동자가 되길 바라신다.” 생기차고 활동적이길 바란다면 모든 것은 마리아에게서,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자선 활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증거하는 동시에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를 들어 높인다.

가톨릭 액션 단체의 어머니 마리아. 이 활동은 사도들의 모  
**278** 후 마리아를 영예롭게 한다. 마리아의 임무는 | 가톨릭 교계 제도에 협력하는 것이다. 오늘날 가톨릭 사제직에 매우 소중하고 꼭 필요한 수단으로 종교 교육, 윤리적 활동, 신앙을 더 잘 옹호하도록 도와주는 젊은이와 남녀들의 조직, 필요한 창안, 출판과 선교와 영화, 노동자 연대, 자선 활동 등은 유용한 것들이다. 마리아는 모후이시다. 모후이신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협력하신다. 마리아는 정의의 거울이시다.

사람들의 모후 마리아. 성 베르나르디노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섬기는 모든 피조물은 영광스러운 동정 마리아도 섬긴다.”고 썼다. 그렇다. 나라와 도시, 군대와 대규모 시민 기업들이 마리아께 봉헌되었다. 마리아의 망토 아래 살아가는 이들은 참으로 행복하다! 스페인,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헝가리는 특별히 마리아를 공경한다. 이탈리아는 더 특별한 마리아의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성모님께 바쳐진 성당은 신심이 넘치는 예술작품으로 가득하다. 프랑스에는 성모님께 봉헌된 대성당이 서른 개나 된다.

예술의 모후 마리아. 로마의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과 성모 마리아의 탄생에 봉헌된 밀라노의 주교좌 대성당의 건축예술은 경이롭기 그지없다. 성모님께 봉헌된 성화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성화는 프라 안젤리코의 작품이다. 가장 뛰어난 조각예술은 피에타 조각상에서 볼 수 있다. 또한 훌륭한 시인과 최고의 음악가들에 의해 시와 음악이 마리아께 봉헌되었다. 마리아는 | 모든 예술가가 다루고 싶어하는 주제다. 279 또한 이 예술 작품들을 통해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온화함과 자비로움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강렬한 힘으로 드러난다. 과연 마리아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sup>6</sup> 라고 앞서 말씀하셨다.

## 맺음말

성 제르마노의 말이 결론에 도움이 된다. “변치 않는 희망,

6. 루카 1,48.

굳건한 보호,<sup>7</sup> 확실한 피신처, 깨어 지키는 탄원자, 영원한 구원, 어린 양과 목자의 어머니, 모든 선의 보호자, … 이신 당신을 감탄하지 않을 자 누구이겠습니까? 모든 세대가 당신을 복되다 할 것입니다. 오, 마리아, 당신을 공경하지 않는 곳이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 당신을 인정하지 않던 나라들도 당신 아드님이 모든 피조물을 심판하러 오실 때 당신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아드님의 참 어머니로 인정받으실 것입니다. 그때 당신 자녀들에게 베푸신 보물을 빼앗긴 이들은 무지를 탓하며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저희가 당신을 이처럼 공경하오니 저희에게 끊임없는 은총을 내리시는 수호자가 되어 주소서.”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애원 하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뵈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7.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보호.

지혜는 해보다 아름답고 어떠한 별자리보다 빼어나며 빛과 견주어 보아도 그보다 더 밝음을 알 수 있다. 밤은 빛을 밀어내지만 악은 지혜를 이겨내지 못한다. 지혜는 세상 끝에서 끝까지 힘차게 퍼져가며 만물을 훌륭히 통솔한다.(지혜 7,29-30; 8,1)

### 마리아의 왕위

“성모 호칭 기도”에서 마리아는 천사들의 모후로 불린다. 마리아의 지성이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 성조들의 모후라고 불리는데, 이는 마리아의 경건한 신심이 모든 이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이다. 예언자들의 모후 호칭은 마리아가 지극히 높은 예언의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사도들의 모후 칭호는 가장 강렬한 열정을 지니셨기 때문이다. 군셈에 있어 모든 이를 능가하시기에 순교자들의 모후라 불리며, 덕에 있어서도 모든 이를 능가하시기에 고해자들의 모후라 불린다. 순결에 있어 모든 이를 능가하시기에 동정녀들의 모후라 불리며, 모든 이보다 더 큰 성덕과 충만한 은총과 영광을 지니셨기에 모든 성인의 모후라 불린다. 모든 성인 한 분 한 분과 비교해 볼 때 마리아는 가장 위대하고 완전하시다.

이 모든 호칭에 대한 근거는 성모 마리아의 신적 모성에 있다. 성모님은 하느님의 어머니시기에 주님과 특별한 관계, 곧 일치를 이루신다. 성모님은 여인들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 281

가장 드높고 유일한 위치에 계시며, 주로 하느님과 연결되신다. “인간은 하느님과 일치할수록 더 거룩해진다.”고 성 토마스는 말한다. 따라서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사도를 능가하신다.

모후의 직무. 성모님이 모후로서 지닌 힘을 확인하고 이해하려면 성모님의 사명에 대해 숙고해야 한다. 성모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 고통받으신 예수님과 함께하셨기에 하늘나라의 보좌요 동반자며 참가자시다.”(성 대 알베르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임금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수난을 동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하늘나라의 동반자시다.

이제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후이신 성모님 없이 독자적 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어느 정도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왕권, 곧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행사하는 일에 참여하신다. 이 세 가지 왕권이 그 자체로는 오로지 임금이신 예수님께만 부여된 것임은 명백하다. 따라서 율법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당신에게 주어진 권위로 그 율법을 명령하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동정녀는 예수님이 율법을 제정하시고 잘 따르도록 명령하시는 것에 동의하시면서 어머니다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권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요한 2.5) 이처럼 사도는 어머니요 모후이신 마리아께 순종하면서 예수님께도 순종하는 것이다. 가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가 내리는 지시를 어머니가 자기

것으로 삼아 자녀들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권위와 권능으로 판단하시고 선고를 내리신다. 그러나 그 선고가 사도들에게 주시는 상과 같이 자비 가득한 선고라면 그 선고는 마리아의 자애로 가득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 반면에 지옥의 형벌이라는 선고라면 그 선고 또한 주님의 뜻이므로 마리아가 이에 동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282**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권위로 내리신 판결을 집행하실 때에도 마리아의 동의가 뒤따른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어 주실 때는 마리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신다. 이처럼 마리아는 자신의 고유한 방식으로 하늘나라의 기쁨에 참여하신다.

이 교의는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이 가르친 것처럼, 마리아의 자녀적인 순종 곧 완전히 섬기는 자세에 기반을 둔 것이다.

더욱이 마리아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요 성령의 정배로서 존재하시는 것처럼, 모든 사도 위에 영예와 힘을 지니신다. 성자의 영광은 성모님에게서 반영되는데, 이는 성자의 슬픔이 마리아에게서 반영되는 것과 같다. 성령께서 교회에 주시는 생명과 무류성과 완벽함도 마리아의 손길을 통해 전해진다. 이는 성모님이 모든 사람의 영혼에 은총을 베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일하시기에 가능하다.

모든 이는 마리아에게서 (은총을) 받는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또한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의 갈망이며 뜻이다.

마리아는 전구하는 일에서 모든 성인 중에 가장 강력하다. 마리아의 전구는 '절대적인 간청'이다. 마리아는 당신의 존엄성과 보편성, 당신의 필요와 기도 방법에서 늘 모든 성인을 능가하신다. 마리아는 당신 자녀들을 각별히 고유하게 사랑하며 아끼는 법을 지니고 계신다.

### 283 왕권의 호칭

모후의 호칭에 대한 정당성을 보자.

1.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요 우리의 어머니시다.
2. 마리아는 공동구원자요 은총의 중재자시다.
3. 마리아는 성령의 정배시다.
4. 마리아는 하늘나라에서 지극히 복되신 삼위일체로부터 모후의 화관을 받으셨다.
5. 마리아는 다윗 왕의 후손이시다.
6.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나라를 차지하셨다.
7. 마리아는 사람들에게 의해 교회의 모후로 간택되셨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칭호는 그 칭호의 본질에 의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축소할 수 있다. 곧 성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시며 구원에 협력하셨다는 것이다.

뛰어난 학자 수아레스는 이렇게 썼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의 어머니시기에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확실한 권한을 지니신다. … 또한 강력한 통치권을 드러내는 또 다른 호칭을 지니시는데, 이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각별하게 협력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신 것처럼 복되신 동정 마리아는 진정한 모후시다. 이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시라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천부적 권리)과 마리아가 공동구속자로서 행하신 행동(얻어진 권리)에서 온 것이다.

첫 번째 호칭인 신적 모성. “임금의 어머니는 자연적으로 모후시다.”(성 대 알베르트) 마리아는 성자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곧 하느님이요 임금으로 잉태하셨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가 낳으실 성자의 존엄하심을 드러내는 호칭, 곧 하느님과 임금의 어머니가 되신다는 것에 명백히 동의하시길 바랐다. |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 284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루카 1,32-33) 이처럼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과 인류에게 나누어줄 모든 부를 [그분과 함께] 지니시게 되었다. 거룩한 교부들은 마리아를 “인류의 모후, 우리 구원의 모후, 여왕, 우주의 모후, 하늘의 모후” 등으로 불렀다.

성 비오 10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마리아는 성자의 오른편에 앉으신다.”고 말했다. 레오 13세는, “마리아는 성자-하느님에게서 별로 된 화관을 받아쓰셨고, 우주의 모후요 여왕처럼 성자 곁에 앉아 계신다.”고 썼다.

두 번째 호칭은 마리아가 위대한 구원 활동에 협력하신 데서 주어진 것이다. 수아레스는 이렇게 썼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임금이며 주님이시다. 그분은 폭군인 악마를 타도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다시 안겨주셨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에게 살과 피를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갈바리아에서 예수님을 기꺼이 봉헌하심으로써, 곧 우리가 구원되길 바라고 간

청하여 구원을 얻어주시므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협력하시어 우리의 모후가 되셨다. 성모님은 예수님의 대속에 협력하셨다.” 이 표현은 “오로지 마리아만이 옥좌에 함께 오르실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을 함께 나누셨기 때문이다.”라고 표현한 성 대 알베르토의 말에 부합한다.

또 다른 면에서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정배라는 사실을 덧붙여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회복시켜 초자연적 생명을 지니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이로써 신랑과 신부 사이에 모든 풍요로움을 나누는 친교가 분명하게 이루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에는 마리아가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왕권이 있다. | 그러므로 하느님은 마리아에게도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명칭과 능력과 위엄을 주셨다.

285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는 전례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의 여주인이요, 왕후요, 우리의 모후, 확실한 속죄, 굳건한 보호자, 은총의 샘, 세상의 피난처입니다.” 또 “오, 세상의 여왕이요 희망이시여, 당신 종들인 저희를 지켜 주소서.”라는 표현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마리아의 종, 사도가 되어야 한다.

사도들의 모후이신 마리아의 종들. “여러분이 죽은 다음 하늘나라에서 마리아와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지금 살아 있을 때 하느님의 어머니를 섬겨야 합니다.”(생 빅토르의 리처드) 하느님의 뜻을 더 완전히 이루기 위해 마리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의 바람을 이루는 것이다.

성 일데폰소는 마리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여왕의 종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열망하는지 모릅니다! 마리아

아를 충실히 섬기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요! 마리아의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 하늘에서도 그분을 계속 섬길 수 있기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진정한 봉사를 하길 바랍니다.”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농이 남긴 소중한 작품에도 이처럼 온전히 종으로서 섬기는 것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

### 마리아의 사도들

ㄱ) 말과 출판물, 곧 설교, 교리, 대화, 편지, 유인물, 저술, 영화, 라디오 ... 등으로 마리아를 널리 알릴 것. 마리아에 대해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결코 충분하지 않다.

ㄴ) 마리아를 본받고 자녀답게 섬기는 일을 마음에 새길 것. 마리아의 덕을 드러내고 마리아와 | 일치하는 삶에 대해 설명할 것. 사랑의 귀감은 마리아께 대한 참된 신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286

ㄷ) 모든 이가 마리아를 어머니, 귀감, 은총의 중재자로 모시도록 마리아께 바치는 기도와 신심을 전할 것. 삶의 모든 상황, 곧 모든 창안 가운데, 모든 유혹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의 위로자, 죄인의 피난처, 천국의 문, 허약한 이들을 낫게 해주시는 분이신 마리아께, 특히 병자들을 위해 마리아께 간구할 것.

언제 어디서나 “성모찬송” 기도를 바치라.

마리아는 사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며, 당신 성자와 함께 영광 속에서 사도에게 화관을 씌워 주실 것이다.

로마의 성 아폴리나레 성당 정면에는 오래된 “기적의 사도들의 모후” 그림이 있다. 이 그림에서 동정 마리아는 옥좌에 앉아 사도 베드로와 바오로에게 지극히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을 보여주신다.

사제들의 성소를 위한 다음과 같은 활동이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의 보호 아래 놓여 있다.

- 로마 교구청
- 몬도비 몬시뇰 레시아 주교의 창안
- 볼테라 몬시뇰 무네라티 주교의 창안
- 볼로냐 나살리 로카 추기경의 창안
- 밀라노 레라리 추기경의 활동
- 이탈리아에서 출판 사도직을 하는 교황청 직속 수도회인 성바오로수도회와 성바오로딸수도회

사도들의 모후<sup>1</sup> 호칭기도는 300일 간의 대사를 부여한다.

**287** 브라질에는 팔로티회 주교와 사제들이 후원하는, “사도들의 모후”를 공경하는 성당과 자선단체와 협회가 있다.

“로마의 사도”라 불리는 성 빈센시오 팔로티는 1835년에 신자들 사이에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애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가톨릭사도직회를 설립하여, 이방인들과 이단자들 사이에 불을 밝혔다. 이 단체는 사제와 수녀, 평신도를 망라한다. 선교수도회로 알려진 팔로티수도회에는 2,000명에 이르는 서원자와 수련자들이 있다.

독일 바이에른(바바리아 지방)에서 예수회 P. 크란체르 신부는 모나코 대학생들을 위해 “사도들의 모후”라는 명칭의 연합회

1. Regina Apostolorum...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를 설립했다.

프랑스 비니시외에는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명칭 아래 세워진 선교수녀회의 모원이 있다.

선교사명의 위대한 교황 비오 11세는 사도들의 모후 호칭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했다. 1931년 선교사들을 위한 박람회에서 많은 이들이 사도들의 모후의 아름다운 성화를 보고 찬탄했다. 그 성화에는 마리아의 발치에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선교사 무리를 마리아께 향하도록 이끄는 사도 성 바오로가 있었다.

비오 11세는 선교사명에 대한 회칙에서, 사도들의 모후의 손길에 위대한 사도직 활동을 맡기며 이렇게 말한다.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는 갈바리아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맡기신 온 인류를 모성애로 가득한 당신 마음에 품고 그들의 공통된 갈망을 바라보며 어머니다운 사랑으로 미소지으신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은 물론, 구원의 열매를 누리며 기뻐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보호하신다.”

“장엄한 하늘의 여왕이시며 사도들의 모후시여, 언제나 저희를 위해 빌어주시어 모든 이가 주님이 참 하느님이시며, 주님 외에는 다른 분이 안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어머니시며 모후시여,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추수에 많은 일꾼을 보내주시도록 추수 주인이신 당신 아드님께 빌어주소서.”(사도들의 모후 전례기도) **288**

하느님, 어서 오사 저희를 도우소서.<sup>1</sup>

1. 하늘과 땅에서 가장 사랑하올 모후님, 성부의 큰 사랑을 받는 따님이며, 성자의 지극히 높으신 어머니요, 성령의 영화로운 정배이신 마리아님, 당신의 믿음과 겸손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렸기에 완전한 정결을 보존하시면서도 저희의 스승이요, 세상의 참된 빛이며, 창조되지 않은 지혜이시고, 모든 진리의 샘이며, 진리의 첫째 사도이신 구세주의 위대하신 어머니가 되셨으니 이 세상에서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그 특은을 존경하며 찬미합니다. 당신은 ‘영원한 말씀’이신 책을 세상에 읽으라 주셨습니다. 당신이 누리셨던 그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숭고한 특권을 받으신 데 대하여 지존하신 성삼을 찬미합니다. 청하오니 제가 천상의 지혜를 얻고, 예수님의 겸손하고 열렬한 제자가 되며, 교회의 성실한 자녀가 되고, 진리의 기둥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모든 오류를 없애주시고,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사도좌 주위에 모이게 하소서. 착한 의견의 어머니, 상지의 옥좌, 모든 성인의 모후님, 학자들과 설교자들과 글 쓰는 사람들을 비추소서.  
성모송 ...

1. Deus, in adiutorium meum intende.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2. 모든 천사의 모후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시고, 티없이  
잉태되시고, | 피조물 중에 축복을 받으신 이며, 살아계 **290**  
신 하느님의 감실이시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당신께 요한 사도를 아들로,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 특히 사도들을 아들로 주셨던 그 괴  
롭고도 엄숙한 순간을 기억하소서. 그때 십자가를 따르  
고 사도직과 예수님의 사랑에 몸바친 영혼들을 위해, 얼  
마나 감미로운 애정이 당신 마음에 흘러 넘쳤겠나이까?  
마리아님, 당신과 당신 아드님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당신 모성애로 사도들과 선교사, 사제와 동정자들의 영  
광스런 무리를 증가시켜 주소서. 그들 안에 거룩한 생  
활, 건전한 관습, 굳은 신심, 깊은 겸덕, 견고한 신앙심,  
더 열렬한 애덕이 빛나게 하소서. 그들 모두가 거룩하게  
되고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성모송 ...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 순교자들의 위대한 모후, 셋별이며, 죄인의 안전한 피난  
처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의 사랑이시며 사도들을  
쫓아내기 위해 성령과 그 칠은을 구하고 얻으며, 다락방  
에서 사도들의 스승이시며 위로자요 어머니로 계시던 그때  
를 생각하시어 기뻐하소서. 하느님의 마음을 언제나 감  
동시키시는 당신의 겸손되고 능한 기도로 저에게 예수

291

그리스도의 지극히 귀한 보혈로 지옥에서 구해내신 영혼들의 가치를 깨닫는 은혜를 얻어주소서. |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희를 재촉하고, 가난한 인류의 영적 비참함이 저희를 자극시키어 각자가 그리스도인의 사도직의 아름다움에 도취되게 하소서. 저희가 유년, 청소년, 장년, 노년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느끼게 하소서. 드넓은 아프리카, 광대한 아시아, 유망한 오세아니아,<sup>2</sup> 많은 시련에 부대끼 유럽, 그리고 두 개의 아메리카 대륙은 저희가 가장 동경하는 곳이 되게 하소서. 저희가 표양과 말, 기도와 출판, 영화와 라디오, 텔레비전과 컴퓨터 그리고 연옥 영혼들을 위한 사도직이 아무리 어려운 희생이 따르더라도 이를 극복하고 일할 많은 관대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소서. 교회의 어머니, 사도들의 모후, 우리의 변호자이신 마리아님, 이 눈물의 골짜기에서 탄식하며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성모송 ...

사도들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4. 인자한 어머니, 하늘의 문, 평화와 기쁨의 샘, 신자들의 도움, 임종하는 이의 위로, 실망한 이의 희망인 마리아님, 예수님의 복된 팔에 안기어 하늘로 오르시기 위해 이 땅을 떠나시던 그 행복한 순간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영원히 아름다우시도록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전능하신

2. 주간기도 초판에 나온 이 표현들은 알베리오네 신부가 “grande Africa... promettente Oceania...”라고 최종적으로 수정한 것이다.

하느님의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당신은 천사와 성인, 증거자와 동정녀, 사도와 순교자, 예언자와 성조들보다도 더 많은 영광을 받고 계시오니, 저도 비록 합당치는 못하오나 잘못된 구렁 속에서 누워친 목소리로 그들과 하나 되어 감히 당신을 찬미 찬양합니다. 마리아님, 제가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회심의 생활을 하여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시며, 언젠가 하늘에서 당신을 찬미하는 성인들의 소리에 제 소리도 합쳐지게 하소서.

| 저를 당신께 봉헌하고, 또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께 봉헌하며, 여기 하늘나라의 모든 천사와 성인들이 계신 앞에서 세례 때에 했던 그 약속을 갱신하고 여러 번 죄에 떨어지게 한 자애심을 극복하며, 주요 결점과 끊임없이 싸우기로 한 제 결심을 새롭게 하여 당신 성심께 바칩니다. 죄인의 피난처요, 셋별이며, 근심하는 이의 위로자이신 마리아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하시어 큰 죄인을 큰 성인으로 변화시켜 주소서.

성모송 ...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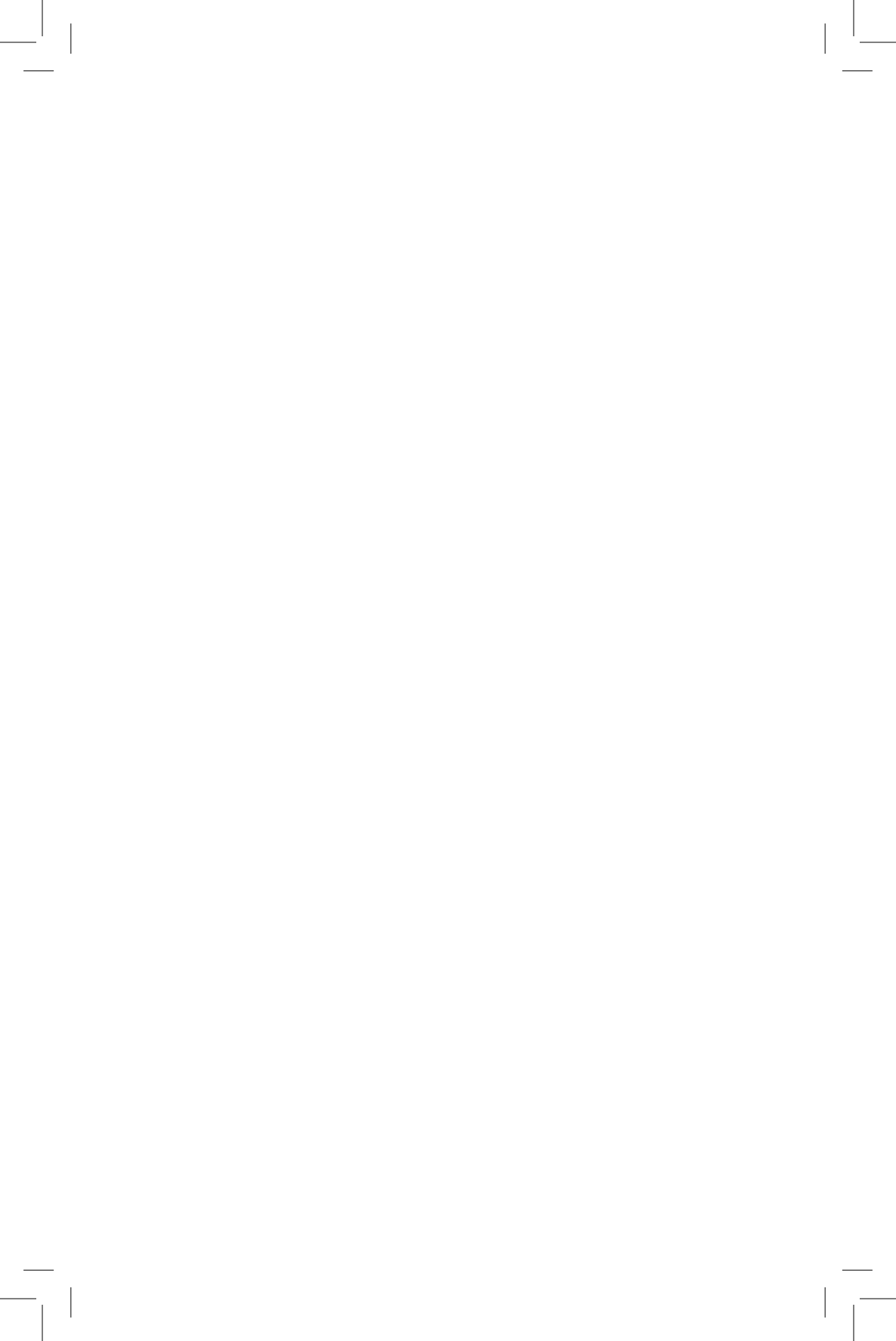
5. 바다의 별, 감미로운 여왕, 우리의 생명, 평화의 모후 마리아님, 지존하신 성삼께서 당신을 하늘과 땅의 어머니요, 모든 은총의 분배자요, 지극히 사랑하올 어머니로 화관을 씌워주신 그 날은 참으로 위대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큰 승리였고 천사와 성인, 이 세상과 연옥영혼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큰 행복이었습니까!

293      마리아님,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구원될 것이며, 당신  
 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인이 되어 후에 하늘에서 당  
 신 승리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리아님, 저는 당신의 인  
 자하심과 능력을 의심치 않으나 다만 당신께 기도하는  
 데에 향구하지 못함을 두려워하오니 저에게 향구하는 덕  
 을 얻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소서. 마리아님, 욕정과  
 마귀와 세속이 저를 유혹하오니 저를 당신과 예수님의  
 품 안에 잘 보호하소서. 어머니, 제가 떨어지지 않도록  
 잠시도 떠나지 마소서. 아침에 첫 눈길을 당신께로 보내  
 고, 낮에는 당신 망토에 싸여 걷고, 저녁에는 당신의 눈  
 길 아래서 잠들게 하소서. | 당신은 순진한 어린이들에  
 게는 평화로운 웃음을 지으시고, 투쟁하는 젊은이에게는  
 힘이 되시며, 일하는 어른들에게는 빛이 되시고, 하늘나  
 라를 기다리는 노인들에게는 위로가 되시나이다. 마리아  
 님, 제 일생을 전부 당신께 바치오니, 이제와 특히 임종  
 의 고통 중에 저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제가 숨을 거둘  
 때에는 저를 꼭 붙잡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하늘의 당신 옥좌 앞에 이를 때까지 놓지 마소서. 나의  
 모후요, 변호자며, 어지신 마리아님, 저에게 거룩한 인  
 내를 얻어주소서.  
 성모송 ...  
 사도의 모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

스승 그리스도 안에서  
양성의 귀감이요 안내자신  
예수님의 어머니

소책자



## 여는 말<sup>1</sup>

195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특별히 당신 마음에 간직하고 있던 일을 진행하셨다. 신부님은 더 잘 집중하기 위해 자주 당신 방에서 묵상하며 글을 쓰셨다. 신부님은 원고를 정리한 다음 타자기로 칠 것을 나에게 넘겨주시곤 했다. 때때로 신부님은 방을 오가며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타자를 쳤다. 때로는 개인 서가에 있는 책 내용을 참고하느라 멈추기도 했지만, 이내 다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받아 치도록 하며, 내면에서 솟구치는 이야기를 공들여 완성하셨다.

마침내 12월 9일 신부님은 완성된 원고를 꼼꼼히 다시 읽어 본 다음 성바오로수도회 인쇄소에 넘기셨다. (신부님은 그 당시 쓰신 원고를 내부 소식지 「성 바오로」에 실기 위해 비아 안토니노 피오에 있는 인쇄소에 직접 건네시곤 했는데, 교정쇄를 수정한 다음 인쇄를 허락하셨다.)

1959년 11-12월호 「성 바오로」지에 긴 글이 실렸다. (내부 소식지는 12쪽이었는데, 신부님이 쓴 내용이 10쪽을 차지했으며, 모두 열아홉 문단으로 되어 있었다.) 제목은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였으며, 그 내용은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의도대로 12월 15일 토요일에 로마 성바오로수도회 사제들의 피정

---

1. 이 글은 실바노 M. 데 블라시오 수사(1925-1994)가 쓴 것으로, 1985년 바오로가족 총본부 역사자료출판부가 펴낸 소책자 시리즈로 나왔다. 이 소책자는 (재판에 부치는 간략한 입문을 제외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재판되었다.

자료로 사용되었다. 그 다음 날 프리모 마에스트로는 다시 새롭게 쪽수를 매기고 포켓용 소책자 형태(105×160mm 32쪽)로 인쇄하여, 모든 바오로딸과 바오로인에게 보내라고 지시하셨다. 같은 제목의 글이 실린 소책자 마지막 쪽에 “사제 알베리 오네”라고 서명했다. (책 표지에는 저자 “프리모 마에스트로”라고 적혀 있다.) 1959년 12월에 로마 성바오로딸수도회에서 인쇄했는데, 서명 아래 쪽에 “이 주제는 다음 호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라는 글이 괄호 안에 들어 있었다. 이는 같은 내용의 글이 이어지리라는 암시였는데, 다음 호는 나오지 않았다. 저자가 이 주제에 대해 더는 새로운 내용을 덧붙일 것이 없었던 것 같다.

소책자에 실린 내용을 R. 에스포지토 신부가 편집한 「성 바오로 안에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Carissimi in San Paolo*」라는 기획물 1331-1351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소책자는 다시 제시된 글의 편집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하려면 이 책이 탄생하게 된 영적 배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59년, 창립자의 가장 큰 관심사는 창립한 수도회의 기반을 다지는 것이었다. 수도회의 창립을 마쳤으니 이제는 회원 양성과 성장에 대한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1958년 12월부터 창립자는 성바오로수도회 관구장들과 분원장들에게 소식을 보냈다.(1958년 12월호 「성 바오로」 참조) 이 소식지에서 창립자는 5년(1958-1963) 동안 회원이 두 배로 증가하길, 말하자면 서원한 바오로인이 800명에서 1600명이 되길 바라다면서 1960년

4월에 “기도와 쇠신을 위한 형제적 모임”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모임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하는 장상 여러분, 근본 문제는 성소에 관련된 것입니다.”라는 내용에서 그분 특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 주신 사명을 마무리하는 영적 유언”에서도 잘 드러나는 성소와 양성 문제였다.

양성 문제는 우리 창립자가 지닌 가장 절박한 문제 가운데 하나였기에, 서면으로 다시 그 내용을 언급한 것이다. 수도회의 공식 소식지인 「성 바오로」에서 모두가 관심을 갖길 바란 내용은 발행 초기부터(1926년부터—1964년 현재까지) 알베리오네 신부님은 43년 동안 250호에 이르는 소식지를 검토하며 당신이 거듭 열렬히 주장하며 강조한 양성 주제를 다시 떠올리셨다. 이 글은 그 주제를 발전시켜 전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하려는 창립자의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모습을 갖추실 때까지”<sup>2</sup>는 계속 반복된 좌우명이다.

1959년의 결실인 「성 바오로」지 제8호는 이 주제 아래 헌정되었으며, “더 나은 성소 양성을 위한 기도와 쇠신”(2월), “수사들의 성소와 양성”(4-5월), “지원자 양성”(6-7월), “더 나은 수련기의 결실을 위하여”(10월) 등의 주제를 다루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11-12월)가 나왔으며, 이로써 그 연속기획물이 마무리되었다.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 아래 대단히

2. “Finché sia formato Cristo in voi”(갈라 4, 19). 이는 1932년도에 출판된 양성에 대한 오페라 옴니아의 초판 제목이기도 하다.

실제적인 논술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양성자들에게 교육학적 보조자료를 제공하여, 강생의 신비와 모든 그리스도인, 특히 모든 사도의 양성에서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어머니요 스승이신 마리아의 역할에서 시작하는 복음의 교육학에 관련된 활동, 그리고 무엇보다 영성에 토대를 두려는 것이었다.

그 소책자에 표현된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마리아론은 바티칸공의회 이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내용만 아니라 언어에서도 그 시대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또한 창립자에게는 교의에서 발췌한 몇 가지 확고한 원칙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모 신심과 마리아 교육학의 기초로 삼기에 적합했다.

모든 이가 이 글의 중요성을 곧바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성바오로수도회의 조반니 로아타 신부는 자신의 책 「우리 영적 삶의 중요한 점들— 1. 마리아론 *Punti di riferimento della nostra vita spirituale: I. Mariologia*」 6장(동사판 인쇄, 아리차, 1973년 5월, 108쪽)에서 이 글이 얼마나 중요한지 밝혔다.

“‘제자요 스승이신 마리아’라는 주제는 나름대로 일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결코 이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본질적인 요소다. 이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 앞에서 마리아가 지닌 개인적 태도로서 제자직의 성장과 삶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랑으로 실천하는 봉사,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여 그들이 활기차게 성장하도록 돕는 실제적인 노선을 제시하는 가치들이다. 이는 정확히 말해 모든 교육의 역할이다. … 이제 이 주제의 정확성을 깨달은 이들은 그 길에 이르게 될 것

이다.”(같은 책, 43쪽)

알베리오네 신부님이 쓰신 이 책의 결론 부분에 인용되어 알베리오네에게서 찬사를 받은 G. 로아타 신부의 마지막 진술은 바오로가족에게 전달하는 그 내용의 유익함을 믿게 하는 근거를 설명한다. 많은 이가 그 “주제의 정확성을 인식하여 그 길에 이르게” 되리라고 희망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발행본 일부의 문단 내용을 내포하는 ‘제목’에 대해 언급해야 할 것 같다.

알베리오네 신부님의 저술에서 원제목은 대개 정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종종 내용 때문이라기보다 인쇄상의 문제였다. 이는 내용의 논리를 전하거나 책이 다룬 주제에 관련된 소제목을 붙이고자 애쓰지 않고 본문을 자주 언급함으로써 읽기 쉽게 하길 바랐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때로는 우리가 원제목을 바로잡거나 새로운 제목을 삽입하여 내용과 논리적 연결성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겼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저자의 표현을 즐겨 발췌하여 인용했다. 저자의 의도를 거스르지 않았기를 바란다.

1985년 12월 8일, 로마

실바노 M. 데 블라시오



## 제1부

# 스승 마리아를 통해 스승 예수님께

천상 스승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심은 스승이신 마리아 신심을 통해 준비하고 전개할 때 비로소 완전해질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레오 13세는 회칙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조력자 *Adiutricem populi christiani*」(1895)에서 “우리는 충만한 진리와 당신 마음에 품고 계셨던 신적 계시를 모두 전해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요, 사도들의 스승이며, 모후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스승 마리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께”라고 말할 수 있다면, 또한 “마리아의 가르침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 1. 스승의 개념

인간적 초자연적으로 향상되기 위한 모든 인간과 인류 전체에 관련된 전적이고도 포괄적인 스승의 개념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리스도에게서 구체화되었다. 성 대 레오는 “스승의 삶이 제자에게 형성되도록 당신 스스로

---

1. “Per Mariam Magistram ad Jesum Magistrum.”

길이라고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지 않았다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말이다.”라고 썼다.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또한 그렇게 말했다.

비오 11세는 회칙 「천상 스승이신 그분 *Divini Illius Magistri*」에서 “교육은 본질적으로 인간성에 대한 교육이기에 … 하느님 현존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 그런 다음 하느님은 길 진리 생명이신 당신의 외아들 안에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다. 이보다 더 적합한 교육, 곧 그리스도인 교육보다 더 완전한 교육은 없다.”고 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당신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sup>2</sup> 미리 정해진 것이며, 이는 지성, 감성, 의지를 지닌 인간 전체를 포괄한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는 교육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가 플라톤에서 출발하면 철학자가 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면 거룩한 스승의 모습을 중심으로 완전한 양성이 이루어질 것이며, 마침내 하느님이요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라고 했다.

## 2.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며, 그리스도의 길이신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인간적 나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모습을 갖추시는 것을 어렵게 느낀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 쉽도록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고자 하셨다. 우

2. “Conformes fieri imagini Filii sui.”(로마 8,29)

리에게 단순하고 쉬운 길, 곧 마리아, 가장 정감있고 가장 기록한 피조물인 마리아를 알려 주신 것이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이다.

하느님을 닮으라. 하느님의 충만한 업적과 사랑에 적응하라.

우리 구원을 위해 일하시는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마리아를 거쳐 가신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sup>3</sup> 그렇게 해서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구원과 성화의 은총을 입게 하시고,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라고 기도하고, 또 “하늘의 성인들이 기쁨 누리는 정녀가 차지하신 그 승리로써”<sup>4</sup>라고 기도하듯이 모두가 마리아 덕분에 생명을 충만히 받게 하신다. 예수님을 내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갖추게 해 주시는 분은 바로 마리아이다.

이것이 곧 하느님의 방식이다. 하느님은 한 번 선택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신다. 하느님의 성전을 세우는 능숙한 건축가이신 하느님은 제대보, 주수병, 독서대처럼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당신의 방식을 따르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규범, 율법과 같다. 예수님은 강생의 첫 단계에서도 우리의 길이 되셨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제시된 길을 따라야 한다. 스승 예수님은 스승이신 마리아를 통해 오셨다.

3. “Conceptus de Spiritu Sancto, natus ex Maria Virgine.”(사도들의 상징)

4. “Vitam datam per Virginem, gentes redempta, plaudite”(“하늘의 성인들이 기쁨 누리는 정녀가 차지하신 그 승리로써 주 천주 성삼위께 영광 있으라. 찬양 하오니 …” 동정녀 공통 성무일도 아침기도 ‘찬미가’ 중에서)

### 3. 스승이신 마리아

예수님과 우리 모두의 스승이신 마리아의 드높은 직무를 위해 주님은 마리아에게 합당한 권위와 재능과 힘과 특권을 주셨다. 레오 13세는, 마리아께서 어떻게 사도들과 초대교회 신자들의 스승이 되셨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그분은 “성덕에 이르는 귀감, 권위 있는 권고, 감미로운 위로, 그분의 효력있는 기도로 믿는 이들을 훌륭하게 양성하셨기에” 스승이 되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길 진리 생명이시기에 스승이시다. 그리고 마리아는 성덕, 지혜, 은총, 생명을 지니시기에 스승이시다.

예수님은 절대적이고 유일한 스승이시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께 협력하고 의탁하는 관계 안에서 스승이시다. 마리아는 구속자요 임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고 협력하심으로써 공동구속자요 여왕이 되셨다.

#### I. 길이신 마리아: 성덕의 귀감

영혼 안에 내재된 은총은 뿌리와 같다. 식물은 뿌리에서 자라나 가지와 잎, 꽃과 열매를 맺는다. 덕은 이 은총에 비례하여 영혼 안에서 자라난다. 우리는 마리아가 ‘충만한 은총’에 휩싸여 가장 높은 단계의 미덕과 성덕에 오르셨음을 알고 있다. 마리아 안에는 대신덕, 사추덕, 윤리덕, 참행복, 가장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내재되어 있다.

레오 13세는 회칙 「묵주기도에 관하여 *Magna Dei Matris*」에서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모든 덕의 훌륭한 귀감이십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적 완전성을 염두에 두고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성모님의 귀감을 목상하므로 실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처럼 피조물이면서도 지극히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성모님을 생각하면 그분께 더욱 끌리게 된다.

이는 또한 성 비오 10세의 회칙 「그 지극히 기쁜 날에 *Ad diem illum*」에 표현된 생각이기도 하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주님은 인간이실 뿐 아니라 하느님이시기에 쉬운 길, 곧 마리아를 따름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라고 우리의 약함에 맞춰 주셨다. 마리아! 그분의 모성적 귀감이 우리를 초대하며 끌어당긴다.

## 1. 그리스도의 덕을 본받기

마리아가 충만한 덕을 지녔다는 것은, 마리아를 스승이라 일컬을 때 덕에 있어 스승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마리아의 믿음: 성녀 엘리사벳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는 말에서 마리아의 믿음이 잘 드러난다.

마리아의 희망: 마리아는 갈릴래아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셨다. 그리고 승낙하리라는 확신으로 마리아는 먼저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지시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부정적이었던 것 같다!

마리아의 사랑: 마리아는 동정 서약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자신을 봉헌하셨다. 늘 하느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된 마리아는 대천사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하셨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엘리사벳에게 도움이 필요함을 알게 된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가서”<sup>5</sup> 겸손한 종으로서 석달 정도 머물며 도와주셨다.

덕에 있어서 스승인 마리아. 마리아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셨다. 특히 나자렛에 사시는 동안 덕과 공로를 나누며 날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걱정, 연민, 일, 고통,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상황에 함께하셨다. … 마리아는 가장 완벽하게 예수님을 본받았다.

## 2. 모든 덕의 ‘책’

마리아가 실천한 모든 덕은 영웅적인 것으로 기억되어 몇 천 권의 책을 통해 펼쳐질 수 있다.

“모든 성인은 하나의 덕 곧 믿음, 순명, 사랑, 열정 면에서 탁월하다. … 그리고 마리아는 모든 덕과 개별적인 덕에서도 뛰어나시다. 당신 안에 모든 덕을 지니시고, 개별적인 덕에서도 모든 성인을 능가하신다.”라고 성 토마스 아퀴나스와 빌라노바의 성 토마스는 말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5. “Abiit in montana cum festinatione.”(루카 1,39)

수 있다. “하느님의 손가락으로 쓰인 마리아라는 책을 자주 읽으십시오. 성덕, 순결, 사려 깊음, 애덕, 온유함, 겸손 ... 등을 읽으십시오. 가능한 한 그분 안에서 충만한 덕을 읽어내십시오.”

마리아의 모범을,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들의 순수한 열린 마음을 통해 마리아의 성덕과 어지심을 장려하는 것은 크나 큰 사랑이다. 날마다 조금씩 바치는 작은 희생이 덕에 이르는 좋은 길임이다.

## II. 생명이신 마리아: 기도의 효능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적인 생명 곁에 또 다른 생명, 곧 영적 또는 초자연적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자연적 생명을 훨씬 능가하는 실재다.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께 접목됨으로써 지성에 믿음, 의지에 희망을, 감성에 사랑을 자아내어 새롭고 초자연적 조직인 그리스도교를 건설한다.

이는 인간에게 전해 주신 하느님의 생명 자체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 곧 은총이다.

### 1. 마리아를 통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생명

교회는 성모찬송(살베 레지나) 기도에서, 그리고 호칭기도를 통해 생명이신 마리아께 “천상 은총의 어머니”라고 인사하게

한다. 마리아는 은총을 창출해내지는 않으셨지만 직무를 통해 전해 주신다. 마리아는 당신을 통해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셨기에 어머니시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처럼 성자 예수님이 얻어 주신 은총에 참여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시며, 예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특히 성자께서 수난 받으시는 동안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뚫리는”<sup>6</sup> 고통을 함께 나누시면서 은총을 자아내는 데 협력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은총-생명을 받아들여 일차적이며 근원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고 그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성인들의 통공을 통해 마리아의 공로에 참여한다.

## 2. 이어지는 세 순간에 우리에게 생명을 전하시는 마리아

가)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우리를 잉태하셨다. 우리의 영적 잉태는 강생의 신비 안에서 일어났다. 강생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여전히 죄의 죽음 속에 묻혀 있을 것이다. 드디어 하느님은 마리아 안에 강생하셨으며, 마리아의 협력이 자유롭고 의식적이며 꼭 필요한 것이 되길 바라셨다.

마리아의 “피앗”은 우리의 초자연적 잉태와 모성애에 동의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위였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와 요한에게 거창한 권고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라. 마리아께서 성자 예수님의 탄생 직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도 생

6. “Tuam ipsius animam pertransibit gladius.”(루카 2,35)

각해 보라. 마리아는 신비체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잉태를 통해 그분의 지체인 우리도 잉태하셨기에 언제나 모든 상황에서 우리의 어머니가 되실 것이다. 이제 머리와 지체는 한몸을 이룬다.

그러므로 이는 단순한 유추가 아니라 위대한 현실로서, 마리아는 당신의 순결한 태중에 당신의 첫 아드님과 (영적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신다고 설명한다.

나) [마리아는] 갈바리아에서 우리를 낳으셨다. 강생의 신비는 구원의 신비 안에서 완성된다.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결정적으로 당신의 생명을 살게 하셨다. 곧 빛이 되셨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영적 탄생이 강생의 신비 안에서 시작되었으며, 구원의 신비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나자렛에서 시작된 마리아의 영적 모성이 갈바리아에서 완성되었고, 또한 갈바리아에서 선포되었다.

동정이신 마리아께서는 첫 아드님이 태어나는 기쁨을 잘 아셨기에 영적으로 다른 자녀들을 낳으시는 데 따른 치명적인 두려움을 견뎌내셨다.

다) 마리아는 세례대에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낳으신다. 세례대는 우리 각자의 베들레헴인 것이다.

초자연적 관점에서 우리가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탄생하는 것과 같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생명은 특별히 우리 개개인 안에 스며

들 필요가 있다. 마리아는 이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어준다.<sup>7</sup> 이렇게 해서 사람의 아들이 하느님의 아드님이 된다.

영적으로 죽은 죄인은 고해신부를 통해 죄를 용서받음으로써 천상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원기를 회복한다. 이는 변함없는 마리아의 은총이다.

그 누구도 마리아의 거룩한 은총 없이 태어나거나 재탄생하지 못한다. 실제로 완덕에 이르는 모든 진보는 은총의 주입을 통해 발생한다. 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는 그 은총이 마리아에게서 온다고 한다.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혜와 사랑으로 당신 성자의 모상을 우리 안에 새겨 주신다. 이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당신 태중에 복된 아드님을 잉태하여 자라게 하신 것처럼 초자연적 유기체를 구성하고 먹이며 성장하게 하는 것이다. 마리아는 우리 모두를 당신 영으로 이끄신다.

대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라고 인사했다. 마리아가 그의 협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의 분배자요 중재자라는 사실은 교회의 모든 교의에 포함되어 있다.

### III. 지혜를 지니신 마리아: 권고에 깃든 권위

은총으로 충만하신 마리아는 지혜도 가득하시다. 인류와 모든 인간을 위한 으뜸가는 은총은 천상 지혜, 거룩한 빛, 진리

7. 이는 성령의 활동을 통한 교회의 성사적 중재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다. 다른 은총은 모두 이에 붙따른 것이거나 이를 수반한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요한 18,37) 하신 예수님의 단언은 당신 강생의 목적에 대한 설명이다.

### 1. 상지의 옥좌이신 마리아

교회는 “상지의 옥좌요, 착한 의견의 어머니이시며 사도들의 모후”이신 마리아께 간구한다.

‘상지<sup>上智</sup>’라고 할 때 이는 세상의 일반 지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느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느님의 지식에 참여하게 하는 최고의 지혜를 말한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낳아’ ‘그리스도를 기르신’ 분, 곧 스승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셔야 했다. 전례에 따르면 하느님은 마리아 안에 성자께 합당한 감실을 마련하셨다.

가능하지 않겠지만, 만약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준비시킬 수 있다면 아마도 모든 면에서 자기 어머니를 가장 뛰어나게 해드릴 것이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한 일이다. 마리아는 모든 면에서 아름다운 분이신데, 특히 그의 영혼과 지성이 더욱 아름답다. 유명한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이 최고의 걸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이듯, 하느님께서도 당신 손수 걸작을 만드시기 위해 마리아 안에 가장 뛰어난 은총을 담아 주시어 ‘구세주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마리아는 상지의 옥좌시다.

마리아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명을 수행하셨는데, 그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면 수락하거나 완수할 수 없었을 것이다.

동정이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되는 것, 마리아는 가장 고결한 모성의 직무와 동정의 가치를 알고 이 두 특권을 잘 조화시키셨다.

마리아는 구유와 성전에서, 예수님의 공생활 중에, 갈바리아에서, 다락방에서 성령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를 잘 아셨다.

이는 뛰어난 마리아론 학자들 사이에서 자명한 원리로 작용한다. 하느님은 당신께서 천사와 성인들과 피조물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마리아에게도 주셔야 했으므로 피조물에게 나눠 주신 본성의 모든 특권, 그리고 은총과 영광의 특권을 마리아에게 베푸시고 또 얻어 주셨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언자, 성조, 사도, 순교자, 고해사제, 동정자, 모든 천사와 성인의 모후가 되셔야 했기에 그에게는 탁월할 정도로 후하게 베푸셨다. 하느님의 신학자이며 시인인 단테는 “피조물 안에 있는 선이란 선이 모두 다 마리아 당신 안에 있습니다.”(『신곡: 천국편』, 제33곡 19행, 베르나르도가 마리아께 바친 기도) 하고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마리아는 스승이셨다. 설교는 사제의 몫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설교를 하거나 논문을 쓰거나 교수로서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러나 마리아가 하신 모든 말씀은 지혜로웠고 죄, 보속, 교회, 구원과 같은 근본 교의에 대해 매우 명확한 지식을

지니셨다.

## 2. 가장 풍요로운 지식의 보화

마리아께서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장 풍요롭게 내재해 있었다. 신학자들은 지식을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인간이 자연스럽게 노력을 통해 획득하는 지식, 천사들이 자연스럽게 은총을 통해 얻은 지식, 하느님이 지니신 완전한 지식.

가) 완전한 지식. 성 아우구스티노의 발자취를 따르는 신학자들은 삶의 어느 순간에 모세와 성 바오로에게 완전한 지식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공통적으로 인정한다. “모세와 성 바오로는 완전한 지식을 적절히 사용해야 했다. 모세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박사였고, 성 바오로는 이방인들의 첫 번째 박사였기 때문”이라고 성 토마스(II, 2, q. 173, a. 3)는 말한다. 그런데 모세와 성 바오로가 저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첫 박사가 되어야 했기에 한동안 완전한 지식을 지녔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면 “사도들의 모후요 교회의 스승”<sup>8</sup>이신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게 말해야 한다. (레오 13세, 회칙 「그리스도인들의 위대한 조력자 *Adiutricem populi christiani*」)

더욱이 성 바오로가 이방인들의 박사임은 사실이다. 그러나 “바오로는 선택된 그릇이지만 동정 마리아는 하느님의 은총의 잔이었기에”<sup>9</sup>(시에나의 성 베르나르디노) 특별한 방법으로 지극히 거

8. “Apostolorum doctrix et Ecclesiae Magistra.”

9. “Paulus vas electionis, Virgo vero Maria fuit vas divinitatis.”

룩하신 마리아께 신자들의 박사요 스승의 자격이 주어졌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특별히 당신 삶의 세 가지 상황, 곧 예수님의 탄생 예고,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셔야 했다.

나) 천상적 지식. 마리아는 분명 천상적 지식을 평생 지니고 계셨다. 천상적 지식이 예언자들과 성인들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예언자와 성인들의 모후이신 성모님께 허락되었을 것은 더더욱 분명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천상적 지식은 대단히 광범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아담이 지상낙원에 사는 동안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허락하신 지식보다 훨씬 뛰어났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거룩한 마리아는 이 천상적 지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자연적 진리를 모두 알 수 있었다. 게다가 초자연적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하고 폭넓은 인지력도 갖추셨음이 분명하다.

이에 관련하여 성 안셀모는 이렇게 말한다. “사도가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지혜요 힘이며, 그리스도 안에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에서 나온 모든 보물이 숨겨 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마리아 안에 계시므로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분 지혜와 지식에서 나오는 숨겨 있는 모든 보물은 결국 마리아 안에 있는 것이다.”(설교,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In Intravit in quoddam castellum”에서)

다) 획득된 지식.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지식 외에 획득된

지식이 있다. 예수님과의 친교 안에서 오랜 세월 함께 지낸 삶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마리아는 날마다 묵상하면서 율법에 대한 지식과 예언자들의 예언에 대해 배웠다.”고 오리게네스는 말한다.(설교 6, 「루카 *Lucam*」)

복음이 증언하듯 마리아는 특별한 지성을 갖추고 회당에서도 부지런히 깊은 신심으로 성경을 읽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집안에서 여러 해 동안 함께 살면서 날마다 지혜로운 말씀을 기억하고 깊이며 향상시켰다.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 이를 증언한다. 두 번은 대천사 가브리엘과, 두 번은 성녀 엘리사벳과, 두 번은 예수님과, 한 번은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일꾼들과 이야기하셨는데, 그 모든 말씀에서 그분의 지극히 높은 지혜가 드러난다.

### 맺음말: 세 가지 적용

바오로가족은 스승 예수를 살고 널리 알리고 본받아야 하는 사명을 지닌다. 또한 “당신 태중의 복된 결실인 예수님을 스승으로 세상에 내어 주신”<sup>10</sup> 스승 마리아를 알리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특별한 사명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바오로적 가르침은 마리아에게서 영감과 인도와 위로를 받을 때 더 온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다. “성모님이 당신을 인도하신다면 당신은 결코 지치지 않을 것이다.”<sup>11</sup> 이처럼 위대한

10. “Dedit orbi Magistrum Jesum, qui est benedictus fructus ventris sui.”

11. “Ipsa duce non fatigaris.”

조력자의 역할을 그 누구도 성모님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바오로적 제자직은 모든 지원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추어 주실 마리아께 접목되어야 한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 사도, 성인이 되는 것을 뜻한다.

## 제2부

### 마리아의 제자직과 가르침

바르고 온전한 스승이라면 누구나 마리아 안에서 빛과 모범, 보호와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마리아와 각 신자들 사이에는 소중한 유대로 맺어져 있는데, 마리아와 스승 사이의 유대에서는 일상적 관계를 훨씬 능가한다. 특히 수도자들과 사제들의 양성장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들을 이해하려면 마리아가 구원 활동 중에 하신 '역할'에 대해 잘 알아야 하는데, 그 역할은 언제라도 구원의 범위에 적용되는 것이다.

#### I. 제자이신 마리아

마리아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주의 깊고 현명한 제자이다. 마리아는 최상의 지성을 갖추셨고, 오류와 경솔함과 원죄에서 해방되어 언제나 태양 빛, 곧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 빛”의 작용 아래 머무신다. 특히 예수님의 강생 전에, 예수님의 사생활 중에, 그리고 공생활 동안 제자이셨다.

---

1. 요한 1,9.(불가타 성경)

## 1. 하느님 아드님의 강생 전에

마리아의 영혼 안에 늘 머무시는 성령은 마리아의 스승이요 ‘안내자’<sup>2</sup>이셨다.

마리아는 구약성경이 가르치는 완전하고 가장 심오한 교의적 지식에 이르셨으며, 이를 그대로 사셨다.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는 마리아가 구약성경에 대해 아주 잘 아셨으며, 성경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곤 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마리아가 성경말씀으로 일곱 차례 말씀하셨다고 하는 복음서에서 잘 드러난다. 하지만 마리아가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성경말씀을 잘 인용하셨다는 사실은 마리아의 노래Magnificat에서 특히 잘 드러나는데, 오늘날의 저명한 저자들도 이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스어 루카복음에 번역된) 마니피캣과 (일반적으로 교회 전통이 따르는 히브리어와 다른 경우가 있는, 루카가 알려진 칠십인역 그리스어 번역의) 구약성경 여러 본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 볼 만한 중요한 점이 있다.

신약성경의 마니피캣(루카 1,46-55)	구약성경(칠십인역 그리스어 성경)
46.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기뻐 뛰고
47.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내 이마가 내 주님 안에서 높이 들립니다.(1사무 2,1)
48.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이 여종의 가련한 모습을 눈여겨 보소서.(1사무 1,11)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나는 행복하구나!(창세 30,13)

2. “Dux ejus fuit.”

49.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기록하고	그분은 너[이스라엘]를 위하여 이렇게 큰 일을 하셨다.(신명 10,21) 그 이름은 기록하시다.(시편111,9)
50.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주님의 자애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에 머무르리라.(시편 103,17)
51.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홀으셨습니다.	당신께서는 교만한 이를 짓밟으시고 당신의 그 힘찬 팔로 당신 원수들을 홀으셨습니다.(시편 89,11)
52.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주님께서 통치자들의 권좌를 무너뜨리시고 그들의 자리에 양순한 이들을 앉히신다.(집회 10,14)
53.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배고픈 이를 좋은 것으로 채우셨다.(시편 107,9) 부자들은 궁색해져 굶주리게 된다.(시편 34,11)
54.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너 이스라엘, 내가 선택한 종아!(이사 41,8) 당신의 자애를 기억하셨다.(시편 98,3)
55.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당신께서 저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시리라.(미카 7,20) 다윗과 그 후손에게 영원토록 자애를 베푸신다.(2사무 22,51)

마니피캇의 출발점은, 특히 하느님께 간청하여 얻은 사무엘의 탄생(2,1,10)에 대해 감사드린 한나의 찬가-기도에서(1사무 1,11) 영감을 받은 것이다. 이 찬가가 마니피캇의 주요 원천이다. 감사의 표현은 아세르의 탄생에 감사하는 레아에게서(창세 30,13) 온다. 동정 마리아의 출산은 구약에서 하느님이 허락하신 기쁘고도 기적적인 탄생의 연장선상에서 절정을 이루는

듯하다. (루카 1,37; 창세 18,14: 사라; 루카 1,24-31; 이사 7,14)

## 2. 예수님의 사생활 중에 제자였던 마리아

가) 마리아는 강생과 구원의 깊숙한 신비를 꿰뚫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30년 동안 친밀하게 살면서 예수님이 먼저 자신 안에서, 자신의 성성 안에서 살아낸 신약성경의 정신을 모두 습득하셨다.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를 기다리면서 ‘행하기 시작’<sup>3</sup>하셨다. 마리아는 스승이신 아드님의 학교에서 구약성경의 교육학을 거쳐 신약성경의 교육학으로 넘어가기가 수월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가르치신 것을 예수님이 살아내시는 것을 보았는데, 이미 예언된 내용이 마리아가 보는 가운데 실현된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는 그야말로 위대한 계시로서, 그 사실에는 배울 것이 많았다. 이에 대해 얼마나 많은 논평이 있었는지! 참된 규정이 여기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마리아의 성녀 엘리사벳 방문, 예수님의 성탄,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하심, 나자렛에서의 숨은 생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당신 안에서 미래의 교회, 가장 높은 완덕, 천상적 통교를 살아가셨다.

마리아는 보았고, 기억했으며, 묵상하셨다. 성 루카는 목자들이 구유 앞에서 감탄하며 하는 말에 마리아가 귀를 기울이셨다고 한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2,19)

성 루카는 다시 2장 51절에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신 마

3. “Cepit facere - et docere.”(사도 1,1 불가타)

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고 기록한다.

나) 예수님과의 친밀함. 파츠Patsch는 이렇게 썼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동정 어머니에게 뛰어난 품성을 물려받은 예수님은 성격과 신체적인 면에서도 어머니를 많이 닮았을 것이다. 어머니와 아드님은 그들 존재의 무언가를 서로에게 주었다. ...”

예수님과 함께 마리아 또한 영적으로 성장하셨고, 영혼이 풍요로워졌으며, 갈수록 덕을 쌓아 가셨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바라보셨고, 하느님 아버지 또한 흡족해하셨다. 예수님은 축복으로 가득한 눈길을 마리아에게 건네셨다. 이처럼 두 영혼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발견하며 하나 되는 것을 느끼셨다.

예수님이 공생활을 시작하시기까지 [소년시절 이후] 감추어진 18년의 세월은 두꺼운 베일에 싸여 우리 눈에 가려져 있지만, 그 세월 동안 예수님은 청소년기를 거쳐 성숙해졌으며, 묵수로 일하면서 동네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셨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참된 존재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다. “너희 가운데에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요한 1,26)고 세례자 요한은 말했다. 오로지 마리아와 요셉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지만, 그들은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바로 구세주이심을 공공연히 드러내시기까지는 침묵을 지켰다.

다) 마리아의 영적 성장. 우리는 예수님이 열두 살에서 서른

살에 이르는 신비에 찬 18년이라는 세월의 베일을 벗겨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그 깊이를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과 나눈 행복한 나날들, 가장 완벽한 친교의 시간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여 지극히 높은 완덕에 이르셨다. 예수님은 훗날 설교 중에 자주 성가정에서 나눈 대화를 언급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어머니 안에서 최초의 사랑스러운 제자의 모습을 발견하셨다. 만일 “그분의 충만함에서 우리 모두 은총을 받았다면”(요한 1,16), 그분이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하신다면”, “한량없이 성령을 주신다면”(요한 3,34) 샘물 가까이 머물면서 당신 손으로 당신 영혼의 소중한 물병을 들고 영원한 삶에서 솟아오르는 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셨던 마리아는 풍성한 은총으로 더욱 충만하셨을 것이다.

### 3. 공생활 동안에

마리아는 카나의 혼인잔치에 개입하셨으며, 그곳에 예수님과 그의 초기 제자들이 함께 계셨다고 복음은 전한다. 마리아의 전구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다. 요한복음사가가 전하는 이 기적 이야기(요한 2,1-11)는 다음과 같이 마무리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드러나 제자들이 믿게 되도록 다시 말해 공생활의 시작을 앞당기셨다고 말할 수 있다. 마리아는 강생을 위해 ‘피앗’

이라고 응답하신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당신 아드님이 사목을 시작하시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가) 따름과 경청. 파츠는 이렇게 기술하였다. “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 대부분을 마리아가 동반하셨음을 확신하게 한다. 마리아는 여러 사건에 적극적으로 깊이 참여하셨다. 많은 사건을 직접 목격하셨으며, 제자들을 통해 알게 된 것들도 있다. …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매우 주의 깊게 경청하셨다.

이는 그토록 힘있고 깊이 있는 예수님의 설교가 마리아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는지를 설명한다. 많은 여성이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봉사하며 그들과 함께했는데 그들 가운데 마리아는 가장 충실했고,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권고를 가장 열심히 실천하여 가장 훌륭한 해석자가 되었다.”

#### 나) 반드시 해야 할 두 가지 관찰

1)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들여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 메시지를 마음을 다해 일상에서 살아간 지적이고 열정적인 제자였다.

2) 마리아는 영혼과 온전한 감수성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깊이 새기며, 그 가르침의 드높고 숭고한 면까지 지극히 충실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셨다. 그분의 지성을 통해 늘 환히 빛나는 거룩한 빛 속에 있던 마리아는 이 땅과 인류를 비추기 위해 내려온 모든 진리를 깨닫고 믿을 수 있었다.

마리아는 가까이에서 또는 멀리서 예수님을 따랐으며, 특히

예수님께 대한 바리사이들의 시기와 증오가 격심해졌을 때는 새로운 생명을 위해 많은 희생을 바치셨다. 마리아는 당신 아드님의 진리와 은총의 사명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다.

## II. 스승이신 마리아

### 1. 예수님의 스승이며 양성장

예수님은 죄를 제외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으셨다. 예수님은 여느 아이들처럼 어머니와 양부 요셉에게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셨다.

여러 저자들은 마리아가 아들을 위해 한 일, 곧 아드님에게 당연히 옷을 지어 입혔고, 땀 흘려 일한 대가로 얻은 우유와 빵을 먹였고, 아이를 품에 안고 다녔으며,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이집트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갈릴래아로 돌아왔고, 걸음마를 시작하도록 도왔고, 성경에서 배운 기도를 가르쳤으며, 일상의 위험에서 보호했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가르쳤고, 희생 제물이 되도록 준비시켰으며,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했다고 나열한다.

성 에프렐은 “마리아여, 당신은 그리스도를 가르치셨으니 기뻐하십시오.”(설교 4.11)라고 요약해서 말했다.

출산을 해서 2세를 교육하는 것은 결혼의 고유한 목적이다. 교육은 인간을 그리스도인, 성인이 되게 한다.

어떤 아기에게든 첫 번째 스승은 어머니다. 여기서는 여느 어

머니가 아니라 은총을 가장 많이 받으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아드님 - 하느님이 대상이시다. 예언에 따라 이루어진 예수님의 탄생 예고 직후부터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이요 사제인 스승을 준비시키시기까지 마리아는 성령의 비추임으로 하느님의 계획을 이해했고, 베들레헴에서, 성전 봉헌에서, 숨은 생활에서, 공생활과 수난 동안 모든 지혜와 행동으로 하느님 뜻에 협력하셨다.

다시 주목할 것. 복음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sup>4</sup>고 말한 후 “지혜가 충만해졌다. …”고 덧붙인다. 그분은 진리를 빠르게 습득하며 성장하셨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경청하셨다. 그분은 하느님의 아들이셨음에도 체험을 통해 지식을 익혔다. 예를 들면, “고난을 겪음으로써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다.”(히브 5,8) 처음에는 이론적 지식을 갖추셨고, 그 다음에는 체험하면서 실제로 알게 된 것이다.

하늘에 오르신 마리아는 영원한 참행복 속에서 하느님 현존에 눈과 마음을 고정시키신다. 마리아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하느님 안에서 은총의 신비와 모든 피조물, 특히 우리 한사람 한사람을 바라보신다. 그리고 보편적 중재자로서 원하는 이들에게 바라는 만큼 지식을 분배하는 직무를 지니신다.

## 2. 교회 안의 스승 마리아

마리아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들과 함께하고, 온 세상에 복음 메시지를 전하길 바라는 가장 겸손

4. “Subditus illis.”(루카 2,51)

하고 열렬한 스승이 되셨다.

가) 사도들의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이 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부터 매우 중요한 새로운 임무, 곧 모든 사람의 영적 어머니가 되는 임무를 시작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사도들의 무리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그래서 사도들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다. 사도들을 주위에 모아 놓고 그들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 마리아는 사도들을 다락방에 불러 모아 성령을 받을 준비를 시키셨다.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 모든 면에서 그들의 스승이셨다. 특히 사도들이 잘 모르는 신비, 곧 강생의 신비와 당신만이 아시는 예수님의 사생활에 대한 특별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란 교육자, 스승, 그 밖에 어머니에 대한 다양한 여러 의미를 지닌다.

나) 모든 그리스도인의 스승.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는 이미 두 차례나 성령을 받으셨지만 다락방에서 다시 성령을 받으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 때 처음으로 성령을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셨을 때 두 번째로 성령을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의 어머니요 스승이 되시기 위해 사도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셨다.

마리아는 첫째가는 신앙의 어머니요 스승이시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기에, 신앙이 심각한 위기

에 처했던 그리스도교 역사의 모든 상황에서 사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를 우리 어머니로 임명하시면서 특별히 이 사명을 어머니께 맡기고자 하셨다.

세상을 위협하며 탈선으로 잘못 이끌 때 마리아의 보호의 손길이 민감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는 “당신 홀로 온 세상의 모든 이단을 없애셨습니다.”<sup>5</sup> 하고 노래한다.

지상낙원에서 뱀과 여인 사이의 투쟁이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형태로 이어지리라고 예고되었다. 그리고 그 예고대로 마리아는 교회가 겪어야 했던 온갖 위기 앞에서, 특별히 진리의 스승이요 신앙의 어머니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 맞섰다.

우리 시대에 마리아의 투쟁과 승리는 루르드와 파티마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요약된다.

교부들의 증언. 성 에피파니우스는 마리아께 “마리아여, 기뻐하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한 책, 당신이 세상에게 읽으라고 내어주신 말씀은, 하느님 아버지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천명闡明했다.

성 타라시오<sup>Tarasio</sup> 주교는 마리아께 이렇게 말했다. “오,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따님이시여, 기뻐하소서. 하느님께서 세상 끝까지 널리 알려지셨기 때문입니다. … 오! 마리아여, 당신은 태양 빛보다 더 밝게 빛나시니 기뻐하소서.”

알렉산드리아의 성 치릴로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을 통해

5. “Cunctas hæreses sola interemisti in universo mundo.”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바치는 전례 후렴)

사도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 당신으로 말미암아 고귀한 십자가를 찬양하며 흠송합니다. … 당신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마를 피할 수 있었고, 인간은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상을 숭배하는 잘못에 연계된 모든 피조물이 진리의 빛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이 거룩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세상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학자 성 치릴로에 따르면 마리아는 “정통 신앙의 왕홀” 이셨다.

### 세 가지 맺음말

제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먼저 행하고 스승에게서 양성되도록 겸손하게 내어 맡기는 것을 제자이신 마리아에게서 배울 수 있다.

스승은 가르치는 일을 그만 두는 법이 없으며, 거룩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수단을 사용한다.

교회 구성원 모두가 사도직에 부르심을 받았으며, 견진성사를 받은 모든 이는 기도의 사도직, 모범의 사도직, 고통의 사도직, 편집 사도직, 성소 사도직 등을 할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기 위해 기여할 수 있다.

## 제3부

### 마리아와 스승 - 교육자

완전한 의미의 스승 - 교육자는 누구보다 사제다. 학생 - 제자가 수도생활에 부르심 받은 경우 사제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가치롭다. 그 어떤 경우이든, 비록 늘 인정받지는 못할지라도 사제는 언제나 인류의 최고 협력자다. 스승의 삶은 공로로 가득하다.

스승이 영원한 삶을 향해 떠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성 바오로의 말씀처럼 위로를 줄 것이다. “우리의 추천서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추천서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또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의 봉사직으로 마련된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그것은 먹물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느님의 영으로 새겨지고, 돌판이 아니라 살로 된 마음이라는 판에 새겨졌습니다.”(2코린 3, 2-3)

스승은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모습’을 남겨 놓는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19-20: 성사를 통해 은총을 전하는 모든 것을 가리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완수한다.

## I. 스승들의 귀감과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 진리 생명이신 완전한 스승인 것처럼 마리아도 성덕과 지식과 은총을 지니시기 때문에 스승이시다. 스승은 생명과 지식과 은총의 성덕을 많이 지닐수록 더 완전해진다.

스승 - 교육자는 제자들을 겸손하게 양성함으로써 스승이신 마리아의 역할을 수행한다.

가) 마리아는 사도들의 스승이셨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면서 모든 사도를 대표하는 요한을 가리키며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하시며 맡기셨기에 마리아는 스승이 되셨다.

스승이 될 사람들은 장상들이 선택하여 임명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장상은 스승이 지녀야 할 자질인 면학, 덕, 신심, 열정을 잘 식별해야 한다. 둘째, 순명 정신으로 직무를 받아들여 임명된 사제는 직무의 은총에 의지할 수 있다는 안도감을 지녀야 한다.

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도록 하였고, 다락방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도록 격려하셨다.

스승은 제자들이 인간적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게 해서는 안 되고, 믿음과 희망, 사랑과 헌신, 사도직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로 이끌어야 한다. 스승을 향한 제자의 인간적 사

량은 자애심과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강해질 때 일어난다.

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고통에 동참하며 그 뒤를 따르신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로서 다락방에서 사도들을 격려하고 보살피셨다.

학교에서, 인간적이고 수도자적인 양성에서, 사도직에서 ... 언제나 모범적이며 기꺼이 자신을 희생할 준비가 된 스승은 희생이 요구될 때 곧바로 응답할 것이다. 그는 축복으로 기억되는 스승이 될 것이다.

라) 스승-교육자는 직무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진리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1) 직무에 따른 성과를 드러낼 자격을 갖춘 존경할 만한 스승들을 바라보며 자신을 완전하게 할 필요를 느껴야 한다. 2) 자기 장상들을 신뢰하고 조언을 받으며 살아간다. 조언을 청하는 것은 지혜로운 이들의 특성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그의 장상 또한 높은 학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학교처럼 가르침에는 단계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자기 직무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교황에 이르기까지, 교회와 모든 수도회에는 위계구조가 존재한다. “우리는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하느님의 자산을 맡은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바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1코린 4,2 참조)

마) 마리아는 지상의 삶을 마칠 때까지 계속 학생으로 사셨다. 마리아는 사도들을 가르치고 격려하면서, 교회를 위해 기

도하면서, 언제나 더 완전하게 되고자 천상 스승 예수님의 거룩한 삶을 따르면서 경이로운 승천을 향해 나아가셨다.

스승은, 이 땅에 살아 있는 한 그 자신도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다. 따라서 그는 예수님의 온순한 제자로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내어 주고, 이를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할 수 있다.

젊은이들을 향한 사목적 교육학이 필요하다. 따라서 그가 한 인간이라는 것을 잃어내고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그를 앞서 간 이들이 있고, 또 그를 따라갈 사람들이 있다. 그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시킬 때 주관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수도회 안에서 전통적인 것만 내어 줄 것이다. 이는 지원자들 안에 그리스도를 깊이 형성하는 일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이미 입증되었다. 따라서 그 노선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 저변에 흐르는 강의 물줄기, 곧 바오로인의 양성 노선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바) 더욱이 스승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하도록<sup>1</sup>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말하는 것만 아니라, 모범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나갈 때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을 제자들의 마음속에 각인시킬 것이다.

사) 마리아는 많은 비추임을 받았음에도 당신의 삶을 통해,

1. “Ut daretur vobis forma.”

다락방에서 사도들에게 하는 이야기, 복음사가들에게 들려주는 여러 일화들, 특히 예수님의 탄생 예고, 강생, 성녀 엘리사벳 방문, 예수님의 어린 시절 등을 떠올려 말할 때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해석자이셨다.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할 것. 최상의 진리임에도 단순하게 드러내는 법을 아신 성모님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제시할 것. 무엇보다 생각과 감정과 활동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이룰 것.

“스승 예수님, 제가 당신을 닮은 스승이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는 참으로 좋은 청원기도이다.

아) 마리아를 스승으로 택하며, 성경을 손에 들고 계신 마리아께서 온전히 겸손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드러낼 것. 마리아를 지혜롭고 거룩하며 은총이 가득하신 스승과 같은 분으로 찬미드리며 기도할 것. 사람들, 특히 보잘 것 없는 이들에게 당신 영과 사랑을 주시기를 청할 것. 마리아의 인내로운 사랑을 본받을 것.

어쨌든 스승이신 예수님은 (고해소, 설교대, 학교, 편집실, 기술 분야, 영화 제작소에서...) 활동하시고, 당신의 제자를 축성하시며, 또다른 스승이 되시는 마리아께 그 제자를 맡기신다.

## II. 마리아께 드리는 봉헌과 바오로적 양성

축성봉헌은 몽포르의 성 루도비코 마리아 그리뇽의 가르침

을 따른다. 우리 수도회에서 수도생활, 사도직, 바오로적 정신은 더욱 그러하다.

## 1. 가르침과 제자직의 봉헌

가르침과 제자직은 이렇게 시작된다. 모든 것은 마리아에게서 비롯되며,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와 함께, 마리아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 마리아에게서. 새 지원자가 한 명이라도 들어왔거나 지원자 그룹을 양성하기 위해 선택된 사제라면, 그는 자기 직무를 스승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마리아와 같은 마음으로 지원자를 맞아들인다. 더 나아가 십자가의 발치에서 어머니를 모시는 직분을 받아들인 요한처럼, 또 자기 안에 모든 사도를 받아들인 마리아처럼 희망 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인다.

지원자들은 마리아의 자녀다. 그러므로 지원장은 마리아에게서 지원자들을 받아들여야 한다. 마리아께서는 그들이 신심 깊고, 면학에 힘씀으로 거룩한 사도가 되길 바라신다. 마리아에게서 지원자들을 받아들일 때 마리아께서 천상에서 지원장과 그 제자들을 동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스승은 학생들을 영적 자녀로 여기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헌신한다. 자기 힘이나 시간을 이차적인 쓸모 없는 일, 보고받은 내용이나 헛된 뉴스거리로 분산시키지 않

는다. 오로지 제자들을 위해 살아간다. 스승의 휴식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을 때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휴식과 비슷하다. 스승은 휴가라는 것을 모른다. 희생할 일이 더 많아지면,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사도단의 초보자들에게 그것에 대해 이미 설명하고 모범을 보이셨음을 생각하라. 그들의 성소에 생명과 일치될 가져다주는 은총은 오로지 당신의 희생으로만 가능했다. 마리아는 갈바리아에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녀의 희생과 기도 속에서 일치하셨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어머니로서 언제나 희생과 기도로 그들을 이끄셨다. 아주 작은 많은 일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훌륭한 스승이 될 수 있다. 스승은 자기를 따르는 지원자들의 종이 되고, 자기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오로지 선의에 차 있다.

나) 마리아를 통하여—마리아의 영예와 사랑을 통하여. 성소자들을 양성하는 것은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큰 영광이 된다. 하느님 아드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널리 알리며 기도하는 착실한 자녀들과 사도들을 준비시키는 일은 마리아의 열망과 만나는 길이다. 이는 구원된 이들이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 되게 하는 교육인 것이다.

다) 마리아와 함께. 훌륭한 스승은 마리아와 함께 일한다. 마리아가 지닌 은총의 도움으로 일하는 그는 마리아와 성자 예수님께 협력한다는 것을 느낀다. 스승은 묵상, 수업, 사도직, 도움, 지도를 통해 땅에 씨를 뿌리며 싹이 트고 자라며 열

때 뗏도록 마리아에게 의탁한다. 스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언제나 희망이신 마리아와 함께한다.

마리아는 교육자들의 믿을 수 있는 친구다. 진행 과정, 결과, 실패, 교육 활동 가운데 자주 겪는 어려움, 조언, 깨달음, 영감, 위로, 자극이 필요할 때 마리아는 모든 사람의 영적 어머니로서 보조하고 보완하며,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스승께서는 교육자로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 마리아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마리아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마리아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라는 당신의 직무를 다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신다.

라)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는 이중의 역할을 통해 교육 활동에 참여하신다.

훌륭한 스승들을 준비시켜 주신다: 성자와 함께 전능하신 분께 간청하심으로써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스승들, 곧 성소자들의 지혜요 모범이며, 참으로 성소자들을 사랑하는 스승들을 일으키신다.

올바른 지향을 주신다: 이는 마리아의 지향을 우리의 지향으로 삼는 것을 뜻한다. 나자렛의 침묵 속에서 인류의 구세주, 하늘과 땅의 중재자, 속죄를 위한 희생자로 오신 분이 성장하셨듯이 마리아는 이제 천국에서 각 지원자에 대한 지향을 가지고 그들을 보살피신다. 그들은 우리에게 앞서 우선 하느님과 마리아께 속한다. 하느님과 마리아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비시키기 위해 보물같은 그들을 우리 손에 맡기신다.

## 2. 바오로적 양성에서의 마리아

마리아는 모든 가정의 모후이실 뿐 아니라, 늘 가정과 함께 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지극히 너그러우신 스승이시다.

이미 알려진 다음 내용이 이같은 생각을 반영하고 있다.

“사도들의 모후 마리아께 바치는 바오로인의 신심은 모든 회원의 인간적 사도적 양성에서 크게 이바지하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요소다. 거룩하신 동정녀께 바오로적 신심이 부여한 자리는 넓고 분명하다.

수도회에 입회하는 사람들이 맨 먼저 느끼는 놀라움 가운데 하나는 아마도 하루를 시작하고 마칠 때 “예수님의 어머니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를 거룩한 자 되게 하소서.”라는 청원기도를 50번이나 반복하여 바치는 것일 것이다. 이 기도는 하루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각에, 곧 잠자리에 들거나 일어날 때 바친다. 또한 이와 같은 놀라움은 ‘사도직’ 시간에 기계가 시끄럽게 돌아가는 가운데 큰 소리로 마리아께 바치는 다양한 기도에서도 느낄 것이다. 또 흥미로운 일은 짧은 휴식 시간에 젊은이 그룹이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하면서 침묵 중에 줄을 지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걷는 모습이다. 이는 바오로인의 일과중에서 성모 신심이 각별하게 느껴지는 분위기를 조성하며 깊은 열망을 지닌 성모 신심을 드러낸다.

이는 깊은 신학적 가치를 지니며 주목할 만한 교육학적 효과를 낸다. 동정 마리아가 우리에게 스승 예수님을 주심으로 써, 우리는 뚜렷한 마리아적 분위기 안에서만 우리 삶의 근본

목적인 스승 예수님과 친밀하게 만나게 될 것이다.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마리아의 신심은 이처럼 점진적으로 체득하도록, 끊이지 않고 가르쳤을 때 굳건해짐을 볼 수 있다. 프리모 마에스트로의 이러한 생각은 성모 성년이 끝날 무렵 봉헌된 로마 사도들의 모후 성전에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었다.

‘사도들의 모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성전은 바오로인과 바오로딸 공동체 사이의 중앙에 자리하여, 모든 수도회의 심장이 된다. 로마에 거주하는 여러 바오로가족 회원들은 아름다운 지하 경당에 밤낮없이 지속적으로 머물며, 감실 안에 살아계신 스승 예수님과 생생한 만남을 갖는다. 매우 경이로운 현실은, 바오로가족이 동정녀이신 어머니의 태중에서 예수님을 모시러 이 성전으로 모여든다는 점이다.

사실 사도들의 모후 성전은 성모님의 분위기 안에서 환히 빛난다. 스승께서 현존하시는 감실은 동정 마리아의 장엄하고 예술적인 전례가 펼쳐지는 제대 위에 모셔졌다. 한쪽에는 원죄와 대조되는 티 없이 깨끗하신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다른 쪽에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처음으로 태어난 여성’,<sup>2</sup> 창조주의 걸작이며 우주의 꽃과 같은 마리아가 피조물 가운데 계신다. 동정 마리아 옆에 아름다운 꽃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꽃에서 열매가 나온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우리는 실제로 감실에서 동정녀의 태중의 결실인 인류의 양성장이신 예

2. “primogenita ante omnem creaturam: 주님께서서는 그 옛날 모든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당신의 첫 작품으로 나를 지으셨다.”(잠언 8,22: 영원한 지혜의 속성이신 마리아를 일컬음)

수님을 발견한다.

이제 동정 마리아의 임무는 ‘당신 아드님의 모습을 닮아야 하는’ 모든 이 안에 예수님을 탄생시켜 점차적으로 양성시키는 것이다. 마리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놀라운 지혜를 주시며, 말씀의 형태로 인격을 형성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어머니요 스승으로서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사실 마리아는 성 아우구스티노가 명확하게 언급한 것처럼 제자직의 최고 귀감이시다. “마리아에게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는 것보다 제자가 되는 것이 더 가치로웠다.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제자가 되는 것은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이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기 전에도 스승 예수님을 당신 태중에 품고 계셨기에 복되신 분이셨다.”

이는 성 베르나르도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완전한 ‘제자’의 놀라운 특성을 연구하도록 우리를 이끌기 위해 폭넓게 발전시킨 생각이다.

마리아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 곁에서 ‘제자직’의 완전한 귀감, ‘가르침’의 완전한 귀감이 되신다. 지극히 거룩하신 마리아와 인류의 스승 사이에는 생생한 관계가 맺어진다. 가장 완전한 ‘제자’가 된 다음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스승이 되셨다. 성 에프렐의 아름다운 표현을 보자. “오,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 모든 것의 자비로운 창조주 그리스도, 가장 감미로운 주 예수님, 온 세상의 교육자이며 양성자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치신 분이여.”

보편적 교육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신적 인간적 상호교류보

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다. 훌륭한 제자였던 어머니는 영원한 스승을 양성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도록 예수님을 교육시켰으며, 인류의 가장 완전한 스승이 되셔야 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자로서 인류의 참된 스승이 되신 마리아를 통해 스승 예수님께 가는 이유다. 바로 여기서 온화한 마리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준비가 완벽하게 이루어진다.”(G. 로아타 신부, 「스승 예수」)

### 맺음말

스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내어 주며 일하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참된 제자는 스승께서 마리아를 통하여, 마리아와 함께 내어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며 스승을 닮아가야 한다.

스승과 제자가 친밀하게 신앙과 사랑 안에서 마리아의 비추임과 안내와 지지를 받는다면 결과는 더 좋을 것이고 성공률도 매우 높을 것이다.

색 인



## 성경 인용 색인

색인은 본문의 판면 양 옆 가장자리에 표시된 원본의 쪽수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숫자 옆에 'n' 자가 붙은 것은 각주 번호를 말한다.

창세	3,15	99; 228n	시편	63/62,2-5	42
	3,16	209n		69/68,10	120n
	30,1	232n		113/112,1	48n
탈출	20,5	119		116/115,16	44n
	23,17	138		127/126	55
신명	6,5	126n		145/144,9	168n
토빗	8,5	219	잠언	6,16	194
유딧	13,14	166n		8,35	171
	13,17-18	96		13,5	194
	13,18	160, 178n		16,4	121n
	13,18-20	239		31,10	239n
	13,20	168		31,25-26	235
	15,9ss	240		31,28	215
	16,14-15	189	아가	2,16	48n
에스	5,2-3	17		6,9	56
	7,2-3	24		6,10	47n
	8,4-5	8	지혜	6,17	251
1마카	2,54	125n		7,12-14	244
시편	2,2,4	163n		7,29-30; 8,1	280
	9,2-3	118		8,16	272
	10,17	47n		9,9-11	261
	19/18,7	246n	집회	17,12	6n
	21/20,3	47n		24,25	38n
	42/41,2	44; 44n		24,44-45	126
	57/56,8	89n		25,24	209
	63/62,2	44n			

집회	44,15	219	마태	22,37	126n
	54,25	88		22,39	41n
이사	11,1	22n		23,37	48n
	42,8	120		26,36	236
	43,7	121n		28,15	261
	45,8	45n		28,18	19
	49,15	170		28,19	6n; 59
	53,7	236n	마르	7,37	19
	55,8	161n		9,7	8n
애가	1,12	70n		11,24	36n
다니	9,22	45n		14,3-9	80n
	10,11	45n		15,5	236
하까	2,8	44		16,1	6n; 154n
마태	2,13	161n		16,20	37n; 114
	2,20-23	135	루카	1,26-38	85
	4,19	220		1,28	37n
	4,20, 22	23n		1,28ss	8n
	4,24	76		1,32	284
	5,8	242n		1,35	56n
	5,14	61n		1,37	129n
	5,16	61n		1,38	89n
	5,17	77; 190n		1,39-41	76; 179
	5,24	111n		1,39-55	122
	9,15	170		1,45	28n; 105n
	11,28	48n		1,46-47	53
	12,34	108n		1,48	208; 279n
	12,50	193		1,79	249n
	14,21	220		2,11	30n
	15,32	131n		2,14	33; 118n
	16,18	143n; 160n		2,16	25n
	17,5	8n		2,19	270n
	18,15	130		2,19,51	145; 152
	19,21	82n		2,22-23	83

루카	2,25-38	46n	요한	2,1	143n
	2,34	237n		2,1-11	78
	2,34-35	92n		2,5	265n, 281
	2,35	67		2,11	21; 39n
	2,49	222n; 237n		3,3,5	267n
	2,50-52	34		3,16	18; 101; 111n; 225n
	2,51	106		4,7	178n
	2,51-52	135n		6,38	18
	3,14	17		6,52	68
	6,19	77		10,10	94n; 128n
	7,28	128n		10,11	169n
	8,12	192		12,1-8	80n
	8,15	238n		14,4	131n
	9,35	8n		14,6	20n
	9,60	221n		14,12	37n
	10,25-37	112		15,4	94n
	11,2	47n		15,5	55n; 94
	11,41	82n		15,16	93n
	12,35	241		15,19	72n
	12,49	128n		15,20	237n
	12,50	48n		16,23	73n
	15,4ss	169n		17,3	29n; 180n
	18,1	56n		17,4	124n
	18,22	82n		17,6	125n
	19,10	128n		17,11	188n
	22,15	48n		17,19	36n
	23,34	171n		19,25	90; 92n
	23,46	93		19,26-27	225
	24,49	262		19,27	10n
	24,50	262		19,30	93
요한	1,3	56n		20,21	19, 262
	1,9	128n		20,23	267n
	1,14	146n			

요한	21,15,16	261n	15,33	156; 196	
사도	1,1	61n; 262	2코린 3,2	183n	
	1,12-14	262	5,14	109n; 130n	
	1,14	141	10,3	36n	
	2,1-4	262	11,6	109	
	3,6	130n	11,23	109	
	9,15	53n; 109	12,4	109	
	9,15-16	73n	12,10	109	
	9,16	237n	12,12	109	
	9,20	108n	12,15	86; 130; 239n	
	10,38	18	갈라 4,4	12n; 47	
	13,2	23n	4,19	15n; 37n	
	로마	1,1	53n	6,10	133
		1,5	17	에페 1,7	83
2,1-3		64	1,10	46n	
3,11		108n	1,18	108n	
4,20-22		103	4,1-6,11-13	150	
5,8-9		110	4,12	108n	
7,29		246	4,15	108	
8,29		127n	5,2	19	
8,32		92	5,27	146	
12,5		29n	필리 1,23	44n	
15,2-3		60	2,7	106n; 275	
16,1		115	2,8	18	
16,1-2		198	2,21	37n; 39n	
1코린		2,14	242	4,2	115
		3,7	40n	4,4	125n
		6,11	268	4,9	61n
		9,13-14	77n	4,13	55
	9,22	114; 238n	콜로 1,24	22; 69	
	11,1	61n	1,25	107	
	12,3	268	3,12	131n	
	13,1ss	117n			

	<b>3,12-22</b>	134	히브	<b>9,22</b>	237n
	<b>3,16-17</b>	125n		<b>10,1</b>	67
1테살	<b>2,8</b>	44n		<b>10,5</b>	84
2테살	<b>3,1</b>	58	야고	<b>1,26</b>	82n
1티모	<b>1,15</b>	168n; 170		<b>1,27</b>	111
	<b>2,1</b>	54		<b>2,14ss</b>	111
	<b>2,4</b>	44n		<b>4,6</b>	120
	<b>4,12</b>	61n		<b>5,16</b>	54
	<b>5,8</b>	82		<b>12,13</b>	77
2티모	<b>1,8-9</b>	149	1베드	<b>1,18-19</b>	19
	<b>2,22</b>	44n		<b>2,1,9-10</b>	115
티토	<b>2,7</b>	61n		<b>2,20-21</b>	73n
히브	<b>1,2</b>	181n	1요한	<b>3,18</b>	80; 112n;
	<b>3,1</b>	13n; 17			120n
	<b>5,2</b>	131n		<b>4,8</b>	82n
	<b>9,1</b>	91n	묵시	<b>12,1</b>	209n

## 내용 색인

색인은 본문의 판면 양 옆 가장자리에 표시된 원본의 쪽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 표시는 각 주제어(예: 사랑, 이웃 사랑, 사도직 등)을 표시한다. ↗ 표시는 지시한 주제어 참조를 가리킨다.

### 가르침

마리아 모범으로 ~150 이하  
마리아는 예수의 유년기의 신  
비를 밝혀주심 151  
마리아는 위로의 말로 모든 이  
를 ~ 151  
사도들은 세상 모든 이를 가르  
쳐야 함 153 이하  
초기 교회는 마리아의 ~이 필  
요했음 153

### 가정

사도직 터전의 기초 133

### 거룩한 갈망(들)

~은 생생한 믿음에서 우리  
나옴 43  
모든 이에게 가능한 사도직 48  
성인들과 마리아는 ~을 키웠  
음 44

### 고통

~은 모든 사도직의 화관 67  
~은 사도직의 한 형태 9  
~은 효과적인 사도직 69  
~의 사도 마리아 68  
마리아의 다양한 ~ 69 이하  
모든 이에게 가능한 사도직  
69; 73

사도직의 탁월한 표지 69  
순교자보다 더한 마리아 72

### 공동구속자

갈바리아에서 마리아는 자기  
영혼을 산 제물로 바치심 100  
갈바리아에서 십자가에 못박  
히신 예수와 일치함 30; 97  
교황들이 자주 강조한 교의 98  
구원의 열매를 나누어주신 분  
30; 97  
마리아는 하느님과 우리 사이  
의 화해를 위해 일하심 83  
예수를 나눔으로써 희생제물  
을 마련함 30  
예수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십자가 제단 위에 봉헌하심  
30; 96  
예수를 성전에 바치심 90  
예수와 함께 구원사업에 협력  
하심 97  
예수의 육화 때 희생제물인  
성체를 준비하심 84; 30; 96  
은총의 모든 보화는 마리아를  
통해서 88  
은총의 분배에도 협력하심 30  
주님탄생예고 때부터 97 이하

**교회**

- ~ 활동에 참여 147
- ~를 사랑하라 146
- ~를 위한 마리아의 첫째 임무는 성소를 일으키는 것 226
- 그리스도의 신비체 141
- 늘 마리아의 도움을 받는 ~143
- 마리아는 ~에 지혜와 은총을 받게 함 145 이하
- 마리아의 예수님을 위한 임무와 ~를 위한 고유 직무225
-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주는 ~ 141
- 예수가 그러시듯 ~는 마리아의 자녀 225
- 오순절에 태어난 ~ 143

**구원**

- 마리아 없는 ~은 없다 12

**기도**

- ~의 네 가지 목적 125
- ~의 사도직 연합 58 이하
- 마리아가 열심히 수행한 사도직 55 이하
- 마리아는 ~로 구원의 시간을 앞당기심 57
- 모두에게 가능한 사도직 58
- 모든 사도의 혼 54
- 사도들을 지탱하고 활동에 힘을 부여함 58
- 사도직의 고귀한 형태 53
- 성경에서 권고하는 사도직 53 이하
-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마리아

께 ~ 함 188

**내어놓음**

- 모든 사도직 활동에 ~ 89
- 하느님의 뜻에 ~ 89

**내적 삶**

- ~은 본질적인 사도직 8; 34
- ~은 모든 사람의 사도직 39
- ~은 보다 효과적인 사도직 40
- ~은 사도직을 풍요롭게 함 7
- ~은 신비체인 교회에 힘을 북돋움 35
- ~은 잘 준비된 사도를 형성 37
- ~은 전구하는 데 큰 힘을 지님 36
- 마리아는 ~의 사도직을 수행함 39
- 마리아는 가장 거룩하시기에 첫째 사도이다 37
- 마리아적 사도직 결실의 원천은 ~ 144

**뜻/의지**

- 하느님 ~의 수행은 예수님의 형제자매가 되게 함193

**라디오**

- ~는 선 또는 악의 도구 157
- ~는 하느님의 선물 157
- ~에 주의 깊이 깨어있음 157

**루르드**

- 원죄 없으신 마리아의 발현은 초자연적 믿음을 일깨움 166

**마리아**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분 170  
 골고타의 사도 21  
 교회를 보호하심 160  
 교회의 혼이자 어머니 141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에 교회의 어머니 142  
 그리스도의 어머니시기에 우리의 어머니 29  
 길을 잘못 든 이들을 올바른 삶으로 부르심 171  
 늘 능동적인 사도 20  
 늘 신앙으로 사심 105  
 다락방의 사도 22  
 ~의 사도직은 교회 전체로 확장됨 142  
 ~의 사도직은 예수님의 사도직과 같은 차원 10  
 ~의 사명 10  
 ~의 삶은 끊임없는 기도 삶 56  
 ~의 유일한 사명은 예수와 교회의 보살핌 10  
 ~ 안에 예수님이 계심 25  
 많이 사랑했기에 위대한 사도 110  
 모든 시대의 사도 252 이하  
 미신자를 위한 첫 번째 선교사 162 이하  
 베들레헴의 사도 21  
 사도요 모든 사도의 모후 88  
 사명을 위한 사도 17  
 생생한 신앙을 지니심 105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모셔

**가심 7**

예수께 가는 길 27; 186 이하  
 예수님을 알기 위한 핵심적이며 확실한 근본 31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묵상하심 106  
 예수님의 사도직에 함께하심 9  
 온갖 선을 베푸시는 보편적 사도 253  
 우리의 진정한 어머니로 처신 하심 248  
 인류 가족의 어머니 26  
 자녀들에게 자신의 성품과 자질을 물려주심 38  
 주님의 빛을 가져오는 여명 274  
 죽음에 임박한 죄인들을 성자와 화해시키심 172 이하  
 진리의 어머니 182  
 천국에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사도직 171  
 카나의 사도 21  
 하느님의 고귀한 감실 56  
 하느님의 어머니시기에 사도 11  
 하늘에서도 사도직을 계속 하심 11  
 효과적인 사도직의 보증 15

**마리아 공경**  
 마리아는 교회의 생명 275 이하  
 ~은 거룩한 습관으로 275  
 ~은 교회의 여정을 앞서거나 뒤따름 274

**마리아께 대한 신심**

~은 구원 은총의 표지 251 이하  
 모든 이가 ~을 널리 알릴 의  
 무 285 이하

**마리아의 사도직**

악을 물리치고 선을 행하게 함  
 179 이하  
 ~은 연옥에까지 확장됨 258  
 ~은 마리아를 진정한 어머니  
 로 모시고... 248

**마리아의 존엄**

~과 관련된 모든 칭호는 신적  
 모성과 구원 사업의 협력에  
 서 비롯됨 283  
 ~은 신적 모성에 기반을 둔  
 280 이하  
 ~은 예수님과 긴밀한 협력에  
 서 행사됨 281 이하  
 ~은 예수님의 수난 참여에서  
 비롯함 281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

모든 이를 위한 희망이요  
 구원의 길 31

**마리아적 사도직**

마리아가 가시는 곳에는 예수  
 님도 따르심 245  
 마리아는 우리의 영적 어머니  
 247  
 인류에게 마리아를 어머니로  
 주심 245  
 ~의 의미: 마리아를 알리고,  
 본받고, 마리아께 기도하는  
 것 249

**모범**

~은 말보다 더 효과적임 61  
 ~은 모든 이에게 가능한 사  
 도직 65  
 ~은 사도에게 필수 불가결  
 함 60  
 ~은 사도직의 한 형태 9; 62  
 사도인 마리아의 ~ 60

**문화**

마리아는 예술의 여왕 278  
 이하  
 세상의 ~와 그리스도교 ~  
 사이의 깊은 간극 273  
 지식인들을 복음화하는 것  
 은 훌륭한 사도직 273  
 지식인들이 종교적 무지로  
 말미암아 고통 받음 273

**미사**

~는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바치는 사도직 96  
 ~의 네 가지 결실 101  
 ~의 두 가지 위대한 목적 102  
 우리 제단으로 옮겨진 십자  
 가의 희생 제물 96

**사도**

마리아께 대한 신심이 없는  
 ~의 활동은 모래 위에 집  
 을 짓는 것 14  
 마리아는 본질적으로 사도  
 이다 272  
 모든 ~가 마리아를 통해 255  
 ~는 마리아를 사랑해야 함 13

~란? 34

### 사도의 모후

사도들을 양성하기에 ~ 13  
 사도들이 수행한 것을 모두 하  
 셧기에 ~시다13  
 사도들이 지닌 모든 것을 탁월  
 하게 지니셨기에 ~시다13

### 사도직

고통은 ~의 한 형태 9  
 고통의 ~ 9  
 기도는 ~의 한 형태 9  
 기도의 ~ 9  
 내적 삶은 첫째가는 ~ 8  
 내적 삶의 ~ 8  
 마리아는 하늘에서 보편 ~을  
 수행함 179  
 모든 신자는 ~에 협력해야  
 한다 114  
 모범은 ~의 한 형태 9  
 모범의 ~ 9  
 ~은 성령을 전하는 행위 14  
 ~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춤 18  
 ~을 풍요롭게 하는 내적 삶 7  
 ~의 두 가지 목표: 하느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평화 118  
 ~의 다양한 형태와 분야 116  
 /사명  
 사제의 ~과 평신도의 ~은  
 비슷함 113  
 세례 받은 모든 이의 ~  
 오늘날 더욱 필요한 평신도  
 들의 ~ 116

### 사도직 수행의 자질들

굳셈 238 이하  
 마리아는 최고 수준의 ~을  
 지니심 241  
 순결 240  
 참된 사도에게는 성화와 열  
 정을 분리할 수 없음이 기  
 본 원칙 235  
 하느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  
 김 236

### 사랑Amore

~은 역동적이고 능동적임  
 120  
 인류를 향한 마리아의 ~은  
 예수님을 귀감으로 삼음  
 169

### 사랑/애덕Carità

그리스도의 ~을 이어가는  
 교회 114  
 ~은 사도를 만든다 110  
 ~의 귀감이신 예수 114  
 ~하지 않는 이는 하느님 자녀  
 가 될 수 없음 111  
 이웃 ~은 하느님 ~의 척도  
 112  
 참 ~은 구체적이어야 함 112  
 하느님은 ~이시다 111; 113

### 사명

/사도직  
 마리아의 ~은 예수를 주는  
 것 20  
 마리아의 ~은 희생제물을  
 위한 성체를 준비하고

보호함 161  
 사도들의 ~은 예수의 ~의 계  
 속 19  
 예수의 ~은 세상에 구원을 가  
 쳐다 줌 18

**사제**  
 그리스도교 모든 공동체가 ~  
 양성에 힘을 모으기를 230  
 마리아는 ~에게 필요한 모든  
 은총을 지니심 226  
 마리아는 ~의 사도직을 풍요  
 롭게 하심 228  
 ~는 그리스도를 대리함 226  
 ~는 마리아에게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음 228  
 ~는 큰 위엄, 큰 힘, 큰 책임  
 감을 지님 226

**사회 커뮤니케이션 수단**  
 교황들은 ~의 책임있는 사용  
 을 촉구함 193  
 ~을 마리아의 보호 아래 둘  
 필요 197  
 ~은 사도직에 새롭고 광범  
 한 가능성을 열어줌 189  
 ~을 사용할 필요 189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악에대  
 한 책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됨 195

**삶/생활**  
 마리아의 ~은 그리스도 말씀  
 의 충실한 메아리 191

**선한 갈망(들)**  
 ~은 하느님의 영광과 사람

들의 평화를 추구함 45  
 ~은 효과적인 사도직 45 이하  
 ~을 키워야 함 44  
 하느님은 ~을 충족시키심 47

**선행**  
 다양한 선행을 함 77 이하  
 ~ 방식 127  
 ~ 훈련의 모범인 예수 127  
 ~은 먼저 영적 보화, 그 다  
 음에 지상적 재물로 127  
 ~은 모든 이에게 가능함 81  
 ~은 선의가 구체화된 것 121  
 ~은 진리를 믿게 함 80  
 ~의 목표: 몸과 마음을 도  
 움 81  
 ~의 사도 마리아 77  
 ~의 영원한 모범인 마리아  
 128  
 마음을 사로잡는 사도직의  
 형태 76  
 복음을 받아들이게 함 77  
 예수도 자주 실천한 ~ 76  
 진리를 주는 것 131  
 카나에서 보여준 마리아의  
 구체적인 예 78

**성가정**  
 모든 덕의 학교 138  
 ~ 신심 139  
 ~은 이집트에 축복을 가져  
 다줌 162

**성령**  
 마리아 위에 수없이 내린 ~  
 262

~은 마리아가 나누어 주실 은  
 총을 충만하게 주심 265  
 ~은 마리아를 온갖 덕과 은총  
 으로 채우심 263  
 ~은 성부와 성자의 본질적 사  
 랑 267  
 ~은 세례성사 때 초자연적 생  
 명을 부여함 267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을  
 약속하심 261 이하  
 오순절에 ~이 사도들에게 내  
 리심 262

**성모 성심**  
 예수 다음으로 가장 사도적인  
 ~ 40

**성모 성심의 동반**  
 ~의 목적은 죄인들의 회개 176

**성 바오로**  
 신앙과 사도직에서 탁월한 ~  
 108 이하

**성소(들)**  
 ~를 싹 틔우는 가장 자연스러  
 운 환경은 그리스도교 가정  
 219  
 ~를 지원하기 23  
 ~의 싹은 모성적 보살핌에서  
 216  
 ~ 증진의 공헌은 큰 공덕 224  
 자녀의 성소를 막음은 중대한  
 죄 221

**성체적 삶**  
 모든 참된 사도직의 비결 94  
 사도직 결실의 척도 93

악에 대한 저항 95  
 ~은 사도적 영혼을 형성함  
 93  
 ~은 사도직의 목적 93

**수도자(들)**  
 마리아는 ~의 교사 276  
 ~의 어머니인 마리아 276

**신앙**  
 마리아가 가장 먼저 믿었음  
 181  
 마리아는 ~의 선물을 간청,  
 분배, 보호함 180  
 불타오르는 ~이 사도를 형  
 성시킴 107  
 ~은 가장 큰 선물 180  
 ~은 사도직의 기본 토대 103  
 ~을 키우기 위한 몇 가지  
 수단 108

**악**  
 죄의 열매 26

**여성**  
 ~은 가정에서 위대한 사명  
 을 지님 198  
 마리아 공경은 여성을 들어  
 높이는 데 이바지함 208  
 ~의 최상의 영예와 공로는  
 주님께 자녀를 바침 215  
 ~은 삶의 모든 상황에서 사  
 도일 수 있음 198 이하  
 ~은 마리아의 모범에서 삶  
 과사명을 드높이는 법을 배  
 움 210

**연옥**

마리아는 ~ 영혼들을 위한 강력한 중재자 174

**열정**

~은 사랑의 향기 119  
 ~은 악에 맞서고 선을 추구함 119  
 ~은 은총을 얻는 본질적 척도 124  
 지속적인 ~은 하느님 사랑에 비례함 124  
 참된 ~은 성화를 위한 노력에 비례함 123

**영광**

마리아의 가장 큰 ~은 죄인들을 성인과 사도로 변화시키는 것 177

**영화**

많은 선과 많은 악의 도구 156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을 미침 155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는 세상에 ~를 모셔 가심 7  
 ~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오심 28  
 ~는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심 28  
 ~는 마리아와 가장 친밀하심 29  
 ~는 모든 것을 마리아와 함께

하심 9

~는 모든 선의 원천 20  
 ~는 본성상 사도 17

**육화**

~의 동기와 목적은 죄인들의 구원 170  
 ~의 목적은 인간과 하느님과의 화해 168

**이웃 사랑**

~은 네 가지로 표현됨 126 이하  
 ~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에 바탕을 둔 126

**전구**

마리아의 ~는 보편적임 254

**종교**

참된 ~는 사랑이신 하느님을 닮는 것 110 이하

**출판**

나쁜 ~은 지대한 악을 끼침 154  
 ~ 사도직은 가장 사도적인 활동 154  
 ~ 사도직은 설교 155  
 ~은 막강한 힘을 지님 154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

모든 이를 위한 희망이자 구원의 길 31

발행일 | 2022년 10월 7일

옮긴이 | 김애란

펴낸곳 | 바오로딸